

各司膳錄

각사등록 평안도편 1 역사기후 자료집

關西啓錄

平安監營啓錄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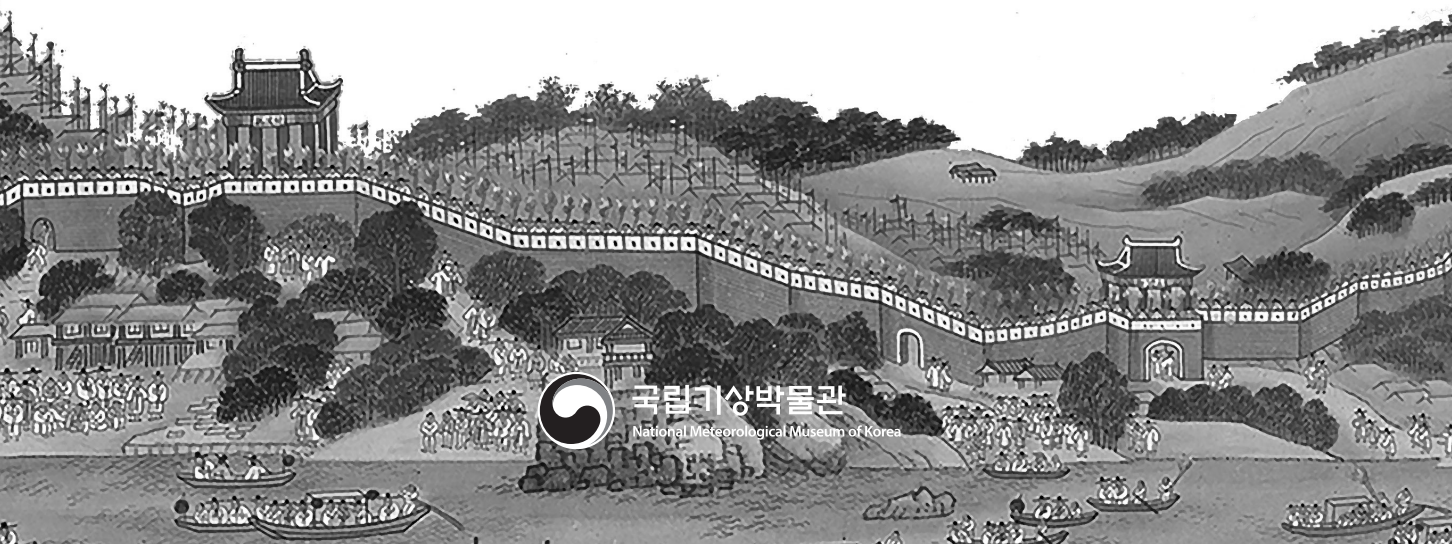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평안도편 1

各司膳錄 29책, 關西啓錄	1822년(순조 22)
各司膳錄 29책, 平安監營啓錄	1830년(순조 30)
	1831년(순조 31)
	1833년(순조 33)
	1834년(순조 34)
各司膳錄 30책, 平安監營啓錄	1835년(헌종 1)
	1836년(헌종 2)
	1838년(헌종 4)
	1840년(헌종 6)

各司膳錄
각사등록
역사기후
평안도편
자료집
1

關西啓錄

平安監營啓錄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목 차

해제 | 7

일러두기 | 19

일련번호	서기 / 왕력	등록(책)	각사등록(책)	쪽수
0001-0038	1822년 순조 22년	관서계록 1, 2 책	각사등록 29책	22
0039-0047	1830년 순조 30년	평안감영계록 1책	각사등록 29책	85
0048-0065	1831년 순조 31년	평안감영계록 2책	각사등록 29책	98
0066-0111	1833년 순조 33년	평안감영계록 3, 4책	각사등록 29책	123
0112-0134	1834년 순조 34년	평안감영계록 5책	각사등록 29책	185
0135-0167	1835년 헌종 1년	평안감영계록 6책	각사등록 30책	219
0168-0192	1836년 헌종 2년	평안감영계록 7책	각사등록 30책	264
0193-0206	1838년 헌종 4년	평안감영계록 8책	각사등록 30책	298
0207-0218	1839년 헌종 5년	평안감영계록 8책	각사등록 30책	319
0219-0239	1840년 헌종 6년	평안감영계록 9책	각사등록 30책	336

해제

1. 시간을 담은 문서의 질감 : 『각사등록』의 자료적 특징과 현황

『각사등록(各司謄錄)』은 중앙과 지방 간의 왕복 문서 및 등록류를 편집·정리하여 영인한 조선시대 기초 사료집으로서, 계록(啓錄), 등록(謄錄), 관첩(關牒), 첩보(牒報), 관록(關錄), 존공안(存公案), 보취(報聚), 내첩(來牒), 등래(登來), 내거안(來去案), 장록(狀錄), 문첩(文牒), 밀계(密啓), 기록(記錄), 일기(日記), 별단(別單), 군시안(郡市案), 항안(港案) 등 다양한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작성 연대는 임진왜란 이전 일부를 비롯해 1910년 대한제국기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주요 기록은 18~19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각사등록』에 수록된 문서의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도 일부 남아있다. 1980년대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를 101책의 영인본으로 간행하였고, 최근 국역화 및 온라인서비스를 병행하여 자료적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101책 중 1책에서 55책까지는 도별 행정문서들을 총집해 놓았는데, 중앙에 보고되지 않은 지방관아의 보고문서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지방사회의 실상을 생생히 접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각사등록』의 도별 자료는, 경기도(1~6책), 충청도(6~10책), 경상도(11~17책), 전라도(18~21책), 황해도(22~26책), 강원도(27~28책), 평안도(29~41책), 함경도(42~46책)의 순으로 영인되었으며, 이밖에도 48~55책까지는 경기도 보유편(47책), 충청도 보유편(48책), 경상도 보유편(49~52책), 전라도 보유편(53~54책), 황해도·강원도 보유편(55책) 등으로 1~46책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들이 보유편으로 성책되어 있다. 이중 1~46책에는 우택, 측우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선시대 기상 정보를 통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

한편 『공문편안(公文編案)』은 1894년 7월부터 1901년 12월까지 탁지부와 각 아문·부·도·군·읍 사이에 오간 문서를 편철한 것으로, 총 9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개별 기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공문편안』에는 갑오개혁 이후 제도개혁에 따른 중앙의 훈령과 지시 사항에 대해 지방에서의 처리 방안 및 문제점을 보고하는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19세기 말~20세기 초 유생들의 동학교도 비난, 수재와 흥년으로 인한 민정의 피해 상황, 이서배들의 중간 수탈, 역둔토의 조사 및 정부로의

귀속 조치 등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기사들이 『공문편안』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 『공문편안』에는 『각사등록』과 마찬가지로 측우, 우택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점은 『공문편안』이 근대이행기 『각사등록』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록자료임을 시사한다.

요컨대, 『각사등록』과 그것의 근대적 양식이라 할 수 있는 『공문편안』은 조선왕조로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중앙과 지방의 관료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문서행정의 보고이자 지방사회의 변화상을 통시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회사자료로서 연구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2. 『각사등록』에 담긴 측우 기록의 역사성

1) 하늘에서 온 데이터, 땅에서의 응답 : 조선 전기 농업정책과 측우 행정

전근대 동아시아국가들은 자연환경의 변화를 국왕의 통치행위에 접목시켜 해석하는 유교적 자연관을 발전시켜왔다. 국왕은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신성한 권위자로서 각종 의례행위를 통해 권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한편, 백성의 삶을 돌봐야 하는 통치자로서, 농업, 부세, 진휼정책을 추진하여 수신(修身)과 애민(愛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성리학적 통치이념 하에 성립된 조선왕조는 특히 기상천문과 관련된 의례를 고도화하는 한편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 혹은 재이론(災異論)에 입각한 감선(減膳), 기우제 설행 등의 도덕적 통치 행위를 일상화해갔다. 또한 건국 초부터 유교적 농본국가를 표방하였기에, 농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별, 계절별 기상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지질환경과 수리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고려말부터 연작 상경이 확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 생산력을 늘릴 수 있는 파종법, 시비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농서를 편찬하고, 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였으나, 지질 특성상 수차 보급이 여의치 않았던 조선에서는 제언, 천방을 설치하는 선에서 관개시설의 보급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큰 제언을 조성하려면 농민들의 노동력을 일시에 동원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데다가 제언 주변의 농지만이 물대기에 용이할 뿐더러 천방의 경우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낙차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지의 논에는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처럼 조선의 농지는 강우량의 의존도가 높은 천수답(天水畓)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각종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절기별, 지역별 강우량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조선왕조는 선초부터 각도 군현의 지방관을 통해 봄부터 가을까지 우택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보고하는 우택 정보는 ‘읍진(浥塵)’, ‘1서(鋤)’, ‘1려(犁)’, ‘천거창일(川渠漲溢)’, ‘강천범람(江川汎濫)’과 같이 지역에 소재한 농지와 하천을 기준으로 한 정보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계량화되고 표준화된 강우량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441년(세종 23) 문종의 주도로 측우기를 제작하여 각도 군현에 보급함으로써 우택 정보를 보완하는 측우기의 측량값을 확보하게 되었다. 실제로 1441년(세종 23) 4월 29일 『세종실록』 기사를 살펴보면,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에 근심하여 비가 올 때 마다 비 온 뒤에 땅을 파서 젖어 들어간 깊이를 재었으나, 정확하게分寸을 알 수 없었으므로 구리로 주조한 기구를 궁중에 설치하고 여기에 고인 빗물의分寸을 조사하였다.”라고 하여 이때부터 측우기를 통한 강우 측량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대 이후 중앙에 보고되는 측우, 우택 기록은 한 해의 농형(農形)을 진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각도 감사와 각읍 수령의 주요 행정 업무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전기 우택, 측우 기록은 하늘의 현상을 관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농업 생산과 재해 대응, 부세 정책을 연결시키려는 정책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측우기는 선초부터 중앙에 보고된 우택 정보를 계량화된 수치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강우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올라온 강우 데이터 및 농형 정보를 바탕으로 당해 농업 생산량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세입 산정과 진휼 정책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토지의 수세 가능 면적이 감소하고 행정 체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측우 행정 또한 일시적으로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2) 강우기록, 국가를 다시 세우다 : 양난 이후 측우 행정의 복원과 활용

17세기 양난의 후유증을 회복하고, 경신·을병 대기근과 같은 대규모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선왕조는 농업정책과 진휼 및 부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토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전세 및 대동세의 수취 기반을 정비해나갔으며,

전국의 교통 요지에 진휼창을 설치해 기근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어 1770년(영조 46)에는 측우기를 복원하여 각 도의 감영과 유수부에 설치하고, 강우량과 농업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다. 영조는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기 위해 전대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던 중 세종대 측우기가 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위 46년 5월 1일, 세종조의 옛 제도를 모방해 측우기를 만들어 창덕궁과 경희궁에 각각 설치하고,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도 설치해 강우량의 척촌(尺寸)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정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각도 감영과 유수부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우택과 농형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올리면서 측우기의 측량값도 함께 보고하게 되었다. 보고 내용에는 강우뿐 아니라, 농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홍수·지진·해일·충해 같은 자연재해와 피해 상황도 함께 보고되었다.

그런데 1770년(영조 46) 복원된 측우기는 전국 군현에 모두 설치되지 않고 각도와 유수부에만 설치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사료 상에 드러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간접적인 배경 요인을 들자면, 18세기 이래 고도화된 도단위 행정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18세기 이후 비충제가 시행되면서, 중앙정부는 각읍에 풍흉의 정도와 재해 상황을 반영해 도별로 급재(給災)를 인정해주는 한편,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도 단위 행정 통제력을 강화해갔다.

우선 1713년(숙종 39) 이래 팔도구관당상제(八道句管堂上制)를 시행하고 전임 감사를 해당 도의 구관당상으로 임명하여 기존의 감사·수령의 행정 체계를 관리, 감독하도록 한 조치가 주목된다. 각도 감사 외에 비변사에서 각도의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구관당상을 임명하여 도의 현안을 현실감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765년(영조 41) 무렵에는 비록 313개 군현에 그치기는 했지만, 『여지도서』라는 전국 단위 관찰 지리지를 편찬함으로써 호구, 토지, 물산, 조세, 환곡, 군역 등의 부세 자원에 관한 도별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비충제 역시 이러한 지방통치시스템의 연장선 상에서 시행된 부세제도로서 각도 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었다. 따라서 1770년(영조 46) 복원된 측우기를 각도와 유수부에만 설치한 것은 이러한 도 단위 부세행정 시스템이 강화된 상황에 기반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요컨대, 1770년(영조 46) 측우기 복원 이후 서울의 창덕궁과 경희궁, 내외 관상감은 물론 지방 감영과 각도 유수부에 측우기가 보급됨으로써 계량화된 강우량이 조정에 보고

되었으며, 각 군현에서 수집된 우택 정보 역시 각도 감영을 통해 조정에 보고됨으로써 조선후기 측우 행정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현존하는 『각사등록』의 우택, 측우 기록은 조선후기 측우 행정이 재정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문서행정에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측우 행정 시스템은 대한제국기까지 이어져 근대적 공문첩인 『공문편안』에까지 우택과 측우 정보가 실리게 되었다. 1770년(영조 46)에 복원된 조선왕조의 측우행정 시스템이 근대적인 기상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110여 년간 장기지속한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측우 행정의 성립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각사등록』 상에 우택, 측우 기사가 실리게 되는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도 간략히 서술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각사등록』 상의 측우 기록을 총집, 번역한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구성과 내용적 특징에 대해 개관하기로 하겠다.

3.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편찬 경위와 대상자료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은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지난 2024년 3월 22일부터 당해 11월 17일에 걸쳐 수행한 「2024년도 국립기상박물관 조선시대 역사기록 물의 우량관측 자료 복원 및 검증 연구」의 결과물로 간행된 번역서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한 『각사등록』 상의 측우, 우택 관련 기록들을 검출하여 도별로 정리한 자료집으로서,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측우 기록을 검토하고 기상환경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000년대 이후 기상학 분야에서 『각사등록』 상의 우택·측우 기록을 1차 수집, 정리하고 도별 특징을 분석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기는 했지만, 번역 상의 오류와 기사 누락이 많고, 자료 출처와 DB 작성 방식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既번역 자료 및 통계 DB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학술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 8개월에 걸쳐 既번역된 『각사등록』의 우택·측우 기록을 검토해 번역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고, 일관된 번역 원칙에 따라 용례를 통일하여 번역한 후 교차 검토를 통해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누락된

원문 자료를 찾아내어 OCR작업으로 원문을 추가로 입력하고 새로 번역함으로써 『각사등록』 상의 우택·측우 기록을 총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총 15권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형태로 공식 출판하고 통계 DB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자료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번역 총서는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1·2·3), 충청도편(1·2), 경상도편, 전라도편, 강원도편, 황해도편(1·2), 평안도편(1·2·3·4), 함경도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역대상 자료는 아래 <표 1>과 같다. 번역 총서는 우택, 측우, 농형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해만 번역 대상 연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일부는 자료에 수록된 전체 작성 연도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표 1>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번역 대상 자료

지역	각사등록 등	서명	작성연대
경기도	각사등록 1책	기영장계등록	1783년(정조 7)~1784년(정조 8)
	각사등록 4책	광주부유영장계등록	1861년(철종 12)~1869년(고종 6)
	각사등록 5책	광영계록	1870년(고종 7)~1893년(고종 30)
		화영계록	1845년(헌종 11)~1876년(고종 13)
	각사등록 4책	개성부유영장계등록	1861년(철종 12)~1862년(철종 13), 1874년(고종 11)~1875년(고종 12), 1884년(고종 21)~1892년(고종 29)
	각사등록 4책	이등계록	1830년(순조 30)~순조 31년(1831),
		강화부유영장계등록	1847년(헌종 13), 1851년(철종 5), 1856년(철종 7)~1860년(철종 11), 1876년(철종 13)~1879년(고종 16)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82책	공문편안	1895년(고종30)
충청도	승정원일기 탈초본 138~141책	승정원일기	1894년(고종 31)~1907년(순종 1)
	각사등록 6~7책	충청감영계록·금영계록	1835년(헌종 1)~1837년(헌종 3), 1844년(헌종 10)~1845년(헌종 11), 1852년(철종 3)~1855년(철종 6), 1861년(철종 12), 1871년(고종 8)~1878년(고종 15), 1895(고종 32)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32책	공문편안	1896년(건양 1)~1900년(광무 4)
경상도	각사등록 11책	경상감영계록	1863년(철종 14), 1872년(고종 9), 1890년(고종 27), 1902년(광무 6)
	각사등록 17책	통제영계록	1871년(고종 8), 1873년(고종 10)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66책	공문편안	1897년(건양 2), 1898년(광무 2), 1900년(광무 4)
전라도	각사등록 18책	전라감사계록	1829년(순조 29), 1845년(헌종 11), 1847년(헌종 13), 1849년(헌종 15), 1854년(철종 5), 1876년(고종 13), 1885년(고종 22)~1889년(고종 26)
		호남계록	1878년(고종 15)~1880년(고종 17), 1885년(고종 22)~1887년(고종 24)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64책	공문편안	1897년(건양 2)
강원도	각사등록 27책	강원감영계록	1831년(순조 31)~1832년(순조 32), 1856년(철종 7)~1857년(철종 8), 1860년(철종 11)
		관동계록	1892년(고종 29)~1893년(고종 30)
		춘천유영계첩록	1888년(고종 25)~1889년(고종 26)
황해도	각사등록 22~24책	황해감영장계등록	1832년(순조 32)~1834년(순조 33), 1838년(헌종 4), 1845년(헌종 11), 1848년(헌종 14), 1850년(철종 1), 1854년(철종 5)~1855년(철종 6), 1860년(철종 11), 1863년(철종 14), 1866년(고종 3), 1867년(고종 4), 1888년(고종 25)~1889년(고종 26), 1899년(광무 3)
	공문편안 52책	공문편안	1897년(광무 원년)~1898년(광무 2)
평안도	각사등록 29책	관서계록	1822년(순조 22)
	각사등록 29~33책	평안감영계록	1830년(순조 30), 1831년(순조 31), 1833년(순조 33), 1834년(순조 34), 1835년(헌종 1), 1836년(헌종 2), 1838년(헌종 4), 1840년(헌종 6)~1843년(헌종 9), 1844년(헌종 10)~1843년(헌종 11),

			1848년(헌종 14)~1850년(철종 1), 1852년(철종 3)~1853년(철종 4), 1855년(철종 6)~1858년(철종 9), 1861년(철종 12)~1862년(철종 13), 1864년(고종 1)~1870년(고종 7), 1873년(고종 10)~1874년(고종 11), 1883년(고종 20)~1884년(고종 21)
함경도	각사등록 42책	함경감영계록	1856년(철종 7), 1862년(철종 13)~1867년(고종 4)
	각사등록 43책	함경북병영계록	1846년(헌종 12)~1847년(헌종 13), 1850년(철종 1), 1851년(철종 2), 1888년(고종 25)~1890년(고종 27)
	공문편안 78·91책	공문편안	1897년(건양 2)~1898년(광무 2), 1900년(광무 4)
	원산해관관측소	원산해관관측소	1885년(고종 22)~1907년(융희 원년)

다음 절에서는 위의 <표 1>에 실린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평안도편의 내용 구성과 활용 가치에 대해 개관하기로 하겠다.

4.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평안도편의 내용 구성과 활용 가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평안도편은 『각사등록』 중에서 19세기 평안도 지역에서 관측된 기후 및 농형 자료를 총집하여 번역한 자료집이다. 『관서계록(關西啓錄)』과 『평안감영계록(平安監營啓錄)』에 기록된 측우기 및 우택 자료를 알기 쉽게 번역함으로써 당대 기후 변화와 농사 활동과의 관계는 물론, 전근대 기후 패턴을 복원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편찬 체제와 내용 구성

『관서계록』은 1822년(순조 22)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29일까지 평안감사가 중앙에 올린 장계를 베껴 써 모아 놓은 등록류로서,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성 시기는 짧지만,

도내 부세 행정과 국경 지역의 군사 동향, 청나라 표류민의 환송 등에 관한 평안도 관찰사의 연례 업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관찰사가 직접 도내 여러 고을 순시하며 적은 우택과 농형 정보도 상세하다.

『평안감영계록』은 1830년(순조 30) 8월부터 1884년(고종 21) 8월 사이에 평안감영에서 중앙의 비변사 혹은 의정부에 올린 계문을 베껴 써 모아 놓은 등록류이다. 표지 제목은 ‘평안감영계록’ 외에도 ‘각도계록(各道啓錄)’, ‘기영계록(箕營啓錄)’, ‘기영별계록(箕營別啓錄)’ 등으로 되어 있으나 성격은 동일하다. 『평안감영계록』에는 부세제도 및 양안의 문란, 환곡의 폐단, 정배 죄인 등의 문제 외에도 평안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중강개시 운영, 청국인의 왕래, 월경인 문제 등이 다채롭게 보고되었다. 이 중에는 우택, 측우 및 농형 보고도 포함되어었는데, 본서에서는 앞서 1822년 『관서계록』과 함께 『평안감영계록』에 실린 우택, 측우, 농형 기사를 검출하여 새로 번역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평안도편은 4권으로 편찬될 정도로 타도에 비해 기사량이 많고 측우 관련 내용도 풍부하여 조선후기 한반도 북부지역의 기후환경 및 농업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관서계록』과 『평안감영계록』을 바탕으로 평안도의 우택, 측우, 농형 보고 양상을 살펴보면, 관찰사는 중앙에 농형만 보고할 때도 있고, 우택과 농형을 함께 보고할 때도 있었다. 단, 강우 피해가 심할 경우 피해 상황과 진휼 대책을 함께 보고해 올렸다. 우택 정보는 각 고을에서 비온 후 곧바로 감영에 보고했는데, ‘읍진(浥塵: 먼지를 적실 정도의 비)’, ‘1서(鋤: 한 번 호미질할 깊이의 비)’, ‘1려(犁: 한 번 쟁기질할 깊이의 비)’와 같이 농지와 농기구를 활용해 강우의 등급을 매겨 보고하였으며, 큰비가 내렸을 경우 ‘천거창일(川渠漲溢)’, ‘강천범람(江川汎濫)’과 같은 표현을 쓰고 피해의 실상을 함께 알렸다. 이때 관찰사는 감영에 소재한 측우기의 수심[尺-寸-分]을 확인해, 각 고을의 우택 정보와 함께 중앙에 보고하였다. 이밖에 홍수, 가뭄, 서리,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 및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보고해 올렸다. 특이한 점은 평안도의 경우 압록강의 결빙(結氷)과 해빙(解氷) 시점에 대한 보고가 첨부되고 있는 것이다. 1840년(헌종 6) 기사를 살펴보면 당해 압록강은 11월 23일(음력) 무렵 상류와 하류가 모두 얼었고, 이듬해인 1841년(헌종 7) 3월 14일 무렵이 되어서야 상류, 하류에서 간간이 얼음이 녹았다는 장계가 올라왔다.

농형에 있어서도 평안도는 한반도 서북부에 위치하여 삼남 지방보다 기온이 낮고,

산지가 발달하여 밭작물 재배가 발달해 있었다. 논농사의 경우 올벼와 늦벼를 재배하였으며 모판에서 모를 키우는 대신, 땅을 간 후 벼씨를 직접 심어 경작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장계의 내용도 논농사보다는 밭농사의 진척을 알리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1822년(순조 22) 우택, 농형 기사를 살펴보면, 3월 초부터 도내 각읍의 가을보리, 가을밀의 발아와 성장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보고되고 있으며, 봄보리를 비롯한 올기장, 올조, 증기장, 증조, 올수수, 목화, 늦기장, 늦조, 수수, 목화, 밀 재배를 위한 밭갈이와 파종에 관한 사항이 고을별로 자세히 보고되었다. 이처럼 평안도는 토질과 기후 환경을 고려해 밭작물 재배를 다각화하였으나, 한재로 인해 종종 피해를 입었다.

1822년(순조 22) 8월 15일의 기록에 따르면, 광산 등 7개 고을에 서리가 내려 콩, 보리, 메밀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되었다. 비단 1822년(순조 22)뿐 아니라 다른 해에도 평안도는 다른 도와 달리 서리로 인한 한재가 중앙에 보고되었다. 평안도 관찰사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에 피해 규모와 내용을 알리고, 진휼 및 구호 대책을 시행한 후 이를 다시 중앙에 보고하였다. 1822년(순조 22) 윤3월 29일 춘궁기 무렵에 평안도 관찰사는 자산 등 5개 고을을 순시해 굶주린 백성 3,520명을 구휼하였으며, 평양 등 14개 고을 역시 순시를 통해 굶주린 백성 4,787명에게 133석 10두 가량의 곡식을 진휼하였다.

2) 자료의 활용가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평안도편은 19세기 평안도의 강우량과 농업 작황, 재난 실태 및 대응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어 지역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향후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평안도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기후사 연구에서 평안도 지역의 강우 패턴과 재해 발생 양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인 기후 변화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과연 19세기 평안도에 전과 다른 위기 요인이 발생하고 있었는지를 진단하는 기초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농업사 연구에서 기후와 농업활동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평안도편 역시 타도와 마찬가지로 측우와 농형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재배 작물의 종류뿐 아니라 파종, 제초, 추수에 관한 절기별 농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에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평안도편에 실린 측우-농형 기사의 분석을 통해 평안도 지역의 기후환경과 농형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 재정사 연구에서 기후환경에 따른 농업구조와 부세행정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대 측우기 제작이 공법제도의 시행과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영조대 측우기 복원 역시 1760년(영조 36) 비충제가 법제화되고, 도별 부세행정체계가 고도화된 조치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다. 기존의 재정사 연구가 토지의 생산량과 부세 수취와의 관계만을 다루었다면,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평안도편에 실린 우택, 측우 기사는 토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환경 요인과 이를 행정 시스템 하에서 파악하고자 한 정부의 정책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측우-농형-부세 사이의 상관성을 규명해내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평안도는 타도와 부세수취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측우와 농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타도와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조선시대 재해정책에 관한 연구의 진전을 꾀할 수 있다. 전염병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지역 사회의 대응 방식과 중앙 보고 체계를 연구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해정책과 재난관리체계의 실상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평안도편에는 기상 정보 외에 농형에 영향을 미치는 충해, 해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우제 설행 및 구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조선후기 지역별 재난 상황과 그에 따른 대책을 연구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 연구에서 환경사적 관점을 접목한 연구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평안도편에 실린 도내 기후환경과 농업 정보, 재난 상황과 대책 등은 전근대 평안도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평안도가 조선시대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지역의 환경적 요인을 어떻게 개선, 극복해왔으며 한편으로 근대적 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지 그 역사적 추이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컨대,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평안도편은 조선시대 기후환경사를 비롯한 제반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집적할 수 있는 원천자료일 뿐 아니라 19세기 평안도의 변화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일러두기

- 이 책은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 「2024년도 국립기상박물관 조선시대 역사기록물의 우량관측 자료 복원 및 검증 연구」사업의 결과물이다.
- 이 책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등록류 등을 영인 간행 한 『각사등록』에서 기상 자료를 추출하여 번역하였다.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저본으로 하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원본 자료를 참조하였다. 『각사등록』은 음력 날짜로 되어있고, 1896년 양력사용 개정 이후 자료인 『공문편안』은 양력 날짜로 되어있다.
- 이 책은 각사등록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황해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총 8도의 측우자료를 번역검증하여 역사기후자료집 경기도편1·2·3, 충청도편(1·2)·경상도편·전라도편·강원도편·황해도편(1·2)·평안도편(1·2·3·4)·함경도편으로 총 15권으로 엮었다.
- 번역은 원문을 충실하게 직역하되,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역과 보충역을 했다.
-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은 국립국어원이 정한 어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되, 일부 사항은 학계의 관례를 따랐다.
- 편집순서는 영인본의 순서를 따라 원문과 번역문을 배치하였다.
- 전근대 기후 자료는 특유의 문체와 표현 방식이 있어, 이를 그대로 살려 현대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문 원문을 번역문 앞에 배치함으로써, 전문 독자들이 원문의 독특한 표현을 느끼고 그 의미를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번역문은 일반 독자가 전근대 기상 자료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원문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오늘날 통용하는 용어와 표현으로 바꾸었다.
- 번역문에서는 한자를 병기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독자가 글의 흐름을 유지하고, 현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 해당 일자의 기사는 전문을 번역하였으나 기상 현상과 거리가 먼 경우 생략하였다.
- 원문의 단순 오탈자의 경우 내용에 파악에 문제가 없으면 별도로 교정, 교감하지 않았다.
- 문건별로 일련번호를 달았고, 영인본 면수를 표기했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으나 관용적 표현은 한글로 표기하였다.
- 곡물 명칭과 도량형의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번역 지침』을 따랐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평안도편 1

0001. 1822년(순조 22) 3월 9일(양력 3월 31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1책(31a-31b) / 關西啓錄 1책(45-45)

承政院開拆.

卽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等十五邑, 秋麴麥今始抽芽, 春麴隨其土解, 間或耕播是如是白遣. 其餘各邑,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동·강동·성천·자산 등 15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봄보리는 땅이 풀리는 대로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나머지 각 고을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2. 1822년(순조 22) 3월 15일(양력 4월 6일)

各司謄錄 29책, 關西啓錄 1책(37b-37c) / 關西啓錄 1책(53-53)

承政院開拆.

平壤等十五邑麴麥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本月十四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未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乎所. 見今東作伊始, 得此霑潤, 土脈融解, 麴麥滋益是白如乎. 列邑均霑與否, 向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평양 등 15개 고을의 보리·밀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4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현재 봄농사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주고 땅이 완전히 풀려 보리·밀은 더욱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고루 적셨는지 여부와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3. 1822년(순조 22) 3월 20일(양력 4월 11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1책(38c-39a) / 關西啓錄 1책(55-55)

承政院開拆.

臣營下本月十四日測雨器水深爲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祥原·永柔·慈山·殷山等四邑, 得一犁, 平壤·順安·肅川·安州·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中和·三登·江東·成川·順川·价川·德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寧邊·博川等二十三邑, 得一鋤, 而始芽之秋麴麥, 方播之春麴, 俱有滋潤之益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等十五邑, 秋麴麥日漸抽芽, 春麴次第耕播是如是白遣. 殷山·順川·价川·德川·孟山·安州·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寧邊·雲山·熙川·博川·泰川·龜城等十八邑, 秋麴麥今始抽芽, 春麴隨其土解, 間或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凡係課農之節, 另加申飭, 使之着意舉行爲白乎旆. 其餘各邑,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4일 측우기 수심이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상원·영유·자산·은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순안·숙천·안주·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중화·삼등·강동·성
천·순천·개천·덕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영변·박천 등 23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
다. 그래서 싹이 나기 시작한 가을보리·가을밀과 막 씨앗을 뿌린 봄보리 모두 더욱 윤기나
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
동·성천·자산 등 15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차례
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은산·순천·개천·덕천·맹산·안주·가산·정주·곽산·
선천·철산·용천·영변·운산·희천·박천·태천·구성 등 18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
금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봄보리는 땅이 풀리는 대로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무릇 농사에 관계된 사항은 별도로 단단히 지시해 유념하여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니다. 나머지 각 고을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4. 1822년(순조 22) 3월 30일(양력 4월 21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1책(43b-43b) / 關西啓錄 1책(61-61)

承政院開拆.

平壤等三十三邑牟麥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次第向青, 春牟間或立苗, 早黍粟方始耕播是如是白遣.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德川·孟山·博川·泰川·龜城·寧邊·雲山·熙川等十四邑, 秋牟麥日漸抽芽, 春牟幾畢耕播是如是白遣. 寧遠·陽德·義州·朔州·昌城·碧潼·江界·渭原·楚山等九邑, 秋牟麥今始抽芽, 春牟方張耕播是如是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爲白乎跡.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평양 등 33개 고을의 보리·밀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돋고 올기장·올조는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덕천·맹산·박천·태천·구성·영변·운산·희천 등 14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거의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영원·양덕·의주·삭주·창성·벽동·강계·위원·초산 등 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봄보리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5. 1822년(순조 22) 윤3월 6일(양력 4월 27일)

各司謄錄 29책, 關西啓錄 1책(43b-43b) / 關西啓錄 1책(61-61)

承政院開拆.

臣以巡審事, 本月初一日離營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自平壤, 由順安·肅川·安州·嘉山, 當日到定州牧, 而所經處, 秋粳麥日漸向青, 春粳已皆立苗, 早黍粟方張耕播是白乎旃. 初五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至戌時量乃止, 所得恰爲沍塵, 而當此粳麥纔苗, 黍粟方播之時, 俱有滋潤之益是白如乎. 列邑均霑與否, 向後農形, 隨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제가 순시하는 일로 이번 달 초1일에 감영을 떠난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저는 평양에서 순안·숙천·안주·가산을 통해 당일 정주목에 이르렀습니다. 거쳤던 곳
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
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초5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고, 내린 것은 거의 먼지만
적실 정도였지만, 이렇게 보리·밀이 겨우 싹이 나고 기장·조는 막 씨앗을 뿌리는 때에
모두 더욱 윤기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고루 적셨는지 여부와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는대로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6. 1822년(순조 22) 윤3월 10일(양력 5월 1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1책(44b-44c) / 關西啓錄 1책(62-63)

承政院開拆

平壤等六邑巡路農形及本月初五日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自郭山, 由宣川·鐵山·龍川, 當日到義州府, 而所經處, 秋麴麥日漸向青, 春麴善爲立苗, 早黍粟今方耕播是白乎旃.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漸次向苗, 春麴已盡立苗, 早黍粟幾訖耕播,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間始耕種是如是白遣. 嘉山·定州·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十八邑, 秋麴麥次第向青, 春麴舉皆立苗, 早黍粟方張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麴今始播種是如爲白乎旃. 初五日之雨, 平壤·順安·永柔·博川·价川·定州·郭山·鐵山·龍川·義州·中和·祥原·江東·慈山·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等十九邑, 得一鋤. 肅川·安州·嘉山·順川·三登·宣川·龜城·朔州·昌城等九邑, 恰爲溫塵是如爲白有臥乎所. 兩麥既善抽苗, 一雨亦均時霑, 民事可幸, 前路農形, 更加詳審, 隨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평양 등 6개 고을을 순시한 길에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5일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관산에서 선천·철산·용천을 통해 당일 의주부에 이르렀습니다. 거쳤던 곳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싹이 잘 나왔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이 점차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그사이에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가산·정주·덕천·영원·맹산·양덕·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 등 18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

조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초5일의 비로 평양·순안·영유·박천·개천·정주·곽산·철산·용천·의주·중화·상원·강동·자산·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 등 1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숙천·안주·가산·순천·삼등·선천·구성·삭주·창성 등 9개 고을은 거의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리·밀은 이미 싹이 잘 자랐고 한차례 또 비가 때맞춰 고루 적셔주니 백성들의 사정상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가는 지역의 농사 상황의 경우, 다시 상세히 살펴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7. 1822년(순조 22) 윤3월 16일(양력 5월 7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1책(52c-52c) / 關西啓錄 1책(72-72)

承政院開拆.

平壤等二十八邑本月初五日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當日巡到寧邊府, 而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殷山·成川·寧遠·孟山·寧邊·泰川·碧潼等七邑, 得一鋤, 德川·陽德·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七邑, 恰爲溫塵是如爲白乎旆. 今十五日卯時量又雨, 或霏或灑, 至酉時量乃止, 所得爲一犁許是白乎所. 東作方殷, 一旬再霑, 已苗之兩麥, 時播之各穀, 連得滋潤之澤是白如乎. 列邑均霑與否, 嗣後農形, 隨其報來, 鱗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평양 등 28개 고을에 이번 달 초5일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당일 순시하다가 영변부에 이르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은산·성천·영원·맹산·영변·태천·벽동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덕천·양덕·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 등 7개 고을은 거의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15일 묘시쯤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1려가량이었습니다. 봄농사가 막 한창인데 10일만에 다시 적셔주어서 이미 싹튼 보리·밀과 때맞춰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이 연이어 더욱 윤기나는 혜택을 얻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고루 적셨는지 여부와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8. 1822년(순조 22) 윤3월 22일(양력 5월 13일)

各司謄錄 29책, 關西啓錄 1책(53c-54a) / 關西啓錄 1책(73-74)

承政院開拆.

郭山等五邑巡路農形及本月十五日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行自龜城, 由泰川·寧邊, 當日到价川郡, 而所經處秋粳麥日漸向苗, 春粳方張向青, 早黍粟已訖耕播, 次第立苗,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今方耕種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等十八邑, 秋粳麥日益茁茂, 春粳舉皆向青, 早黍粟已盡立苗,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幾訖耕播, 晚黍粟·稷唐, 間始耕種是如是白遣.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朔州·昌城·碧潼·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邑, 秋粳麥漸次向茂, 春粳方爲向青, 早黍粟已畢耕播, 間間立苗,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方始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畢播始苗是如爲白有旆. 十五日之雨, 永柔·肅川·安州·慈山·順川·价川·孟山·江西·咸從·甌山·中和·祥原·泰川等十三邑, 得一犁, 龍岡·定州·郭山·龍川·義州·博川·龜城·寧邊·熙川等九邑, 得二鋤, 平壤·順安·嘉山·宣川·鐵山·三和·三登·江東·成川·陽德·殷山·德川·寧遠·雲山·江界·渭原·楚山·朔州·昌城·碧潼等二十邑, 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 今番之雨, 沿邑均霑, 兩麥俱得勃興, 各穀及時耕種, 民事可幸, 嗣後農形, 隨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곽산 등 5개 고을을 순시한 길의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5일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행차는 구성에서 태천·영변을 통해 당일 개천군에 이르렀습니다. 거쳤던 곳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한창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는데 차례로 싹이 돋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지금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 등 18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더

옥 싹이 무성하고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거의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그사이에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박천·삭주·창성·벽동·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 등 2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막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는데 간간이 싹이 돋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씨앗 뿌리기를 마쳤는데 싹이 돋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15일의 비로 영유·숙천·안주·자산·순천·개천·맹산·강서·함중·증산·중화·상원·태천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용강·정주·곽산·용천·의주·박천·구성·영변·회천 등 9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평양·순안·가산·선천·철산·삼화·삼등·강동·성천·양덕·은산·덕천·영원·운산·강계·위원·초산·삭주·창성·벽동 등 20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비로 물가 고을은 고루 적서져 보리·밀은 모두 쭉쭉 자랐고 각종 곡식은 때맞춰 받을 갈고 씨앗을 뿌리게 되었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다행스럽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는 대로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9. 1822년(순조 22) 윤3월 25일(양력 5월 16일)

各司謄錄 29책, 關西啓錄 1책(54a-54a) / 關西啓錄 1책(74-74)

承政院開拆.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當日巡到成川府, 而本月二十三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間間止息. 二十四日亥時量乃霽, 所得爲一犁許是白乎所. 見今兩麥漸茁, 各穀方播, 而優渥頻潤, 俱有所益是白如乎, 列邑均霑與否, 向後農形, 得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당일 순시하러 성천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달 23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그치기도 하더니 24일 해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내린 것은 1려가량이었습니다. 현재 보리·밀은 점점 싹이 자라고 각종 곡식은 막 씨앗을 뿌렸는데 매우 촉촉하게 빈번히 적셔주어 모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고루 적셨는지 여부와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0. 1822년(순조 22) 윤3월 29일(양력 5월 20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1책(54c-54d) / 關西啓錄 1책(75-75)

承政院開拆.

龜城等四邑巡路農形及所經處賑救諸邑, 今月初巡監賑緣由, 連續馳啓爲白有在果. 臣自殷山, 由成川·江東·三登·祥原, 當日還營, 而歷路農形段, 秋麴麥一向茁長, 春麴日益向青, 而冷風連吹, 茁長差遲, 早黍粟間或初鋤,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次第立苗, 晚黍粟·稷唐, 已畢耕播, 晚稻豆·太, 今始耕種是白乎旅. 慈山等五邑中巡分賑, 依例設行, 而付賑饑民, 合爲三千五百二十口是白乎等以. 同分賑饑口穀數, 開錄修成冊, 上送于賑恤廳是白遣. 救急邑段, 民勢之緩急各異, 巡數之多少不同, 而平壤·江界·楚山·昌城·三和·肅川·祥原·順川·雲山·永柔·江西·龍岡·泰川·陽德等十四邑, 今巡施救饑民都數, 爲四千七百八十七口, 分給折米, 爲一百三十三石十斗二升是白如乎. 臣於省部之路, 毋論與公賑與救急, 給糧饋粥等節, 連加躬審, 沿途民情, 亦爲遍察是白乎則, 饑民之不甚遑急, 行路之未見流離, 一如前日所見, 災歲民事, 誠爲多幸, 務盡賑恤, 毋或一毫疎忽之意, 另飭各該邑.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구성 등 4개 고을을 순시한 길의 농사 상황 및 거쳤던 곳의 여러 고을을 진휼하고 구호했던 것과 이번 달 초 순시에 진휼을 감독했던 연유는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은산에서 성천·강동·삼등·상원을 통해 당일 감영에 돌아왔습니다. 지나는 길의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가을밀은 줄곧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날로 더욱 푸르러지는데 차가운 바람이 연이어 불어서 싹이 자라는 것이 조금 지체되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차례로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고, 늦벼·콩·팥은 지금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자산 등 5개 고을을 순시하면서 나누어 진휼한 것은 규정대로 시행하였고 구제한 굶주리는 백성들은 총 3,520명이었습니다. 위 나누어 진휼하여 굶주리는 백성과 곡식 수요는 기록하여 정책으로 작성하고 진휼청에 올려 보냈습니다. 긴급히 도와줄 고을의 경우, 백성들의 형세상 다급한 정도가 각각 다르고 횟수의 많고 적음이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양·강계·초산·창성·삼화·숙천·상원·순천·운산·영유·강서·용강·태천·양덕 등 14개 고을은 이번에 순시하면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한 총수가 4,787명이고, 나눠준 곡물 쌀이 133섬 10말 2되입니다. 제가 지역을 순시하는 길에 공식 진휼을 주던지 긴급 구호를 주던지 따질 것 없이 양식을 주든 죽을 써주는 등의 사항은 연이어 직접 살피고 가던 길의 주변 백성들의 심정도 또한 두루 살폈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이 매우 허둥대지도 않아서 가는 길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고 한결같이 전날에 보던 것과 같았습니다. 재해가 든 해에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다행입니다. 모쪼록 구제에 온힘을 다해 한 톨끝만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 해당 고을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1. 1822년(순조 22) 4월 4일(양력 5월 24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1책(57a-57c) / 關西啓錄 1책(79-79)

承政院開拆.

道內農形及去月二十三日四日得雨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慈山·殷山·順川·价川·德川·寧遠·孟山·祥原·成川·龍岡·三和·咸從·甑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渭原·楚山等三十二邑, 得一犁. 中和·三登·江東·江西·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碧潼等十邑, 得一鋤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日漸茁長, 春麴今始向茂, 早黍粟間或初鋤,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方張立苗, 晚黍粟·稷唐, 已訖耕播, 晚稻豆·太, 今方耕種是如是白遣.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秋麴麥次第向茁, 春麴日益向青, 早黍粟已盡立苗,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幾訖耕播, 晚黍粟·稷唐, 方始耕種.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麴舉皆立苗是如爲白有旅. 臣營下本月初一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間間止息, 至初三日巳時量, 測雨器水深爲九分, 而一向陰暄是白如乎. 前霈之一路周洽, 固有所益, 而今雨之三日連灑, 或涉稍多, 列邑所需多寡, 向後農形, 隨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지난달 23일·24일에 내린 비의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자산·은산·순천·개천·덕천·영원·맹산·상원·성천·용강·삼화·함종·증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위원·초산 등 3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중화·삼동·강동·강서·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벽동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중화·상원·삼동·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 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

고, 봄보리는 지금 무성해지 시작했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한창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고, 늦벼·콩·팥은 지금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 밀은 차례로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날로 더욱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거의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그치더니 초3일 사시쯤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고 줄곧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앞서 쏟아진 것이 온 도에 두루 흡족하고 진실로 도움이 되었는데, 이번 비가 3일 연이어 뿌려서 더러 조금 많습니다. 여러 고을의 적서진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는 대로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2. 1822년(순조 22) 4월 11일(양력 5월 31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1책(65c-66a) / 關西啓錄 1책(89-89)

承政院開拆.

臣營下本月初一日辰時量, 始雨霏灑, 至初三日巳時量, 測雨器水深爲九分, 而一向陰暄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時以後, 密雲聚散, 多日不解, 至初九日寅時量, 或灑或霏, 亥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三分是白乎旡. 連接各邑所報, 則自初一日, 至初三日之雨, 江西·龍岡·三和·永柔·价川·定州·郭山等七邑, 川渠微漲, 而价川·定州段, 傍川之畦塍, 或致濃漬, 纔苗之粟綿, 間被沈損. 平壤·順安·肅川·安州·嘉山·宣川·鐵山·龍川·義州·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陽德·慈山·殷山·順川·德川·寧遠·孟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寧邊·雲山等三十邑, 爲一犁, 而甌山段, 象器師賢赤埏等三坊,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榛子, 所經處長爲二十里許, 廣爲十五里許. 咸從段, 堂帖·世串·反火池·小井·大井·吾串·亂串·三存·吾山等九坊,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太, 小如豆, 所經處長爲十八里許, 廣爲二十里許. 龍岡段, 於乙洞·古邑·和村·堂帖·山北·山南·卵山等七坊,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太, 小如豆, 所經處長爲二十五里許, 廣爲八里許, 而各穀不甚被害, 木花最多受傷. 殷山段, 鳳鳴·鎮北·樂天·九化等四坊,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太, 小如豆, 所經處長爲四十里許, 廣爲十五里許, 稚穀間間傷損是如爲白有臥乎所. 前雨之連灑三日, 已涉稍多, 今霏之又逾三寸, 尤爲過中, 而价定兩邑之沿田見沈, 甌山等四邑之軟苗被雹, 俱爲可惜, 就其最甚處, 題給種糧, 及時改播之意, 另飭各該邑爲白乎旡. 列邑所需多寡, 雨後農形利害,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사시쯤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고 줄곧 먹구름이 낀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뽁뽁한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며 여러 날 풀어지지 않다가 초9일 인시쯤에 이르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해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3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1일부터 초3일까지의 비로 강서·용강·삼화·영유·개천·정주·곽산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개천·정주의 경우, 시냇가 근처 밭두둑은 더러 완전히 무너져 겨우 짝나던 조·목화가 그사이에 잠겨 손상되었습니다. 평양·순안·숙천·안주·가산·선천·철산·용천·의주·함흥·증산·중화·상원·삼동·강동·성천·양덕·자산·은산·순천·덕천·영원·맹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영변·운산 등 30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증산의 경우, 상기·사현·적연 등 3개 방에 우박이 번갈아 내리다가 순식간에 이내 그쳤는데, 우박의 모양이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개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20리가량이고 너비는 15리가량입니다. 함흥의 경우, 당점·세꽃·반화지·소정·대정·오꽃·난꽃·삼존·오산 등 9개 방에 우박이 번갈아 내리다가 삼시간에 그쳤는데, 우박의 모양이 큰 것은 콩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18리가량이고 너비는 20리가량입니다. 용강의 경우, 어을동·고고을·화촌·당점·산북·산남·난산 등 7개 방에 우박이 번갈아 내리다가 삼시간에 이내 그쳤는데, 우박의 모양이 큰 것은 팔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25리가량이고 너비는 8리가량입니다. 각종 곡식은 피해 입은 것이 심하지 않지만 목화가 가장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은산의 경우, 봉명·진북·낙천·구화 등 4개 방에 우박이 번갈아 내리다가 삼시간에 이내 그쳤는데, 우박의 모양이 큰 것은 팔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40리가량이고 너비는 15리가량이며, 어린 곡식이 간간이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앞서 비가 연이어 3일간 뿌려서 이미 조금 많아진 데다가 지금 주룩주룩 내려서 또 3치를 넘어 더욱 지나쳤고 개천·정주 2개 고을의 물가 주변 밭은 잠기게 되었고, 증산 등 4개 고을의 연한 짙은 우박 피해를 입었으니 모두 안타깝습니다. 가장 심한 곳에는 결정문으로 양식과 종자를 주어 때맞춰 바꿔 뿌리라는 뜻으로 각 해당 고을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적서진 양과 비온 뒤 농사 상황의 이익과 손해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3. 1822년(순조 22) 4월 15일(양력 6월 4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1책(69b-69d) / 關西啓錄 1책(93-94)

承政院開拆.

江西等三十七邑, 自今初一日, 至初三日雨澤及臣營下初九日測雨器水深爲三寸三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自初一日, 至初三日之雨, 熙川·江界·渭原·楚山·碧潼等五邑, 得一鋤. 初九日之雨, 平壤·中和·慈山·順川·定州·郭山·宣川等七邑, 得二犁. 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鐵山·龍川·義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祥原·三登·江東·成川·陽德·殷山·价川·德川·寧遠·孟山·博川·泰川·龜城·寧邊·雲山等二十八邑, 得一犁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肅川·永柔·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已盡胚胎, 間間發穗, 春牟過半胚胎, 早黍粟已訖初鋤,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方始初鋤, 而木花則風雨受損, 間或改播, 晚黍粟·稷唐, 次第立苗, 晚稻豆·太, 幾畢耕播是如是白遣.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秋牟麥幾皆胚胎, 春牟早者方胎, 晚者漸茁, 早黍粟方張初鋤,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幾盡立苗, 而木花則冷雨所祟, 弱芽或損, 晚黍粟·稷唐, 耕種垂畢, 立苗伊始, 晚稻豆·太, 今方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向茂, 火粟始播是如是爲白有旆. 臣營下本月十四日辰時量又雨, 或霏或灑, 至未時量, 測雨器水深爲五分, 而一向陰暄是白如乎. 上旬再雨, 頗涉過中, 綿種雖患失宜, 各穀無甚爲害, 而晴曝未過數日, 又此霏灑, 不無太數之慮是白乎旆. 列邑所需多寡, 雨後農形利害,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강서 등 37개 고을에 이번 초1일부터 초3일까지의 우택 및 저의 감영의 초9일 측우기 수심이 3치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3일까지의 비로 희천·강계·위원·초산·벽동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 다. 초9일의 비로 평양·중화·자산·순천·정주·곽산·선천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순 안·영유·숙천·안주·가산·철산·용천·의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상원·삼등·강동·성천·

양덕·은산·개천·덕천·영원·맹산·박천·태천·구성·영변·운산 등 28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숙천·영유·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증화·상원·삼둥·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이삭을 베었고 간간이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절반 이상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목화는 비바람으로 손상을 입어 간혹 다시 씨앗을 뿌리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싹이 돋고 늦벼·콩·팥은 거의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이삭을 베고, 봄보리는 이른 것은 막 알을 배고 늦은 것은 점점 싹이 나오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중기장·올수수·올벼·목화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목화는 찬비 탓에 약한 싹이 더러 손상되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밭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치고 싹이 돋는 것이 이제 시작하고, 늦벼·콩·팥은 지금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무성해지고 화속은 씨앗 뿌리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4일 진시쯤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미시쯤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고 줄곧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상순에 다시 비가 내렸는데 자못 지나쳐서 목화는 비록 매우 걱정되지만 각종 곡식은 심하게 피해를 입은 것이 없습니다. 맑고 햇빛 내리쬐는 날이 며칠에 불과하고 또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니 매우 많은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 고을에 적셔진 양과 비온 뒤 농사 상황의 이익과 손해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4. 1822년(순조 22) 4월 19일(양력 6월 8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1책(70c-70d) / 關西啓錄 1책(95-95)

承政院開拆.

平壤等三十五邑今初九日雨澤及臣營下十四日測雨器水深爲五分, 而一向陰暄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時以後, 密雲不解, 十六日辰時量, 又爲灑霑, 至未時量, 測雨器水深爲八分, 而載陰載暘, 至十八日午時量乃霽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初九日之雨, 熙川·江界·渭原·楚山等四邑, 得一犁. 朔州·昌城·碧潼等三邑, 得一鋤. 十四日之雨, 中和·祥原·江東·永柔·肅川·定州·宣川·咸從·孟山等九邑, 得一犁. 平壤·順安·安州·嘉山·郭山·鐵山·龍川·義州·三登·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德川·寧遠·江西·龍岡·三和·甌山·博川·泰川·龜城·朔州·寧邊·雲山等二十六邑, 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 入月以後, 灑霑頻仍, 綿種間多損芽之患, 各穀實有愆鋤之歎是白乎旆. 未報邑雨澤, 向後農形, 隨其報來, 鱗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평양 등 35개 고을은 이번 초9일의 우택 및 저의 감영의 14일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고 줄곧 먹구름이 낀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뻥뻥한 구름이 풀어지지 않았고, 16일 진시쯤에 또 뿌려서 적셔졌다가 미시쯤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언뜻언뜻 흐리거나 햇별이 나다가 18일 오시쯤에 이르러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9일의 비로 회천·강계·위원·초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삭주·창성·벽동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14일의 비로 중화·상원·강동·영유·숙천·정주·선천·함중·맹산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순안·안주·가산·곽산·철산·용천·의주·삼등·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덕천·영원·강서·용강·삼화·증산·박천·태천·구성·삭주·영변·운산 등 2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달 들 비가 목화 각종 곡식의 실제로 김매기를 지체되어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5. 1822년(순조 22) 4월 26일(양력 6월 15일)

各司謄錄 29책, 關西啓錄 1책(72b-72d) / 關西啓錄 1책(97-97)

承政院開拆.

中和等三十五邑, 今十四日雨澤及臣營下十六日測雨器水深爲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四日之雨, 江界·渭原·楚山等三邑, 川渠微漲, 陽德·熙川·昌城·碧潼等四邑, 得二鋤. 十六日之雨, 平壤·順安·肅川·安州·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中和·祥原·江東·成川·龍岡·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德川·寧遠·孟山·博川·泰川·龜城·寧邊等二十七邑, 得一犁. 江西·三和·咸從·永柔·義州·三登·陽德·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朔州·昌城·碧潼等十五邑, 得一鋤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先穗者向實, 晚胎者發穗, 春牟幾皆抽穎, 早黍粟再鋤伊始,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初鋤垂畢, 晚黍粟·稷唐, 今方初鋤, 晚稻豆·太, 間始立苗是如是白遣.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秋牟麥已盡發穗, 春牟早或吐穗, 晚方含胎, 早黍粟幾訖初鋤,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方張初鋤, 晚黍粟·稷唐, 已皆立苗, 晚稻豆太, 已訖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始胎, 火粟畢播是如爲白有臥乎所. 稚苗頻雨, 方切愆鋤之患, 浹旬晴曝, 漸有就耘之幸是白如乎, 向後農形, 隨其報來, 鱗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중화 등 35개 고을의 이번 14일의 우택 및 저의 감영의 16일 측우기 수심이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강계·위원·초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양덕·회천·창성·벽동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먼저 이삭이 팬 것은 익어가고 늦게 이삭이 생긴 것은 이삭이 나왔고 봄보리는 거의 다 이삭이 나오고 올기장·

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콩·팥은 그사이에 싹이 돋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 16일의 비로 평양·순안·숙천·안주·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중화·상원·강동·성천·용강·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덕천·영원·맹산·박천·태천·구성·영변 등 2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서·삼화·함중·영유·의주·삼등·양덕·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삭주·창성·벽동 등 1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이삭이 맺고 봄보리 중 이른 것은 한창 이삭을 트이 나오고 늦은 것은 한창 알을 품었고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싹이 돋고 늦벼·콩·팥은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6. 1822년(순조 22) 5월 4일(양력 6월 22일)

各司謄錄 29책, 關西啓錄 1책(73c-74a) / 關西啓錄 1책(98-99)

承政院開拆.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五日驟雨, 平壤·順安·永柔·江西·龍岡·咸從·甌山·中和·江東·慈山·殷山·孟山等十二邑, 俱爲浥塵, 而平壤段, 佛谷·石多·甘草·抄道·西祭·龍山等六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太, 小如豆, 所經處長爲二十里許, 廣爲十五里許. 甌山段, 赤埏·師賢·象器等三面, 雨雹交下, 移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太, 所經處長爲二十里許, 廣爲三十里許. 慈山段, 雲巖·新鷹·豐陽等三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棗實, 小如豆, 所經處長爲十里許, 廣爲七里許. 殷山段, 縣內·林坡·厚德·楓田·樂天等五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橡實, 小如太, 所經處長爲四十五里許, 廣爲二十里許. 永柔段, 東部·中部·西部·蘇湖·蓮下·通湖·海栗·青池·禾山·白鷺·上里·德池等十二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栗子, 小如榛子, 所經處長爲三十五里許, 廣爲二十里許, 而各穀不甚爲害, 木花最多受損, 間或有代播之處是如爲白有臥乎所. 稚苗未茁, 驟雹爲災, 穀瘁之不深, 殊甚幸矣. 綿損之偏多, 誠爲悶然, 而節猶未晚, 就其最甚處, 題給種糧, 卽速代播之意, 另飭各該邑爲白乎旆. 臣營下今月初一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二日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向後農形利害, 隨其報來, 陸續登聞計料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5일 소나기로 평양·순안·영유·강서·용강·함흥·증산·중화·강동·자산·은산·맹산 등 12개 고을은 모두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평양의 경우, 불곡·석다·감초·초도·서제·용산 등 6개 면은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순식간에 이내 그쳤는데 우박의 모양은 큰 것은 팔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하였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20리가량이고 너비는 15리가량입니다. 증산의 경우, 적연·사현·상기 등 3개 면에 우박이 내리다가 그쳤는데 우박의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하였고, 우박이 거쳐간 곳의

길이는 20리가량이고 너비는 30리가량입니다. 자산의 경우, 운암·신웅·풍양 등 3개 면은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의 크기는 큰 것은 대추열매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하였고, 우박이 거쳐간 곳의 길이는 10리가량이고 너비는 7리가량입니다. 은산의 경우, 현내·임파·후덕·풍전·낙천 등 5개 면에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의 크기는 큰 것은 도토리열매만 하고 작은 것은 팔알만 하였다. 우박이 거쳐간 곳의 길이는 45리가량이고 너비는 20리가량입니다. 영유의 경우, 동부·중부·서부·소호·연하·통호·해율·청지·화산·백로·상리·덕지 등 12개 면은 우박이 어지러이 내렸는데 우박의 크기는 큰 것은 밤만 하고 작은 것은 개암만 하였다. 거쳐간 곳의 길이는 35리가량이고 너비는 20리가량입니다. 강한 우박이 소나기와 함께 내려 농작물과 각종 곡식에 막대한 손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2일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의 이익과 손해는 보고가 오는 대로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7. 1822년(순조 22) 5월 8일(양력 6월 26일)

各司謄錄 29책, 關西啓錄 1책(74a-74c) / 關西啓錄 1책(99-100)

承政院開拆.

臣營下本月初一日午時量, 始雨霏灑, 至初二日申時量, 測雨器水深爲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江西·龍岡·咸從·慈山·殷山·博川·泰川等十八邑, 得一犁, 平壤·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陽德·三和·甑山·雲山等十邑, 得一鋤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兩麥早或向熟, 晚方入實, 早黍粟再鋤纔畢,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再鋤伊始, 而木花則風雨迭損, 間多翻耕, 晚黍粟·稷唐, 纔半初鋤, 晚稻豆·太, 已皆立苗是如是白遣.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兩麥先穗者始實, 晚胎者盡穗, 早黍粟今始再鋤,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幾訖初鋤, 而木花則傷於陰濕, 舉患稀苗, 晚黍粟·稷唐, 間始初鋤, 晚稻豆·太, 方張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甦已盡發穗, 火粟舉皆立苗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初六日丑時量又雨, 或灑或霏, 間間止息, 至初八日丑時量, 測雨器水深爲二寸六分, 而一向陰翳, 姑無霽意是白如乎. 阻飢民情, 渴望麥秋, 而灑霏頻仍, 成熟差遲, 且綿種之多損, 禾鋤之隨愆, 俱爲可悶, 列邑所需多寡, 向後農形, 隨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2일 신시쯤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보고하였습니 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순안·영유·숙천·안주·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강서·용강·함중·자산·은산·박천·태천 등 1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양덕·삼화·증산·운산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온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밀·보리는 이른 것은 더러 익어가고 늦은 것은 막 알이 들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겨우 마쳤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는데 목화는 바람과 비에 번갈아 손상을 입어 그사이에 갈아엮은 것이 많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겨우 절반이나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콩·팥은 이미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밀·보리 중 먼저 이삭이 팬 것은 알이 들기 시작했고 늦게 알을 밴 것은 다 이삭이 뻗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거의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목화는 흐리고 습기가 많아서 손상을 입어 거의 싹이 드물까 걱정입니다. 늦기장·늦조·수수는 그 사이에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벼·콩·팥은 한창 싹이 돋았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가 이미 다 이삭이 뻗고 화속은 대부분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6일 축시쯤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간간이 그치기도 하다가 초8일 축시쯤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2치 8푼이었고 줄곧 짙은 구름이 끼어 아직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굽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심정상 보리 거두기를 애타게 바라지만 비가 뿌리거나 주룩주룩 빈번히 내려 익는 것이 조금 지체되어 또 목화는 많이 손상되고 벼도 김매기가 늦어져 모두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고을에 적서진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는대로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8. 1822년(순조 22) 5월 13일(양력 7월 1일)

各司謄錄 29책, 關西啓錄 1책(82a-82b) / 關西啓錄 1책(109-109)

承政院開拆.

順安等二十八邑, 自今初一日, 至初二日雨水形止及臣營下自初六日, 至初八日, 測雨器水深爲二寸六分, 而一向陰翳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時以後, 密雲不解, 初十日戌時量又爲灑霏, 至十一日酉時量, 測雨器水深爲二寸一分, 而載陰載陽, 十二日申時量乃霽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初一日二日之雨, 熙川·江界·渭原·楚山等四邑, 爲一犁. 順川·价川·德川·寧遠·孟山·寧邊·龜城·朔州·昌城·碧潼等十邑, 爲一鋤, 自初六日, 至初八日之雨. 平壤·順安·永柔·肅川·嘉山·定州·義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陽德·慈山·殷山·順川·价川·德川·寧遠·孟山·寧邊·龜城等二十七邑, 爲一犁. 安州·郭山·宣川·鐵山·龍川·博川·泰川·雲山等八邑, 爲一鋤, 而方熟之麴麥, 久患淋濕, 多有所損是如爲白有臥乎所. 兩麥已秋, 一雨連旬, 致愆收穫, 誠爲可悶, 繼此快晴, 方切顛企爲白乎旆. 未報邑所需多寡, 向後農形利害, 隨其報來, 鱗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순안 등 28개 고을에 이번 초1일부터 초2일까지 빗물의 경위 및 저의 감영에 초6일부터 초8일까지의 측우기 수심이 2치 6푼이고 줄곧 짙은 구름이 낀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뽁뽁한 구름이 풀어지지 않았고 초10일 술시쯤에 또 뿌리거나 주룩주룩 내리다가 11일 유시쯤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2치 1푼이었고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12일 신시쯤에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1일·초2일의 비로 희천·강계·위원·초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순천·개천·덕천·영원·맹산·영변·구성·삭주·창성·벽동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초6일부터 초8일까지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가산·정주·의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양덕·자산·은산·순천·개천·덕천·영원·맹산·영변·구성 등 2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안주·곽산·선천·철산·용천·박천·태천·운산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막 익어가는 밀·보리가 비에 젖을까 오랫동안 걱정했

는데 많이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밀·보리는 이미 수확할 시기인데 연이어 10일동안
줄곧 비가 내려 수확이 늦어져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끔하게 개이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적셔진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의
이익과 손해는 보고가 오는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
다.

0019. 1822년(순조 22) 5월 18일(양력 7월 6일)

各司謄錄 29책, 關西啓錄 1책(84a-84c) / 關西啓錄 1책(111-112)

承政院開拆.

平壤等三十五邑, 自今初六日至初八日, 雨水形止及臣營下自初十日至十一日測雨器水深爲二寸六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自初六日, 至初八日之雨, 江界·渭原·楚山等三邑, 川渠微漲, 熙川·朔州·昌城·碧潼等四邑, 爲一犁. 自初十日, 至十一日之雨,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定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陽德·慈山·殷山·順川·价川·德川·寧遠·孟山·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泰川·龜城·寧邊等二十八邑, 爲一犁. 博川·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雲山·熙川等八邑, 爲一鋤, 而其中成川·孟山兩邑段, 方其雨下, 大風兼作, 已熟之粳麥, 多有磨剝之患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兩麥幾盡成熟, 次第刈穫, 早黍粟節屆胚胎, 三鋤僅始,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再鋤垂畢, 晚黍粟·稷唐, 幾訖初鋤, 晚稻豆·太, 方始初鋤, 根耕小豆·木麥, 隨其穫粳, 間間耕播, 而雨水頻仍, 鋤耘舉患差遲, 東風連吹, 粟綿間多萎縮是如是白遣.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兩麥方張黃熟, 間或刈取, 早黍粟纔訖再鋤,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間始再鋤, 晚黍粟·稷唐, 纔半初鋤, 晚稻豆·太, 已盡立苗, 而既雨且風久患陰濕, 旱耕水播, 卉穢隨蔓, 黍粟木花, 莖葉或萎.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入實, 火粟始鋤是如爲白有臥乎所. 冷雨彌月, 東風式日, 愆鋤痒稼, 殊甚可悶, 繼此調候, 方切顒望爲白乎旆. 未報邑雨水多寡, 向後農形, 隨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평양 등 35개 고을의 이번 초6일부터 초8일까지의 빗물 경위 및 저의 감영에 초10일부터 11일까지의 측우기 수심이 2치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6일부터 초8일까지의 비로 강계·위원·초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회천·삭주·창성·벽동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초10일부터 11일까지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가산·정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양덕·자산·은산·순천·개천·덕천·영원·맹산·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태천·구성·영변 등 2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박천·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운산·희천 등 28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그 중 성천·맹산 2개 고을의 경우, 막 비가 내리는 데다가 큰 바람이 더불어 불어 이미 익었던 보리가 벗겨질까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밀·보리는 거의 다 익어 차례로 베어 수확하고 올기장·올조는 절기가 이삭을 베는 시기가 닥쳐 세벌 김매기를 겨우 시작했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그루갈이하는 콩·메밀은 수확하는대로 간간이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는데, 빗물이 빈번하여 이내 김매기가 지체될까 걱정이 들었고 동풍이 연이어 불어 조·목화는 그사이에 쭈그러진 것이 많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밀·보리는 한창 누렇게 익어 간혹 베어 거두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겨우 마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그사이에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겨우 절반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콩·팥은 이미 다 싹이 돋았는데 이미 비가 내린 데다가 또 바람까지 불어 흐리고 습기가 많아 오랫동안 걱정했고, 밭농사와 논농사에 잡초가 무성하게 번졌고, 기장·조·목화는 줄기와 잎이 더러 시들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알이 들고 화속은 김매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찬비가 한 달 동안 내리고 동풍이 매일 불어 김매기가 늦어지고 곡식에 병이 생겨 매우 걱정입니다. 이렇게 계속 날씨가 고르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빗물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는대로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0. 1822년(순조 22) 5월 25일(양력 7월 13일)

各司謄錄 29책, 關西啓錄 1책(86a-86b) / 關西啓錄 1책(114-114)

承政院開坼.

平壤等三十六邑, 自今初十日, 至十一日雨水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江界·渭原·楚山·朔州·昌城·碧潼等六邑, 爲一犁. 十四日驟雨, 寧遠·楚山·龍川等三邑, 爲一犁. 江東·三登·陽德·龍岡·三和·咸從·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義州·博川·泰川·龜城·寧邊·雲山·价川·德川·朔州·昌城·渭原等二十二邑, 爲一鋤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二十三日酉時量始雨, 或灑或霖, 間間滂沱, 至二十四日巳時量, 測雨器水深爲三寸一分, 而一向陰翳是白如乎. 間晴一句, 纔收兩麥, 根耕方張, 沛洽雖幸, 霖逾三寸, 稍涉過多是白乎旆. 列邑所需多寡, 向後農形, 隨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평양 등 36개 고을의 이번 초10일부터 11일까지의 빗물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계·위원·초산·삭주·창성·벽동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14일의 소나기로 영원·초산·용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동·삼등·양덕·용강·삼화·함중·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의주·박천·태천·구성·영변·운산·개천·덕천·삭주·창성·위원 등 2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3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간간이 콕콕 쏟아지기도 하다가 24일 사시쯤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1푼이었고, 줄곧 짙은 구름이 끼었습니다. 그사이에 10일 정도 맑아서 겨우 밀·보리를 거두었고, 그루갈이가 한창인데 흡족하게 쏟아져 비록 다행이지만 주룩주룩 3치 넘게 내린 것은 조금 지나치게 많은 듯 합니다. 여러 고을에 적서진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되는 대로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1. 1822년(순조 22) 5월 28일(양력 7월 16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1책(87d-88b) / 關西啓錄 1책(116-117)

承政院開拆.

臣營下本月二十三日酉時量, 始雨灑霏, 至二十四日巳時量, 測雨器水深爲三寸一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肅川·永柔·安州·慈山·殷山·順川·价川·德川·寧遠·成川·雲山等十三邑, 川渠漲滿, 中和·祥原·三登·江東·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寧邊·博川等十一邑, 恰過一犁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兩麥已盡收穫, 早黍粟纔了三鋤, 幾皆胚胎,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間始三鋤, 晚黍粟·稷唐, 再鋤伊始, 晚稻豆·太, 初鋤垂畢, 根豆·木麥, 過半耕播, 而先播者間間立苗是如是白遣.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兩麥方張刈取早黍粟今始三鋤, 間或胚胎,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幾訖再鋤, 晚黍粟·稷唐, 纔畢初鋤, 晚稻豆·太, 今方初鋤, 根豆·木麥, 隨其獲車, 次第耕種.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日漸成熟, 火粟纔半初鋤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二十七日巳時量又雨, 或灑或霏, 至申時量, 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 而一向雲陰是白如乎. 兩麥今已登場, 若論其一路豐歉, 則自苗至穗, 俱爲善就, 及其成熟, 因潦差損, 以南以北, 別無優劣, 而一句適晴, 四野齊獲, 雖未大登, 優過小熟, 歉餘民事, 誠爲萬幸是白乎旆. 各穀則庚節已屆, 鋤期多愆, 早僅三除, 晚纔初訖, 而灑霏頻仍, 霖意向存, 治穢靡暇, 望晴方切, 列邑所需多寡, 向後農形利害, 隨其報來, 鱗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3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뿌리거나 주룩주룩 내리다가 24일 사시쯤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3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숙천·영유·안주·자산·은산·순천·개천·덕천·영원·성천·운산 등 1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중화·상원·삼등·강동·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영변·박천 등 11개 고을은 거의 1려가 지

났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중화·상원·삼둥·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밀·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마치고 거의 다 알을 배웠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그사이에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고 늦벼·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하는 콩·메밀은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하고 먼저 씨앗을 뿌린 것은 간간이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밀·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간혹 알을 배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거의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방금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벼·콩·팥은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보리를 수확하는대로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날로 점점 익어가고 화속은 방금 절반 초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7일 사시쯤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신시쯤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고, 줄곧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밀·보리는 지금 이미 타작을 하였습니다. 만약 온 도의 풍흉을 따지자면 싹 트면서부터 이삭 패기까지 모두 잘 이루어졌습니다. 익어갈 즈음에 장마로 인해 약간 손상을 입었습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별달리 좋고 나쁨의 차이는 없습니다. 10일동안 마침 맑아서 사방의 들에서 일제히 수확했습니다. 비록 큰 풍년은 아니지만 여유있게 조금 익었고 흉년든 끝이니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각종 곡식은 복날 계절이 이미 닳았는데 김매기 시기가 많이 늦어졌고 일찍 심은 것은 겨우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은 것은 방금 초벌 김매기를 마쳤습니다. 뿌리거나 주룩주룩 빈번히 내렸고 장마질 조짐이 여전히 있어 김매기 하는데 겨를이 없습니다. 맑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야흐로 간절합니다. 여러 고을의 적서진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의 이익과 손해는 보고가 오는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2. 1822년(순조 22) 6월 3일(양력 7월 20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1책(91c-91d) / 關西啓錄 1책(122-123)

承政院開坼.

平壤等二十四邑去月二十三日四日雨水形止及臣營下二十七日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 而一向雲陰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日以後載陰載陽, 二十八日巳時量, 駁雲四散, 仍爲開霽, 而連接各邑所報, 則二十三日四日之雨, 嘉山·定州·龍川·孟山·泰川·昌城·碧潼·楚山等八邑, 川渠漲滿, 陽德·熙川·郭山·宣川·鐵山·義州·龜城·朔州·江界·渭原等十邑, 爲一犁. 二十七日之雨, 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博川·泰川·龜城·慈山·殷山·寧遠等十七邑, 川渠汎濫. 平壤·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順川·价川·德川·寧邊·甑山等十一邑, 爲一犁. 江西·龍岡·三和·咸從·雲山等五邑, 恰過一鋤, 而其中郭山·宣川·鐵山·龍川段, 傍浦之地, 或致潰覆, 汚下之處, 間被沈墊是如爲白有臥乎所. 郭山等四邑之偏受潦害, 雖甚可悶, 數日以來, 幸得快晴, 旱鋤水耘, 庶期齊舉是白乎旆. 未報邑所需多寡, 向後農形, 待其報來, 隨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평양 등 24개 고을의 지난달 23일·24일의 빗물 경위 및 저의 감영의 27일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이었고 줄곧 짙은 구름이 끼었던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보고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28일 사시쯤에 얼룩구름이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3일·24일의 비로 가산·정주·용천·맹산·태천·창성·벽동·초산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양덕·희천·곽산·선천·철산·의주·구성·삭주·강계·위원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27일의 비로 순안·영유·숙천·안주·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박천·태천·구성·자산·은산·영원 등 1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범람하였고, 평양·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순천·개천·덕천·영변·증산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서·용강·삼화·함중·운산 등 5개 고을은 거의 1서가 지났고, 그 중 곽산·선천·철산·용천 등 4개 고을의 경우, 포구 근처 땅은 더러 터지거나 모래로 덮였고 낮은 곳은 그사이에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곽산 등 4개

고을은 매우 장마 피해를 입어 비록 매우 걱정스럽지만 며칠 이래로 다행히 말끔하게 개어 발매기·논매기를 거의 일제히 거행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적셔진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의 이익과 손해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3. 1822년(순조 22) 6월 8일(양력 7월 25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1책(94c-95a) / 關西啓錄 1책(127-128)

承政院開坼.

順安等三十三邑去月二十七日雨水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熙川·江界·渭原·楚山·昌城·碧潼等六邑, 川渠漲滿. 陽德·孟山·朔州等三邑, 爲一犁, 而其中江界段, 化景前川眞木三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鳥卵, 所經處長爲十五里許, 廣爲五里許, 各穀無不被損, 甚者至於代播之境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方張四鋤, 已盡發穗, 而早潦所崇, 穎多尖短, 中黍粟幾了三鋤, 次第胚胎, 早稷唐·早稻·木花, 過半三鋤, 晚黍粟·稷唐, 已畢再鋤, 晚稻豆·太, 方始再鋤, 根豆·木麥, 已苗者漸次向青, 晚播者間或立苗是如是白遣.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早黍粟已訖三鋤, 間始發穗,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今方三鋤, 晚黍粟·稷唐, 再鋤伊始, 晚稻豆·太, 初鋤垂畢, 根豆·木麥, 幾訖耕播, 而先播者間間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已皆刈穫, 隨以根耕, 火粟纔畢初鋤是如爲白有臥乎所. 江界三面之驟雹爲災, 殊甚悶歎, 而幅既不闊節猶未晚, 就其最甚處, 題給種糧, 卽速代播之意, 另加申飭爲白乎旆. 黍粟之早潦受痒, 根厚莖細, 沿浹均患, 而外此各穀, 近因日候之調適, 頗有蘇醒之意是白如乎. 嗣後農形, 隨其報來, 陸續登間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순안 등 33개 고을의 지난달 27일 빗물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희천·강계·위원·초산·창성·벽동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양덕·맹산·삭주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그중 강계의 경우 화정·전천·직목 등 3개 면은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순식간에 이내 그쳤는데, 우박의 모양은 큰 것은 새알만하였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15리가량이고 너비는 5리가량입니다. 각종 곡식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 없는데 심한 것은 대신 씨앗을 뿌리는

지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중화·상원·삼둥·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네벌 김매기를 하고 이미 다 이삭이 켜는데, 이른 장마가 빌미가 되어 이삭은 대부분 뽕족하고 짧았고, 중기장·중조는 거의 세벌 김매기를 마치고 차례로 알을 배웠고, 올수수·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벼·콩·팥은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이미 싹이 난 것은 점차 푸르러졌고 늦게 씨앗을 뿌린 것은 간혹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사이에 이삭이 패기 시작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지금 막 세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벼·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하는 콩·메밀은 거의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고 먼저 씨앗을 뿌린 것은 간간이 싹이 돋았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이미 다 베어 수확했 잇따라 그루같이해를 했고, 화속은 방금 초벌 김매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강계의 3개면은 갑작스런 우박이 재해가 되었으니 특히 매우 걱정이고 한탄스럽습니다. 폭은 이미 넓지 않았고 절기도 아직 늦지 않았는데 그중 가장 심한 곳에 처음으로 종자 곡식을 주어 즉시 대신 씨앗을 뿌리라는 뜻으로 별도로 단단히 지시했습니다. 기장·조는 이른 장마로 병이 들어 뿌리는 튼튼하지만 줄기는 가늘었고 물가나 산골짜기 모두 근심입니다. 하지만 이밖에 각종 곡식은 요즘 날씨가 적당하여 자못 되살아날 조짐이 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는대로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4. 1822년(순조 22) 6월 18일(양력 8월 4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1책(102d-103b) / 關西啓錄 1책(138-139)

壬午六月十八日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六日驟雨, 江西·龜城·昌城·寧遠·孟山等五邑, 得一鋤. 中和·祥原·江東·成川·順安·咸從等六邑, 僅爲浥塵, 十四日驟雨. 三登·江東·价川·泰川等四邑, 得一鋤. 順安·殷山·成川·龍岡等四邑, 浥塵而止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幾皆入實, 中黍粟已盡發穗, 晚黍粟三鋤垂畢, 胚胎伊始, 早稷唐·早稻, 舉皆胚胎, 木花方張起花, 晚稷唐幾訖三鋤, 晚稻豆·太, 已畢再鋤. 根豆·木麥, 方始初鋤, 而近因嘆乾, 黍粟之入實者, 未能堅碩, 發穗者多致尖短, 胚胎者或患含縮, 無源泉之畝稻, 高燥處之豆·太, 俱被萎枯是如是白遣.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早黍粟先穗者始實, 中黍粟早胎者或穗, 而帶旱抽穎, 尖而且疎, 早稷唐·早稻, 次第胚胎, 木花初雖稀苗, 間因暘曝, 見存者頓蘇始花. 晚黍粟·稷唐, 已訖再鋤, 晚稻豆·太, 今方再鋤, 根豆木麥, 先苗者始鋤, 晚播者尙或未苗, 而燥田高畝, 惱旱轉甚, 莖葉多萎.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再鋤, 根耕小豆·木麥畢播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十五日戌時量, 驟雨霑下, 不移時乃止, 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如乎. 去月廿七日以後晴霽, 轉成慳閔, 一早已滿兩旬, 早稼晚種, 舉患萎損, 而若而邑之間得鋤浥, 猶未免沃焦. 十五日之雲施驟霑, 亦不足解渴, 旣始旋止, 終斬普洽, 言念民事, 誠甚憂閔, 及今沛然, 方切顙望爲白乎旆. 向後農形, 隨其報來, 鱗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의 경우,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초6일 소나기로 강서·구성·창성·영원·맹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중화·상원·강동·성천·순안·함중 등 6개 고을은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14일의 소나기로 삼등·강동·개천·태천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순안·은산·성천·용강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증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중기장·중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늦기장·늦조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알을 배기를 이제 시작했고 올수수·올벼는 대부분 알을 났고 목화는 한창 꽃이 피고 늦수수는 거의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벼·콩·팥은 이미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변·영원·맹산·양덕·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먼저 이삭이 났을 것은 열매가 들고 중기장·중조는 먼저 알이 났을 것은 더러 이삭이 났고 가뭄으로 이삭이 난 것은 뽕죽하고 성글고, 올수수·올벼는 차례로 알을 배고 목화는 처음에 드물게 싹이 돋았고 그 사이에 내리쬐는 햇볕으로 인해 현재 남은 것은 완전 되살아나 꽃피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벼·콩·팥은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먼저 싹이 난 것은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게 싹을 틔운 것은 아직 더러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메마른 밭과 높은 곳의 논은 더욱 심하게 가뭄에 시달려 줄기와 잎은 많이 시들었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5일 술시쯤에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다가 얼마 안되어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맑게 개었다가 도리어 비가 오지 않고 한번 가물더니 이미 20일을 채웠고 이른 곡식이든 늦은 종자든 대부분 시들어 손상될까 근심입니다. 만약 고을 사이에 1서나 먼지만 적실 정도라도 내리더라도 오히려 가마솥에 물방울 떨어지는 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15일의 갑작스럽게 세차게 주룩주룩 내렸지만 또한 해갈하기에 부족한데 이미 그치기 시작했고 끝내 흡족하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지금 쏟아지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는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5. 1822년(순조 22) 6월 21일(양력 8월 7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1책(104b-104c) / 關西啓錄 1책(140-140)

承政院開坼.

臣營下今十五日驟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宣川·義州·昌城等三邑, 得一鋤. 平壤·順安·永柔·龍岡·三和·殷山·龍川等七邑, 恰爲浥塵. 十六日驟雨, 中和·咸從·定州·宣川·雲山等五邑, 得一鋤. 祥原·江西·肅川·安州·嘉山·郭山·博川·龍川·龜城等九邑, 僅爲浥塵. 十七日八日驟雨, 江西·永柔·慈山·价川·成川·三登·郭山·宣川等八邑, 得一鋤. 祥原·嘉山兩邑, 浥塵而止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十九日卯時量, 驟雨一場霑下, 二十日午時量, 密雲油然, 或灑或霑, 間間止息, 至二十一日巳時量, 測雨器水深, 合爲二寸, 而一向陰暄是白如乎. 兩旬亢旱之餘, 驟雨間雖時行, 浥塵之處, 別無所賴, 鋤霑之邑, 僅或救急, 而若渴惜飲, 望霓轉甚, 際茲甘澍, 幸得二寸, 一路如果均霑, 則田穀庶期勃興, 畚農尙多未洽, 繼又一霑, 益切願祝爲白乎旆. 列邑所得多寡, 雨後農形, 隨其報來, 鱗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15일 소나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선천·의주·창성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양·순안·영유·용강·삼화·은산·용천 등 7개 고을은 거의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16일의 소나기로 중화·함종·정주·선천·운산 등 5개 고을에 1서가 내렸고, 상원·강서·숙천·안주·가산·곽산·박천·용천·구성 등 9개 고을은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17일·18일의 비로 강서·영유·자산·개천·성천·삼등·곽산·선천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상원·가산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에 그쳤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9일 묘시쯤에 소나기가 한바탕 주룩주룩 내렸고 20일 오시쯤에 뽁뽁한 구름이 피어오르다가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고 간간이 그치다가 21일 사시쯤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총 2치이었고, 줄곧 짙은 구름이 끼었습니다. 20일 가뭄 끝에 소나기가 비록 그사이에 때때로 내렸으나 먼지만 적실 정도인 곳에 별달리 도움된 곳이 없고 1서 정도 적서진

고을은 겨우 더러 다급함을 구했습니다. 목마르듯한 가뭄으로 더욱 심하게 무지개만 바라는 이즈음에 단비가 다행히 2치가 내려서 온 도가 마치 고루 적셔진 듯 하고 밭곡식은 거의 발흥되기를 기대하고 논농사는 여전히 많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또 계속 한바탕 주룩주룩 내리기를 더울 간절히 빕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과 비온 뒤의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는 대로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6. 1822년(순조 22) 6월 25일(양력 8월 11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1책(107c-107d) / 關西啓錄 1책(145-145)

承政院開坼.

臣營下自今十九日, 至二十一日, 測雨器水深爲二寸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六日驟雨, 江界得二犁, 朔州·熙川兩邑, 得一鋤. 十七日八日驟雨, 咸從·寧遠·龍川·義州·寧邊·雲山·泰川·昌城等八邑, 得一犁. 順安·中和·甑山·江東·德川·熙川等六邑, 得一鋤. 安州·肅川·陽德·鐵山等四邑, 恰爲浥塵. 自十九<日>, 至二十一日之雨, 江西·龍岡·咸從·中和·慈山·義州等六邑, 得二犁. 平壤·順安·永柔·肅川·博川·龜城·祥原·三登·陽德·三和·甑山·殷山·价川·寧邊·雲山等十五邑, 得一犁. 江東·成川·順川·安州·嘉山·定州·郭山·宣川等八邑, 得一鋤, 而旱餘各穀, 舉有勃興之望是如爲白有臥乎所. 今番之雨, 灑霍似驟, 鋤犁雖不等, 田穀則燥濕俱洽, 畚農則污脊差殊, 而至若荐得驟霍之處, 亦可以剩於貯水, 三農從此慰滿, 民事誠爲萬幸是白如乎. 未報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에 이번 19일부터 21일까지의 측우기 수심이 2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6일의 소나기로 강계는 2려가 내렸고 삭주·회천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17일·18일의 비로 함중·영원·용천·의주·영변·운산·태천·창성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순안·중화·증산·강동·덕천·회천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안주·숙천·양덕·철산 등 4개 고을은 거의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의 비로 강서·용강·함중·중화·자산·의주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양·순안·영유·숙천·박천·구성·상원·삼등·양덕·삼화·증산·은산·영변·운산 등 1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동·성천·순천·안주·가산·정주·곽산·선천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가뭄 끝에 각종 곡식은 대부분 발흥할 가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비로 뿌리거나 주룩주룩 내리는 것이 소나기 같고 1서나 1려가 비록 같지 않지만 밭곡식은 마르거나 축축한 곳 모두 흡족하고, 논농사는 낮은 곳이나 등성이가 조금 다르지만, 거둬 세차게 주룩주룩 내린 곳의 경우는 남은 것으로 물을 담을 수 있고 삼농이 이로부터 위로하고

채워주니, 백성의 사정상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
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7. 1822년(순조 22) 6월 28일(양력 8월 14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1책(108a-108c) / 關西啓錄 1책(146-146)

承政院開坼.

江西等二十九邑, 自今十九日, 至二十一日, 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德川·寧邊·孟山·泰川·朔州·渭原等六邑, 得一犁. 鐵山·龍川·熙川·江界·楚山·昌城·碧潼等七邑, 得一鋤. 二十五日驟雨, 龍川·雲山兩邑, 得一犁, 嘉山·价川·鐵山等三邑, 得一鋤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幾盡成熟, 間或刈取, 中黍粟方張入實, 晚黍粟·早稷唐·早稻, 已皆發穗, 晚稻纔了三鋤, 而乾播垆畝, 始愆入鋤, 終患貯水, 受瘁不少, 木花早花始顯, 晚藥連開, 晚稷唐過半胚胎, 豆·太方始起花, 根豆·木麥, 已訖初鋤, 日漸向苗是如是白遣.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早黍粟先實者向熟, 晚穗者入實, 中黍粟已盡發穗, 間間向實, 晚黍粟三鋤垂畢, 胚胎伊始, 早稷唐·早稻, 次第發穗, 晚稻間始三鋤, 而海坂斥鹵, 乾濕不適, 水耘俱愆, 難期成就, 木花爛漫起花, 晚稷唐豆·太, 幾了三鋤, 根豆·木麥, 舉皆立苗, 今方初鋤.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三鋤, 根豆·木麥立苗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二十八日午時量驟雨, 一場霑下, 不移時乃止, 測雨器水深爲九分是白如乎. 廿一之霈, 一路均霑, 念五之驟, 五邑尤利, 而但其燥畝貯水, 雖甚節晚之歎, 至若山野各穀, 俱有善就之望是白在如中, 又得此九分之霑, 今雨所及之處, 始花之豆·太, 纔苗之根耕, 益可見膏潤之喜, 列邑得雨多寡, 向後農形, 隨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강서 등 29개 고을의 이번 19일부터 21일까지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덕천·영변·맹산·태천·삭주·위원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철산·용천·회천·강계·초산·창성·벽동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25일의 소나기로 용천·운산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가산·개

천·철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어 간혹 베어 거두었고, 중기장·중조는 한창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올수수·올벼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방금 마쳤는데,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동답은 처음에 김매기가 지체되어 끝내 물을 댈 걱정인데 병든 것이 적지 않고, 목화는 일찍 이른 것은 다래가 맺히기 시작하고 수수는 절반 이상 알을 배고 콩·팥은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날로 점점 싹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먼저 열매가 든 것은 익어가고 늦게 이삭이 나온 것은 열매가 들고 중기장·중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간간이 열매가 들고 늦기장·늦조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알을 배기를 이제 시작했고 올수수·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났고 늦벼는 간간이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목화는 활짝 꽃이 피고 수수·콩·팥은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거의 싹이 돋고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8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소나기와 내리다가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21일에 비가 쏟아져 온 도를 고루 적시고 25일의 소나기로 5개 고을은 더욱 이로운데, 다만 건조한 밭에 물을 대어 비록 매우 늦었다는 탄식이 있지만 산과 들의 각종 곡식 모두 잘 여물듯 합니다. 또 구훈의 단비를 얻어 비가 내린 곳은 비로서 콩·팥의 꽃이 피고 그루같이 모에 싹이나 더욱 기름지고 윤택함에서 오는 기쁨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여러 고을에 내린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는 대로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8. 1822년(순조 22) 7월 4일(양력 8월 20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2책(110d-111a) / 關西啓錄 2책(4-4)

龍川等五邑去月二十五日雨澤及臣營下二十八日驟霪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去二十五日之雨，慈山·宣川·泰川·義州·江界等五邑得一犁，熙川·龜城·昌城·碧潼等四邑得一鋤是如爲白有旂。臣營下本月初二日未時量始雨，或灑或霪，有時滂沱，至初四日丑時量，測雨器水深，合爲五寸六分，而一向陰翳是白如乎。廿五之霪，僅爲若而邑所賴，念八之霪，只是霎時間驟過，而隔旬稍悶，方切望霓，際此沛霪，民事萬幸，列邑所得多寡，向後農形，隨其報來，鱗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용천 등 5개 고을의 지난달 25일 우택 및 저의 감영에 28일 세차게 주룩주룩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 25일의 비로 자산·선천·태천·의주·강계 등 5개 고을에 1려가 내렸고, 희천·구성·창성·벽동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2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한때 짹짹 쏟아지다가 초4일 축시쯤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총 5치 6푼이었고 줄곧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는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9. 1822년(순조 22) 7월 8일(양력 8월 24일)

各司謄錄 29책, 關西啓錄 2책(111a-111c) / 關西啓錄 2책(4-5)

臣營下本月初二日未時量, 始雨灑霏, 至初四日丑時量, 測雨器水深爲五寸六分, 而一向陰翳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時以後, 或霏或歇, 載陰載陽, 至初六日未時量乃霽, 而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中和·祥原·三登·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順川·价川·博川·寧邊·雲山等二十四邑, 大小川渠, 俱爲漲溢. 慈山·殷山·德川·寧遠·孟山·江東·成川等七邑得二犁, 畚水隨處剩貯, 田種無不勃興, 而其中甑山·咸從·安州·郭山等四邑段, 傍浦垆淤或致潰覆, 汚田禾稼間被沈曳是如爲白有旂.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已畢收穫, 中黍粟幾皆成熟, 晚黍粟·早稷唐·早稻, 方張入實. 晚稻之趁節貯水者, 間始發穗, 木花顆房纍纍, 斂青漸堅, 晚稷唐過半發穗, 豆·太爛漫起花, 根豆·木麥幾了再鋤是如是白遣.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早黍粟先熟者方刈, 晚實者幾熟, 中黍粟漸次向熟, 晚黍粟·早稷唐·早稻已盡發穗, 晚稻海坂愆鋤者外, 舉皆胚胎, 木花早花方顆, 晚藥連開, 晚稷唐次第發穗, 豆·太方始起花, 根豆·木麥已訖初鋤, 日漸向茁.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始穗, 根豆·木麥初鋤是如爲白有臥乎所. 甑山等四邑之浦垆或潰, 沿穀間沈, 雖爲可悶, 涉夏以來, 今雨始洽, 而霑既及時霽亦得宜, 旱種水稼, 頓然改觀, 慰滿三農, 民事萬幸, 遠邑得雨多寡, 嗣後農形成就, 隨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2일 미시쯤에 비가 뿌리거나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하여 초4일 축시쯤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5치 6푼이고 줄곧 먹구름이 낀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중화·상원·삼둥·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순천·박천·영변·운산 등 24개 고을은 크고 작은 하천 독이 불어나 가득찼고, 자산·은산·덕천·영원·맹산·강동·성천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습니다. 그 중 증산·함중·안주·곽산

등 4개 고을은 전답이 물에 잠기고 떠내려가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수확이 이미 마치고 중기장·중조는 거의 익었고 늦기장·늦조·올수수·올벼는 한창 알이 들고 늦벼는 간간이 이삭이 패기 시작하고 목화는 다래 방이 점차 굳어지고 수수는 절반 이상 이삭이 패고 콩·팥은 활짝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먼저 익은 것은 베어 거두었고 중기장·중조는 점차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올수수·올벼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늦벼는 대부분 알을 뻗고 있습니다. 목화는 꽃방 열매가 맺히고 수수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콩·팥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치고 날로 점점 싹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먼 고을에 내린 비의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의 성취는 보고가 오는대로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0. 1822년(순조 22) 7월 18일(양력 9월 3일)

各司謄錄 29책, 關西啓錄 2책(118b-119a) / 關西啓錄 2책(13-13)

平壤等三十一邑, 自今初二日, 至初四日雨澤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泰川·龜城·朔州·碧潼·江界等五邑江川微漲, 陽德·熙川·義州·昌城·渭原·楚山等六邑, 得二犁. 十一日二日驟雨, 肅川·嘉山·郭山·龍川·義州等五邑川渠漲溢, 中和·祥原·永柔·安州·定州·殷山·順川·价川·寧遠·孟山·寧邊·熙川等十二邑, 得一犁, 順安·江東·成川·雲山·宣川等五邑得一鋤, 江西·咸從·三登·博川·泰川·龜城·鐵山等七邑恰爲浥塵. 而其中順川段, 方其雨下, 風亦疾吹, 山耕之稼, 或致磨戛, 郭山段, 纔經初四之漲, 又添今番之水, 浦近之田, 間被沈漬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中黍粟次第刈取, 晚黍粟·早稷唐·早稻幾皆成就, 晚稷唐今方向實, 晚稻已盡發穗, 木花早穎始綻, 晚穎漸堅, 豆·太間結針繭, 根豆·木麥方張起花是如是白遣.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早黍粟畢穫, 中黍粟始刈, 晚黍粟·早稷唐·早稻日漸入實, 晚稷唐舉皆發穗, 晚稻過半發穗, 木花連爲結穎, 豆·太爛漫起花, 根豆·木麥已訖再鋤, 間間起花.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盡穗, 根豆·木麥再鋤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十六日丑時量始雨, 或灑或霏, 有時滂沱, 至未時量, 測雨器水深爲三寸三分, 而載陰載陽, 十七日午時量開霽是白如乎. 順川山稼之偏受風損, 郭山浦田之荐被水害, 雖或可悶, 颺吹暫浸, 不至深瘁, 而早稷既始, 晚種漸就, 沿峽見有均熟之望, 民事誠爲萬幸, 列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31개 고을의 이번 초2일부터 초4일까지의 우택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2일부터 초4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태천·구성·삭주·벽동·강계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양덕·회천·의주·창성·위원·초산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습니다. 11일·12일의 소나기로 숙천·가산·곽산·용천·의주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중화·상원·영유·안주·정주·

은산·순천·영원·영변·맹산·회천 등 12개 고을에 1려가 내렸고 순안·강동·성천·운산·선천 등 5개 고을에 1서가 내렸고, 강서·함중·삼등·박천·태천·구성·철산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중기장·중조는 차례로 베어 거두었고 늦기장·늦조·울수수·올벼는 거의 익어가고 수수는 알이 들고 늦벼는 이미 다 이삭이 뻗고 묵화는 이른 다래는 벌어지기 시작하고 콩·팥은 간간이 줄기침이 맺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꽃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수확을 마치고 중기장·중조는 베기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울수수·올벼는 날로 점점 점점 알이 들고 수수는 거의 이삭이 뻗고 늦벼는 절반 이상 이삭이 뻗고 묵화는 연속 다래가 맺히고 콩·팥은 활짝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치고 간간이 꽃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6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가랑비와 장맛비가 내리다가 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는 대로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1. 1822년(순조 22) 7월 22일(양력 9월 7일)

各司謄錄 29책, 關西啓錄 2책(119d-119d) / 關西啓錄 2책(14-15)

臣營下本月十六日, 測雨器水深爲三寸三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江西·龍岡·三和·咸從·肅川·慈山·殷山·順川·价川·孟山·博川·龜城·郭山等十三邑川渠漲滿, 順安·安州·宣川·鐵山·龍川·義州等六邑得二犁, 平壤·永柔·嘉山·定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甑山·德川·寧遠·寧邊·雲山·泰川等十五邑得一犁, 而其中咸從·郭山段, 疾風兼作, 已熟之稼, 多被磨損方穗之穀, 或患披靡是如爲白有臥乎所. 咸郭兩邑之偏受風損, 雖甚可悶, 雨旣旋霽, 日又連調, 沿峽諸稼, 舉有善就之望是白如乎. 遠邑所得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6일 측우기 수심이 3치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서·용강·삼화·함중·숙천·자산·은산·순천·맹산·박천·구성·곽산 등 1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순안·안주·선천·철산·용천·의주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양·영유·가산·정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증산·덕천·영원·영변·운산·태천 등 15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먼 고을에 내린 비의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2. 1822년(순조 22) 7월 28일(양력 9월 13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2책(123a-123b) / 關西啓錄 2책(19-19)

江西等三十四邑, 本月十六日雨澤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陽德·江界·渭原·碧潼等四邑川渠漲滿, 熙川·朔州·昌城·楚山等四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中黍粟畢穫, 晚黍粟·早稷唐·早稻始刈, 晚稷唐日漸就熟, 晚稻過半入實, 木花今方摘拾, 豆·太間多入實, 根豆·木麥方始結顆是如爲白遣.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中黍粟方張刈取, 晚黍粟·早稷唐·早稻幾皆成熟, 晚稷唐已盡入實, 晚稻漸次就實, 木花間或摘取, 豆·太始結針繭, 根豆·木麥爛漫起花.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向實, 根豆·木麥起花是如爲白有臥乎所. 秋序未半, 早稼次第登場, 日候連調, 晚種一向善就, 民事誠爲多幸,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강서 등 34개 고을의 이번 달 16일 우택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양덕·강계·위원·벽동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회천·삭주·창성·초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중기장·중조는 수확을 마치고 늦기장·늦조·올수수·올벼는 베기 시작하고 수수는 날로 점점 익어가고 늦벼는 절반 이상 알이 들고 묵화는 지금 막 솜을 따고 콩·팥은 간간이 많이 알이 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막 꼬투리가 맺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중기장·중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올수수·올벼는 거의 잘 익어가고 수수는 이미 알이 들고 늦벼는

점차 알이 들고 목화는 간혹 솜을 따서 거두어들이고 콩·팥은 줄기침이 맺히고 그루같이
콩·메밀은 활짝 꽃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
서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3. 1822년(순조 22) 8월 9일(양력 9월 23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2책(125d-126b) / 關西啓錄 2책(23-23)

承政院開坼.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崗[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晚黍粟·早稷唐·早稻畢穫, 晚稷唐幾盡成熟, 晚稻漸次向熟, 木花連爲摘拾, 豆·太已皆入實, 根豆·木麥次第就實是如是白遣.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中黍粟已盡收藉, 晚黍粟·早稷唐·早稻方張刈取, 晚稷唐日漸就熟, 晚稻幾皆成實, 木花今方摘取, 豆·太過半入粒, 根豆·木麥早或向實, 晚或結穎.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幾熟, 根豆·木麥始穎是如是白遣. 今初五日夜, 郭山·宣川·雲山等三邑霜降, 肅川·安州·定州·价川等四邑, 水霜降下而晚稼似有未遂之慮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初七日亥時量始雨, 或灑或霏, 初八日辰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是白如乎. 早穫雖已垂畢, 晚就惟在調候, 而秋分前下霜, 未免太早, 一寸餘冷雨, 亦涉稍多, 伊後日氣, 連爲佳和, 則果不至爲害是白貳喻, 列邑雨澤, 嗣後農形, 隨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삼등·상원·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올수수·올벼는 수확을 마치고 수수는 거의 익었고 늦벼는 점차 익어가고 목화는 솜을 따고 콩·팥은 알이 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차례로 알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7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이번 달 초5일 밤에 광산·선천·운산 등 3개 고을은 되서리가 내렸고 숙천·안주·정주·개천 등 4개 고을은 물서리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광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박천·태천·

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중기장·중조는 이미 수확하고 늦기장·늦조·올수수·올벼는 한창 베어 거두었고 수수는 날로 점점 익어가고 늦벼도 거의 여물어가고 목화는 지금 솜을 따서 거두어들이고 콩·팥은 절반 이상 알이 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이른 것은 여물어가고 늦은 것은 꼬투리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는 대로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4. 1822년(순조 22) 8월 15일(양력 9월 29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2책(134d-135a) / 關西啓錄 2책(34-34)

承政院開拆.

郭山等七邑今初五日夜霜降, 臣營下初八日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陽德·朔州兩邑, 初五日夜, 微霜乍下, 豆·太·木麥間多被傷, 寧遠段, 東屬九面, 初五初六日夜, 肅霜連降, 山耕晚種, 舉患未遂是如是白遣. 初八日之雨, 龍岡·三和·甑山等三邑得一犁,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咸從等十三邑得一鋤, 而各穀別無利害是如爲白有臥乎所. 晚稼尙多未就, 霜信遽此續至, 而陽朔二邑之一時微降, 雖不甚害, 寧遠〈外〉九面之兩夜荐肅, 殊甚可悶, 遠邑霜雨, 嗣後農形, 隨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곽산 등 7개 고을에 이번 초5일 밤에 서리가 내린 것과 저의 감영에 초8일 측우기 수심이 1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양덕·삭주 등 2개 고을은 이번 달 초5일 밤에 서리가 내려 콩·보리·메밀에 상해를 주었습니다. 영원군 등 9개 면에 초5일, 초6일 밤 서리가 내려 늦게 심은 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8일에 비가 내렸는데 용강·삼화·중산 등 3개 고을에 1려가 내렸고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가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함종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먼 고을에 서리가 내린 것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는대로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5. 1822년(순조 22) 8월 19일(양력 10월 3일)

各司謄錄 29책, 關西啓錄 2책(140a-140c) / 關西啓錄 2책(40-41)

承政院開拆.

臣以巡審事, 離營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自平壤, 由慈山·順川, 當日到肅川府, 而歷路農形, 詳細看審是白乎則, 早稼已皆登場, 晚種尙多棲畝, 而已收者之豐歉, 方就者之優劣, 詢諸野農, 參以目見是白如乎. 平壤段, 早農居多, 水耕間錯, 而黍粟立苗既稀, 束數雖尠, 入實乃碩, 穀出較優, 長短折補, 可謂小登. 稷唐毋論沃瘠, 幾皆善遂, 稻種泉浦均熟, 奉天迺遜, 木花始患稀種, 終能稠穎, 見拾之絮, 在在盈筐, 豆·太隨枝結穎, 穎無虛殼, 而早始向黃, 晚尙帶青木麥莖長穎疎, 遜於他稼. 慈山·順川段, 地是依峽, 稻本罕種, 外此諸稼, 較看平壤, 黍粟豆·太別無異同, 稷唐·木麥, 果有遜焉, 木花播固無幾存能善就, 肅川段, 處於濱海, 畚居其半, 而土宜相殊, 穀登不齊, 黍粟·稻·豆·太, 幾等平壤, 稷唐綿木麥, 無過慈順是白遣. 至若海鹵原磽, 或無主而仍荒, 或因沴而愆功, 草萊蕪沒之狀, 沿路所過, 種種入目是白乎旃. 連接各邑所報, 則昌城今初四日夜, 德川十三日夜, 博川十七日夜, 水霜乃下, 江界初六日夜, 鐵山·孟山·熙川十三日夜, 嚴霜遍降, 晚就之稼, 受損甚多是如是白遣. 順安·永柔·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殷山·价川等十五邑, 晚稷唐方張收穫, 晚稻早或始刈, 晚方成熟, 木花一向摘拾, 豆太漸次向熟, 根豆·木麥幾半入實是如是白遣.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晚黍粟·早稷唐·早稻畢穫, 晚稷唐幾熟, 晚稻日漸就熟, 木花連爲摘取, 豆·太已盡入實, 根豆·木麥次第就實.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或刈, 根豆·木麥始實是如爲白有臥乎所. 今以巡路之見參互列邑之報, 則晚稼收效專在調候, 而早行霜令, 雖甚可悶, 近幸冷意差退, 庶期其有終是白妥喻, 前路農形, 更加詳審, 鱗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저는 순행할 일로 감영에서 떠난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자산·순천을 통해 당일 숙천부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난 길의 농사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니 이른 곡식은 이미 다 타작하였고 늦은 곡식은 아직 밭두렁에 쌓인 것이 많습니다. 이번 달 초4일 밤에 창성에 서리가 내렸고 13일 밤 덕천, 17일 밤 박천, 초6일 밤 강계, 13일 밤 철산·맹산·회천 등 3개 고을에 각각 서리가 내려 곡식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농사 상황의 경우, 순안·영유·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안주·은산·개천 등 15개 고을은 수수는 한창 수확을 하고 늦벼는 이른 것은 베어들이기 시작하고 늦은 것은 지금 잘 익었고 목화도 솜을 따기 시작하고 콩·팥은 점차 익어가고 그루같이 한 콩·메밀은 절반이나 알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올수수·올벼는 수확을 마치고 수수는 거의 익어가고 늦벼는 날로 점점 익어가고 목화는 연일 솜을 따서 거두어들이고 콩·팥은 이미 알이 들고 그루같이 한 콩·메밀은 차례로 알이 들고 있으나 강계의 삼천·자성 등 두 방에는 화전의 화조는 더러 베어 거두고 그루같이 한 콩·메밀은 여물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는 길의 농사 상황은 다시 상세히 살펴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이후의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6. 1822년(순조 22) 8월 27일(양력 10월 11일)

各司謄錄 29책, 關西啓錄 2책(142b-142c) / 關西啓錄 2책(43-44)

承政院開坼.

平壤等四邑巡路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自肅川, 由永柔·甑山·咸從·三和·龍岡·江西, 當日還營, 而所經處農形, 一一看審是白乎則, 六邑俱以沿海之地, 水耨早耕逐坪參錯, 而早稼之已穫者, 叩諸野民, 黍粟始稀其苗, 終碩其實, 束數之減, 雖似歉形, 穀出之優, 幾近豐邊, 早稻毋論泉陸, 隨處大熟, 稷唐自來罕播, 若其入種者, 無不善遂是如是白遣. 晚種之方就者, 參以目見, 晚稻泉浦均登, 海坂多失, 豆·太就固得宜, 熟或差遲, 木麥早實始黃, 晚穎尙青, 以竟能順就, 則庶期食實, 木花始患稀種, 雖多代播, 惟其見存者, 早絮盈筐, 餘穎滿枝是白如乎. 統以論之, 大體均熟, 而分言各穀, 則稻太稷唐爲最, 豆綿次之, 黍粟·木麥又居其次, 較看六邑, 則咸從·三和·龍岡·江西稍優, 永柔·甑山差遜, 而至若海鹵原磧, 人功未修處, 種種荒蕪, 沿路同然是白乎旅. 連接各邑所報, 則渭原·楚山·碧潼今初十日夜, 龍川·義州·龜城十四日夜, 寧邊十六日夜, 泰川·嘉山十九日夜, 嚴霜次第遍降, 臣今二十四日在三和府, 而丑時量驟雨, 一場暴霖, 勢如傾盆, 不移時乃止, 所需爲一鋤許是白乎所. 峽霜沿雨, 促冷迭緊, 晚稼之未及成熟者, 似有多少受瘥之慮, 臣行未到處農形更加詳探, 遠外未報邑霜雨, 隨其報來, 鱗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평양 등 4개 고을을 순시한 길의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서리가 내렸는데 위원·초산·벽동 등 3개 고을은 이번 달 초10일 밤에, 용천·의주·구성 등 3개 고을은 이번 달 14일 밤에, 영변은 이번 달 16일 밤에, 태천·가산 등 2개 고을은 이번 달 19일 밤에 된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먼 밖의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서리 내린 것은 보고가 오는대로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7. 1822년(순조 22) 9월 10일(양력 10월 24일)

各司臚錄 29책, 關西啓錄 2책(145a-145b) / 關西啓錄 2책(47-48)

承政院開坼.

永柔等六邑巡路農形及去月二十四日驟雨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安州·宣川·義州等三邑爲一犁. 平壤·順安·永柔·肅川·博川·嘉山·定州·郭山·鐵山·龍川·中和·祥原·三登·江東·江西·龍岡·咸從·甑山等十八邑爲一鋤, 而其中博川段, 方其雨下, 東面西面, 雹又交下, 大如橡實, 小如太粒, 移時乃止, 所經處, 長爲十四里許, 廣爲五里許, 未穫之晚稻稷唐豆·太, 在在剝落, 所損不些是如是白遣. 慈山·殷山·順川·江東·成川等五邑, 去月二十五日夜, 平壤·順安·永柔·中和·祥原·三登·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等十一邑, 二十六日夜, 嚴霜次第遍降, 晚稼多患未遂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晚稷唐畢穫, 晚稻方刈, 木花盡摘, 豆·太·木麥始刈是如是白遣.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三邑, 晚稷唐過半收穫, 晚稻間始刈取, 木花幾皆摘拾, 豆·太·木麥已盡成熟.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幾刈, 根豆·木麥始熟是如爲白有臥乎所. 博川兩面之偏被雹害, 列邑晚稼之舉患霜損, 殊甚歎惜, 而秋序已闌, 穡事告功是白如乎. 一路災實, 更加詳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영유 등 6개 고을을 순시한 길의 농사 상황 및 지난달 14일 소나기가 내린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안주·선천·의주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순안·영유·숙천·박천·가산·정주·곽산·철산·용천·중화·상원·삼등·강동·강서·용강·함중·증산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24일 박천군의 경우, 동면·서면에 우박과의 비로 크기는 큰 것은 도토리열매만 하고 작은 것은 팔알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14리가량이고 너비는 5리가량입니다. 자산·은산·순천·강동·성천 등 5개 고을은 지난달 25일 밤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평양·순안·영유·중

화·상원·삼등·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 등 11개 고을에 지난달 26일 밤에 된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증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수수는 수확을 마치고 늦벼는 지금 베어 거두고 목화는 솜을 따고 콩·팥·메밀은 베어 거두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 등 23개 고을은 수수는 절반 이상 수확을 하고 늦벼는 간간이 베어 거두기 시작하고 목화는 거의 솜을 따고 콩·팥·메밀은 이미 잘 익었다. 강계의 삼천·자성 등 2개 방의 경우, 화조는 거의 베어 거두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익어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8. 1822년(순조 22) 11월 15일(양력 12월 27일)

各司謄錄 29책, 關西啓錄 2책(188c-188c) / 關西啓錄 2책(105-105)

承政院開坼.

卽接義州府尹金在元本月十三日酉時成貼狀啓謄報內, 鴨綠江上下流, 畢合氷是如事, 狀啓謄報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방금 의주 부윤 김재원이 이번 달 13일 유시에 관인을 찍어 작성한 장계를 베껴 보고한 것을 접수해 보니 내용에, “암록강 상·하류는 얼음이 다 얼었습니다.”라고 한 일로 장계 베껴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39. 1830년(순조 30) 8월 15일(양력 10월 1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1책(213c-213d) / 平安監營啓錄 1책(2a-2a)

道內農形及今月初九日午時量始雨, 初十日寅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七分緣由, 前觀察使臣金在任時,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得二鋤, 中和·祥原·順川·价川·德川·殷山·成川·順安·永柔·肅川·安州·龍岡·定州等十三邑, 得一鋤, 陽德·鐵山浥塵而止是如爲白臥乎所. 未報邑雨水形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초9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10일 인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7푼인 연유는 전 관찰사 김 재임시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은 2서가 내렸고, 중화·상원·순천·개천·덕천·은산·성천·순안·영유·숙천·안주·용강·정주 등 13개 고을에 1서가 내렸고, 양덕·철산 등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빗물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 합니다.

0040. 1830년(순조 30) 8월 17일(양력 10월 3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1책(213d-214b) / 平安監營啓錄 1책(2b-3a)

平壤等十六邑, 今月初九日十日雨水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龍川得一犁, 咸從得一鋤是如爲白乎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稷唐已皆畢獲, 晚黍粟·稷唐, 亦幾刈取, 木綿過半摘取, 豆·太隨熟取刈, 晚稻幾半成熟, 根豆·木麥向實伊始.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中黍粟早稻, 旣盡登場, 早稷唐次第刈獲, 晚黍粟·稷唐, 方張收穫, 木綿連爲拾絮, 豆·太漸次登熟, 晚稻今纔向熟, 根豆·木麥盡爲結穎.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幾皆成熟, 根豆·木麥日漸結穎. 江界今月初一日曉, 朔州十一日夜, 水霜降下, 江界嶺北之未收晚稼, 不無受損是如爲白乎旡. 臣營下今月十五日午時量始雨, 乍陰乍陽, 間間霏灑, 十六日未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乎. 前後雨澤及列邑農形, 待其報來, 更爲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16개 고을의 이번 달 초9일·초10일의 빗물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9일부터 초10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용천읍에서 1려가 내렸고 함중읍에는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증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수수는 수확이 이미 마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베어 거두고 목화는 절반 이상 솜을 따서 거두어들이고 콩·팥도 익어서 베어 거두고 늦벼는 절반이나 익어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도 여물어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5일 오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이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변·맹산·양덕·영원·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운산 등 23개 고을은 중기장·중조·올벼는 이미 마당에 들어내고 올수수는 차례로 베어 수확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수확하고

목화는 연일 숨을 따고 콩·팥은 점차 익어가고 늦벼는 지금 익어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 합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등 2개 방의 경우, 화조는 모두 성숙하게 익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날로 점점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1일 새벽 강계, 8월 11일 밤 삭주에 물서리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우택 및 여러 고을의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1. 1830년(순조 30) 8월 20일(양력 10월 6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1책(216a-216b) / 平安監營啓錄 1책(5b-6b)

道內農形及今月十五日午時量始雨, 十六日未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永柔·江西·咸從·嘉山·定州·鐵山等七邑爲一犁, 三和·龍岡·祥原·寧邊·博川·泰川等六邑爲二鋤, 中和·順安·肅川·安州·价川·殷山·三登·江東·成川·龍川·雲山等十一邑爲一鋤, 甑山爲涸塵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5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6일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영유·강서·함중·가산·정주·철산 등 7개 고을에 1려가 내렸고, 삼화·용강·상원·영변·박천·태천 등 6개 고을에 2서가 내렸고, 중화·순안·숙천·안주·개천·은산·삼등·강동·성천·용천·운산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증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있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2. 1830년(순조 30) 8월 23일(양력 10월 9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1책(216c-216c) / 平安監營啓錄 1책(6b-6b)

平壤等二十五邑, 今十五日六日雨水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德川·陽德兩邑爲一犁, 今十八日驟雨, 永柔·肅川·龍岡·慈山·殷山·价川·中和·祥原·孟山·定州·龍川·寧邊·雲山等十三邑爲一鋤, 順安·安州·鐵山等三邑爲浥塵是如爲白有旂. 臣營下本月二十一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二日巳時量, 霎時暴注, 仍又霏灑, 未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 而晚稼尙多未就, 冷雨若是頻仍, 誠爲悶然, 列邑雨水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25개 고을의 이번 달 15일·16일 빗물 경우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덕천·양덕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이번 18일의 소나기로 영유·숙천·용강·자산·은산·개천·중화·상원·맹산·정주·용천·영변·운산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순안·안주·철산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1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사시쯤에 이르렀다가 삼시간에 세차게 주룩주룩 내리다가 그대로 또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미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빗물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3. 1830년(순조 30) 8월 27일(양력 10월 13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1책(217d-218c) / 平安監營啓錄 1책(8a-9a)

永柔等十六邑, 今十八日驟雨形止及臣營下二十一日午時量始雨, 二十二日未時乃止, 側[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八日驟雨, 順川·德川·朔州等三邑爲一鋤, 二十一日二日之雨, 平壤·順安·肅川·安州·嘉山·定州·宣川·鐵山·龍川·祥原·咸從·甑山等十二邑爲一犁, 龍岡·博川兩邑爲二鋤, 江西·三和·永柔·慈山·德川·寧邊·雲山·郭山等八邑爲一鋤, 而其中咸從府反火池面, 二十二日午時量,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太粒, 小如豆粒, 所經處長爲五里許, 廣爲二里許, 而早熟之稻, 幾損三分之一, 晚稻木麥, 略被傷損, 不至大段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晚黍粟·稷唐已畢收穫, 木綿幾皆拾絮, 豆太次第刈穫, 晚稻盡爲登熟, 間或刈取, 根豆·木麥漸麥[次]入實.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稷唐已皆畢穫, 晚黍粟·稷唐, 亦幾收取, 木綿過半摘取, 豆·太隨熟收刈, 晚稻幾皆成熟, 根豆·木麥, 方張向實.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始刈, 根豆·木麥, 已盡結穎, 間或就實, 而楚山去月二十四日以後, 嚴霜荐降, 黍粟畚稻, 枯多實少, 稷唐晚粟, 半未結實, 根豆·木麥, 結實稀疏. 龍岡今十六日, 大風疾吹, 二十三日夜, 嚴霜降下, 就熟之各穀被靡或蹲縮, 已綻之木綿, 飄零居多, 前此龍川海坂畚稻之蟹齧蟲食者, 終未成實.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定州·博川·泰川·順川·价川·德川·江西·慈山·成川·陽德等十六邑, 今二十二日夜, 水霜降下. 殷山·郭山·宣川·龍川·龜城等五邑, 今二十三日夜, 肅霜降下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二十六日子時量始雨霏灑, 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白如乎. 晚稼之成就, 惟在日候之調順, 而浹旬以來, 冷雨連綿, 霜信已催, 棲畝各穀, 無不受痒, 減却幾分, 而咸從一面之雹損, 雖不至大段, 楚山·龍岡之風霜, 爲害亦多, 龍川海畚之終未食實, 殊甚可悶. 未報邑雨水多寡, 向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영유 등 16개 고을의 이번 18일 소나기가 내린 경위 및 저의 감영에 21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2일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8일의 소나기로 순천·덕천·삭주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이번 달 21일·22일의 비로 평양·순안·숙천·안주·가산·정주·선천·철산·용천·상원·함흥·증산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용강·박천 등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강서·삼화·영유·자산·덕천·영변·운산·곽산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함흥부 반화지면에 이번 달 22일 오시쯤 소나기와 우박이 잠시 내리다가 그쳤는데 우박의 크기는 큰 것은 팔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하였고, 우박이 거쳐간 곳의 길이는 5리가량이고 너비는 2리가량입니다. 그러나 일찍 익은 벼는 모두 손상을 입었다. 또 늦벼와 메밀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6일 자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운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에 늦기장·늦조·수수는 수확이 이미 마치고 목화는 거의 솜을 따고 콩·팥은 차례로 베어서 수확을 하고 늦벼도 다 잘 익어서 간혹 베어 거두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점차 알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수수는 수확이 이미 마치고 늦기장·늦조·수수도 거의 수확하여 거두어들이고 목화는 절반 이상 솜을 따서 거두어들이고 콩·팥은 수시로 익어 베어 수확하고 늦벼는 거의 잘 익어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여물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24일 밤 이후 서리가 내려 여러 곡식에 피해가 있었고 용강읍에서는 이번 달 16일 큰 바람이 불었으며, 이번 달 23일 밤에도 된서리가 곳곳에 내려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가산·정주·박천·태천·순천·덕천·강서·자산·성천·양덕 등 16개 고을은 이번 달 22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은산·곽산·선천·용천·구성 등 5개 고을은 이번 달 23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빗물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4. 1830년(순조 30) 8월 30일(양력 10월 16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1책(219a-219b)/ 平安監營啓錄 1책(10a-10b)

平壤等二十二邑今二十一日二日雨水形止及臣營下二十六日子時量始雨，申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龍川府使趙晉錫牒呈內，本月二十一日雨澤一犁之由，已爲牒報，而同日酉時量，本府西面，雨雹大作，亥時量乃止，雹狀大如鷄卵，小如太粒，所經處長爲五里許，廣爲三里許，而經雹最甚處，未收之晚稻豆·太，穗落莖折，殆無掛鎌，已刈在野之稷唐，剝落過半，稍歇處各穀，亦皆披靡，受損不少，而該面距邑稍遠，摘奸修報之際，自至遲滯是如爲白有跡。續接各邑所報，則二十一日·二日之雨，碧潼·熙川兩邑爲一鋤，二十六日之雨，平壤·三和兩邑爲二鋤，中和·咸從·祥原等三邑爲一鋤是如爲白乎跡。渭原今十五日夜，雲山·熙川二十三日夜，肅霜降下是如爲白有臥乎所。龍川一面之偏被雹損，殊甚歎惜，所經長廣之不至闊遠，還切多幸，向後農形及列邑雨水，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22개 고을의 이번 21일·22일의 빗물 경위 및 저의 감영에 26일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용천읍에서 이번 달 21일 유시쯤에 본부 서면에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의 크기는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5리가량이고 너비는 3리가량입니다. 이번 달 21일·22일의 비로 벽동·회천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26일의 비로 평양·삼화 등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중화·함중·상원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5일 밤 위원에 서리가 내렸고, 운산·회천 등 2개 고을은 8월 23일 밤에 서리가 내리고 용천에는 우박이 번갈아 내려 곳곳에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여러 고을을 빗물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5. 1830년(순조 30) 9월 2일(양력 10월 18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1책(219d-220a) / 平安監營啓錄 1책(11b-11b)

平壤等五邑去月二十五日雨水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嘉山·定州兩邑爲一鋤, 寧邊·鐵山·孟山等三邑, 去月二十三日夜, 三登·江東兩邑, 三十日雨[夜], 肅霜降下是如爲白有旂. 臣營下本月初二日丑時量始雨霏灑, 辰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乎. 列邑雨水多寡, 待其報來, 更爲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5개 고을의 지난달 25일 빗물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가산·정주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영변·철산·맹산 등 3개 고을은 지난달 23일 밤에, 삼등·강동 등 2개 고을은 30일 [밤]에 된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2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진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빗물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다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6. 1830년(순조 30) 9월 7일(양력 10월 23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1책(220d-221b) / 平安監營啓錄 1책(13a-13b)

臣營下本月初二日丑時量始雨, 辰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八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中和·慈山等四邑爲一鋤是如爲白遣. 義州·昌城·碧潼等三邑, 去月二十三日夜, 中和·祥原·三和·咸從·甌山等五邑, 今月初一日曉, 肅霜降下是如爲白有旆. 臣以迎勅次, 今初四日自平壤離發, 由順安·肅川, 方在安州牧, 而歷路農形, 詳細看審是白如乎, 所經四邑, 以沿江濱海之地, 田畝相錯, 而早稼之已穫者, 詢于野農, 晚穀之未收者, 參以所見則[是]白乎則. 黍粟段, 汚地迥遜於高燥, 畚稻段, 垆洑稍勝於乾播, 稷唐段, 隨其沃瘠, 自有優劣, 豆·太·木麥段, 毋論山野, 比他穀稍劣, 木綿段, 結顆既稀, 拾花亦少, 而平壤·順安, 頗有遜於肅川·安州是白乎旆. 續接各邑所報, 則永柔·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五邑, 木綿早絮盡拾, 晚顆無幾, 豆·太幾盡刈穫, 晚稻方張刈取, 根豆·木麥, 日漸取熟,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秦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晚黍粟·稷唐, 已盡登場, 木綿幾皆摘拾, 豆·太漸次收穫, 晚稻方始收取, 根豆·木麥, 間間登熟.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次第穫取, 根豆·木麥, 已皆入實向熟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更加詳審,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진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중화·자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여러 고을은 서리가 내렸는데 의주·창성·벽동 등 3개 고을은 지난달 23일 밤에 중화·상원·삼화·함중·증산 등 5개 고을은 이번 달 초1일 새벽에 된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영유·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5개 고을은 목화는 이른 것은 솜을 따고 늦은 것은 다래가 벌어지고 거의 베어 수확하고 늦벼는 한창 베어 거두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날로 점점 익어 거두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

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마당에 들어내고 목화는 거의 솜을 따고 콩·팥은 점차 수확을 하고 늦벼는 지금 베어 수확이 시작되어 거두어들이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간간이 익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다시 상세히 살펴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7. 1830년(순조 30) 9월 17일(양력 11월 2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1책(227d-228b) / 平安監營啓錄 1책(23a-23b)

道內農形, 臣在安州牧,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自安州牧, 由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 昨日到義州府而所經處農形, 詳細看審是白乎則, 七邑俱以濱海之地, 水耕旱播, 互相參錯, 早稼晚稼, 次第畢獲, 而畚稻源泉灌溉, 雖優食實, 奉天高燥, 僅得免歉. 粟則早勝於晚, 稷則原遜於野, 唐豆·太俱爲善遂, 木麥綿, 可謂穴農, 而較看彼此, 雖有次等, 統論大體, 別無迥殊[殊], 至若海鹵原磧[埧], 無主舊蓄之仍陳者, 種種有之是白遣. 今初七日驟雨, 碧潼郡西下面·西上面·邑內面·平下面·北面等五面, 大風振作, 雨雹交下, 移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太粒, 所經處長爲四十里許, 廣爲四里許, 而未收晚穀之風散雹落, 受損不些是如爲白乎旅.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豆·太晚稻, 已畢收獲, 根豆·木麥, 方張刈取, 德川·寧遠·孟山·陽德·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十六邑, 木綿盡拾, 豆·太畢獲, 晚稻亦幾刈獲, 根豆·木麥, 今方刈取.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幾盡收獲, 根豆·木麥, 隨熟取刈是如爲白有臥乎所, 碧潼五面之偏被風雹, 誠甚悶歎, 而見今秋序已闌, 穡事告功, 一路災實, 各邑分等, 更爲詳探,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제가 안주목에 있을 때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벽동군의 경우, 서하면·서상면·읍내면·평하면·북면 등 5개 면에 폭풍우와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의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40리가량이고 너비는 4리가량입니다. 그러나 아직 수확하지 못한 늦은 곡식에 큰 바람과 우박으로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콩·팥·늦벼는 수확이 이미 마치고 그루갈 이한 콩·메밀은 한창 베어 거두었고 덕천·영원·맹산·양덕·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 등 16개 고을은 목화는 솜을 따고 콩·팥은 수확을 마치고

늦벼 역시 거의 베어 수확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베어 거두고 강계의 삼천·자성 등 2개 방의 경우, 화조는 거의 수확을 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익어 수시로 베어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온 도의 재해와 결실과 각 고을의 분등은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나중에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8. 1831년(순조 31) 7월 5일(양력 8월 12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2책(258a-258c) / 平安監營啓錄 2책(4a-4b)

(以上缺)定州·郭山·宣川·寧邊等五邑, 川渠微漲, 今初二日之雨, 平壤·順安·三登·江東·成川·三和·咸從等七邑, 江川俱爲漲滿, 江西得二犁, 中和·祥原兩邑, 得一犁. 祈雨祭段, 咸從二次設行後, 今方停止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向實, 中黍粟·早稷唐·早稻, 今方發穗, 晚黍粟·稷唐, 舉皆胚胎, 木綿·豆·太, 爛熳起花, 晚稻三鋤幾畢, 根豆·木麥, 過半初鋤.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陽德·德川·孟山·寧遠·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泰川·博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幾皆發穗, 中黍粟·早稷唐·早稻, 方張胚胎, 晚黍粟·稷唐, 三鋤垂畢, 間或胚胎, 木綿·豆·太, 次第起花, 晚稻再鋤纔訖, 根豆·木麥, 舉皆立苗, 間或初鋤.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根豆·木麥始苗, 火粟三鋤伊始, 而今番之雨, 均於沿峽, 洽於沃瘠, 含縮之黍粟·稷唐, 庶期勃興之效, 被枯之豆·太·木麥, 亦有蘇醒之望, 木花漸次向茂, 畚稻舉皆貯水是如, 而俱是雨中所報, 姑無晴後形止是白如乎. 亢旱近甚, 甘澍苦俟, 何幸潤物之澤, 乃在立秋之際, 以若營下所見, 參互列邑報牒, 則今此一雨, 始霏而終霏, 適可而即止, 以高以低, 隨處普洽, 若田若畚, 竝皆膏潤, 枯苗庶可復興, 病畦亦當回蘇, 而農序今已差晚, 雨暘惟望調順爲白乎旆. 未報邑雨澤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상 결)정주·곽산·선천·영변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났고, 평양·순안·삼둥·강동·성천·삼화·함중 등 7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모두 불어나 가득찼고, 강서는 2려가 내렸고, 중화·상원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함중은 2차 시행후 지금 막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둥·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여물어가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는 지금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대부분 알을 맺고 목화·콩·팥은 활짝 꽃이 피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양덕·덕천·맹산·영원·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태천·박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이삭이 패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는 한창 알을 배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간혹 알을 배고 목화·콩·팥은 차례로 꽃이 피고 늦벼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거의 싹이 돋고 간혹 초벌 김매기를 시작되기도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9. 1831년(순조 31) 7월 7일(양력 8월 14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2책(258d-259a) / 平安監營啓錄 2책(5a-5a)

本月初二日之雨, 成川府江水漲滿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鱗次到付該府使李穆淵牒呈內, 伊日大雨滂沱, 連爲暴霖, 府內上下部民家漂頽, 至爲二十餘戶之多, 而待其水退, 躬審摘奸, 則上部坊全家漂失, 大戶爲三戶, 中戶爲四戶, 小戶爲七戶, 全家頽壓, 大戶爲二戶, 中戶爲四戶, 小戶爲五戶, 下部坊全家頽壓, 小戶爲二戶, 合民家漂頽, 爲二十七戶是如爲白乎所. 當此農務方殷, 多民之失所棲遑, 誠甚矜悶, 同漂頽戶, 原恤典外, 米斗空石等物, 自臣營亦爲助給, 當年條烟戶雜役, 一併蠲減, 借材助丁, 不日董役, 俾無[卽]結構奠接之意, 別加申飭爲白乎旆. 全家漂失, 大戶三戶, 各小米九斗, 中戶四戶, 各小米八斗, 小戶七戶, 各小米七斗, 全家頽壓. 大戶二戶, 各小米九斗, 中戶四戶, 各小米八斗, 小戶七戶, 各小米七斗, 依定式恤典題給, 各人等役·姓名及題給穀數, 修成冊上送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考例會減施行爲白只爲.

이번 달 초2일의 비로 성천부의 강물이 불어나 가득찬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날 내린 호우로 부내 상하 부락이 침수되고 민가가 떠내려간 것이 20가구, 침수가옥이 40가구, 무너진 가옥이 29가구, 인명 피해 40여 명입니다. 이밖에 각종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많은 백성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0. 1831년(순조 31) 7월 8일(양력 8월 15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2책(259a-259b) / 平安監營啓錄 2책(5b-5b)

鐵山等十一邑去月二十八日九日雨澤, 平壤等十邑今月初二日得雨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二十八日九日之雨, 德川·寧遠·孟山·龜城等四邑, 江川俱爲漲滿, 陽德得一犁, 二十九日之雨, 泰川川渠微漲, 今月初二日之雨, 永柔·肅川·安州·博川·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慈山·殷山·順川·龍岡·甑山等十六邑, 江川舉皆漲滿是如爲白有跡. 臣營下本月初七日未時量始雨, 或灑或霏, 至初八日丑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乎. 前霈之未報遠邑, 今雨之所得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철산 등 11개 고을의 지난달 28일·29일의 우택과 평양 등 10개 고을의 이번 달 초2일 내린 비의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8일·29일의 비로 영원·덕천·맹산·구성 등 4개 고을은 강과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양덕은 1려가 내렸습니다. 지난달 29일의 비로 태천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2일의 비로 영유·숙천·안주·박천·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자산·은산·순천·용강·증산 등 16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대부분 불어나 가득찼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7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8일 축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앞서 콕콕 쏟아져 보고하지 않은 먼 고을은 이번 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1. 1831년(순조 31) 7월 9일(양력 8월 16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2책(259b-259c) / 平安監營啓錄 2책(5b-6a)

卽接定州牧使林景鎮牒呈內, 本月初二日之雨, 江川漲溢, 大明洞面民戶頽壓, 至爲二十戶之多, 而待其水退, 躬審摘奸, 則該面全家頽壓, 中戶爲一戶, 小戶爲十九戶是如爲白有臥乎所. 農務方殷, 多戶頽壓, 聞甚矜憐, 其所顧恤之方, 不容少緩乙仍于, 原恤典外, 自臣營, 米斗空石等物, 亦爲助給, 許斫私養, 借助隣丁, 俾卽改構寔接, 而今年條烟戶雜役, 一併蠲減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旆. 全家頽壓, 中戶一戶, 小米八斗, 小戶十九戶, 各小米七斗, 依定式恤典題給, 各人等役·姓名及題給穀數, 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考例會減施行爲白只爲.

방금 정주 목사 임경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초2일의 비로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고 대명·동면의 백성 집이 무너진 것이 20가구에 이를 정도로 많으니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직접 살피고 캐내었습니다.

0052. 1831년(순조 31) 7월 11일(양력 8월 18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2책(265b-265c) / 平安監營啓錄 2책(13b-14a)

德川等六邑去月二十八日九日雨澤, 永柔等十六邑今初二日得雨形止及臣營下本月初七日未時量始雨, 初八日丑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二十八日九日之雨, 朔州·昌城·渭原·楚山等四邑, 得一犁, 今初二日之雨, 德川·陽德·孟山·寧遠·寧邊·熙川·泰川·龜城·朔州·昌城等十邑, 川渠微漲, 雲山得二犁, 价川得一犁. 而其中寧遠郡段, 郡內錦倉兩面, 方其雨霏, 東風大作, 雨雹交下, 移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榛子, 所經處長爲五十里許, 廣爲十七里許, 而各穀多被傷損, 尤甚處以木麥代播是如是白遣. 初七日之雨, 寧邊川渠微漲, 順安·安州·慈山·咸從等四邑, 得一犁, 祥原得二鋤, 平壤·中和·三和·定州·雲山等五邑, 得一鋤, 永柔·江西·龍岡等三邑, 恰爲浥塵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之連得霑潤, 殊甚欣幸, 寧遠之偏被雹損, 誠極悶歎, 雨後農形如何,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덕천 등 6개 고을의 지난달 28일·29일의 우택과 영유 등 16개 고을의 이번 초2일에 내린 비의 경위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7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8일 축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 28일·29일의 비로 삭주·창성·위원·초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2일의 비로 덕천·양덕·영변·희천·태천·영원·구성·삭주·창성·맹산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운산은 2려가 내렸고, 개천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영원의 군내·금창 등 두 면에 소나기와 큰 바람이 불어오고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대추열매만 하였다. 우박이 거쳐간 곳의 길이는 50리가량이고 너비는 17리가량입니다. 이번 달 초7일에 비가 내렸는데 영변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순안·안주·자산·함중 등 4개 고을에 1려가 내렸고, 상원은 2서가 내리고 평양·중화·삼화·정주·운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영유·강서·용강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비온 뒤 농사 상황이 어떤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3. 1831년(순조 31) 7월 15일(양력 8월 22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2책(266b-266d) / 平安監營啓錄 2책(15a-16a)

朔州等四邑去月二十八日九日, 德川等十二邑今月初二日雨澤及寧邊等十四邑初七日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二十八日九日之雨, 江界·渭原·楚山·碧潼等四邑, 江川少漲, 初七日之雨, 朔州·昌城兩邑, 得二犁, 陽德得一犁, 德川得一鋤, 成川·嘉山兩邑, 恰爲沍塵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入實, 中黍粟·早稷唐·早稻向實, 晚黍粟·稷唐, 舉皆發穗, 木綿方張結顆, 豆·太針繭始垂, 晚稻間或胚胎, 根豆·木麥, 今方再鋤.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陽德·德川·孟山·寧遠·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向實, 中黍粟·早稷唐·早稻, 方張發穗, 晚黍粟·稷唐, 間或發穗, 木綿·豆·太爛熳起花, 晚稻三鋤伊始, 根豆·木麥, 初鋤垂畢.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三鋤幾畢, 根豆·木麥, 舉皆立苗, 而今番雨後, 毋論沿峽, 早晚各穀, 次第勃興, 但燥田浦畚之惱於久旱初不立苗, 苗而已枯者, 雨不能蘇, 播亦時晚, 間間有廢棄處. 嘉山·永柔, 鹽畚蟲蝗, 今已快熄, 碧潼, 黍粟豆·太, 濕蟲方熾, 受損不些. 定州·義州·博川等三邑, 今初二日之雨, 沿邊禾稼, 多致沈墊, 公私垆堰, 亦有潰缺是如爲白有臥乎所. 比來膏澤, 一路均洽又幸潦漲旋退, 日候繼調, 已穗已實者, 方胎方花者, 頓有勃然之意, 漸多油然之色, 而地隨沃瘠, 穀有優劣, 惟其被旱枯廢者, 雖甚歎惜, 既非連坪全棄, 亦非逐邑皆然, 則不可謂深災是白遣. 定州等邑之垆潰禾墊, 碧潼一郡之蟲熾稼損, 俱極憂悶, 垆堰一一修築, 濕蟲這這捕滅之意, 措辭題飭於各該邑爲白乎旆. 向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삭주 등 4개 고을의 지난달 18일·19일과 덕천 등 12개 고을의 이번 초2일의 우택 및 영변 등 14개 고을의 초7일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강계·위원·초산·벽동 등 4개 고을은 강과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7일의 비로 삭주·창성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양덕은 1려가 내렸고, 덕천은 1서가

내렸고, 가산·성천 등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여물기 시작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는 여물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이삭이 패고 목화는 한창 다래가 맺히고 콩·팥은 줄기침이 나오기 시작하고 늦벼는 간혹 알을 배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양덕·덕천·맹산·박천·태천·영원·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여물어가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는 한창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이삭이 패고 목화·콩·팥은 활짝 꽃이 피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2일 내린 비로 의주읍은 시내와 도랑이 넘쳐흘러 여러 면에서 수해를 입었는데 민가가 무너진 가옥이 58가구이고 주내면은 7가구이고 광성면은 민가가 떠내려간 집이 8가구, 무너진 집이 15가구입니다. 위화면은 떠내려간 집이 3가구, 무너진 집이 3가구, 고성면은 떠내려간 집이 6가구, 무너진 집이 3가구이고, 양서면은 무너진 집이 5가구, 떠내려간 집이 3가구입니다. 그밖에 전답이 떠내려가고 무너진 곳이 곳곳에 있으며 농작물과 곡식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4. 1831년(순조 31) 7월 24일(양력 8월 31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2책(269d-270a) / 平安監營啓錄 2책(20a-20a)

道內各邑農形雨澤, 陸續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江界·渭原·楚山·碧潼等四邑, 今月初二日雨後, 連爲陰翳, 初八日又雨或爲霏灑, 或爲暴霍, 至十三日始爲開霽. 江界·渭原·楚山等三邑, 大小江川, 舉皆漲滿, 碧潼得二犁, 而其中楚山段, 山頂則間多汰落, 水邊則幾半覆沙, 早晚各穀, 多致損失. 江界·渭原·碧潼等三邑段置, 水邊各穀, 亦有傷損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二十二日戌時量始雨, 或霏或霍, 二十三日酉時少止, 測雨器水深爲二寸, 而雨意尙存是白如乎. 楚山一邑之偏致汰覆, 殊甚悶歎, 而今雨之所得多寡, 待各邑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계속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강계·위원·초산·벽동 등 4개 고을은 이번 달 초2일에 비가 내린 뒤 연이어 먹구름이 끼고 초8일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세차게 주룩주룩 내리다가 13일에 개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계·위원·초산 등 3개 고을은 크고 작은 강과 시내가 대부분 불어나 가득찼고, 벽동은 2려가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초산·은산의 경우, 산꼭대기는 그 사이에 사태로 떨어져 나간 곳이 많고 물가는 거의 반이상이 사태가 나서 모래로 뒤덮여서 이른든 늦든 각종 곡식이 손실된 것이 많습니다. 강계·위원·벽 등 3개 고을의 경우, 물가의 각종 곡식도 또한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2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3일 유시에 조금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이었고 비올 조짐이 여전히 있었다고 합니다. 초산 1개 고을은 사태가 나서 모래로 뒤덮였다니 매우 걱정되고 한탄스럽습니다. 이번 비의 내린 양은 각 고을의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있습니다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5. 1831년(순조 31) 7월 25일(양력 9월 1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2책(270a-270c) / 平安監營啓錄 2책(20b-21a)

臣營下本月二十二日戌時量始雨, 二十三日酉時少止, 測雨器水深爲二寸, 而雨意尙存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時以後, 濃雲聚散, 間間霏灑, 二十四日酉時開霽, 測雨器水深, 又爲八分是白乎旃.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二日三日四日之雨, 中和·慈山兩邑, 川渠微漲, 平壤·祥原·三登·順安·肅川·甑山等六邑, 得一犁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向熟, 中黍粟·早稷唐·早稻入實, 晚黍粟·稷唐向實, 木綿類房漸堅, 豆·太方張作繭, 晚稻間或發穗, 根豆·木麥, 今始起花.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陽德·德川·孟山·寧遠·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入實, 中黍粟·早稷唐·早稻向實, 晚黍粟·稷唐, 已盡發穗, 木綿次第結穎, 豆·太針繭始垂, 晚稻舉皆胚胎, 根豆·木麥, 今方再鋤.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幾盡胚胎, 間或發穗, 根豆·木麥, 初鋤伊始, 而其中碧潼郡, 黍粟豆太, 田中濕蟲, 雨後洗滌, 不至蔓延是如爲白有臥乎所. 雨陽近幸調適, 禾稼漸益成就, 而碧潼郡蟲災之寢熄, 誠甚多幸是白乎旃.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2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3일 유시에 조금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2치였고 비올 조짐이 여전히 있습니다는 연유는 좀전이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2일·23일·24일의 비로 중화·자산 등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났고, 평양·상원·삼등·순안·숙천·중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가 익어가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는 여물기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여물어가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차 굳어지고 콩·팥은 한창 줄기가 생기고 늦벼는 간혹 이삭이 패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양덕·덕천·맹산·영

원·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알이 들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는 여물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차례로 다래가 맺히고 콩·팥은 줄기침이 거의 나오기 시작하고 늦벼는 대부분 알을 났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6. 1831년(순조 31) 7월 28일(양력 9월 4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2책(270d-271a) / 平安監營啓錄 2책(21a-21b)

中和等八邑今二十二日三日四日得雨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安州·殷山兩邑，得二犁，永柔·博川·价川·江西·龍岡·三和·咸從·宣川·龍川·德川等十邑，得一犁，成川·孟山·定州·郭山·鐵山·義州·寧邊等七邑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所得多寡，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중화 등 8개 고을에 지난달 22일·23일·24일 내린 비의 경위는 좀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안주·은산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영유·박천·개천·강서·용강·삼화·함중·선천·용천·덕천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성천·맹산·정주·곽산·철산·의주·영변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7. 1831년(순조 31) 8월 1일(양력 9월 6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2책(271a-271a) / 平安監營啓錄 2책(22a-22a)

安州等十九邑去月二十二日三日四日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順川·陽德·泰川等邑, 得一犁, 嘉山·江東·寧遠·雲山·熙川·龜城·朔州·昌城等八邑, 得一鋤是如爲白有旆. 臣營下去月二十九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 今初一日午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白如乎. 前雨之未報遠邑, 今霈之所得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안주 등 19개 고을의 지난달 22일·23일·24일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순천·양덕·태천 등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가산·강동·영원·운산·희천·구성·삭주·창성 등 8개 고을에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지난달 29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앞서의 비로 보고하지 먼 고을은 지금 쏟아져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8. 1831년(순조 31) 8월 5일(양력 9월 10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2책(271d-272b) / 平安監營啓錄 2책(22b-23b)

順川等十一邑去月二十二日三日四日雨澤及臣營下去二十九日酉時量始雨, 今月初一日午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二日三日四日之雨, 碧潼·渭原兩邑, 得一鋤. 去二十九日, 今初一日之雨, 平壤·順安·永柔·肅川·中和·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德川·三和·甑山·定州·龍川等十七邑, 得一犁. 祥原·江西·龍岡·郭山等四邑, 得二鋤. 安州·博川·咸從·孟山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方張刈穫, 中黍粟·早稷唐·早稻, 次第向熟, 而隨熟隨刈, 晚黍粟·稷唐, 舉皆入實, 間間向熟, 木綿顆房向開, 或爲拾絮, 豆·太·早種者就實, 晚稻漸次入實, 根豆·木麥, 今始結顆.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陽德·德川·孟山·寧遠·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幾盡登熟, 間或刈穫, 中黍粟·早稷唐·早稻, 已皆入實, 過半向熟, 晚黍粟·稷唐, 太半成實, 木綿顆房漸堅, 方欲向開, 豆·太已作針繭, 日漸向實, 晚稻發穗向實, 根豆·木麥, 爛熳起花.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盡爲發穗, 次次向實, 根豆·木麥, 再鋤已畢, 起花伊始, 而其中博川郡德安一面, 定州牧沿海八坊及肅川, 晚稻蟲蝗間熾, 恐無結實之望, 龍岡, 去二十九日, 方其雨下, 大風振作, 各穀多致磨損是如爲白有臥乎所. 博川等邑之蟲災, 龍岡縣之風損, 俱極悶歎, 而未報邑雨澤, 向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순천 등 11개 고을의 지난달 22일·23일·24일 우택 및 저의 감영에 지난 19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번 달 초1일 오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벽동·위원 등 2개 고을에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초1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평양·순안·영유·숙천·중화·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덕천·삼화·증산·정주·용천 등 1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상원·강서·용강·곽산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안주·박천·함흥·맹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수확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는 차례로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알이 들고 간간이 익어가고 목화는 다래방이 벌어지고 간혹 솜을 따고 콩·팥이 이른 종자는 여물었고 늦벼는 점차 알이 들고 그루같이한 콩, 팥, 메밀은 지금 꼬투리가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양덕·덕천·맹산·영원·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잘 익어 간혹 베어 수확을 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는 이미 알이 들고 절반 이상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팥은 잘 알이 들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차 굳어지고 지금 벌어지고 콩·팥은 이미 줄기침이 나오고 날로 점점 여물어가고 늦벼는 이삭이 패고 여물어가고 그루같이 콩·메밀은 활짝 꽃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9. 1831년(순조 31) 8월 9일(양력 9월 14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2책(274a-274a) / 平安監營啓錄 2책(25b-25b)

平壤等二十五邑去月二十九日今月初一日得雨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宣川·龜城·陽德等三邑, 得一犁, 寧邊·泰川兩邑, 得二鋤, 嘉山·鐵山·義州·雲山·朔州·昌城·碧潼等七邑, 得一鋤. 今初三日驟雨, 肅川·鐵山·龍川等三邑, 得一犁, 安州·定州·郭山·寧邊·義州等五邑, 得一鋤, 龍岡·三和兩邑, 恰爲溫塵是如爲白有臥乎所. 遠外未報邑形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25개 고을의 지난달 29일·이번 달 초1일에 내린 비의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선천·구성·양덕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영변·태천 등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가산·철산·의주·운산·삭주·창성·벽동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이번 달 초3일에 소나기로 속천·철산·용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안주·정주·곽산·영변·의주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용강·삼화 등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먼 밖의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0. 1831년(순조 31) 8월 12일(양력 9월 17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2책(279c-279c) / 平安監營啓錄 2책(33a-33a)

宣川等十二邑去月二十九日今月初一月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江界·渭原·楚山等三邑, 得一犁, 寧遠·熙川兩邑, 得一鋤, 而其中楚山段, 方其雨下, 一陣淒風, 連日大吹, 原野各穀, 多致磨損是如爲白有臥乎所. 楚山一邑之纔經汰覆, 旋被風損, 言念民事, 萬萬憂悶是白乎旆. 嗣後各邑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선천 등 12개 고을의 지난달 29일·이번 달 초1일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계·위원·초산 등 3개 고을에 1려가 내렸고, 영원·회천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그 중 초산의 경우, 막 비가 내리고 한편으로 서늘한 바람이 연일 크게 불어 들판의 각종 곡식에 손상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후 각 고을의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1. 1831년(순조 31) 8월 15일(양력 9월 20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2책(280c-281a) / 平安監營啓錄 2책(34a-34b)

道內農形及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畢穫, 中黍粟·早稷唐·早稻, 次刈取, 晚黍粟·稷唐, 日漸就熟, 豆·太方張就實, 晚稻舉皆入實, 木綿方張拾絮, 根豆·木麥, 次第入實.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陽德·德川·孟山·寧遠·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幾盡刈穫, 中黍粟·早稷唐·早稻, 間或刈取, 晚黍粟·稷唐, 方始向熟, 晚稻豆·太, 漸次入實, 木綿今始拾絮, 根豆·木麥, 已盡結穎, 今方就實.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入實, 根豆·木麥, 幾盡結穎, 間間向實, 而其中肅川·安州段, 海番晚稻, 蟲蝗熾蔓, 受損頗多, 定州·博川段, 今初八日淒風驟至, 原野闊遠處各穀, 間多剝落, 豆·太晚稻, 蟲蝗極盛, 日漸耗損, 萬無蘇醒之望是如爲白有臥乎所. 肅川等四邑之熾蔓蟲災, 定博兩邑之加以風損, 言念民事, 萬萬憂悶是白乎旆.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둥·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수확을 마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는 차례로 베어 거두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점차 익어가고 콩·팥은 한창 여물어가고 늦벼도 거의 알이 들고 목화는 한창 숨을 따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차례로 여물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양덕·덕천·맹산·영원·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베어 수확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는 간혹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하고 늦벼·콩·팥은 점차 알이 들고 목화는 지금 숨을 따기 시작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이미 꼬투리를 맺고 지금 여물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2. 1831년(순조 31) 8월 25일(양력 9월 30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2책(282c-283b) / 平安監營啓錄 2책(37a-37b)

臣以巡審事離發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自平壤府, 由順安·永柔·肅川·安州, 當日到寧邊府, 而歷路農形, 詳細看審是白如乎. 早稼已盡登場, 晚種尙多棲畝, 而已穫之稼, 問諸野民, 方就之種, 參以目見是白乎則, 平壤·順安兩邑段, 早農居多, 水耕恒少, 而黍粟·稷唐, 則汚地差勝於高燥, 畚稻則乾播迢遞於垆沢, 豆·太·木麥, 則無論山野, 舉皆最劣. 木綿則拾絮已多, 餘穎尙稠, 而沿路所見, 歉熟互錯, 接壤之間, 一坪之內, 優劣不齊, 便成穴農是白乎所. 今夏旱災, 沿邑海畚, 太半失農, 而其中永柔·肅川·安州三邑段, 俱以濱海之邑, 較他尤甚, 荐被蟲損, 畚種則源泉灌溉之處, 僅得少熟, 海坂鹹陞之地, 率多全棄, 無望食實, 田穀則較看平順兩邑, 黍粟·稷唐·木綿·豆·太·木麥, 別無異同. 寧邊段, 峽多野少, 專尙旱農, 而以田以畚, 早晚各穀, 比之所經諸邑, 顯有稍勝是白乎旃. 臣之歷路, 永肅安三邑被災之民, 村村成群, 擁馬呼訴曰, 嗣歲之望, 尙矣勿論, 目下之活, 萬無其路是如. 煩聒不已乙仍于, 雖以從當蠲恤, 姑勿騷動之意, 面面慰諭, 言念民情, 誠甚矜惻, 而連接各邑所報, 則博川·雲山兩邑, 今十六日夜, 熙川·江界·碧潼等三邑, 十七日夜, 龜城·郭山兩邑, 十八日夜, 泰川·定州·鐵山等三邑, 十九日夜, 永柔·肅川·安州等三邑, 二十日夜, 水霜降下, 楚山十五日夜, 孟山·宣川·朔州等三邑二十日夜, 嚴霜降下是如是白遣. 農形段, 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殷山·順川·慈山·价川等十四邑, 中黍粟·早稷唐·早稻畢穫, 晚黍粟·稷唐, 間或刈取, 晚稻豆·太向熟, 木綿早絮盡拾, 晚穎方拆, 根豆·木麥, 舉皆入實,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孟山·陽德·寧遠·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二十二邑, 早黍粟畢穫, 中黍粟·早稷唐·早稻, 幾盡刈取, 晚黍粟·稷唐就熟, 晚稻豆·太, 舉皆入實. 木綿方張拾絮, 根豆·木麥向熟,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漸熟, 根豆·木麥, 結穎方熟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待其報來, 竝與前路農形, 而遍加詳審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제가 순시할 일로 떠난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평양부에서 순안·영유·숙천·안주를 통해 당일 영변부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난 길의 농사 상황을 상세

히 살렸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서리가 내렸는데 박천·운산 등 2개 고을은 이번 달 16일 밤에, 강계·회천·벽동 등 3개 고을은 8월 17일 밤에, 구성·곽산 등 2개 고을은 8월 18일 밤에, 태천·정주·철산 등 3개 고을은 8월 19일 밤에, 영유·숙천·안주 등 3개 고을은 8월 20일 밤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초산은 8월 15일 밤에, 맹산·선천·삭주 등 3개 고을은 8월 20일 밤에 뒤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은산·순천·자산·개천 등 14개 고을은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는 수확을 마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베어 거두었고 늦벼·콩·팥은 익어가고 목화는 이른 것은 솜을 따고 늦은 것은 다래방이 벌어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거의 알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맹산·양덕·영원·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 등 22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수확을 마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는 거의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익어가고 늦벼·콩·팥은 거의 알이 들고 목화는 한창 솜을 따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익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앞으로 가는 길의 농사 상황과 아울러 두루 상세히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3. 1831년(순조 31) 9월 5일(양력 10월 10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2책(284a-284c) / 平安監營啓錄 2책(39b-39b)

平壤等六邑巡路農形, 臣在寧邊府,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自寧邊府, 由价川·殷山, 當日到成川府, 而歷路農形, 一一看審是白乎則, 所經三邑, 俱以依峽濱江之地, 田多畝少, 而畝種段, 引洑處之如干所播者, 早被嘆乾, 食實無幾. 田穀段, 晚種遜於早稼, 稷唐則隨其原隰, 不無得失, 豆·太僅得成樣, 木麥綿可謂穴農, 而較看彼此, 雖有差等, 通論大體, 別無迥殊, 至若無主舊菑之仍陳者, 沿路所過, 種種有之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寧遠去月十四日夜, 渭原十七日夜, 昌城二十三日夜, 德川二十七日夜, 嚴霜降下, 成川·慈山·殷山等三邑, 今月初二日夜, 水霜降下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慈山·順川等十六邑, 晚黍粟·稷唐, 幾盡刈取, 晚稻豆·太, 方張收穫, 木綿過半摘拾, 根豆·木麥, 已皆就熟.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中黍粟·早稷唐·早稻畢穫, 晚黍粟·稷唐次第刈取, 晚稻豆·太, 就其先熟, 間始收穫, 木綿早絮盡拾, 晚顆方拆, 根豆·木麥, 今方成熟.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始刈, 根豆·木麥漸熟是如爲白有臥乎所, 前路農形段, 更加詳審,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6개의 고을을 순시한 길의 농사 상황은 제가 영변부에 있을 때 이미 긴급 보고하였었습니다. 저는 영변부에서 개천·은산을 통해 당일 성천부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난 길의 농사 상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니 거쳤던 3개 고을은 모두 산골짜기나 강가 지역으로 밭은 많고 논은 적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중순경 서리가 내렸는데 영원에는 지난달 14일 밤에, 위원은 지난달 17일 밤에, 창성은 지난달 23일 밤에, 덕천은 지난달 27일 밤에 되서리가 내렸고 성천·자산·은산 등 3개 고을은 이번 달 초2일 밤에 얇은 물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자산·순천 등 16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베어 거두었고 늦벼·콩·팥은 한창 수확을 하고 목화는 절반 이상 솜을 따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거의 익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양덕·덕천·맹산·영원·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는 수확을 마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베어 거두고 늦벼·콩·팥은 익어 간간이 수확이 시작하고 목화는 이른 것은 솜을 따고 늦은 것은 다래방이 벌어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점점 익어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는 길의 농사 상황의 경우, 다시 상세히 살펴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4. 1831년(순조 31) 9월 8일(양력 10월 13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2책(284d-285a) / 平安監營啓錄 2책(40a-40b)

价川等三邑巡路及道內農形, 臣在成川府,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自成川府, 由江東·三登·祥原, 當日還營, 而歷路農形, 逐坪詳審是白乎則, 黍粟已皆登場, 雖未見得失, 稷唐間多棲畝, 自不無優劣, 稻本罕種, 別無豐儉之可論. 木麥豆·太稍優者, 庶或食實, 尤甚處僅可取種, 至若木綿, 自是宜土之故, 其所成就, 迥勝於所經列邑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順安·江東·順川·三和等四邑, 今初二日夜, 水霜降下, 龍岡·博川·安州·定州等四邑, 伊日之夜, 嚴霜降下是如爲白有旆. 臣之今番行部, 逶迤八百程途, 經過十數州郡, 而早稼之已穫者, 問諸守宰, 晚種之未收者, 參以目見, 則田分上下, 災實互錯, 穀隨早晚, 歉熟顯異, 統以論之, 便成穴農是白如乎. 臣行未到邑農形, 待其報來, 更爲登聞計料, 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서리가 내렸는데 순안·강동·순천·삼등 등 4개 고을은 이번 달 초2일 밤에 얇은 물서리가 내렸고 용강·박천·안주·정주 등 4개 고을은 이번 달 초2일 밤에 된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고을의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다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5. 1831년(순조 31) 9월 15일(양력 10월 20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2책(290b-290c) / 平安監營啓錄 2책(47b-47b)

江東等三邑巡路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郭山·熙川·碧潼等三邑, 今初二月夜, 龍川·義州·寧邊·雲山·嘉山·陽德等六邑, 初三日夜, 价川·江西·咸從·甑山·三登·永柔·中和·祥原·平壤等九邑, 初七日夜, 嚴霜降下是如是白遣. 臣營下今十四日戌時量驟雨霑下, 至亥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乎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晚黍粟·稷唐, 已盡刈取, 晚稻豆·太, 過半收穫, 木綿幾皆摘拾, 根豆·木麥, 幾半刈穫.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晚黍粟·稷唐, 幾畢刈穫, 晚稻豆·太, 方張收穫, 木綿餘顆無幾, 根豆·木麥, 方始收取.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幾刈, 根豆·木麥, 隨熟隨刈是如爲白有臥乎所. 霜令已遍, 穡事垂畢, 一路災實, 各邑分等, 更加詳探, 追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강동 등 3개 고을을 순시한 길의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서리가 내렸는데 광산·회천·벽동 등 3개 고을은 이번 달 초2일 밤에, 용천·의주·영변·운산·가산·양덕 등 6개 고을은 이번 달 초3일 밤에, 강서·함종·증산·삼등·영유·평양·상원·중화 등 9개 고을은 이번 달 초7일 밤에 뒤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4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이슬비와 소나기가 내리다가 해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베어 거두고 늦벼·콩·팥은 절반 이상 수확하였고 목화는 거의 솜을 따서 거두어들이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절반이나 베어서 수확하였다. 가산·정주·광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는 베어 수확이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한창 수확하고 목화는

숨을 따서 거두어들이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수확하여 거두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온 도의 재해와 결실과 각 고을의 분등은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나중에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6. 1833년(순조 33) 2월 11일(양력 3월 31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364d-364d) / 平安監營啓錄 3책(36b-36b)

卽接各邑所報，則平壤·順安·永柔·肅川·中和·祥原·三登·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順川等十三邑，秋麴麥今方抽芽，春麴隨其土解，間或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凡係課農之節，另加申飭，使之着意舉行爲白乎旆。外此各邑，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중화·상원·삼등·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순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막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땅이 풀리는 대로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릇 농사에 관계된 사항은 별도로 단단히 지시해 유념하여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의 각 고을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7. 1833년(순조 33) 2월 21일(양력 4월 10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366c-366c) / 平安監營啓錄 3책(38b-38b)

平壤等十三邑牟麥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中和·祥原·三登·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順川等十三邑, 秋牟麥次第抽芽, 春牟方張耕播是如爲白乎旆. 江東·成川·慈山·殷山·价川·安州·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等十三邑, 秋牟麥間或抽芽, 春牟高燥處方始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形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13개 고을의 보리·밀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중화·상원·삼등·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순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동·성천·자산·은산·안주·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간혹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높은 건조한 곳에서 막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8. 1833년(순조 33) 2월 24일(양력 4월 13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367b-367b) / 平安監營啓錄 3책(39b-39b)

平壤等二十六邑牟麥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本月二十三日未時量始雨，或霏或灑，至酉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三分是白乎所。見今東作伊始，得此霑潤，土脈善爲融解，牟麥頗有所益是白如乎。列邑均霑與否，嗣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13개 고을의 보리·밀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달 2월 23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습니다. 현재 봄농사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주고 토양이 잘 완전히 풀려 보리·밀은 자못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고을이 고루 적셨는지 여부와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9. 1833년(순조 33) 3월 1일(양력 4월 20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369b-369c) / 平安監營啓錄 3책(43a-43a)

臣營下去月二十三日測雨器, 水深爲三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慈山·殷山兩邑得一犁.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定州·宣川·鐵山·龍川·義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順川·价川·德川·寧遠·孟山·江西·龍岡·咸從·甑山·寧邊·雲山·博川·泰川·龜城等三十邑, 得一鋤. 三和·陽德·郭山等三邑, 恰爲浥塵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中和·祥原·三登·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順川等十三邑, 秋麴麥方始向青, 青麴間間立苗, 早黍粟間或耕播是如是白遣. 江東·成川·慈山·殷山·价川·安州·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等十三邑, 秋麴麥次第抽芽, 春麴方張耕播是如是白遣. 陽德·寧遠·孟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等十六邑, 秋麴麥間始抽芽, 春麴隨其土解, 今方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달 2월 23일에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월 23일의 비로 자산·은산 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순안·숙천·영유·안주·가산·정주·선천·철산·용천·의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순천·덕천·영원·맹산·강서·용강·함중·증산·영변·운산·박천·태천·구성 등 3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삼화·양덕·곽산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중화·상원·삼등·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순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푸르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봄보리는 간간이 싹이 돋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동·성천·자산·은산·안주·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봄보리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양덕·영원·맹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 등 16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간간이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봄보리는 땅이 풀리는 대로 지금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0. 1833년(순조 33) 3월 11일(양력 4월 30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377c-377d) / 平安監營啓錄 3책(53a-53a)

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以巡審事, 今初七日, 自平壤離發, 由順安·慈山·順川·殷山, 昨日到成川府, 而所經處段, 秋麴麥舉皆向青, 春麴日漸立苗, 早黍粟次第耕播是白乎旅. 連接各邑所報, 則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价川等十三邑, 秋麴麥幾盡向青, 春麴已畢耕播, 漸次立苗, 早黍粟次第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麴麥舉皆抽芽, 春麴幾訖耕播, 早黍粟間始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麴始播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자산·순천·은산·성천 등 6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돋고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또 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가 이미 마치고 점차 싹이 돋고 있으며 올기장·올조도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올기장·올조도 간간이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1. 1833년(순조 33) 3월 13일(양력 5월 2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381a-381a) / 平安監營啓錄 3책(57b-57b)

臣當日巡到三登縣爲白有出乎, 本月十二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三日丑時量乃止, 所得洽爲二鋤是白乎所. 稍闕之餘, 得此甘澍, 已苗之麤麥, 勃向茁茂, 方播之黍粟, 可善萌芽, 言念民事, 誠爲多幸是白出乎. 列邑均霑與否,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는 당일 순시하다가 삼등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번 달 12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3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거의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조금 맺은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려 이미 싹튼 보리는 왕성하게 싹이 무성해지고 막 씨앗을 뿌린 기장·조는 잘 새싹이 트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여러 고을에 고루 적셔졌는지 여부와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2. 1833년(순조 33) 3월 15일(양력 5월 4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381b-381b) / 平安監營啓錄 3책(58a-58a)

本月十二日三日得雨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清南中山各邑巡審後，當日還營，而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平壤·順安·永柔·江西等四邑得一犁，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等五邑得二鋤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所得多寡，向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2일·13일에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청남·중산 각 고을을 순시한 뒤 당일 감영에 돌아왔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영유·강서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내린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3. 1833년(순조 33) 3월 21일(양력 5월 10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384a-384c) / 平安監營啓錄 3책(61b-61b)

平壤等九邑, 本月十二日三日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龍岡·三和·咸從·甌山·肅川·安州·慈山·殷山·順川·价川·德川等十一邑得一犁. 定州·寧邊·雲山·熙川·江界·博川·陽德·孟山等八邑得一鋤. 嘉山·郭山·泰川等三邑, 恰爲浥塵是如爲白有於.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粳麥日漸向茁, 春粳已盡立苗, 早黍粟幾訖耕播,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間始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粳麥次第向青, 春粳幾皆立苗, 早黍粟方張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畢播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9개 고을의 이번 달 12일·13일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용강·삼화·함중·증산·숙천·안주·자산·은산·순천·덕천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정주·영변·운산·회천·강계·박천·양덕·맹산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가산·곽산·태천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올라 오고 봄보리는 이미 싹이 돋고 있으며 올기장·올조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도 간간이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씨앗 뿌리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4. 1833년(순조 33) 3월 25일(양력 5월 14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385a-385a) / 平安監營啓錄 3책(62b-62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本月二十四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 至酉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 列邑均霑與否,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4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4일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적서졌는지 여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5. 1833년(순조 33) 4월 1일(양력 5월 19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386a-386b) / 平安監營啓錄 3책(64a-64a)

臣營下去月二十四日午時量始雨, 酉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中和·祥原·三登等四邑得一鋤. 江東·成川·永柔·龍岡·三和·咸從·慈山·殷山·德川·義州等十邑, 爲浥塵是如爲白有旆. 臣營下去月二十九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至戌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日漸茁茂, 春牟麥舉皆向青, 早黍粟已盡立苗,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方張耕播, 晚黍粟·稷唐間始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漸次就茁, 春牟幾盡向青, 早黍粟已畢耕播, 次第立苗,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方始耕播. 江界之三川·慈山兩坊段, 春牟舉皆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均霑與否,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달 24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리 시작하여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4일의 비로 평양·중화·상원·삼등 등 4개 고을에 1서가 내렸고 강동·성천·영유·용강·삼화·함중·자산·은산·덕천·의주 등 10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지난달 29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순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무성하고 봄보리는 거의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싹이 돋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늦기장·늦조·수수도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거의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가 이미 마치고 차례로 싹이 돋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에 적셔졌는지 여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6. 1833년(순조 33) 4월 6일(양력 5월 24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387d-388a) / 平安監營啓錄 3책(66a-66a)

道內農形及臣營下去月二十九日卯時量始雨，戌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平壤·永柔·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等十四邑，得一犁，肅川·定州兩邑得二鋤，順安·嘉山·郭山·宣川·龍川·甑山·陽德·順川·价川·德川·寧遠·孟山·寧邊·雲山·博川·泰川等十六邑，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得雨多寡，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저의 감영에 지난달 29일 묘시에 비가 내리리 시작하여 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의 비로 평양·영유·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 등 1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숙천·정주 등 2개 고을에 2서가 내렸고, 순안·가산·곽산·선천·용천·중산·양덕·순천·덕천·영원·맹산·영변·운산·박천·태천 등 1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7. 1833년(순조 33) 4월 9일(양력 5월 27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388a-388b) / 平安監營啓錄 3책(66b-66b)

平壤等三十二邑去月二十九日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渭原·熙川兩邑得二鋤, 鐵山·龜城·昌城·碧潼·江界·楚山等六邑得一鋤. 義州·朔州兩邑恰爲泥塵是如爲白有旆. 臣營下今月初七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乍歇乍霏, 至初八日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32개 고을에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의 비로 위원·희천 등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철산·구성·창성·벽동·강계·초산 등 6개 고을에 1서가 내렸고, 의주·삭주 등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이번 달 초7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8. 1833년(순조 33) 4월 11일(양력 5월 29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399a-399b) / 平安監營啓錄 3책(79a-79b)

臣營下本月初七日未時量始雨, 初八日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定州·郭山·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順川等十六邑得一犁. 嘉山·博川兩邑得二犁. 江東·殷山·德川·雲山等四邑得一犁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今始胚胎, 春牟日漸茁茂, 早黍粟間始初鋤,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次第立苗, 晚黍粟·稷唐已訖耕播, 晚稻·豆太方始耕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漸次茁長, 春牟舉皆向青, 早黍粟已盡立苗,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播壟垂畢, 晚黍粟·稷唐耕種伊始.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向茂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得兩[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7일부터 초8일까지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부터 초8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정주·곽산·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순천 등 1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가산·박천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강동·은산·덕천·운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순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알을 배기를 이제 시작했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무성하고 올기장·올조는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차례로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콩·팥도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초산·위원·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싹이 돋

고 봄보리는 거의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싹이 돋고 있으며 중기장·중조·올수수·
올벼·목화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가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9. 1833년(순조 33) 4월 16일(양력 6월 3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400a-400b) / 平安監營啓錄 3책(80b-81a)

平壤等二十二邑, 今月初七日八日得雨形止, 已爲馳啓爲白口[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宣川·鐵山·義州·朔州·昌城·碧潼等六邑得一犁, 龍川·泰川·龜城等三邑得二鋤, 成川·慈山·价川·寧邊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 遠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22개 고을은 이번 달 초7일부터 초8일까지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부터 초8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선천·철산·의주·삭주·창성·벽동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용천·태천·구성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성천·자산·영변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0. 1833년(순조 33) 4월 20일(양력 6월 7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400b-400c) / 平安監營啓錄 3책(81a-81a)

臣營下今月十八日戌時量始雨[雨], 或霏或灑, 至十九日酉時量乃上[止],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白如乎. 近日雨澤, 間旬霑潤, 方穗之口[麴]麥, 可期善就, 已苗之各穀, 俱有所益, 言念民事, 誠甚多幸是白乎所. 列邑所得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8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9일 유시가 되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1. 1833년(순조 33) 4월 21일(양력 6월 8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401a-401b) / 平安監營啓錄 3책(82a-82b)

臣營下今月十八日戌時量始雨, 十九日酉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永柔·龍岡·甑山·江東等六邑得一犁. 祥原·江西·慈山等三邑得一鋤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次第發穗, 春牟今方胚胎, 早黍粟初鋤垂畢, 中黍粟·早稻[稷]唐·早稻·木花間始初鋤, 晚黍粟·稷唐次第立苗, 晚稻·豆太幾畢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已盡胚胎, 春牟早耕者始胎, 晚種者漸茁, 早黍粟方始初鋤,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幾皆立苗, 晚黍粟·稷唐播墾垂<畢>, 晚稻·豆太耕種伊始.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舉皆茁茂, 火粟始播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均霑與否,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8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8일부터 19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평양·순안·영유·용강·증산·강동 등 6개 고을에 1려가 내렸고 상원·강서·자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싹이 돋고 늦벼·콩·팥은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가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알을 배고 봄보리는 일찍 간 것은 알을 배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게 씨를 뿌린 것은 점차 싹이 나오고 올기장·올조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거의 자라고 있으며 늦기장·

늦조·수수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가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2. 1833년(순조 33) 4월 24일(양력 6월 11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401b-401c) / 平安監營啓錄 3책(82b-82b)

道內農形及平壤等九邑今月十八日九日得雨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三登得一犁，肅川得二鋤。安州·定州·宣川·三和·咸從·殷山·順川·德川·中和·成川·陽德等十一邑得一鋤。价川·博川·嘉山·郭山·雲山等五邑，拾[洽]爲浥塵是如爲白有臥乎所。遠邑<雨>澤，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강우형편은 평양 등 9개 고을에 이번 달 18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8일부터 19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삼등은 1려가 내렸고 숙천은 2서가 내렸고, 안주·정주·선천·삼화·함종·은산·순천·덕천·중화·성천·양덕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박천·가산·곽산·운산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3. 1833년(순조 33) 5월 1일(양력 6월 18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403b-403d) / 平安監營啓錄 3책(86a-86b)

三登等十八邑去月十八日九日得雨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江界得一犁, 鐵山·龍川·義州·寧遠·孟山·朔州·昌城·渭原·楚山等九邑得一鋤是如是白遣. 去二十三日驟雨, 安州·德川兩邑得一鋤, 郭山·泰川·寧邊·雲山等四邑爲沍塵. 二十四日驟雨, 肅川·慈山·殷山·价川·博川·熙川等六邑得一鋤. 二十五日驟雨. 祥原郡段, 楓洞·水山兩面, 雨雹交下, 移時乃止, 雹狀大如鷄卵, 小如鳥卵, 所經處長爲三十里許, 廣爲七里許. 三登縣段, 靈岵·楓岑兩面, 雨雹移時暴霰, 雹狀大如鷄卵, 小如栗子, 所經處長爲十三里許, 廣爲一里許. 江東縣段, 秋灘面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太粒, 所經處長爲三十里許, 廣爲十五里許, 而向實之粳麥, 穗穎摧折, 方苗之粟綿稷唐, 莖葉蹂躪, 殆無完全, 舉至代播是如是白遣. 成川府段, 巖浦·墨所·藍田·大谷·旺乙·三波·臥龍·直河·泉谷·四佳等十面, 雨雹移時交下, 雹狀大如鳥卵, 小如豆粒, 所經處長爲一百三十里許, 廣爲二十三里許, 而黍粟·稷唐別無大段受害, 發穗之粳麥間多折莖, 方苗之綿太最爲傷損, 而摘奸修補之際, 日字自至遲滯是如爲等如, 報來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粳麥先穗者向實, 晚胎者發穗, 春粳舉皆抽穎, 早黍粟再鋤伊始,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初鋤垂畢, 晚黍粟·稷唐今方初鋤, 晚稻·豆太間始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粳麥次第發穗, 春粳早耕者始穗, 晚種者方胎, 早黍粟幾訖初鋤,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方張初鋤, 晚黍粟·稷唐已皆立苗, 晚稻·豆太幾畢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始胎, 火粟畢播是如爲白有臥乎所. 當此兩麥向實, 各穀方苗, 非時雹災, 殊甚驚歎, 而成川一邑之十面, 幸不至大段, 祥原等邑之五面, 若是孔酷, 言念民事, 萬萬憂悶. 已判全棄處段, 給種代播, 毋至失農之意, 另飭各該邑爲白乎旆.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삼등 등 18개 고을에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시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비가 내렸는

데 강계읍에 1려가 내렸고 철산·용천·의주·영원·맹산·삭주·창성·위원·초산 등 9개 고을에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23일의 비로 안주·덕천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광산·태천·영변·운산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지난달 24일의 비로 숙천·자산·은산·박천·회천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25일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상원군 풍동면·수산면 등 두 면에 내린 우박의 크기는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30리가량이고 너비는 7리가량입니다. 삼등현은 영수면·풍령면 등 두 면에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의 크기는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밤알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13리가량이고 너비는 1리가량입니다. 강동현은 추탄면에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의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팥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30리가량이고 너비는 15리가량입니다. 성천은 암포·묵소·남전·대곡·왕울·삼파·와룡·직동·천곡·사가)면 등 10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하였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130리가량이고 너비는 23리가량입니다. 이번 우박으로 각종 곡식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먼저 이삭이 나온 것은 열매가 들고 늦게 알이 밴 것은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거의 열매가 맺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막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콩·팥은 간간이 싹이 자라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광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일찍 심은 것은 이삭이 패기 시작하고 늦게 뿌린 씨앗은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으며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싹이 돋고 늦벼·콩·팥은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가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4. 1833년(순조 33) 5월 8일(양력 6월 25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405c-405d) / 平安監營啓錄 3책(89a-89a)

道內農形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今月初二日驟雨, 价川·德川兩邑得一犁, 熙川得二鋤. 寧邊·雲山·殷山·孟山·陽德等五邑爲一鋤, 慈山·泰川·義州等三邑爲沍塵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雨澤,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강우 형편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2일 소나기로 ·덕천 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희천은 2서가 내렸고, 영변·운산·은산·맹산·양덕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자산·태천·의주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5. 1833년(순조 33) 5월 11일(양력 6월 28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414c-415a) / 平安監營啓錄 3책(100a-100b)

价川等十一邑今初二日驟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九日驟雨. 寧遠段, 郡內新倉錦倉等三面, 雨雹交下, 移時乃止, 雹狀大如鷄卵, 小如鳩卵, 所經處長爲八十里許, 廣爲二十里許, 而方苗之豆太被損尤甚, 無望蘇醒, 而摘奸之際, 自至遲滯是如是白遣. 今初四日驟雨, 宣川·鐵山·龍川等三邑得一犁, 寧邊·雲山·泰川·龜城·江界·義州等六邑得一犁, 永柔·安州·嘉山·定州·郭山·博川等六邑得一鋤. 初七日驟雨, 肅川·祥原·三登等三邑得一鋤, 江西·龍岡·咸從·甌山·慈山等五邑, 爲浥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兩麥次第向熟, 早黍粟再鋤垂畢,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再鋤伊始, 晚黍粟·稷唐幾訖初鋤, 晚稻·豆太已皆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兩麥早耕者向熟, 晚種者入實, 早黍粟方張再鋤,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纔畢初鋤, 晚黍粟·稷唐方始初鋤, 晚稻·豆太過半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幾皆發稻[穗], 火粟今方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寧遠郡三面之此時雹損, 極爲驚悶, 就其最甚處, 以相當穀, 趁即代播, 毋至失農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旆.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4일 소나기로 선천·철산·용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영변·운산·태천·구성·강계·의주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영유·안주·가산·정주·곽산·박천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이번 달 초7일에 소나기로 숙천·상원·삼등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강서·용강·함중·증산·자산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밀·보리는 차례로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며·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시작되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

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밀·보리는 일찍 밭을 갈아 심은 것은 익어가고 늦게 씨를 뿌린 것은 열매가 들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계속 마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벼·콩·팥은 과반이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평안도 내 개천 등 11개 고을에 이번 달 초2일의 비로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영원군은 군내면·신창면·금창면 등 3개 면에 내린 우박의 크기는 큰 것은 두루미알만 하고 작은 것은 비둘기알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80리가량이고 너비는 20리가량입니다. 그리고 우박으로 각종 곡식에 막대한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6. 1833년(순조 33) 5월 14일(양력 7월 1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415a-415a) / 平安監營啓錄 3책(100b-100b)

肅川等八邑, 今初七日驟雨形止及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渭原·楚山兩邑得二犁, 朔州·昌城·碧潼等三邑得一犁. 初八日驟雨, 宣川·雲山兩邑得二犁, 德川·鐵山·龍川·義州等四邑得一犁. 初九日驟雨, 江西·咸從·永柔·博川等四邑得一鋤, 甑山·陽德·郭山等三邑, 爲沍塵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일의 비로 선천·운산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덕천·철산·용천·의주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7일에 비가 내렸는데 위원·초산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삭주·창성·벽동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9일의 비로 강서·함중·영유·박천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증산·양덕·곽산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7. 1833년(순조 33) 5월 21일(양력 7월 8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416b-416c) / 平安監營啓錄 3책(102b-103a)

江西等七邑, 今初九日驟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十日驟雨, 寧遠得二犁, 寧邊·江界兩邑, 得一鋤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兩麥幾盡成熟, 間或刈取, 早黍粟三鋤伊始,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再鋤垂畢, 晚黍粟·稷唐幾訖再鋤, 晚稻·豆太今方初鋤.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兩麥次第向熟, 早黍粟纔訖再鋤,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方張再鋤, 晚黍粟·稷唐方始再鋤, 晚稻·豆太已皆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幾皆入實, 火粟始爲初鋤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강서 등 7개 고을에 이번 달 초8일과 초9일에의 비로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0일 소나기로 영원에서 2려가 내렸고 영변·강계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밀·보리는 거의 잘 익었고 간혹 베어 거두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밀·보리는 차례로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계속 마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벼·콩·팥은 이미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8. 1833년(순조 33) 6월 1일(양력 7월 17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418b-418d) / 平安監營啓錄 3책(106a-107a)

道內農形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十九日驟雨, 雲山·朔州兩邑得一鋤. 碧潼段, 南面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鷄卵, 小如鳥卵, 所經處長爲十里許, 廣爲二里許, 而方苗之各穀, 或致覆沙, 或爲折傷, 無望蘇醒, 舉至代播. 二十五日驟雨, 陽德·定州兩邑得一鋤, 江東爲浥塵. 二十八日驟雨, 慈山得一鋤, 平壤·三和·咸從·甑山·順川等五邑, 爲浥塵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兩麥方張刈取, 而根耕則隨其平田, 間或播種, 早黍粟幾訖三鋤, 中黍粟·早稷唐·早稻木麥三鋤伊始, 晚黍粟·稷唐纔畢再鋤, 晚稻·豆太初鋤垂畢.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兩麥幾盡成熟, 間或刈取, 早黍粟今方三鋤,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已訖再鋤, 晚黍粟·稷唐再鋤幾畢, 晚稻·豆太始爲初鋤, 而其中平壤·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嘉山·義州·博川等九邑段, 黍粟間熾蟲蝗, 頗有所損. 江界之三川·慈城兩防[坊]段, 春麴向熟, 火粟纔訖初鋤是如爲白有臥乎所. 碧潼一面之雹損, 平壤等邑之蟲災, 俱極悶然. 給種代播, 蟲蝗捕滅之節, 措辭題飭於各該邑, 而去月以來, 雨澤慳闕, 間或驟浥, 而旋即乾曝, 沿海畚稻, 或致萎損, 峽野各穀, 間多受瘵, 根耕亦有愆期之慮. 言念民事, 萬萬渴悶, 及今一霽, 方切顚望是白乎旆.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강우형편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19일의 비로 운산·삭주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25일의 비로 양덕·정주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강동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지난달 28일의 비로 자산은 1서가 내렸고, 평양·삼화·함중·증산·순천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지난달 19일 벽동군 남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10리가량이고 너비는 2리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증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밀·보리가 한창 베어 거두었고 있으나 그루같이한 것은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메밀도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두벌 김매기를 계속 마치고 늦벼·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밀·보리는 거의 잘 익었고 간혹 베어 거두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세벌 김을 매기 시작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9. 1833년(순조 33) 6월 5일(양력 7월 21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419b-419c) / 平安監營啓錄 3책(107b-108a)

道內農形, 近因乾曝, 沿峽各穀, 間多受瘁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雨澤慳闕, 日杲風嘆, 以田以畜, 無不惱旱是如乙仍于, 被災切急邑段, 祈雨祭不卜日虔誠設行之意, 措辭知委是白加尼. 平壤·永柔·成川等三邑, 初次設行後報來, 而臣營下本月初四日子時量始雨, 或灑或霏, 至戌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三分是白如乎. 渴望之餘, 得此甘霖, 以營下所見言之, 畓庫之高燥處, 或未周洽, 平田各穀, 優可勃興, 根耕豆太, 趁此播種, 言念民事, 誠爲萬幸, 平壤祈雨祭, 爲先停止. 永柔·成川段, 待其得雨形止, 亦當停止是白乎旅.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강우형편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4일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도내에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심하여 기우제를 우선 평양·영유·성천 등 3개 고을은 이번 달 초5일 제1차로 기우제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0. 1833년(순조 33) 6월 8일(양력 7월 24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422a-422b) / 平安監營啓錄 3책(110b-110b)

臣營下本月初四日子時量始雨，至戌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三寸三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順安·永柔·肅川·江西·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成川等十邑，川渠微漲。平壤·三和·寧邊等三邑得二犁。安州·龍岡·中和·祥原·三登·江東等六邑得一犁。祈雨祭段，永柔·成川兩邑，今已得雨，竝爲停止是如爲白有臥乎所。觀於已報之邑，旱餘膏澤，優得霑洽，沿峽各穀，俱有蘇醒之望，言念民事，誠爲多幸。未報邑所得多，嗣後農形，待具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4일에 비가 내렸는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 6월 초4일의 비로 순안·영유·숙천·강서·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성천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평양·삼화·영변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안주·용강·중화·상원·삼등·강동 등 6개 고을에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1. 1833년(순조 33) 6월 9일(양력 7월 25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422b-422c) / 平安監營啓錄 3책(111a-111a)

順安等十九邑今初四日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德川·陽德兩邑川渠微漲, 价川得二犁, 定州·博川·雲山等三邑得一犁, 嘉山·郭山·宣川·龍川·義州·泰川等六邑得二鋤, 鐵山·龜城兩邑得一鋤是如爲白有跡. 臣營下本月初八日辰時量始雨, 或灑或淫, 至初九日卯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二分是白如乎. 初四日之雨, 畚庫之高燥處或未周洽, 而今番雨澤, 又過三寸, 無論原野, 舉無不足之歎, 受傷各穀, 俱有勃興之望, 言念民事, 誠甚萬幸. 遠邑之前霈所得多寡, 列邑之今雨均霑與否,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순안 등 19개 고을에 이번 달 초4일에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4일부터 비가 내렸는데 덕천·양덕 등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개천은 2려가 내렸고, 정주·박천·운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가산·곽산·선천·용천·의주·태천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철산·구성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8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6월 초9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2푼이었습니다. 평안도 내 강우형편은 초4일과 초8일 내린 비로 논바닥이 높은 건조한 곳에도 비가 흠족하게 내려 각종 곡식과 밭의 야채에도 가뭄해갈이 해소되어 백성들의 근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2. 1833년(순조 33) 6월 11일(양력 7월 27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429b-430a) / 平安監營啓錄 3책(117b-118b)

德川等十四邑今初四日雨澤及臣營下初八日辰時量始雨，戌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三寸二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去月二十三日驟雨，楚山段，東部·西部·栢面·古面·板面等五面，雨雹交下，移時乃止，雹狀大如鳩卵，小如鳥卵，所經處長爲五十里許，廣爲二十五里許，而早晚各穀，多致傷損，成熟之春粳，酷被摧折，無望蘇醒，舉至代播。童面·江面·別面三面等，間熾蟲蝗，黍粟頗有所損，而摘奸修補之際，自至遲滯是如是白遣。今四日之雨，寧遠江川微漲，熙川得一鋤。初八日之雨，肅川·祥原·三登·咸從·甌山·順川等六邑，川渠微漲，平壤·江西·龍岡·三和等四邑得二犁，順安·永柔·中和·江東等四邑得一犁是如爲白有旆。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兩麥已穫，根耕幾盡，早黍粟已畢三鋤，今方胚胎，中黍粟·稷唐·早稻·木花幾訖三鋤，晚黍粟·稷唐方始三鋤，晚稻·豆太幾半再鋤。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秦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兩麥已穫，根耕方張，早黍粟幾畢三鋤，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間始三鋤，晚黍粟·稷唐已訖再鋤，晚稻·豆太再鋤伊始。其中平壤·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嘉山·博川等八邑，黍粟之蟲蝗，雨後洗滌，而義州則尙不寢熄。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春牟間始刈取，隨刈根耕，火粟再鋤伊始是如爲白有臥乎所。兩麥今已登場，概論其一路成就，則立苗之初，發穗之際，雨暘得宜，善爲入實，以南以北，可謂均登是白乎旆。當此各穀長養之節，平壤等邑之蟲蝗旋熄，雖甚多幸，楚山之雹蟲授[受]損，義州之蟲災未寢，俱極悶然。被雹全棄處代播，蟲蝗未熄邑捕滅等節，措辭題飭於各該邑，而前後雨澤多寡，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4일의 비로 영원 고을에 강과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희천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8일에 비가 내렸는데 숙천·상원·삼등·함중·증산·순천 등 6개 고을에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평양·강서·용강·삼화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순안·영유·중화·강동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지난달 23일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초산군의 경우, 동부·서부·박면·고면·판면 등 5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두루미알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50리가량이고 너비는 25리가량입니다. 그리고 각종 곡식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가뭄으로 황충이 발생하여 평안도 내 평양·용강·삼화·함중·증산·가산·강서·박천 등 8개 고을에 기장·조 등 농작물에 병충해로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에 밀·보리는 이미 수확을 하고 거의 그루갈이를 하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치고 지금 알을 배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절반이나 두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밀·보리는 이미 수확을 하고 그루갈이는 한창이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간간이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치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3. 1833년(순조 33) 6월 13일(양력 7월 29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430c-431a) / 平安監營啓錄 3책(119b-119b)

寧遠·熙川兩邑與肅川等十四邑, 今初四日初八日雨澤及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九日驟雨. 碧潼段, 西部西上等兩面, 雨雹交下, 移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太粒, 所經處長爲十五里許, 廣爲五里許, 而各穀多致披靡. 傷損最甚處段, 或爲覆沙, 無望蘇醒, 舉至代播, 而摘奸修報之際, 自至遲滯是如是白遣. 今初四日之雨, 昌城得一犁, 朔州得一鋤. 初八日之雨, 价川·寧邊兩邑川渠微漲, 慈山·殷山·安州·定州等四邑得二犁, 成川·嘉山·博川·泰川·雲山等五邑得一犁, 郭山得二鋤是如爲白有旆. 臣營下今十二日丑時量始雨, 或灑<或霑>, 至未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 而陰雲不解, 雨意尙濃是白如乎. 當此各穀長養之時, 碧潼二面之雹損, 言念民事, 誠甚悶然. 節序雖差晚, 被災全棄處段, 以相當穀趁卽代播, 俾無失農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旆. 未報邑前後得雨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영원 등 14개 고을은 이번 달 초4일과 초8일에 내린 강우량과 농사 상황의 경우,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4일에 비가 내렸는데 창성은 1려가 내렸고 삭주는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벽동군 서부면·서상면 등 두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15리가량이고 너비는 5리가량입니다. 이번 달 초8일에 비가 내렸는데 ·영변 등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자산·은산·안주·정주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성천·가산·박천·태천·운산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광산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2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4. 1833년(순조 33) 6월 16일(양력 8월 1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431c-431d) / 平安監營啓錄 3책(120b-121a)

昌城·朔州兩邑與价川等十二邑, 今初四日初八日雨澤及臣營下今十二日丑時量始雨, 至未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 而雨意尙濃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日未時以後, 連爲陰翳, 十五日申時量又雨, 或灑或霏, 至十六日丑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 而始爲開霽是白乎旃. 連接各邑所報, 則今初四日之雨, 孟山·渭原·楚山·江界等四邑得一犁, 碧潼得一鋤. 初八日之雨, 德川·寧遠兩邑川渠微漲, 孟山·龍川兩邑得二犁, 陽德·宣川·鐵山·義州等四邑得一犁, 熙川·龜城·朔州等三邑得二鋤. 十二日之雨, 永柔·肅川·甑山·江東·慈山·殷山·順川·价川等八邑, 川渠漲滿, 江西·龍岡兩邑得二犁, 平壤·順安·三和·咸從·中和等五邑得一犁, 安州·博川兩邑得二鋤, 祥原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前後雨澤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5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습니다. 이번 달 초4일의 비로 맹산·위원·초산·강계 등 4개 고을에 1려가 내렸고 벽동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8일에 비가 내렸는데 덕천·영원 등 2개 고을에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맹산·용천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양덕·선천·철산·의주 등 4개 고을에 1려가 내렸고, 희천·구성·삭주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2일에 비가 내렸는데 영유·숙천·증산·강동·자산·은산·순천 개천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강서·용강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양·순안·삼화·함중·중화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안주·박천 등 2개 고을에 2서가 내렸고, 상원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5. 1833년(순조 33) 6월 19일(양력 8월 4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433c-433d) / 平安監營啓錄 3책(124a-124a)

德川等十一邑與永柔等十八邑, 今初八日十二日雨澤及臣營下今十五日申時量又雨, 至十六日丑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八日之雨, 江界川渠微漲, 渭原·楚山兩邑得一犁, 昌城·碧潼兩邑得一鋤. 十二日之雨, 三登·成川·陽德·德川·寧遠·孟山·嘉山龍川·義州·寧邊等十邑, 川渠漲滿, 雲山得二犁, 宣川·泰川·龜城·朔州等四邑得一犁, 定州·郭山·鐵山等三邑得一鋤. 十五日六日之雨,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甑山·慈山·价川·泰川·寧遠·雲山等十八邑, 川渠漲滿, 江西·祥原·三登·江東·成川·殷山·順川等七邑得一犁, 博川得二鋤, 中和·龍岡·三和·咸從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 遠外未報邑雨澤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5일부터 16일까지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일에 비가 내렸는데 강계읍에서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위원·초산 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창성·벽동 등 2개 고을에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2일에 비가 내렸는데 삼등·성천·양덕·덕천·영원·맹산·용천·의주·영변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운산은 2려가 내렸고, 선천·태천·구성·삭주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정주·곽산·철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5일과 16일에 비가 내렸는데 평양·순안·영유·숙천·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증산·자산·태천·영원·안주·운산 등 1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강서·상원·삼등·강동·성천·은산·순천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박천은 2서가 내렸고, 중화·용강·삼화·함중 등 4개 고을에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6. 1833년(순조 33) 6월 21일(양력 8월 6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434c-435a) / 平安監營啓錄 3책(125b-126a)

三登等十八邑及平壤等三十邑, 今十二日五日六日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十二日之雨, 熙川·昌城兩邑川渠微漲, 江界·渭原·楚山·碧潼等四邑得一犁. 十五日六日之雨, 德川·龜城·朔州等三邑, 川渠微漲是如爲白有旂.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已盡發穗, 中黍粟幾皆胚胎, 間或發穗, 早稷唐·早稻漸次胚胎, 木花起花伊始, 晚黍粟·稷唐三鋤垂畢, 晚稻·豆太間始三鋤, 根豆·木麥幾皆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舉皆胚胎, 次第發穗, 中黍粟方始胚胎, 早稷唐·早稻·木花纔訖三鋤, 晚黍粟·稷唐過半三鋤, 晚稻·豆太幾訖再鋤, 根豆·木麥方張立苗. 其中義州·楚山兩邑黍粟之蟲蝗, 雨後洗滌.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畢獲, 根耕已盡, 火粟幾訖再鋤是如爲白有臥乎所. 見今雨意快霽, 日候調順, 山野惱旱之各穀, 可期收榆, 楚·義兩邑之蟲災, 俱爲寢熄, 言念民事, 誠甚多幸. 遠外邑雨澤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30개 고을은 이번 달 12일과 15일, 16일에 비가 내렸는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2일에 비가 내렸는데 희천·창성 등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강계·위원·초산·벽동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5일부터 16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덕천·구성·삭주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중기장·중조는 대부분 알을 뻗고 간혹 이삭이 패고 올수수·올벼는 점차 알을 배고 목화는 꽃이 피기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간간이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거의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

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알을 뺏고 차례로 이삭이 패고 중기장·중조는 지금 알을 배기를 이제 시작했고 올수수·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계속 마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7. 1833년(순조 33) 6월 26일(양력 8월 11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3책(437b-437b) / 平安監營啓錄 3책(129a-129a)

德川等三邑今十五日六日雨澤及道內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陽德·熙川兩邑，川渠微漲是如爲白有旆。臣營下本月二十三日辰時量始雨，或灑或霖，至二十五日亥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六寸，而伊日申時以後，東風兼作移時乃定是白如乎。今番雨水，已過半尺，以營下所見言之，江川汎濫，間多沈墊，而雨後泥濘，淒風斯濫，發穗之各穀，起花之木綿，難保無披靡受損之慮是白乎所。列邑形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덕천 등 3개 고을에 이번 달 15일, 16일에 내린 강우량과 농사 상황의 경우,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양덕·회천 등 2개 고을에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3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가랑비와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다가 25일 해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8. 1833년(순조 33) 7월 1일(양력 8월 15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4책(438c-439a) / 平安監營啓錄 2책(1a-1b)

□...□去月十五日六日□...□下去月二十三日辰時量始雨, 至二十五日亥時量□...□六寸
緣由□...□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五日六日□...□漲, 自十三日至□...□龍岡·三和·咸
從·甌山□...□雲山·博川·泰川□...□稻次第發穗, 木花方張□...□今方起花, □□□麥過
半□...□州·郭山·定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龜城·朔州·昌城·碧潼
等二□□邑, 早□...□黍粟已皆胚胎, 間間發穗, 早稷唐·早稻, 幾盡胚胎, 木花次第起花, 晚
黍粟·稷唐, 已畢三鋤, 晚稻間始三鋤, 豆太起花伊始, 根豆·木麥, 方始初鋤, 而今番之雨水,
江川漲滿, 垆堰田疇, 間致沈潰, 廿五日東風沿浹同然, 早稼晚種, 舉患被□...□之三川·慈城
兩坊段, 根耕立苗向青, 火粟已訖三鋤是如爲白有臥乎所. 去月廿□...□淒風連吹, 涼意遽
催, 峽種沿稼, 不無添痒之慮, 言念穡事, 誠爲悶然, 及今□...□望是白乎旆. 未報邑雨澤, 嗣
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

□...□지난달 15일부터 16일까지 □...□지난달 23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5일 해시쯤□...□6치인 연유는 □...□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용강·삼화·함중·증산·운산·박천·태천 등 7개
고을은 개천 독이 불어나 가득찼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용강·삼화·함중·증산·박천·태천 등 7개 고을은 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목화는 한창 꽃이 피고 정주·곽산·안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구성·삭주·창
성·벽동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알을 배고 간간이 이삭이 패고 올수수·올벼는
대부분 알을 났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치고
늦벼는 간간이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콩·팥은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루같이한 콩·메
밀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9. 1833년(순조 33) 7월 6일(양력 8월 20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4책(440b-440c) / 平安監營啓錄 2책(3b-3b)

平壤等三十三邑，自去月二十三日，至二十五日雨澤及道內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陽德·寧遠·孟山·熙川·昌城等五邑，川渠漲滿是如爲白有旆。臣營下今月初五日寅時量始雨，或爲灑霖，或爲滂沱，至酉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是白如乎。比來日候，連爲陰暄，今此冷雨，間旬頻仍，言念穡事，誠爲悶然，及今快晴，方切顚望是白乎旆。前後雨澤多寡，嗣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33개 고을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내린 강우량과 농사 상황의 경우,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양덕·영원·맹산·희천·창성 등 5개 고을에 개천 독이 불어나 가득 찼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 5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8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0. 1833년(순조 33) 7월 8일(양력 8월 22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4책(440d-441b) / 平安監營啓錄 4책(2a-2b)

陽德等五邑, 自去月二十三日, 至二十五日雨澤及臣營下今月初五日寅時量始雨, 至酉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三日四日五日之雨, 江界·渭原·楚山·碧潼等四邑, 川渠漲溢, 而其中楚山·碧潼兩邑段, 傍浦田畝, 間多潰缺, 依山禾稼, 或致汰覆是如爲白有旆. 臣營下今月初五日酉時以後, 乍陰乍暘, 至初七日丑時量又雨, 有時滂沱, 有時暴霍, 初八日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九寸三分, 而尚未快霽是白如乎. 見今三庚已過, 節序方催, 而兩次雨水, 殆過一尺, 前漲未退, 新潦添生, 以營下所見言之, 江川汎濫, 間多沈墊, 淒風已損之稼, 難期收榆之望, 冷雨受災之種, 不無添瘁之慮, 言念民事, 誠爲憂悶, 及今快晴, 方切顚望是白乎旆. 列邑形止, 待其報來更爲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양덕 등 5개 고을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강계·위원·초산·벽동 등 4개 고을은 개천과 둑이 불어나 가득찼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5일 유시 이후 흐리고 한때 이슬비가 내리다 그쳤다 하다가 초7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가랑비와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8일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9치 3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1. 1833년(순조 33) 7월 11일(양력 8월 25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4책(444d-445b) / 平安監營啓錄 4책(7a-7b)

臣營下今月初五日七日八日雨水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今初十日卯時量又雨，或灑或霏，至酉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而一向陰翳，尙無霽意是白有於。連接各邑所報，則今初五日七日八日之雨，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德川等二十七邑，江川漲溢。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早黍粟幾皆成熟，中黍粟日漸入實，早稷唐·早稻，已皆發穗，木綿間始結穎，晚黍粟·稷唐，今方發穗，晚稻方始胚胎，豆太次第起花，根豆·木麥，尙稽再鋤。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早黍粟幾盡入實，中黍粟已皆發穗，早稷唐·早稻，次第發穗，木綿方張起花，晚黍粟·稷唐，幾皆胚胎，晚稻已畢三鋤，豆太日漸起花，根豆·木麥，鋤役愆期。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火粟間始胚胎，根耕木麥初鋤伊始，而比來雨水頻仍，江川隨處漲溢，峽種沿稼，無不受瘥。其中平壤·江西·龍岡·三和·甑山·定州等六邑段，傍浦田畝，頗多潰決，依山禾稼，亦致汰覆，被災最甚處，無望更蘇是如爲白有臥乎所。今見節序方催，潦漲荐仍，山沿諸邑，舉患沈潰，早晚各種，間多全棄，言念穡事，誠極憂悶。及今快晴，益切顚望，而田畝潰決處段，這卽修築之意，措辭題飭爲白乎於。列邑嗣後形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5일부터 초8일까지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0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3푼이었습니다. 이번 달 초5일부터 초8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덕천 등 27개 고을은 강과 개천 독이 불어나 가득찼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

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익어가고 중기장·중조는 날로 점점 알이 들고 올수수·올벼는 거의 이삭이 패고 목화는 간간이 다래가 맺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이삭이 패고 늦벼는 지금 알을 배기를 이제 시작했고 콩·팥은 차례로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알이 들고 중기장·중조는 이미 다 이삭이 뻗고 올수수·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목화는 한창 꽃이 피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대부분 알을 뻗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치고 콩·팥은 날로 점점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호미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2. 1833년(순조 33) 7월 17일(양력 8월 31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4책(446d-447a) / 平安監營啓錄 4책(9b-9b)

道內農形及平壤等二十七邑今月初五日七日八日雨水形止，與臣營下初十日卯時量又雨，至酉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而尙無霽意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初五日七日八日之雨，陽德·寧遠·孟山·博川·寧邊·雲山·江界·渭原·楚山·朔州·碧潼等十一邑，川渠漲溢，泰川·龜城·熙川·昌城等四邑爲二犁。初十日之雨，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慈山·順川等十一邑爲二鋤，平壤·成川·龍川等三邑爲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今番冷雨頻仍，江川汎濫，峽種之汰覆，沿稼之沈潰，雖有淺深之別，係是通同之患，而始於十六日，雲收陽曝，似有快霽之意是白如乎。繼此日候之調順，方切顚望，而向後各穀之蘇醒與否，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평양 등 27개 고을의 이번달 초5일·초7일·초8일 빗물 경위는 저의 감영에 초10일 묘시쯤에 또 비가 내렸다가 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2촌 3푼이고 아직 개일 조짐이 없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5일부터 초8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양덕·영원·맹산·박천·영변·운산·강계·위원·초산·삭주·벽동 등 11개 고을은 강과 개천 독이 불어나 가득찼고, 태천·구성·회천·창성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10일의 비로 순안·영유·숙천·안주·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자산·순천 등 11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평양·성천·용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3. 1833년(순조 33) 7월 21일(양력 9월 4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4책(446d-447a) / 平安監營啓錄 4책(9b-9b)

道內農形及平壤等二十七邑今月初五日七日八日雨水形止， 與臣營下初十日卯時量又雨，至酉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而尙無霽意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初五日七日八日之雨，陽德·寧遠·孟山·博川·寧邊·雲山·江界·渭原·楚山·朔州·碧潼等十一邑，川渠漲溢，泰川·龜城·熙川·昌城等四邑爲二犁。初十日之雨，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慈山·順川等十一邑爲二鋤，平壤·成川·龍川等三邑爲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今番冷雨頻仍，江川汎濫，峽種之汰覆，沿稼之沈潰，雖有淺深之別，係是通同之患，而始於十六日，雲收陽曝，似有快霽之意是白如乎。繼此日候之調順，方切顚望，而向後各穀之蘇醒與否，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강우형편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5일 소나기와 부슬부슬 내렸는데 ·영변 등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은산. 안주 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덕천·의주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8일의 비로 평양·중화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잘 익어가고 간간이 베어 거두기 시작하고 중기장·중조는 지금 익어가고 올수수·올벼는 한창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간간이 여물어가고 늦벼는 거의 다 이삭을 배었고 간혹 이삭이 패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차 굳어지고 콩·팥은 활짝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계속 마쳤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날로 점점 익어가고 중기장·중조는 차례로 알이 들고 올수수·올벼도 여물어가기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도 거의 이삭이 패고 늦벼는 이미 알을 배고

목화는 간간이 다래가 맺히기 시작하고 콩·팥은 한창 꽃이 피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4. 1833년(순조 33) 7월 26일(양력 9월 9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4책(449c-449c) / 平安監營啓錄 4책(12b-12b)

臣營下今月二十六日丑時量始雨或灑或霏，至辰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白乎所。當此早穀刈取晚種向實之時，惟冀日候之連爲調順，而今此冷雨，已過一寸，不無受瘥之慮，言念穡事，誠爲可悶是白如乎。列邑雨水多寡，嗣後農形利害，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6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5. 1833년(순조 33) 7월 28일(양력 9월 11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4책(449c-449d) / 平安監營啓錄 4책(12b-13a)

臣營下今月二十六日丑時量始雨灑霏，至辰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平壤·肅川·三和等三邑爲一犁，順安·永柔·安州·慈山·殷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咸從·甑山等十四邑爲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列邑所需，既不過濫，繼此日候，連爲調順，各穀成就，庶望收榆是白乎旆。未報邑形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6일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6일의 비로 평양·숙천·삼화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순안·영유·안주·자산·은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함중·중산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6. 1833년(순조 33) 8월 1일(양력 9월 14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4책(450a-450b) / 平安監營啓錄 4책(14a-14b)

平壤等十七邑, 去月二十六日雨澤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順川·价川·嘉山·定州·博川等五邑爲一鋤是如爲白有在.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幾盡刈穫, 而空穀相錯, 有違始料, 中黍粟已皆成熟, 次第刈取, 晚黍粟·早稷唐·早稻, 方張向熟, 晚稷唐今方入實, 晚稻盡爲發穗, 而海坂乾播, 備經旱澇含縮居多, 木綿早顆始綻, 晚房漸堅, 豆太日漸結繭, 而夥甚稀疏, 根豆·木麥, 爛爛起花, 早者結顆.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舉皆成熟, 次第刈取, 中黍粟幾盡向熟, 晚黍粟·早稷唐·早稻, 已皆入實, 晚稷唐間間向實, 晚稻日漸發穗, 而高畝乾播, 始旱終澇, 受損頗深, 木綿顆房漸堅, 豆太始垂針繭, 根豆·木麥, 方張起花.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間已發穗, 根豆·木麥, 再鋤已畢, 而前此黍粟·晚稻之蟲災, 各邑中平壤·慈山, 間得灑注, 雖已洗滌, 順川·肅川·定州·博川段, 尙未寢熄. 宣川·鐵山段, 繼又闖發, 受災不些是如爲白有臥乎所. 當此晚稼成就之時, 平壤·慈山之蟲災旋熄, 雖甚多幸. 宣川·鐵山之又此添災, 誠爲可悶, 蟲蝗捕滅之節, 措辭題飭爲白乎旃.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17개 고을은 지난달 26일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6일의 비로 순천·가산·정주·박천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베어서 수확을 하고 중기장·중조는 이미 잘 익었고 차례로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올수수·올벼는 한창 익어 가고 수수는 지금 알이 들고 늦벼는 다 이삭이 패고 목화는 이른 다래는 벌어지기 시작하고 늦은 다래방은 점차 굳어지고 콩·팥은 날로 점점 줄기가 맺히고 그루같이한 콩·팥·메밀은 활짝 꽃이 피고 이른 것은 꼬투리를 맺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

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잘 익어가고 차례로 베어 거두고 중기장·중조는
거의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올수수·올벼는 이미 알이 들고 수수는 간간이 여물어가고
늦벼는 날로 점점 이삭이 패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차 굳어지고 콩·팥도 줄기가 뻗어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꽃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7. 1833년(순조 33) 8월 11일(양력 9월 24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4책(456a-456d) / 平安監營啓錄 4책(22b-23a)

道內農形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六日驟雨. 順安縣段, 順和·冬花·縣內·定坊·自作·公田·楸島·峰松·東頭·松峴等十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栗子, 小如橡子, 所經處長爲五十里許, 廣爲四十里許. 慈山府雲巖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豆粒, 所經處長爲十里許, 廣爲五里許. 龍岡縣段, 和村·山北·古邑等三面, 雨雹交下, 移時乃止, 雹狀大如太粒, 小如豆粒, 所經處長爲三十里許, 廣爲二十里許. 价川郡段, 東北面口面等三邑, 雨雹交下, 移時乃止, 雹狀大如太粒, 小如豆粒, 所經處長爲三十里許, 廣爲二十里許. 宣川府段, 深川·新府·郡山等三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栗子, 小如橡子, 所經處長爲五十里許, 廣爲十里許. 寧邊府段, 延山面雨雹交下, 移時乃止, 雹狀大如栗子, 小如榛子, 所經處長爲十三里許, 廣爲四里許, 而各邑被雹面里已熟之稻粟, 入實之稷唐, 方實之豆太·木麥, 方拾之木綿, 多被剝落, 受損不淺, 而摘奸修報之際, 日字自至遲滯是如爲等如, 報來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畢穫, 中黍粟幾盡刈取, 晚黍粟·早稷唐·早稻, 幾皆成熟, 晚稷唐次第向熟, 晚稻日漸入實, 而海坂乾播, 蹲縮居半, 難期食實, 木綿間始拾絮, 豆太今纔入實, 根豆·木麥, 僅得結穎.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幾盡刈取, 中黍粟方張刈穫, 晚黍粟·早稷唐·早稻, 方張成熟, 晚稷唐已皆入實, 晚稻漸次向實, 而高燥乾播, 含穗未發, 十居六七, 木綿穎房始綻, 豆太次第結穎, 根豆·木麥, 聞[間]始結穎.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入實, 根豆·木麥起花, 而前此黍粟·晚稻之蟲災, 各邑中順川·肅川·宣川·博川段, 間得驟灑, 雖已洗滌. 定州·鐵山段, 尙未寢熄是如爲白有臥乎所. 八月以來涼意方催, 晚稼成就, 舉患差遲是白在如中, 定州·鐵山之蟲蝗未熄, 順安等邑之雹災受損, 言念穡事, 俱極悶慮, 繼此日候之調順, 益切穎[頤]望是如乎旆.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강우형편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6일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순안현은 순화·동화·현내·정방·자작·공전·추도·봉송·동부·송현 등 10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큰 것은 밤알만 하고 작은 것은 도토리열매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50리가량이고 너비는 40리가량입니다. 자산부 운암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하다. 길이는 10리가량이고 너비는 5리가량입니다. 용강현은 화춘·산북·고읍 등 3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큰 것은 팔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30리가량이고 너비는 20리가량입니다. 개천군은 동면·서면·북면 등 3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큰 것은 팔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30리가량이고 너비는 20리가량입니다. 선천은 심천·신부·군산 등 3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그 크기가 큰 것은 밤알만 하고 작은 것은 도토리알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50리가량이고 너비는 10리가량입니다. 영변은 연산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큰 것은 밤알만 하고 작은 것은 개암나무열매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13리가량이고 너비는 4리가량입니다. 우박이 내려 각 고을은 각종 곡식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수확을 마치고 중기장·중조는 거의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올수수·올벼는 거의 익어가고 수수는 차례로 익어가고 늦벼는 날로 점점 알이 들고 목화는 간간이 솜을 따기 시작하고 콩·팥도 알이 들고 목화는 간간이 솜을 따기 시작하고 콩·팥은 지금 알이 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베어 거두고 중기장·중조는 한창 베어 수확하고 늦기장·늦조·올수수·올벼는 한창 익어가고 수수는 이미 알이 들고 늦벼는 점차 여물어가고 목화는 다래방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콩·팥은 차례로 열매가 맺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간간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8. 1833년(순조 33) 8월 16일(양력 9월 29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4책(458b-459a) / 平安監營啓錄 4책(25b-26a)

順安等六邑今月初六日雨雹形止及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八日驟雨. 江東縣段, 區池面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豆粒, 所經處長爲十里許, 廣爲六里許. 成川府段, 下部·巖浦·墨所·崇仁·眞洞·文憲·仁山·溫水·竹典·城巖·三岐·漆典·朔面·天成·四佳等十五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栗子, 小如橡子, 所經處長爲一百六十七里許, 廣爲二十九里許. 安州牧段, 文谷·龍頭·燕洞等三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橡子, 小如豆粒, 所經處長爲三十里許, 廣爲二十里許. 嘉山郡段, 郡內·西面·北面等三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太粒, 所經處長爲十里許, 廣爲四里許. 定州牧段, 葛池·古邑·德巖·海山·阿耳·南面·西面·東川·高峴·新安·德達·五山·馬山·西院·雲田·大明·伊彦·西部等十八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栗子, 小如橡子, 所經處長爲六十里許, 廣爲五十里許. 鐵山府段, 站面西林兩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榛子, 所經處長爲二十里許, 廣爲五里許. 龍川府段, 東上·北上·西面·內下·上面·下面·府內等七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橡子, 小如豆粒, 所經處長爲四十里許, 廣爲五里許. 義州府段, 光城·楊上·楊西·古邑·古寧·月華·光化等七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霎[雹]狀大如栗子, 小如太粒, 所經處長爲一百三十里許, 廣爲七十三里許, 而各邑被雹面里未穫之稻粟, 向熟之稷唐, 方拾之木綿, 入實之豆太·木麥, 多被剝落, 受損不淺, 而派送摘奸之際, 日字自至遲滯是如爲等如, 報來爲白臥乎所. 今年農形, 大違始料, 沿峽各穀之成就, 惟冀日候之調順是白在如中, 順安等六邑之雹災受損, 已極驚悶, 而又有此江東等八邑之鱗次報來, 言念穡事, 誠爲可悶是白如乎.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순천 등 6개 고을에 이번 달 초6일 내린 우박형편과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의 경우,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면 이번 달 초8일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강동현 구지면에 우박이 내리다가 그쳤는데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하고 거처간 곳의 길이는 10리가량이고 너비는 6리가량입니다. 성천은 하부·암포·묵소·송인·진동·문현·인산온수·죽전·성암·삼지·침전·작면·천성·사

가 등 15개 면에 우박이 내려 크기는 큰 것은 밤알만 하고 작은 것은 도토리열매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167리가량이고 너비는 29리가량입니다. 안주목은 문곡·용두·연형 등 3개 면에 우박이 내려 크기는 큰 것은 도토리열매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30리가량이고 너비는 20리가량입니다. 가산군은 군내·서면·북면 등 3개 면에 우박이 내려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알만 하였다. 길이는 10리가량이고 너비는 4리가량입니다. 정주목은 갈지·고읍·덕암·해산·하이·남면·서면·동천·고현·신안·덕달·오산·마산서원·운전·대명·이언·서부 등 18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큰 것은 밤알만 하고 작은 것은 도토리알만 하였다. 길이는 60리가량이고 너비는 50리가량입니다. 철산은 참면·서림 등 두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개암나무열매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20리가량이고 너비는 5리가량입니다. 용천부는 동상·북상·서면·내하·상면·하면·부내 등 7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큰 것은 도토리알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40리가량이고 너비는 5리가량입니다. 의주는 광성·양산·양서·고읍·고녕·월화·광화 등 7개 면에 우박이 내려 크기가 큰 것은 밤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130리가량이고 너비는 73리가량입니다. 각 고을의 우박 피해는 수확을 앞두고 벼·기장·조·콩·팥·목화·보리 등 각종 곡식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9. 1833년(순조 33) 8월 21일(양력 10월 4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4책(459c-460b) / 平安監營啓錄 4책(27a-28a)

江東等八邑雨雹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一日驟雨. 義州府段, 彌羅·楊下兩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栗子, 小如豆粒, 所經處長爲十三里許, 廣爲八里許. 雲山郡段, 委曲·城面·邑面·南面·東面等五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太粒, 小如豆粒, 所經處長爲八十里許, 廣爲三十里許. 渭原郡段, 郡上·郡下·西下·古堡等四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豆粒, 所經處長爲九十五里許, 廣爲十九里許. 楚山府段, 東部·西部·東面等三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栗子, 小如太粒, 所經處長爲三十五里許, 廣爲四里許. 昌城府段, 府內·青山兩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太粒, 所經處長爲四十五里許, 廣爲八里許. 碧潼郡段, 零面·鶴面·城面·吾面·時面等五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栗子, 小如太粒, 所經處長爲一百里許, 廣爲四十七里許. 寧邊府段, 今十五日驟雨, 百嶺·薪峴·南松·古城等四面, 雨雹交下, 移時乃止, 雹狀大如栗子, 小如太粒, 所經處長爲五十四里許, 廣爲二十七里許, 而各邑被雹面里未穫之稻粟, 向熟之稷唐, 方拾之木綿, 入實之豆太·木麥, 多被剝損, 爲災不些, 而分送摘奸之際, 自至遲滯是如爲白有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中黍粟畢穫, 晚黍粟幾盡刈取, 早稷唐·早稻, 次第刈取, 晚稷唐已皆向熟, 晚稻幾盡入實, 木綿連爲拾絮, 豆太已盡入實, 根豆·木麥, 方張入實, 而顆甚稀疏.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畢穫, 中黍粟幾盡刈取, 晚黍粟過半刈取, 早稷唐·早稻, 方始刈取, 晚稷唐幾皆向熟, 晚稻方張入實, 木綿間始拾絮, 豆太日漸入實, 根豆·木麥, 次第向實, 而顆既無多.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間間向熟, 根豆·木麥, 漸次結顆早者入實, 而向前定州·鐵山之晚稻蟲蝗, 間已寢熄是如爲白有臥乎所. 見今寒露已迫, 冷意方催, 沿峽晚種, 不無未及之慮是白岔除良, 江東等邑之雹損, 已是不淺之災, 而又有此義州等七邑之報來言念穡事, 益切憂悶是白如乎.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5일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영변부는 백령·신현·남송·고성 등 4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밤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54리가량이고 너비는 27리가량입니다. 각 고을에 내린 우박 피해는 각종 곡식에 막대한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평안도 내 강동 등 8개 고을에 내린 우박형편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1일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의주부의 경우, 미라·양하 등 두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밤알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13리가량이고 너비는 8리가량입니다. 운산군의 경우, 강곡·성면·읍면·남면·동면 등 5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팔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80리가량이고 너비는 30리가량입니다. 위원군의 경우, 군상·군하·서하·고보 등 4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95리가량이고 너비는 19리가량입니다. 초산부의 경우, 동부·서부·동면 등 3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밤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35리가량이고 너비는 4리가량입니다. 창성부의 경우, 부내·청산 등 2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45리가량이고 너비는 8리가량입니다. 벽동군의 경우, 우면·학면·성면·오면·수면 등 5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밤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100리가량이고 너비는 47리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수확을 마치고 중기장·중조는 거의 베어 거두었고 늦기장·늦조는 절반 이상 베어 거두고 올수수·올벼는 지금 베어 거두기 시작하고 수수는 거의 익어가고 늦벼도 한창 알이 들고 목화도 간간이 솜을 따기 시작하고 콩·팥은 날로 점점 알이 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차례로 알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중화·상원·삼동·강동·선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중기장·중조는 수확을 마치고 늦기장·늦조는 거의 베어 거두고 올수수·올벼는 차례로 베어 거두고 수수는 이미 익어가고 늦벼는 거의 알이 들고 목화는 연일 솜을 따고 콩·팥은 이미 알이 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알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0. 1833년(순조 33) 9월 1일(양력 10월 13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4책(461a-461c) / 平安監營啓錄 4책(29a-29b)

義州等七邑雨雹形止及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二日驟雨. 孟山縣段, 藹田面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栗子, 小如太粒, 所經處長爲三十里許, 廣爲十一里許. 朔州府段, 白面·南面兩面, 雨雹交下, 移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太粒, 所經處長爲二十九里許, 廣爲十八里許. 義州府段, 玉尙·加山兩面, 雨雹交下, 移時乃止, 雹狀大如栗子小如榛子, 所經處長爲六十七里許, 廣爲三十五里許, 而各邑被雹面里未獲[穫]之晚稻·稷唐, 拾絮之木綿成熟之豆太·木麥, 多被剝損, 爲災不些, 而派送摘奸之際, 自至遲滯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晚黍粟畢獲[穫], 早稷唐·早稻, 幾盡刈取, 晚稻·稷唐方張刈獲[穫], 木綿過半拾絮, 而餘顆無多, 豆太·根豆·木麥, 已皆成熟.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中黍粟畢獲[穫], 晚黍粟·早稷唐·早稻, 幾盡刈獲[穫], 晚稻·稷唐, 次第刈取, 木綿方張拾絮, 而顆甚稀疎, 豆太·根豆·木麥, 幾皆成熟.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隨熟隨刈, 根豆·木麥, 過半向熟是如爲白有臥乎所. 向前列邑之雹災, 雖有淺深之別, 當此晚穀收穫[穫]之時, 荐有孟山等邑之所報, 言念民事, 誠爲憂悶是白如乎. 嗣後農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각 고을의 의주 등 7개 고을에 우박이 내린 형편과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의 경우,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2일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맹산현의 경우, 애전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큰 것은 밤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30리가량이고 너비는 11리가량입니다. 삭주부의 경우, 백면·남면·서면 등 3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29리가량이고 너비는 18리가량입니다. 의주부의 경우, 옥상·가산 등 두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밤알만 하고 작은 것은 개암나무열매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67리가량이고 너비는 35리가량입니다. 각 고을

의 면에 내린 우박 피해는 각종 곡식에 막대한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늦기장·늦조는 수확을 마치고 올수수도 한창 베어 수확하고 목화는 절반 이상 솜을 따고 콩·팥과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이미 익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변·맹산·양덕·영원·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중기장·중조도 수확을 마치고 늦기장·늦조·올수수·올벼는 거의 베어 수확하고 늦벼·수수는 차례로 베어 거두고 목화는 한창 솜을 따고 콩·팥과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거의 익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1. 1833년(순조 33) 9월 11일(양력 10월 23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4책(470b-470d) / 平安監營啓錄 4책(40b-41a)

孟山等三邑雨雹形止及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德川·寧遠·孟山·龜城·朔州·熙川·江界·渭原·楚山等九邑, 今初二日夜, 嚴霜降下, 陽德·昌城·碧潼·寧邊·雲山等五邑, 初四日夜, 慈山·殷山·順川·价川·博川·泰川·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等十三邑, 初五日夜,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等十五邑, 初八日夜, 水霜降下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稻·稷唐畢獲[穫], 晚稻·稷唐, 幾盡刈取, 木綿幾皆摘拾, 豆太·根豆·木麥, 幾半收穫[穫],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晚黍粟早稻·稷唐畢獲[穫], 晚稻·稷唐, 幾皆刈取, 木綿餘顆無幾, 豆太·根豆·木麥, 方張收穫[穫].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幾盡刈取, 根豆·木麥, 隨熟隨刈是如爲白有臥乎所. 霜令已遍, 穡事垂畢, 一路災實, 各邑分等, 更加詳探, 追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안도 내 여러 곳에서 서리가 내렸는데 9월 초2일 밤 서리가 내린 고을은 맹산·덕천·영원·구성·삭주·회천·강계·위원·초산 등 9개 고을이었다. 9월 초4일 밤 서리가 내린 고을은 양덕·창성·벽동·영변·운산 등 5개 고을이었다. 9월 초5일 밤에는 자산·은산·순천·박천·태천·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 등 13개 고을은 서리가 내렸습니다. 9월 초8일 밤에 서리가 내린 고을은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 등 15개 고을이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울벼·울수수는 수확을 마치고 수수·늦벼·늦기장은 거의 베어 거두고 목화는 거의 솜을 따고 콩·팥과 그루같이한 콩·메밀도 절반이나 수확을 하였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울벼·

수수는 수확을 마치고 늦벼와 수수는 거의 베어 거두고 목화는 다래가 벌어지고 콩·팥과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수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2. 1834년(순조 34) 7월 2일(양력 8월 6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09c-509d) / 平安監營啓錄 5책(1b-3a)

博川郡津頭等三面多戶漂頽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又接嘉山郡守柳亨植去月二十八日成貼牒呈內, 本月二十一二日之雨, 江川漲溢, 東面·南面·西面·北面等四坊, 沿邊民戶□... □壓, 大戶爲二戶, 中戶爲五十六戶, 小戶爲一百五十四戶, 而被災民戶, 散在各處, 待□... □報, 日字自至遲滯是如爲白有臥乎所. 當此窮夏, 多民之蕩析棲遑, 極爲□... □奠接之方不可少緩乙仍于. 爲先自臣營發送褊裨, 使之面面慰□... □石等物, 逐戶助給是白遣. 今年條烟戶雜役, 一併蠲減, 借材助丁, 期於不日結構□... □接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旆. 頽壓大戶二戶, 各小米九斗□... □五十四戶, 各小米七斗式, 恤典依例題給後各人等役·姓名□... □恤廳爲白去乎. 令該廳考例會減施行教爲白乎旆. 自前月十九日始雨, 至二十四五日始霽, 而五六日之間, 清南則或注或晴, 不甚爲害, 清北則一直連注, 此疆彼界之間, 多少亦不一. 故災形之深淺不同, 而江邊諸邑, 俱爲酷被. 今此嘉博兩界之地, 處在長江之濱, 家戶漂頽, 若是夥多, 兩邑之全頽者, 竝計爲四百餘戶, 半頽及壁破者, 又不下於數百戶, 漂糧蕩產, 聞見愁慘, 改構安接, 難以時日責成, 誠極憂悶, 而以其雨勢之不爲一時暴注, 故人命之得免淪沒, 極爲奇幸是白乎旆. 義州則三江合流六島幾沈之由, 前已修啓, 而形止尙無報來者, 可知積漲之未卽退而摘奸之未卽回也. 斯速詳細報來之意, 另加申飭, 待報來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박천(博川)군 진두 등 3개 면에 떠내려가고 무너진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지난달 28일 가산 군수 유형식의 이첩에 의하면 6월 22일 내린 비로 시내와 도랑이 넘쳐흘러 동면·남면·서면·북면 등 4개 방에 연변이 침수·침몰·압사한 것이 민가 대과 2가구·중과 56가구·소과 154가구로 큰 피해를 입었다. 또 무너진 것이 대과 2가구·중과·20가구·소과 54가구로 구제미 각 7두씩을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3. 1834년(순조 34) 7월 2일(양력 8월 6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10a-510a) / 平安監營啓錄 5책(3a-3b)

去月十八日之雨, 仍爲成霖, 而安州等二十八邑雨水形止, 先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番潦水, 寧邊·雲山·熙川·泰川·龜城·朔州·昌城·陽德·寧遠·孟山等十邑, 大小江川, 俱爲漲滿. 安州·博川·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等九邑, 二十一日以後, 連霖添漲, 坳汙在在潰缺, 濱浦處處昏墊, 加以東風大作, 發穗之粟稷唐, 向茁之, 稻綿太, 舉皆受損, 而其中義州段, 沈沒之各島農形, 今無餘望, 而外他山沿禾穀, 亦被風損沙覆無不痒稼, 待水退更審馳報計料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遠邑雨水多寡及義州災形, 待其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각 고을의 지난달 18일 내린 장맛비는 안주 등 28개 고을의 강우형편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18일의 비로 길바닥에 물이 권 빗물은 영변·운산·태천·구성·삭주·창성·양덕·영원·맹산 등 10개 고을에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안주·박천·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 등 9개 고을에 6월 21일 이후까지 연일 장맛비가 내려 크고 작은 피해가 막심하다. 또 돌풍이 크게 불어와 이삭이 나오는 조·기장에 각종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4. 1834년(순조 34) 7월 4일(양력 8월 8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10b-510b) / 平安監營啓錄 5책(3b-3b)

道內各邑雨水形止, 已爲連續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本月初三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未時量, 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如乎. 前月連霖之餘, 一旬晴曝, 望雨之時, 又得甘霖, 經水各穀, 期有洗滌之效是白乎所. 列邑均霑與否,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각 고을의 강우형편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3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5. 1834년(순조 34) 7월 5일(양력 8월 9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10d-511b) / 平安監營啓錄 5책(4a-5a)

義州府六島沈沒處淹死與漂頽之數, 待摘奸更報鱗次登聞計料之由, 昨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該府尹金景善本月初三日申時成貼狀啓臚報內, 各處船隻領去將校, 陸續還現, 各鎮各面所報, 亦爲次第到付, 而通計人命淹死與戍幕民戶之漂失與頽壓半頽之數, 則人物淹死爲十六口, 戍幕漂失爲四十幕, 頽壓爲四幕, 半頽爲一幕, 民戶漂失爲八百九十四戶, 頽壓爲五百五十戶, 半壓爲二百九十三戶, 而淹死段, 嚴飭沿面, 以爲卽速鉤拯之地, 其中已拯者, 爲先題給米斗空石等物, 使之掩埋. 被災民人等段, 目下延活, 一時爲急, 分給米醬, 俾爲糊口. 中江巡檢幕大國人段, 亦以船隻搬移於九連城高阜處, 得免墊溺之患, 而亦爲助給糧饌, 使之依舊還接是如爲白有旆. 一時到付該府尹牒呈內, 今番潦漲, 淹死人口及頽壓民戶數爰, 今方修成冊以報, 而淹死之鉤拯與否, 災戶之大小等第, 更爲區別, 竝與恤典會減成冊, 追後更報計料是如爲白有臥乎所. 今觀所報成冊, 則人命之淹沒爲十六口, 民戶之漂頽與半頽, 爲一千七百三十七戶之多. 漂蕩號哭之狀, 如在目中, 萬萬悶盡, 萬萬罔措. 未拯屍身段, 申飭該府及下沿諸邑, 另加廣搜, 期於必拯, 而凡係存恤之方, 有不可以尋常淹漂, 循例措處是白乎等以. 自臣營發送編裨, 與該府尹眼同撫慰, 而原恤典外, 米穀·空石等物, 拔例題給, 以爲結構前庇身糊口之資. 仍令許斫材木, 助借糧丁, 從速改構, 俾各趁卽奠接, 當年條烟戶雜役, 亦竝蠲減之意, 今方措辭嚴飭爲白乎旆. 淹死人與漂頽戶恤典成冊, 待其區別更報, 修成冊鱗次上送于賑恤廳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의주부 6개 섬의 수해형편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직접 의주부의 이첩 보고에 의하면 지난달 큰 장맛비로 침수·침몰 사태가 발생하여 떠내려가고 무너져 익사자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도 있었다. 인명 익사 16명, 성막이 떠내려간 것이 40막, 무너진 것이 5막, 민가 떠내려간 것이 894가구, 무너진 민가 558가구, 반쪽 무너진 것이 293가구 등 인명·민가 각종 농사·선박 등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추가로 보고하였습니다. 성전은 인명·익물 16가구, 민가 떠내려간 것과 무너진 것이 1,727여 가구, 익사자 수십 명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6. 1834년(순조 34) 7월 6일(양력 8월 10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11b-511d) / 平安監營啓錄 5책(5a-5b)

去月晦前潦漲以後, 農形利害詳審以報之意, 題飭各邑, 臣營下本月初三日測雨器水深爲六分緣由, 前已連續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昌城·楚山兩邑, 去月二十四五日間, 暴雨連霖, 江川漲溢, 沿邊之禾稼與民戶, 多有沈墊漂頽之患, 待水退摘奸更報計料是如是白遣. 今月初三日之雨, 鐵山·義州兩邑得二犁, 价川·龍川兩邑得一犁, 平壤·中和·江西·江東·甌山·咸從·龍岡·三和·成川·安州·寧邊·博川·嘉山·龜城·定州·郭山·宣川等十七邑, 得一鋤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舉皆發穗, 次第入實, 稷唐·早稻·晚黍粟幾盡胚胎, 間或發穗, 木綿花後結穎, 而備經風潦, 花零顆稀, 豆太今方起花, 晚稻三鋤幾訖, 根豆·木麥初鋤垂畢, 而其中江東·成川·安州等三邑段, 依峽之稼, 濱浦之種, 或致沈墊沙覆之患是如是白遣.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盡胎方穗, 稷唐·早稻·晚黍粟方張胚胎, 木綿日漸起花, 而臨潦被風, 晚藥無幾, 晚稻·豆太三鋤伊始, 根豆·木麥初鋤纔始.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三鋤, 根豆·木麥已盡立苗, 而其中博川·嘉山·定州·泰川·龜城·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朔州·昌城·楚山等十三邑段, 峽種之被汰者, 沿稼之見墊者, 無復餘望是如爲白有臥乎所. 前月潦漲之患, 清北甚於清南, 而清北中江邊諸邑, 尤有甚焉. 旣除良. 楚·昌兩邑, 只有禾穀受損民家多頽之報, 而迄無摘奸成冊之牒. 碧潼·渭原·江界三邑段, 潦漲以後, 尙無報牒, 可知其間爲阻涉而然, 言念民事, 去益憂悶. 楚·昌兩邑民家漂頽多寡及江·渭·碧三邑雨水形止, 待其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장맛비와 농사·홍수 피해형편과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3일에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가랑비와 강한 소나기 호우가 내렸는데 창성·초산 등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넘쳐흐렀으며 이번 비로 연변의 농작물과 민가가 침몰 떠내려가고 무너진 집이 많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3일의 비로 철산·의주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용천 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중화·강서·강동·증산·함중·용강·삼화·성천·안주·영변·박천·가산·구성·정주·곽산·선천 등 1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이삭이 패고 차례로 알이 들고 수수·올벼·늦기장·늦조는 대부분 알을 땀고 간혹 이삭이 패고 목화는 꽃이 진 후 다래가 맺히고 콩·팥은 꽃이 피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과 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산·정주·곽산·철산·선천·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다 이삭을 배었고 지금 이삭이 패고 수수·올벼·늦기장·늦조는 한창 알을 배고 목화는 날로 점점 꽃이 피고 늦벼·콩·팥은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강계군 삼천·자성 등 두 방에서 화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과 보리는 모두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7. 1834년(순조 34) 7월 8일(양력 8월 12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14c-515a) / 平安監營啓錄 5책(9b-10a)

今番經潦後, 沿邑民戶漂頽多寡, 待其摘奸報來, 鱗次登聞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昌城·碧潼·泰川·博川·安州等五邑, 民戶頽壓形止, 今纔摘奸報來, 而昌城府段, 府內·昌洲兩面, 民家頽壓, 大戶爲八戶, 中戶爲十戶, 小戶爲八十戶. 碧潼郡段, 北面·平下·邑內·雲面·時面·別面·西下等七面, 民家頽壓, 大戶爲一戶, 中戶爲一戶, 小戶爲九十二戶. 泰川縣段, 邑內·長林·東面·北面·南面等五面, 民家頽壓, 大戶爲三戶, 中戶爲二十一戶, 小戶爲二十二戶. 博川郡段, 西面·德安兩面, 民家頽壓, 中戶爲十五戶, 小戶爲二十一戶. 安州牧段, 東面·青山·州內等三面, 民家頽壓, 小戶爲二十戶, 而同五邑被災民戶, 散在於各面各里, 待水退躬審摘奸之際, 修報日字, 各自遲滯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當此窮夏, 多民之蕩析棲遑, 極爲悶惻, 其所存恤奠接之方, 不可少緩乙仍于. 爲先自臣營分遣親裨, 使之面面慰撫, 原恤典外, 米斗空石等物, 拔例助給是白遣. 今年條烟戶雜役, 亦併蠲減, 許斫私養山木, 助借糧丁, 期於從速結構, 依舊安堵之意, 被災各邑良中, 措辭嚴飭爲白乎旆. 右項頽壓大戶十二戶, 各小米九斗, 中戶四十七戶, 各小米八斗, 小戶二百三十五戶, 各小米七斗式, 恤典依例題給後, 各人等役·姓名及題給穀數, 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考例會減施行爲白只爲.

지난달 강한 장맛비로 연변읍의 민가가 떠내려가고 무너진 재해형편은 조사하여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즉시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창성·벽동·태천·박천·안주 등 5개 고을에 민가가 무너진 형편은 다음과 같다. 창성부의 경우, 부내·창주 등 두 면에 무너진 민가는 큰집 8가구·중간집 10가구·작은집 80가구이다. 벽동군의 경우, 북면·평하·읍내·우면·시면·별면·서하 등 7개 면에 무너진 민가 큰집 1가구·중간집 2가구·작은집 92가구다. 태천현의 경우, 읍내·장림·동면·북면·남면 등 5개 면에 무너진 민가 큰집 3가구·중간집 21가구·작은집 22가구이다. 박천군의 경우, 서면·덕안 등 두 면에서 무너진 민가 중간집 15가구·작은집 21가구이다. 안주목의 경우, 동면·청산·주내 등 3개 면에 무너진 민가 작은집 26가구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고을의 수해 상황이 조사되지 아니하여 조사되는 대로 즉시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8. 1834년(순조 34) 7월 8일(양력 8월 12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15a-515b) / 平安監營啓錄 5책(10a-10b)

道內農形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江界·渭原等兩邑，自去月十九日，至二十五日，雨勢連霖，大戶[小]江川，無不漲溢，而農形利害民戶漂頽多少，待水退更報計料，而各面川路俱爲阻涉，摘奸自致遲滯是如爲自[白]有旆。臣營下本月初六日酉時量始雨，或灑或霖，初七日巳時量至，測雨器水深爲二寸八分，而伊時以後，乍陰乍暘，初八日寅時量，仍爲開霽是白如乎。列邑所得多寡，隨其報來，竝與江界等兩邑農形，而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6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7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8푼이었습니다. 이 시간 후에 한때 흐리기도 하고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다가 초8일 인시쯤에 이르러 개었는데,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가랑비와 주룩주룩 내려 강계·위원 등 2개 고을에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농사와 민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9. 1834년(순조 34) 7월 12일(양력 8월 16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20b-520c) / 平安監營啓錄 5책(17a-17a)

義州府六島渰死人與漂頽戶恤典成冊, 待其區別更報, 修成冊鱗次上送于賑恤廳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該府尹金景善牒呈內, 今番水災, 渰死人爲十六口, 而已拯爲四口, 未拯爲十二口, 漂頽戶爲一千七百三十七戶內, 全家漂頽爲一千四百四十四戶, 半頽爲二百九十三戶, 而今到備邊司啓下關中, 凡係施恤之政, 以丙辰所已施者施之亦爲有等以. 渰死十六口及全家漂頽一千四百四十四戶, 半頽二百九十三戶, 分其戶等, 依丙辰例磨鍊, 恤典成冊以報, 而未拯屍身段, 分送校吏於下沿浦口, 連加搜探, 期於畢拯. 災戶段, 許斫私養山木, 蠲減各樣徭役, 飭諭隣里, 使之有無相資, 派定鄉將, 亦令輪回監董, 從速畢構, 如前奠接計料是如事, 牒呈是白置有亦. 右項被災是白在大戶一百二十五戶, 各小米九斗, 中戶六百七十四戶, 各小米八斗, 小戶九百三十八戶, 各小米七斗式, 恤典依例題給後, 會減成冊, 修送賑恤廳爲白乎旅. 未拯屍鉤拯之節, 漂頽戶結構之方, 益加嚴飭.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의주부 6개 섬의 익사 인명, 떠내려간 민가, 무너진 민가 등 피해 형편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추가로 의주부 보고에 의하면 수해 상황은 익사 인명, 민가 16가구·전과 4가구·반과 12가구, 떠내려간 민가와 무너진 민가 1,444가구, 반 무너진 것이 293가구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0. 1834년(순조 34) 7월 12일(양력 8월 16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20d-520d) / 平安監營啓錄 5책(17a-17b)

臣營下本月初六日始雨, 至初七日, 測雨器水深爲二寸八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价川·德川兩邑得二犁, 平壤·祥原·三登·殷山·江西·龍岡·咸從·甑山·順安·永柔·肅川·嘉山·龜城·郭山·義州等十五邑, 得一犁, 泰川·鐵山·龍川等三邑, 得二鋤, 慈山·順川·江東·成川·中和·三和·安州·博川·寧邊·雲山·熙川·定州·宣川等十三邑, 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 近因雨暘均適, 沿峽被災各穀潰墊全棄處外, 庶有蘇醒之望是白如乎. 未報遠邑得雨多寡, 待其報來, 竝與向後農形, 而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6일부터 초7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덕천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양·상원·삼등·은산·강서·용강·함중·중산·순안·영유·숙천·가산·구성·곽산·의주 등 1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태천·철산·용천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자산·순천·강동·성천·중화·삼화·안주·박천·영변·운산·회천·정주·선천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1. 1834년(순조 34) 7월 14일(양력 8월 18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20d-521b) / 平安監營啓錄 5책(17b-18a)

去月潦水後, 沿邑民戶漂頽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定州·鐵山·昌城·楚山等四邑民戶漂頽形止, 又爲摘奸報來, 而定州段, 大明·古邑·雲田·海山等四面, 頽壓大戶爲七戶, 中戶爲六戶, 小戶爲十三戶. 鐵山府段, 餘閑·常平兩面, 頽壓大戶爲二戶, 中戶爲九戶, 小戶爲三戶. 昌城府段, 新倉·東倉·大倉·青山等四面, 頽壓大戶爲三戶, 中戶爲一戶, 小戶爲二十二戶. 楚山府段, 東部面漂失爲四戶, 頽壓爲十九戶, 而災戶等節, 待水退摘奸後, 區別更報計料是如事,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義州等邑之數千戶被災, 已極愁慘, 而今此四邑報災, 又近九十戶之多. 當此農節, 多民之失所棲遑, 尤爲矜悶, 其所存恤奠接之方, 不容少緩乙仍于. 爲先自臣營原恤典外, 助給米斗·空石等物, 俾作目下庇身糊口之資是白遣. 蠲除各樣徭役, 許斫私養山木, 助給糧丁, 從速結構, 依舊安堵之意, 措辭嚴飭于被災各邑爲白乎旆. 定州·鐵山·昌城等三邑, 頽壓大戶十二戶, 各小米九斗, 中戶十六戶, 各小米八斗, 小戶三十八戶, 各小米七斗式, 恤典依例題給後, 各人等役·姓名及穀數, 成冊修送于賑恤廳爲白乎旆. 楚山災戶段, 待其摘奸後區別更報, 修成冊鱗次上送于該廳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수해로 인한 연로읍의 민가가 떠내려가고 무너진 형편은 각 고을의 보고에 의하면 정주·철산·창성·초산 등 4개 고을에 수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주군의 경우, 대명·운전·고읍·해산 등 4개 면에서 무너진 민가 큰집 7가구·중간집 6가구·작은집 13가구이다. 철산군 여한·상평 등 두 면에는 무너진 민가 큰집 2가구·중간집 9가구·작은집 3가구이다. 창성부의 경우, 신창·동창·대창·청산 등 4개 면에 무너진 민가 큰집 3가구·중간집 1가구·작은집 22가구이다. 초산부의 경우, 동부면은 떠내려간 민가 4가구·무너진 민가 19가구이다. 이 밖에 곳곳에 크고 작은 수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2. 1834년(순조 34) 7월 16일(양력 8월 20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21d-522a) / 平安監營啓錄 5책(18b-19a)

价川等三十三邑, 今月初六日七日雨澤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昌城·碧潼·楚山等三邑得一犁, 陽德·寧遠·孟山·朔州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有於.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日漸就熟, 稷唐·早稻·晚黍粟幾盡發穗, 次第向實, 木綿早顆漸堅, 晚花纔起, 晚稻先種趁鋤者, 間或胚胎, 豆太一向起花, 根豆·木麥再鋤伊始.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舉皆發穗, 今方向實, 稷唐·早稻·晚黍粟漸次發穗, 木綿花甚顆稀, 晚稻纔訖三鋤, 豆太間間起花, 根豆·木麥幾畢初鋤.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三鋤垂畢, 根豆·木麥初鋤方始, 而其中碧潼段, 沿稼多致沈墊, 峽種或患汰覆. 德川·熙川段, 山田間有蟲災, 不至熾盛是如爲白有於. 臣營下本月十四日亥時量始雨, 十五日寅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乎. 江邊諸邑中, 江界·渭原段, 只有江川漲溢之牒, 更無和穀傷損之報, 可知其不甚爲害是白乎於. 目下各穀, 連得沾潤, 尤有善就之望是白乎所. 列邑形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개천 등 33개 고을에 이번 달 초6일부터 초7일까지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6일부터 초7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창성·벽동·초산 등 3개 고을에 1려가 내렸고 양덕·영원·맹산·삭주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에 올기장·올조는 날로 점점 점점 익어가고 수수·올벼·늦기장·늦조는 거의 이삭이 패고 차례로 여물어가고 목화는 이른 다래는 점차 굳어지고 늦은 것은 꽃이 피고 늦벼 중 먼저 심은 것은 초벌 김매기를 하고 간혹 알을 배고 콩·팥은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수재형편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4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5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다. 이번 달 14일부터 15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강변 여러 고을 가운데 강계·위원(渭原)군에서는 시내와 도랑이 넘쳐흘러 여러 곡식에 상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이삭이 패고 지금 여물어가고 수수·올벼·늦기장·늦조는 점차 이삭이 패고 목화는 다래가 벌어지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콩·팥은 간간이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3. 1834년(순조 34) 7월 21일(양력 8월 25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23a-523b) / 平安監營啓錄 5책(20b-20b)

臣營下本月十五日，測雨器水深爲八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慈山·殷山·順川·德川·肅川·永柔·祥原·甑山·雲山·宣川·昌城等十一邑，得一犁，平壤·中和·江東·成川·陽德·江西·龍岡·三和·咸從·順安·安州·博川·泰川·龜城·寧邊·熙川·鐵山·義州等十八邑，得一鋤是如爲白有旆。臣營下今二十日卯時量又雨，或霏或灑，至二十一日丑時，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乎。近來雨暘均調，各穀善就，民事萬萬喜幸是白乎旆。列邑之兩次所得，嗣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4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4일부터 15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자산·은산·순천·덕천·숙천·영유·상원·증산·운산·선천·창성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중화·강동·성천·양덕·강서·용강·삼화·함중·순안·안주·박천·태천·구성·영변·회천·철산·의주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0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1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4. 1834년(순조 34) 7월 26일(양력 8월 30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24c-525a) / 平安監營啓錄 5책(22b-23a)

臣營下本月二十一日, 測雨器水深爲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咸從川渠微漲江西得一犁, 平壤·中和·祥原·龍岡·三和·甌山·永柔·肅川·安州·慈山等十邑得一鋤是如爲白有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間或刈取, 稷唐·早稻·晚黍粟日漸入實, 木花連作桃繭, 晚稻發穗, 豆太方垂針繭, 根豆·木麥今始起花.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漸次就熟, 稷唐·早稻·晚黍粟已皆發穗, 間間向實, 木花漸結穎房, 晚稻幾盡胚胎, 豆太爛漫起花, 根豆·木麥過半再鋤.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胚胎伊始, 根豆·木麥初鋤垂畢, 而其中德川·熙川段, 間經雨滌, 蟲災寢熄. 定州·雲山·泰川·龜城·朔州·昌城等六邑段, 稻粟豆太, 蟲蝗方熾, 災有淺深, 而龜·泰兩邑, 被蝕最甚處, 無望食實. 嘉山·博川·楚山等三邑段, 被墊禾稼, 舉致萎黃, 或有全棄是如爲白乎跡. 臣營下今二十五日卯時量又雨, 或霏或灑, 至二十六日午時量, 測雨器水深爲二寸九分是白如乎. 當此各穀成就之會, 定州等邑之皆患蟲蝕, 嘉山等邑之終致萎損, 俱爲可悶是白乎跡. 各邑蟲蝗寢熄與否, 得雨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0일부터 21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함중읍에서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강서(江西)읍에서는 1려가 내렸고, 평양·중화·상원·용강·삼화·중산·영유·숙천·안주·자산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점차 익어가고 수수·올벼·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간간이 여물어가고 목화는 점차 다래방이 맺히고 늦벼는 대부분 알을 났고 콩·팥은 활짝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5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9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간혹 베어 거두고 수수·올벼·늦기장·늦조는 날로 점점 알이 들고 목화는 연일 줄기가 나오고 늦벼는 이삭이 꽤고 콩·팥은 지금 거의 줄기가 뻗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5. 1834년(순조 34) 8월 2일(양력 9월 4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26d-527a) / 平安監營啓錄 5책(26a-26b)

咸從等十二邑, 去月二十一日雨澤及臣營下二十六日午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九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午時以後, 乍雨乍止, 或灑或霏, 東風連爲緊吹, 至今月初二日卯時量, 測雨器水深, 又爲七寸四分, 而尚未快霽是白乎旆. 續接各邑所報, 則二十一日之雨, 博川江川微漲, 雲山·義州兩邑爲一犁, 嘉山·定州·郭山·鐵山·龍川·龜城·朔州等七邑爲一鋤, 而其中龍川段, 黍粟·稷唐或被風損. 不至大段. 二十五六七日之雨, 平壤·順安·永柔·肅川·中和·祥原·江東·慈山·价川·安州等十邑, 大小江川, 俱爲漲滿, 龍岡·三和兩邑爲二犁, 三登爲一犁, 而其中永柔段, 兼以東風大作, 方熟之粟唐, 舉患磨折, 結穎之木綿, 多致飄零, 外此各穀, 間被沈墊. 肅川·安州·价川·慈山等四邑, 沿稼峽種之傷損與否, 待水退摘奸更報計料是如爲白有臥乎所. 今番之雨, 通計七日, 至過一尺, 而加以淒風連吹, 各穀受損, 萬萬憂慮, 永柔之風湧迭損, 極爲可悶是白遣. 各邑報牒, 俱是雨中所報, 姑無霽後形止, 各穀被損淺深, 詳審更報之意, 措辭題飭, 而及今開晴, 方切願祝爲白乎旆. 未報邑雨水多寡, 農形利害, 待其報來, 隨即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지난달 26일 오시 이후부터 부슬부슬 내리다 그쳤다 하다가 다시 가랑비와 주룩주룩 내리다가 이번 달 초2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치 4푼이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박천은 강과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운산·의주 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가산·정주·곽산·철산·용천·구성·삭주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용천은 기장·조·수수는 강풍이 불어와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평양·순안·영유·숙천·중화·상원·강동·자산·안주 등 10개 고을에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또 용강·삼화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삼등은 1려가 내렸습니다. 그 중 영유는 비와 돌풍이 불어와 익어가는 기장·조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6. 1834년(순조 34) 8월 6일(양력 9월 8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28b-528d) / 平安監營啓錄 5책(28b-29a)

龜城等六邑蟲損形止, 臣營下去月二十五日以後連爲灑霖, 本月初二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七寸四分, 而尙未快霽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初二日卯時以後, 一向陰翳, 初四日亥時量又雨, 或灑霖或滂沱, 東風兼作, 初五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六寸五分, 而始爲開霽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自去月二十五日, 至今月初二日之雨, 江西·咸從·甌山·成川·殷山·順川·德川·寧邊·雲山·博川·泰川·龜城·朔州·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等二十邑, 大小江川, 俱爲漲溢. 平壤·永柔·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慈山·价川·龍岡·三和等十三邑, 二十七日以後, 連霖添漲, 淒風大作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方張收穫[穫], 稷唐·早稻·晚黍粟幾盡成熟, 晚稻舉皆發穗, 木綿·豆太晚藥作繭, 根豆·木麥早花結實.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邊·孟山·陽德·寧遠·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漸次刈取, 稷唐·早稻·晚黍粟次第向熟, 晚稻發穗, 木綿·豆太連結穎房, 根豆·木麥已盡起火[花].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發穗, 根豆·木麥起花, 而今番風湧後形止報來者, 三十三邑, 而其中平壤·龍岡·三和·咸從·甌山·慈山·殷山·价川·德川·嘉山·定州·宣川·龍川·博川·泰川等十五邑, 田疇泥融, 洞[垆]汎潰缺[決], 棲畝之黍粟, 已穗之畚稻, 結穎之木綿·豆太, 無不受瘥. 蟲災段, 龜城·定州兩邑, 今已寢熄, 雲山·泰川·朔州·昌城等四邑, 尙患熾食, 嘉山·龍川·義州·碧潼等四邑, 晚稻之飛蝗, 豆太之濕蟲, 間或闖發是如爲白有臥乎所. 六月經潦後, 日候調順, 山沿各種, 舉皆向蘇, 將有登熟之望是白加尼. 去晦一雨, 拖至旬日, 而以風以蟲, 爲損不一, 南北農形, 大違始料, 未報邑之雨後形止, 被蟲邑之寢熄與否,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초2일까지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2일 묘시 이후 흐리고 비가 내리다 그쳤다 하다가 초4일 해시쯤에 가랑비와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5일 신시가 되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5푼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초2일까지 장맛비가 내렸는데 강서·함중·증산·성천·은산·

순천·덕천·영변·운산·박천·태천·구성·삭주·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 등 20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습니다. 또 평양·영유·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자산·용강·삼화 등 12개 고을은 27일 이후 연일 장맛비와 강풍이 불어왔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수확하고 수수·올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잘 익었고 늦벼는 거의 이삭이 패고 목화·콩·팥은 줄기 나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이른 것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변·맹산·양덕·영원·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점차 베어 거두었고 수수·올벼·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늦벼는 이삭이 패고 목화·콩·팥은 연일 다래방이 맺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이미 꽃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비가 많이 내리고 돌풍이 불어와 병충해가 발생하여 곳곳에 피해가 많았다. 그 중에서 평양·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덕천·가산·정주·성천·용천·박천·태천 등 15개 고을은 발두독이 진흙탕에 잠기어 무너졌고 벌레 충해를 입은 곳은 구성·정주 등 2개 고을이고 잠기어 죽은 곳은 운산·태천·삭주·창성 등 4개 고을이다. 그 후 보고에 의하면 벌레 충해는 운산·의주·삭주·창성 등 4개 고을이고 잠기어 죽은 곳은 가산·태천·용천·벽동 등 4개 고을이 각각 재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7. 1834년(순조 34) 8월 10일(양력 9월 12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29b-529c) / 平安監營啓錄 5책(30a-30b)

咸從等三十三邑今月初二日至雨水, 臣營下初四五日測雨器水深爲六寸五分及雲山等八邑蟲損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自去月二十五日, 至今月初二日之雨, 陽德·孟山·熙川·昌城·碧潼五邑, 江川漲溢, 東風兼作, 已熟之稼, 多致磨損, 方穗之穀, 舉患腐傷. 初四五日之雨, 平壤·順安·永柔·肅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德川·郭山·鐵山等二十邑, 川渠微漲, 安州·价川·定州·宣川等四邑爲二犁, 嘉山·龜城兩邑爲一犁, 雲山·龍川·義州·泰川等四邑爲二鋤, 博川·寧邊兩邑爲一鋤, 而旣雨且風, 又添痒稼. 蟲災段, 雲山·義州·朔州·昌城等四邑, 已爲寢熄, 嘉山·泰川·龍川·碧潼等四邑, 不至熾盛是如爲白有臥乎所. 晚澇浹旬頻仍, 災報鎮日踏至, 而風損穀多於潦害, 早稼尤傷於晚種, 萬萬憂慮之餘. 近日以來, 雨已快霽, 日亦連調, 蟲損諸邑, 幾皆寢熄, 沿峽各穀, 被災全棄處外, 庶有向蘇之望, 可得收榆之效是白貳喻. 未報邑之風雨與否, 農形利害,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초2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양덕·맹산·회천·창성·벽동 등 5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또한 돌풍이 불어와 이삭이 나오는 각종 곡식에 막대한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4일부터 초5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평양·순안·영유·숙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덕천·곽산·철산 등 2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안주·정주·선천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가산·구성 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운산·용천·의주·태천 등 4개 고을에 2서가 내렸고 박천·영원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8. 1834년(순조 34) 8월 12일(양력 9월 14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34c-534d) / 平安監營啓錄 5책(36b-36b)

道內農形雨澤, 已爲連續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本月初十日申時量又雨, 或霏灑或滂沱, 十一日申時量至, 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是白如乎. 宿雨纔收, 今霑又添, 而早穀尙多未穫, 晚穀易致更損, 及今快晴, 益切顙祝爲白乎旆. 列邑雨水多寡, 農形利害,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감영에서 이번 달 초10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1일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8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9. 1834년(순조 34) 8월 16일(양력 9월 18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35b-536b) / 平安監營啓錄 5책(37a-38b)

陽德等五邑, 自去月二十五日, 至今月初二日, 平壤等三十二邑, 初四五日雨水及臣營下初十日又雨, 十一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之行部, 今月十二日, 自平壤府離發, 由順安·永柔·肅川, 十五日到安州牧, 而連接各邑所報, 則自去月二十五日, 至今月初五日之雨. 寧遠·江界·渭原·楚山四邑, 一雨拖至旬日, 江川俱爲漲溢, 加以東風連吹, 早稼之已熟者, 多致墊磨, 晚種之向實與結顆者, 舉患腐傷, 被災最甚處, 無望食實. 初四五之日[日之]雨, 孟山·陽德·朔州·昌城·碧潼·熙川等六邑, 川渠微漲, 田疇泥融, 已損之穀, 又添其痒. 初十日十一日之雨, 平壤·順安·永柔·肅川·江西·龍岡·三和·甑山·順川·郭山·宣川·鐵山·龜城等十三邑, 川渠繼漲, 德川·龍川兩邑爲二犁, 慈山·殷山·价川·安州·咸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雲山等十一邑, 爲一犁, 寧邊·博川·嘉山·泰川·定州等五邑, 爲二鋤是如是白遣. 農形段, 价川·順川·殷山·慈山·咸從·甑山·三和·龍岡·江西·中和·成川·江東·三登·祥原等十四邑, 早黍粟畢穫, 晚黍粟汚地之披靡消融者, 或有未刈處, 早稻隨熟隨穫, 稷唐已皆成熟, 唐或刈取, 晚稻·豆太方張向實, 木綿早顆纔綻, 根豆·木麥今始結顆.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孟山·寧遠·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已畢收穫, 晚黍粟幾盡刈取, 早稻·稷唐舉皆成熟, 晚稻次第向實, 豆太早顆入實, 木綿顆房向開, 根豆·木麥已盡起花.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今方入實, 根豆·木麥一向起花是如爲白有旆. 巡路所經處, 詳細看審是白乎則, 早粟已皆登場, 晚粟間或棲畝. 外他各穀, 則一望青色, 秋成尙遠, 而叩諸農民, 參以目見, 平壤·順安兩邑段, 早農居多, 水耕間錯, 而黍粟則方熟臨穫, 因潦且風, 被災雖有淺深, 所收大違始料. 畚稻則泉浦均熟, 乾播迺遜. 稷唐則隨其沃瘠, 自有優劣. 豆太則結實雖多, 未免殼厚. 木麥則起花幾盡, 漸次結果. 木花則早絮纔拾, 晚顆無幾. 永柔·肅川·安州等三邑段, 俱以濱海之邑, 田畝相半, 而前後風湧, 被災尤甚, 黍粟則穎折穗磨, 比初減半. 畚種則泉源無不善熟, 海坂發穗不齊. 木花則早顆僅存, 方欲綻開. 稷唐·豆太·木麥較看平順, 別無異同, 而其中安州段, 沿江之地, 最多潦損之形. 統論其各穀遜勝, 則早稻·稷唐稍優, 豆太·木麥居於之次, 黍粟·木綿又居其次. 分言其五邑優劣, 則平壤·順安稍勝, 永柔·肅川·安州大有遜焉是白乎旆. 臣今十四日在

肅川府，而亥時量驟雨滂沱，移時乃止，可爲二犁許是白遣。卽接安州牧使徐有民牒呈內，今十五日戌時量，暴風猝作，雨雹交下，霎時乃止，雹狀大過鳥卵，小如橡子。以邑底所見而言之，稷唐·木麥不甚受損，至若菁屬則莖摧葉破，所經處各穀必不無受傷之慮，長廣里數，被災淺深，摘奸更報計料是如爲白有臥乎所。晚穀成就，惟在日候之調順，而各邑荐經潦害，安州又被雹災，言念民事，萬萬憂悶，雹災所經處，里數長廣，詳探更報之意，措辭題飭爲白乎旆。列邑今雨多寡，前路農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초2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영원·강계·위원·초산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다고 합니다. 8월 초4일부터 초5일까지 장맛비와 소나기 호우가 내렸는데 맹산·양덕·삭주·창성·벽동·회천 등 6개 고을에도 강과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다고 합니다. 이번 달 11일부터 12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평양·순안·숙천·영유·강서·용강·삼화·증산·순천·곽산·선천·철산·구성 등 1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덕천·용천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자산·은산·안주·함중·중화·상원·삼동·강동·성천·운산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영변·박천·가산·태천·정주 등 5개 고을에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순천·은산·자산·함중·증산·삼화·용강·강서·중화·성천·강동·삼동·상원 등 14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수확을 마치고 늦기장·늦조는 간혹 베어 거두었고 올벼는 수시로 익은 것은 수확하고 수수는 이미 익어 간혹 베어 거두고 늦벼·콩·팥은 한창 여물어 가고 목화는 이른 다래는 벌어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꼬투리가 맺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산·맹산·영원·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수확이 이미 마치고 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베어 거두었고 올벼·수수는 거의 익어가고 늦벼는 차례로 여물어가고 콩·팥은 이른 것은 열매가 알이 들고 목화도 다래방이 벌어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이미 꽃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14일 해시쯤에 가랑비와 소나기가 내리다가 그쳤는데 숙천(肅川)읍에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0. 1834년(순조 34) 8월 23일(양력 9월 25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36b-537c) / 平安監營啓錄 5책(38b-40a)

平壤等五邑巡路農形及今十四日肅川驟雨, 十五日安州雨雹所經處長廣里數, 待摘奸更報, 鱗次登聞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自安州, 由博川·嘉山·龜城·泰川, 歷寧邊境, 當日到价川郡爲白有在乎. 臣之行部, 經過博川津頭及嘉山楸島, 而今夏潦漲, 津頭漂頽二百三十二戶, 楸島里漂頽六十九戶, 一一招集, 面面慰撫, 躬審改構處是白乎則, 兩里災戶今已畢構, 依舊稟接是白有旆. 連接各邑所報, 則今十四日驟雨, 泰川·龜城·德川等三邑, 爲二犁, 宣川·慈山·殷山等三邑, 爲一犁, 平壤·順安·寧邊·雲山·中和等五邑, 爲一鋤是如是白遣. 十五日雨雹, 安州段, 州內·平湖·鶯峒·青山·葛花·東面·文谷·大代·南面·西面·雲谷·龍頭·漏泉等十三面所經處, 長爲九十里許, 廣爲四十五里許. 博川段, 德安·南面·東面等三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榛子, 所經處, 長爲二十五里許, 廣爲二十里. 嘉山段, 西北·面郡·內面·南面·西面·東面等五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鷄卵, 小如鳥卵, 所經處, 長爲三十里許, 廣爲十五里許. 寧邊段, 獨山·延山兩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鷄卵, 小如鉛丸, 所經處, 長爲三十五里許, 廣爲十四里許. 价川段, 外西面·郡內面·內東面·中西面等四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薄片, 小如栗子, 所經處, 長爲四十里許, 廣爲二十里許. 郭山段, 北面·館面兩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栗子, 小如鳥卵, 所經處, 長爲二十五里許, 廣爲十里許. 宣川段, 深川面·水清面·台山面·郡山面·古府面·東面等六面, 雨雹交下, 移時乃止, 雹狀大如鷄卵, 小如榛子, 所經處, 長爲三十五里許, 廣爲十里許. 鐵山段, 狹西面·丁惠面·古城面·栢梁面等四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鷄卵, 小如鳥卵, 所經處, 長爲二十里許, 廣爲十里許. 慈山段, 栢洞·雲巖兩面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太粒, 所經處, 長爲二十里許, 廣爲四里許. 肅川段, 檢山面·松里面·右上面·東山面等四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豆粒, 所經處, 長爲四十里許, 廣爲七里許. 順安段, 自作一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鷄卵, 小如大棗, 所經處長爲十里許, 廣爲七里許, 而各邑被雹面里, 未穫之早稻·稷唐, 方拾之木綿, 入實之豆太·木麥, 多被剝落, 受損不淺, 而派送摘奸之際, 日字自至遲滯. 定州段, 雨雹形止, 以邑底所見, 先爲報來, 而各面里被雹與否, 待摘奸更報計料是如爲白有旆. 巡路農形段, 博川·嘉山, 俱以濱海之地, 專尙水耕, 間錯旱播, 而

畚稻則毋論泉陸，可謂均熟，田穀則雖經風澇，不至大損是白在如中。今番雨雹所過處，早晚各穀，無不受損，而畚稻尤有甚焉是白遣。龜城·泰川，田多畚少，而畚農猶勝於田稼，野播反遜於山耕，水沈處蟲災偏酷，稷·稻·太·粟葉脫莖存，無望食實是白遣。寧邊·价川雹損，比嘉博稍歉，而被災全棄處外，畚稻則隨處善熟，黍粟則優可免歉，稷唐則俱爲近豐，豆太·木麥之得失，惟在霜令之進退，而至若木花，所經六邑，俱非土宜，荐被災損，結穎不多，拾絮無幾，而較看歷路，雖有差等，統論大體，別無迥殊是白遣。蟲災既有淺深，雹損又有廣狹是白如乎，今年農形，百穀俱有登熟之望矣。自七月二十日後，風損蟲損，日以受害，三旬霖雨，稼事卒痒。然而以其既茂既碩之餘故，雖有所損，猶可占豐。忽於十五日之夜，風雨大作，飛雹流行，起自龍鐵之際，至於价順之間，長爲屢百里，廣爲數十里，而見其邑報，參以農言，則間間驟下，或有越一坪經一野，而或來或否。故上坪依舊，下坪被災，此壩得免，彼界受損，雖雹過之處，其大小緩急及或霎頃或移時，各自不同。酷處則全棄，歉處則略損，此其大略，而十五日以後，臣之所經道路農形，誰[雖]有優劣，而未見其甚被害處。蓋沿路則災損比深僻最輕云。災民輩村村成群，擁馬呼訴，獨被慘歉，情狀切矜。觀於災報之次第來到，伊日雨雹，似不止此，外他沿海諸處，亦未知其何如是白乎喻。更審前路農形，待其列邑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4일 소나기와 부슬부슬 내렸는데 태천·구성·덕천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선천·자산·은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순안·영변·운산·중화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5일에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평안도 내 곳곳에서 곡물에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각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안주군의 경우, 주내·평호·양형·청산·갈화·동면·장각·대대·남면·서면·운각·용두·누천 등 13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90리가량이고 너비는 45리가량입니다. 박천군의 경우, 덕안·남면·동면 등 3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의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개암나무열매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25리가량이고 너비는 20리가량입니다. 가산군의 경우, 서북면·군내면·남면·서면·동면 등 5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30리가량이고 너비는 15리가량입니다. 영변군의 경우, 독산·연산 등 두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총알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30리가량이고 너비는 14리가량입니다. 개천군의 경우, 외서면·군내면·내동면·중서면 등 4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큰 것은 박 씨앗만 하고 작은 것은 밤알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40리가량이고 너비는 20리가량입니다. 광산군이 경우, 북면·관면 등 두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밤알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25리가량이고 너비는 10리가량입니다. 선천군의 경우, 계천면·수청면·대산면·군산면·고부면·동면 등 6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개암나무열매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30리가량이고 너비는 10리가량입니다. 칠산군의 경우, 협서면·정혜면·고성면·백양면 등 4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20리가량이고 너비는 10리가량입니다. 자산군의 경우, 백동·운암 등 두 면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20리가량이고 너비는 4리가량입니다. 숙천군의 경우, 검산면·송리면·우산면·동산면 등 4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40리가량이고 너비는 7리가량입니다. 순안군의 경우, 작일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의 모양이 크기가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10리가량이고 너비는 7리가량입니다. 우박으로 인한 각 면의 피해상황은 벼·기장·콩·팥·목화 등 전 농작물과 곡식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1. 1834년(순조 34) 8월 28일(양력 9월 30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37c-538b) / 平安監營啓錄 5책(40a-41a)

博川等六邑巡路農形及安州等十二邑雨雹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自价川, 由順川·慈山·殷山·成川, 當日到江東縣爲白有在乎. 連接各邑所報, 則今十五日夜, 龍岡段, 山南·金川·石井·吾井·多美等五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太粒, 所經處長爲五十里〈許〉, 廣爲七里許. 三和段, 貴林·草召·火石·新寧·東里·元塘等六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鉛丸, 所經處長爲四十里許, 廣爲六里許, 而雹過處, 早稻之未穫者, 晚穀之方就者, 多被剝落, 間或全棄是如是白遣. 十八日驟雨. 宣川段, 深泉·新府·水清·南面等四面, 又爲雹下, 移時乃止, 雹狀大如橡實, 小如太粒, 所經處長爲四十里許, 廣爲七里許. 鐵山段, 丁惠·栢梁·古城等三面, 又爲雹下, 霎時乃止, 雹狀大如栗子, 小如鳥卵, 所經處長爲十五里許, 廣爲五里許, 而前雹纔過, 今損又添, 目下所見, 實爲慘然是如是白遣. 義州段, 楊下·楊西·廣城·威遠·古城·所患·玉尙等七面, 雨雹交下, 移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榛子, 而所經處長廣及被災淺深, 摘奸更報計料是如是白有旆. 行部所經處, 晚稼之未收者, 詳審成就, 早種之已穫者, 憑探優劣是白乎則. 順川·慈山段, 稻本罕種, 初無豐儉之可論, 黍粟則備經災損, 終違始料, 稷唐則自是宜土, 隨處登熟, 豆太則早始向黃, 晚或歛青, 論其勝遜, 太優豆劣, 木麥已盡結穎, 方張入實, 木花播固不多, 存亦無實. 殷山·成川·江東段, 各穀所就, 較看順慈, 稻種及豆太·木麥別無異同, 稷唐差遜, 木綿稍勝是白遣. 各邑農形段, 三登·祥原·中和·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陽德·孟山·寧遠·德川·价川等十八邑, 早稻過半收穫, 稷唐次第刈取, 豆太日漸向熟, 木麥早穎向實, 晚稻先播幾熟, 木綿隨綻方拾.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十九邑, 早稻盡熟方穫, 稷唐間始刈取, 豆太在在向熟, 木麥間間就實, 晚稻舉皆入實, 木綿早絮纔拾.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幾盡就拾, 根豆·木麥方始入實, 而沿峽各穀, 頻因晚澇淒風, 通患被靡萎縮, 間多成實無望之處, 而其中被雹諸邑, 尤爲添損, 最甚處全不掛鎌是如爲白有臥乎所. 今當晚稼成熟之會, 續接驟雹災形之報, 以其所經之長短, 或有受損之多少, 而義州七面之被災如何, 方待更報, 宣鐵兩邑之偏致再損, 誠爲可悶.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박천 등 6개 고을과 안주 등 12개 고을의 우박형편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5일 밤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용강군의 경우, 산남·금천·석정·오정·다미 등 5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50리가량이고 너비는 7리가량입니다. 삼화군의 경우, 귀림·초소·화석·신령·동리·원당 등 6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총알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45리가량이고 너비는 6리가량입니다. 이번 달 18일에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선천군의 경우, 계천·신부·수청·남면 등 4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도토리열매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40리가량이고 너비는 7리가량입니다. 철산군의 경우, 정혜·백양·고성 등 3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밤알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15리가량이고 너비는 5리가량입니다. 의주부의 경우, 양하·양서·광성·위원·고성·소현·옥상 등 7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개암나무열매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20리가량이고 너비는 10리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삼등·상원·중화·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양덕·맹산·영원·덕천·개천 등 18개 고을은 올벼는 절반 이상 수확을 하고 수수는 차례로 베어 거두었고 콩·팥은 날로 점점 익어가고 메밀은 이른 것은 알맹이가 여물어가고 늦벼는 먼저 씨앗을 뿌린 것은 익어가고 목화는 수시로 벌어져 지금 솜을 따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19개 고을은 올벼는 다 익어 지금 수확을 하고 수수는 간간이 베어 거두기 시작하고 콩·팥은 차차 익어가고 메밀은 간간이 여물어가고 늦벼는 거의 알이 들고 목화는 이른 것은 솜을 따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2. 1834년(순조 34) 9월 4일(양력 10월 6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39c-539d) / 平安監營啓錄 5책(42b-43a)

定州之去月十五日邑底被雹，宣川等三邑之十八日經雹緣由及順川等五邑巡路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定州段，十五日雨雹，始自東州坊上一里，至馬山坊院里。又自新安坊四里，至伊彥坊三里，所經處，長爲六十里許，廣爲五十里許，移時乃止，雹狀大如鷄卵小如橡實，所經處，田畝各穀，剝落無餘，已判斂荒，而摘奸修報之除，日字自至遲滯是如是白遣。雲山段，十八日驟雨，南面一坊，雨雹交下，霎時乃止，雹狀大如鳥卵，小如太粒，所經處，長爲五里許，廣爲三里許，而被損不至大段是如是白遣。寧遠段，十九日夜霜降是如爲白有臥乎所，雲山之驟雹暫過，幅圓且狹，不甚爲害，而定州之剝損偏酷，寧遠之霜信太早，俱極憂悶是白岔除良。見今日候催冷，晚稼恐有未就之慮是白乎所。列邑農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15일에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정주군의 경우, 동주방 상일리에서 마산방 원리와 신안방 사리에서 이언방 삼리까지 우박이 내렸습니다. 거쳐간 곳의 길이는 60리가량이고 너비는 50리가량입니다. 우박의 크기는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도토리 알만 하다. 지난달 18일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운산군의 경우, 남면에 우박이 내려 크기가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5리가량이고 너비는 3리가량입니다. 지난달 19일 밤 영원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주는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 합니다.

0133. 1834년(순조 34) 9월 8일(양력 10월 10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39d-540b) / 平安監營啓錄 5책(43a-43b)

道內農形及義州楊下等七面去月十八日雹過處長廣災損, 待摘奸更報, 鱗次登聞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該府尹金景善牒呈, 則以爲各面摘奸別遣回告內, 楊下·楊西·光成·咸遠·古城·所串·玉尙等七面, 去月十八日雨雹, 各穀受損, 淺深不同, 或爲七八分, 或爲過半, 或爲三分一. 又於伊日, 館里·津里·松長·彌羅山等四面, 雨雹交下, 移時內止, 雹狀大如鷄卵小如李栗, 未收禾穀, 多被剝落, 間有全不掛鎌處, 十一面所經處, 長爲九十里許, 廣爲四十五里許, 而派送摘奸之除, 日字自至遲滯是如爲白有旆. 連接各邑所報, 則博川·定州·郭山·宣川·德川等五邑, 今月初三日夜, 江東·慈山·殷山·順川·价川·肅川·安州·成川等八邑, 初四日夜, 水霜降下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稻畢穫, 稷唐幾盡刈取, 晚稻隨熟隨穫, 豆太間或收刈, 木麥漸次向熟, 木綿早絮幾拾.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稻幾訖刈穫, 稷唐過半收穫, 晚稻舉皆向熟, 豆方連熟, 太或刈取, 木麥日漸向熟, 木綿晚絮絕稀.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方張刈穫, 根豆·木麥連爲入實是如爲白有臥乎所. 灣府酷被水災之餘, 又添多面之雹損, 邊邑民情, 極爲矜悶是白乎旆. 見今晚稼方獲[穫], 霜信緊催, 沿峽穡事, 幾皆告成, 一路災實, 更加詳探, 追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의주·양하 등 7개 면에 지난달 18일 내린 우박 피해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의주부의 직접 보고에 의하면 양하·양서·광성·위원·고성·소현·옥상 등 7개 면에 지난달 18일 우박이 내려 각종 곡식에 막대한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관리·진리·송장·미라산 등 4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밤알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90리가량이고 너비는 45리가량입니다. 이 우박이 지나간 곳에 각종 곡식에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박천·정주·곽산·선천·덕천 등 5개 고을에 이번 달 초3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강동·자산·은산·순천·숙천·안주·성천 등 8개 고을은 9월 초4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벼는 수확을 마치고 수수는 거의 다 베어 거두고 늦벼는 수시로 익어 수확하는대로 콩·팥은 간혹 베어 수확을 하고 메밀은 점차 익어가고 목화는 이른 것은 거의 솜을 따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삭주·벽동·태천·구성·창성 등 23개 고을은 올벼는 베어 수확을 거의 마쳤고 수수는 절반 이상 수확을 하고 늦벼는 거의 익어가고 콩은 지금 연일 익어가고 팥은 베어 거두고 메밀은 날로 점점 익어가고 목화는 늦은 것이 솜이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4. 1834년(순조 34) 9월 10일(양력 10월 12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5책(540b-541c) / 平安監營啓錄 5책(44a-46b)

博川津頭里·嘉山楸島里賴戶畢構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義州六島賴戶一千七百三十七戶, 嘉山各面賴戶一百四十三戶, 昌城各面賴戶一百二十四戶, 碧潼各面賴戶九十四戶, 泰川各面賴戶四十六戶, 博川各面賴戶三十三戶, 定州各面賴戶二十六戶, 楚山各面賴戶二十三戶, 安州各面賴戶二十戶, 鐵山各面賴戶十四戶, 合爲二千二百六十戶是白在如中. 連接各該邑所報, 則派送幹校於被賴處, 鳩材結構之節, 另加董飭矣. 同被賴戶, 盡爲結構, 依舊奠接是如. 次第報來, 而義州府段, 災民之秋後接濟, 實爲茫然, 邑民願納錢, 爲一萬五千兩, 庶可塗抹是如竝與拯活人姓名成冊報來是白遣. 外此昌城·嘉山·博川等三邑, 亦以潦漲汎濫時持船拯活人, 賴戶結構時出義捐財人, 姓名及拯活口數·顧助錢數, 一一區別成冊報來爲白有如乎. 多民之今夏被賴後, 朝家恩恤, 靡不庸極, 營邑施助, 亦可救急是白乎矣. 經災民勢, 猶患不贍之除, 賴此各人之助給, 未寒前得以安接, 誠甚多幸是白遣. 拯活人段置, 急持船隻, 涉險救出於人命濱危之地者, 亦爲嘉尚, 其在激勸之道, 合有褒獎之典乙仍于. 依已往事例, 上項捐財與拯活各人等姓名及顧助錢數·拯活口數, 竝後錄馳啓爲白去乎. 褒獎一款, 令該曹考例稟處爲白只爲.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박천·진두리(津頭里)·가산·추도리 등 재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의주6개 섬무너진 민가 1,737가구

가산(嘉山)각 면무너진 민가 143가구

창성(昌成)각 면무너진 민가 124가구

벽동(碧潼)각 면무너진 민가 94가구

태천(泰川)각 면무너진 민가 36가구

박천(博川)각 면무너진 민가 33가구

정주(定州)각 면무너진 민가 26가구

초산(楚山)각 면무너진 민가 23가구

안주(安州)각 면무너진 민가 20가구

철산각 면무너진 민가 14가구

총 합계 무너진 민가 2,260가구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5. 1835년(헌종 1) 3월 12일(양력 4월 9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670d-670d) / 平安監營啓錄 6책(65b-65b)

卽接各邑所報，則平壤·順安·中和·祥原·三登·江東·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永柔·肅川·慈山·殷山·順川·成川·价川·安州等十九邑，秋麴麥今方抽芽，春麴隨其土解，間或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凡係課農之節，另加申飭，使之着意舉行爲白乎旆。嗣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중화·상원·삼등·강동·강서·용강·삼화·함종·중산·영유·숙천·자산·은산·순천·성천·안주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수시로 언 땅이 풀리고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무릇 농사에 관계된 사항은 별도로 단단히 지시해 유념하여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6. 1835년(헌종 1) 3월 18일(양력 4월 15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671a-671a) / 平安監營啓錄 6책(65b-66a)

平壤等十九邑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本月十七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戌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 列邑雨澤,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의 경우,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7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7. 1835년(헌종 1) 3월 22일(양력 4월 19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671c-671d) / 平安監營啓錄 6책(66b-66b)

臣營下本月十七日雨澤，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平壤·順安·慈山·江東等四邑，得一鋤。中和·祥原·三登·成川·殷山·順川·永柔·肅川·安州等九邑，浥塵是如是白乎旂。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秋麴麥日漸抽芽，春麴幾盡耕播。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秋麴麥今方抽芽，春麴間始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嗣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7일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7일의 비로 평양·순안·자산·강동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중화·상원·삼등·성천·은산·순천·영유·숙천·안주 등 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삭주·창성·벽동·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간간이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거의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8. 1835년(헌종 1) 3월 30일(양력 4월 27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672d-672d) / 平安監營啓錄 6책(68a-68b)

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本月二十九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三十日丑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乎. 列邑均霑與否,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강우형편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9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30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9. 1835년(헌종 1) 4월 3일(양력 4월 30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673b-673c) / 平安監營啓錄 6책(69a-69b)

臣營下去月二十九日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平壤·順安·永柔·肅川·中和·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七邑，得一鋤。祥原·安州兩邑，恰爲浥塵是如是白遣。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秋牟麥今方向青，春牟間或立苗，早黍粟耕播伊始。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秋牟麥已皆抽芽，春牟過半耕播，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春牟始耕是如爲白有跡。臣營下本月初一日戌時量又雨，或霏或灑，至初二日巳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白如乎。列邑前後雨澤，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달 29일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중화·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상원·안주 등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돋고 있으며 올기장·올조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2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0. 1835년(헌종 1) 4월 8일(양력 5월 5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673d-674a) / 平安監營啓錄 6책(70a-70b)

道內農形及平壤等十九邑去月二十九日雨澤, 臣營下自今初一日戌時, 至初二日巳時, 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九日之〈雨〉, 宣川·義州·德川·孟山·陽德等五邑, 得一鋤, 定州·鐵山·龍川等三邑溫塵. 今初一日之雨, 平壤·永柔·肅川·宣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祥原·三登·成川·价川·陽德·龍川等十五邑, 得一犁, 中和·江東·殷山·順川·德川·博川·義州等七邑, 得二鋤, 慈山·順安·安州·嘉山·定州·郭山·鐵山·寧邊·雲山·泰川·熙川·朔州·龜城等十三邑, 得一鋤是如爲白有於. 臣自平壤, 由順安·肅川, 當日到安州牧, 而所經處秋牟麥舉皆向青, 春牟方張立苗, 早黍粟次第耕播是白乎於. 今初七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當日酉時量乃止, 恰爲溫塵是白如乎. 未報邑雨澤多寡, 待其報來, 竝與列邑及前路農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강우형편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의 비로 선천·의주·덕천·맹산·양덕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정주·철산·용천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이번 달 초1일부터 초2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평양·영유·숙천·선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상원·삼등·성천·양덕·용천 등 1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중화·강동·은산·순천·덕천·박천·의주 등 7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자산·순안·안주·가산·정주·곽산·철산·영변·운산·태천·회천·삭주·구성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숙천·안주 등 4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한창 싹이 돋고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주(安州)목에서 이번 달 초7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1. 1835년(헌종 1) 4월 13일(양력 5월 10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678c-678d) / 平安監營啓錄 6책(76a-76b)

臣在安州牧, 所經邑農形及平壤等三十五邑今初一日雨澤, 初七日午時始雨, 至酉時溫塵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自安州牧, 由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等邑, 當日到義州府, 而所經處秋牟麥今方向青, 春牟次第立苗, 早黍粟今始耕種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初一日之雨, 渭原得一犁, 孟山·寧遠·碧潼·楚山·昌城·江界等六邑, 得一鋤. 初七日之雨, 義州·价川兩邑, 得一鋤, 安州·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順安·肅川·永柔·博川等十一邑, 洽爲溫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漸次向苗, 春麴次第向青, 早黍粟過半耕播, 晚黍粟·稷唐·早稻·木花, 耕播伊始. 陽德·寧遠·德川·孟山·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十六邑, 秋牟麥日益向青, 春牟幾盡立苗, 早黍粟間間耕種.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始苗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得雨多寡, 向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강우형편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일에 비가 내렸는데 위원은 1려가 내렸고 맹산·영원·벽동·초산·창성·강계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7일에 비가 내렸는데 의주·개천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안주·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순안·숙천·영유·박천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싹이 올라오고 봄보리는 차례로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가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주·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 등 8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돋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갈아 씨를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양덕·영원·덕천·맹산·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16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거의 싹이 돋고 올기장·
올조는 간간이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2. 1835년(헌종 1) 4월 24일(양력 5월 21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679a-679b) / 平安監營啓錄 6책(77a-77b)

臣在義州府，所經處與列邑農形及義州等十三邑今初七日雨澤，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祥原·江東·成川等三邑，得一鋤，江西恰爲浥塵是如爲白有在。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秋牟麥日益茁長，春牟方始向茁，早黍粟已畢耕種，間多立苗，晚黍粟·稷唐·早稻·木花，過半耕播。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秋牟麥漸次就茁，春牟方張向青，早黍粟幾訖耕種，晚黍粟·稷唐·早稻·木花，今方耕種。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春牟舉皆立苗，火粟間始耕墾是如爲白有臥乎所。嗣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의 비로 상원·강동·성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강서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보리는 점차 싹이 돋고 봄보리는 한창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지금 갈아서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둥·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돋고 봄보리는 지금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올기장·올조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이미 마치고 간간이 많은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3. 1835년(헌종 1) 5월 3일(양력 5월 29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680d-681a) / 平安監營啓錄 6책(80a-80a)

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兩麥間或胚胎, 早黍粟方始初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次第立苗, 晚稻·豆太, 今方耕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兩麥日益茁長, 早黍粟方張立苗,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已訖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漸次向青, 火粟姑未畢播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밀·보리는 간혹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차례로 싹이 돋고 늦벼·콩·팥은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밀·보리는 날로 점점 더욱 싹이 돋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이미 마쳤고 강계의 삼천·자성 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점차 푸르러지고 화조는 씨앗 뿌리기가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4. 1835년(헌종 1) 5월 11일(양력 6월 6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686b-686c) / 平安監營啓錄 6책(87b-87b)

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兩麥間始發穗, 早黍粟已訖初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今方初鋤, 晚稻·豆太, 過半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兩麥方張胚胎, 早黍粟初鋤伊始,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已皆立苗, 晚稻·豆太, 方時[始]耕種.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次第就茁, 火粟今已畢播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初十日巳時量始雨微霏, 十一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五分, 而一向陰翳[翳], 尙有雨意是白如乎. 比來雨澤稍闕之餘, 得此霑潤, 誠爲多幸, 繼以優洽, 方切顒望爲白乎旆. 列邑均霑與否,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의 경우,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밀·보리는 간간이 이삭이 패기 시작하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콩·팥은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0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밀·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5. 1835년(헌종 1) 5월 15일(양력 6월 10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687d-688a) / 平安監營啓錄 6책(90a-90a)

道內農形及臣營下本月初十日巳時量始雨, 十一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五分, 而一向陰翳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十一日卯時以後, 乍陰乍暘, 仍爲開霽是白乎旃. 連接各邑所報, 則順安·肅川·安州·甑山·龍岡·价川·雲山·龜城·定州·義州·龍川·永柔·昌城等十三邑, 得一犁, 江東·泰川·嘉山·博川等四邑, 得二鋤, 慈山·殷山·順川·平壤·江西·三和·咸從·中和·祥原·三登·成川·德川·寧邊·郭山·宣川·鐵山·朔州等十七邑, 得一鋤, 而發穗之兩麥, 方鋤之早穀, 惱旱之餘, 頗有所益, 畝稻尙多未洽, 耕播或遲是如爲白有旃. 臣自中和府隨勅, 由平壤·順安·肅川等邑, 昨日到安州牧, 而所經處春秋牟麥, 方張發穗, 早黍粟間始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今纔初鋤, 晚稻·豆太, 次第種播. 而其中春牟段, 旣患嘆乾, 且被風冷, 高燥而已發者, 莖短穗細, 難期登稔, 卑濕而晚播處, 或尙未胎, 無望成實. 木花段, 土堅而未芽, 風搖而痿損, 或有稀種處是白如乎. 未報邑均霑與否, 待其報來, 竝與前路農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저의 감영에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0일부터 11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순안·숙천·안주·증산·용강·운산·구성·정주·의주·용천·영유·창성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동·태천·가산·박천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자산·은산·순천·평양·강서·삼화·함중·중화·상원·삼등·성천·덕천·영변·곽산·선천·철산·삭주 등 1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6. 1835년(헌종 1) 5월 21일(양력 6월 16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688d-689b) / 平安監營啓錄 6책(91a-91b)

臣在安州牧, 所經邑農形及順安等三十七邑今十一日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寧遠得二鋤, 熙川·江界·渭原·楚山等四邑, 得一鋤, 陽德·孟山兩邑, 洽爲浥塵, 而稍闕之餘, 得此霑潤, 非不爲幸, 猶有未洽之歎是如爲白有旆. 臣自安州牧, 由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 至義州府, 所經處春秋粳麥次第發穗, 而早被風冷, 重患嘆乾, 穗穎尖短, 春粳尤甚, 或有全棄處, 早黍粟幾訖初鋤, 晚黍粟·稷唐·早稻, 間始初鋤, 木花今纔初鋤, 而萎損於風旱, 或有稀種處, 晚稻·豆太, 方張耕播, 而高燥田奉天雀, 均致違愆是白乎旆. 列邑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成川·江東·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兩粳漸次向實, 早黍粟次第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幾皆初鋤, 晚稻·豆太, 間或立苗. 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十六邑, 兩麥日漸發穗, 早黍粟過半初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初鋤伊始, 晚稻·豆太, 今方耕種.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方始胚胎, 火粟間間立苗是如爲白有旆. 自今二十日申時量始雨, 或灑或霏, 酉時量乃止, 所需僅爲浥塵, 而初旬之雨, 猶未優洽, 仍以慳闕, 亦已一句, 方當惜乾之際, 僅此浥塵而止, 言念農事, 誠極憂悶, 繼此一霑, 方切顒望是白乎旆. 各邑得雨多寡, 嗣後農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0일부터 11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영원에서 2서가 내렸고 희천·강계·위원·초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양덕·맹산 등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성천·강동·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밀·보리는 점차 여물어가고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거의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콩·팥은 간혹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20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의주읍에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
삭주·창성·벽동 등 16개 고을은 밀·보리는 날로 점점 이삭이 패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벼·
콩·팥은 지금 갈아 씨를 뿌리고 강계의 삼천·자성 등 두 방에는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고 화전·조는 간간이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7. 1835년(헌종 1) 5월 27일(양력 6월 22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690b-690c) / 平安監營啓錄 6책(93a-93b)

臣在義州府，歷路及道內農形，與今二十日之雨，僅爲溫塵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德川得二鋤。嘉山·雲山·咸從·熙川·价川·泰川·中和·永柔·殷山等九邑，得一鋤。義州·龍川·鐵山·宣川·郭山·定州·安州·肅川·順安·博川·甑山·三和·龍岡·江西·寧邊·慈山·順川·祥原·三登·江東·成川·陽德·孟山·平壤等二十四邑，俱爲溫塵。其中咸從段，吾串·大井·小井·北里等四面，雨雹交下，霎時乃止，雹狀大如鳩卵，小如鳥卵，所經處長爲八里許，廣爲二里許，而木綿·黍粟·稷唐，雖被傷損，不至大段是如爲白有於。臣自義州府，由龍川·鐵山·宣川·郭山，至定州牧而所經處春秋麴麥，已盡發穗，次第向實，早黍粟間始再鋤，晚黍粟·稷唐·早稻·木花，幾訖初鋤，晚稻·豆太，間或立苗是白乎於。自今二十四日辰時量始雨，間間微霏，二十五日卯時量以後，或灑或霏，至二十六日寅時量止歇，載陰載陽，亥時量開霽，川渠微漲，而悶旱之餘，得此甘霈之優洽，田畝各穀，舉皆勃興，野色改觀，言念農事，誠爲萬幸是白如乎。未報邑得雨多寡，向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0일의 비로 덕천은 2서가 내렸고 가산·은산·함중·희천·태천·중화·영유·운산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의주·용천·철산·선천·곽산·정주·안주·숙천·순안·박천·증산·삼화·용강·강서·영변·자산·순천·상원·삼등·강동·성천·양덕·맹산·평양 등 2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함중군의 경우, 내의·오곳·대정·소정·북리 등 4개 면에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비둘기알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8리가량이고 너비는 2리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의주·용천·철산·선천·곽산·정주 등 6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이삭이 맺고 차례로 여물어가고 올기장·올조는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간혹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8. 1835년(헌종 1) 5월 30일(양력 6월 25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690c-691a) / 平安監營啓錄 6책(93b-94a)

臣在定州牧, 歷路農形及今二十四日(日)之雨, 川渠微漲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義州·龍川·鐵山·宣川·郭山·龜城等六邑, 川渠微漲,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定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寧邊·雲山·熙川·博川·泰川·中和·成川等二十三邑, 得一犁, 江東得二鋤, 祥原·三登·陽德等三邑, 得一鋤. 農形段, 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永柔·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五邑, 兩麥幾皆入實, 漸次向熟, 早黍粟已了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再鋤方始, 晚稻·豆太, 已皆立苗. 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二邑, 兩麥方張入實, 早黍粟間始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幾訖初鋤, 晚稻·豆太, 次第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今方發穗, 火粟舉皆立苗是如爲白有旆. 今二十九日丑時量又雨霏灑, 申時量止歇, 所得爲一犁許是白乎旆. 臣行自定州牧, 由嘉山·安州·肅川·順安等邑, 而所經處春秋粳麥, 抽穎雖尖, 入實漸堅, 早黍粟已畢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再鋤伊始, 晚稻·豆太, 先播處已盡立苗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강우형편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4일부터 26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의주·용천·철산·선천·곽산·구성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가산·정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영변·운산·희천·박천·태천·중화·성천 등 2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동은 2서가 내렸고, 상원·삼등·양덕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2개 고을은 밀·보리는 한창 알이 들고 올기장·올조는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24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가랑비와 소나기가 내리다가 25일 묘시쯤 이후부터 주룩주룩 내리다가 26일 인시쯤에 그쳤는데 정주는 시내와 도랑이 넘쳤다고 합니다. 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영유·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5개 고을은 밀·보리는 거의 알이 들고 점차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벼·콩·팥은 이미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29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정주·가산·안주·숙천·순안 등 5개 고을에 내린 우택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9. 1835년(헌종 1) 6월 3일(양력 6월 28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691c-691c) / 平安監營啓錄 6책(95b-95b)

義州等三十三邑去月二十四日雨澤及二十九日又雨一犁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二十四日之雨, 德川川渠微漲, 寧遠·孟山·昌城·朔州·碧潼等五邑, 得一鋤. 二十九日之雨, 平壤·永柔·咸從·中和·慈山·殷山·順川等七邑, 得一犁, 順安·肅川·江西·龍岡·三和·甑山·祥原·三登·江東·成川·价川·安州·嘉山·定州·博川·泰川·龜城·寧邊·雲山等十九邑, 得一鋤是如爲白臥乎所. 未報遠邑之得雨多寡, 待其報來, 隨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4일의 비로 덕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영원·맹산·창성·삭주·벽동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의 비로 평양·영유·함중·중화·자산·은산·순천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순안·숙천·강서·용강·삼화·증산·상원·삼등·강동·성천·안주·가산·정주·박천·태천·구성·영변·운산 등 19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0. 1835년(헌종 1) 6월 7일(양력 7월 2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692a-692b) / 平安監營啓錄 6책(96b-96b)

德川等六邑, 去月二十四日及平壤等二十六邑, 二十九日雨澤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四日之雨, 江界·渭原·楚山等三邑, 得一犁, 二十九日之雨, 郭山·宣川·鐵山·龍川·朔州·昌城·碧潼·德川·寧遠·孟山·陽德等十一邑, 得一鋤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初六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 而今當各穀漸茁之時, 繼此霑潤, 頗有所益是白乎所. 前雨之遠邑未報, 今雨之列郡所得, 待其報來, 竝與向後農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덕천 등 6개 고을의 지난달 24일 내린 강우량과 평양 등 26개 고을의 5월 29일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4일의 비로 강계·위원·초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의 비로 꾀산·선천·철산·용천·삭주·창성·벽동·덕천·영원·맹산·양덕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6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1. 1835년(헌종 1) 6월 10일(양력 7월 5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694a-694c) / 平安監營啓錄 6책(99b-100a)

郭山等十一邑去月二十一日雨澤及臣營下今初六日始雨, 測雨器水深爲五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二十九日雨, 渭原·楚山兩邑得一鋤. 今初六日雨, 平壤·江西·龍岡·三和·咸從·中和·祥原·三登·江東等九邑, 得一鋤, 成川恰爲浥塵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兩麥已盡成熟, 間或刈取, 早黍粟方始三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已畢再鋤, 晚稻·豆太, 日漸向青, 根豆·木麥, 隨其牟麥之刈穫, 間間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兩麥已皆入實, 漸次向熟, 早黍粟已訖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間始再鋤, 晚稻·豆太, 舉皆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次第入實, 火粟今方初鋤是如爲白有旅. 臣營下本月初八日酉時量又雨, 或灑或霏, 乍止乍霏, 至初九日申時量, 測雨器水深爲一寸九分是白如乎. 當此根耕之候, 優得浹洽之澤, 言念民事, 誠爲多幸. 列邑之前後所需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6일의 비로 평양·강서·용강·삼화·함중·중화·상원·삼등·강동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성천(成川)읍에서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지난달 29일의 비로 위원·초산 등 2개 고을에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밀·보리는 이미 잘 익었고 간혹 베어 거두었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치고 늦벼·콩·팥은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수시로 밀·보리와 함께 베어 수확을 하고 간간이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8일 유시쯤에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9일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9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

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밀·보리가 이미 알이 들고 점차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벼·콩·팥은 거의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2. 1835년(헌종 1) 6월 18일(양력 7월 13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694d-695a) / 平安監營啓錄 6책(100a-100b)

臣營下自今初八日酉時，至初九日申時量，測雨器水深爲一寸九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平壤·順安·永柔·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江東·慈山·殷山·价川等十四邑，得一犁，三登·成川·陽德·順川·肅川·嘉山·博川·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等十三邑，得一鋤，安州·德川·泰川·龜城·朔州·昌城·寧邊·雲山·熙川·寧遠·孟山等十一邑，恰爲浥塵是如爲白有旆，臣營下本月十五日申時量始雨，或霏或灑，乍止乍霏，至十七日午時量，測雨器水深爲四寸八分，而陰雲不解，姑未快霽是白如乎，列邑得雨多寡，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일부터 초9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평양·순안·영유·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강동·자산·은산·개천 등 1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삼등·성천·양덕·순천·숙천·가산·박천·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안주·덕천·태천·구성·삭주·창성·영변·운산·희천·영원·맹산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5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가랑비와 주룩주룩 내리다가 17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8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3. 1835년(헌종 1) 6월 21일(양력 7월 16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702d-703b) / 平安監營啓錄 6책(112b-113b)

臣營下自今十五日申時, 至十七日午時, 測雨器水深爲四寸八分, 而姑未快霽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江西·龍岡·三和·祥原·三登·龍川·義州等八邑, 川渠微漲. 中和·順安·肅川·鐵山·咸從·殷山等六邑, 得二犁. 慈山·順川·德川·江東·成川·甑山·永柔·博川·定州·郭山·宣川·雲山等十二邑, 得一犁. 安州·嘉山兩邑, 得二鋤. 价川·寧邊·泰川等三邑, 得一鋤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兩麥幾盡刈穫, 早黍粟今方四鋤, 間或胚胎, 晚黍粟·稷唐·早稻·木花, 三鋤伊始, 晚稻·豆太, 初鋤垂畢, 根耕小豆·木麥, 次第耕種, 而先播處間間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兩麥方張刈取, 早黍粟過半三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已畢再鋤, 晚稻·豆太, 方始初鋤, 根豆·木麥, 隨其車麥之刈穫, 繼以根耕.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向熟, 火粟再鋤, 而其中義州·朔州·昌城·碧潼·楚山等五邑段, 黍粟田間有蟲災, 不至熾盛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十九日戌時量又雨, 或灑霏或滂沱, 至二十日卯時量, 測雨器水深爲二寸, 而一向霏微, 尙未開霽是白如乎. 遠邑之前雨未報, 列郡之今雨所得, 待其報來, 隨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평양·강서·용강·삼화·상원·삼등·용천·의주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중화·순안·숙천·철산·함중·은산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자산·순천·덕천·강동·성천·중산·영유·박천·정주·곽산·선천·운산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안주·가산 등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영변·태천 등 3개 고을에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밀·보리는 거의 다 베어서 수확하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네벌 김매기를 하고 간혹 알을 배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벼·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메밀은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먼저 씨앗을 뿌린 곳은 간간이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9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0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이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밀·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었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치고 늦벼·콩·팥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밀·보리는 수시로 베어 수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4. 1835년(헌종 1) 6월 27일(양력 7월 22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703c-703d) / 平安監營啓錄 6책(113b-114a)

道內農形及平壤等三十邑, 自今十五日, 至十七日雨澤, 臣營下十九日戌時又雨, 二十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 而尙未開霽. 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伊時以後, 載陰載陽, 至二十一日辰時量乃晴, 而連接各邑所報, 則今十五日六日七日之雨, 陽德川渠微漲, 孟山·寧遠·龜城·昌城·碧潼·江界·渭原·楚山等八邑, 得一犁, 熙川·朔州兩邑, 得一鋤. 十九日二十日之雨, 江西·咸從·博川·雲山·定州·甑山等六邑, 川渠微漲, 平壤·三和·殷山·嘉山·宣川等五邑, 得一犁, 龍岡·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順川·价川·德川·中和·順安·永柔·肅川·朔州等十四邑, 得一犁, 安州·泰川·龜城·郭山·鐵山·寧邊·陽德等七邑, 得一鋤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二十五日午時量又雨, 或灑或霏, 至二十六日辰時, 測雨器水深爲二寸七分是白如乎. 列邑所需多寡, 雨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양덕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맹산·영원·구성·창성·벽동·강계·위원·초산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희천·삭주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9일부터 20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강서·함중·박천·운산·정주·증산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평양·삼화·은산·가산·선천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용강·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순천·덕천·중화·순안·영유·숙천·삭주 등 1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안주·태천·구성·곽산·철산·영변·양덕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5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5. 1835년(헌종 1) 윤6월 1일(양력 7월 26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703d-704b) / 平安監營啓錄 6책(115a-115b)

江西等三十二邑, 自去月十九日, 至二十日, 雨澤形止及臣營下二十五日又雨, 二十六日至, 測雨器水深爲二寸七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九日二十日之雨, 義州江川微漲, 熙川·龍川·昌城等三邑, 得二犁, 寧遠·孟山兩邑, 得一鋤. 二十五日六日之雨, 江西·龍岡·三和·順川等四邑, 川渠漲滿, 平壤·肅川兩邑, 得二犁, 中和·祥原·江東·成川·慈山·价川·順安·博川·寧邊·嘉山等十邑, 得一犁, 永柔·安州兩邑, 得一鋤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次第發穗, 晚黍粟今方四鋤, 間始胚胎, 稷唐·早稻·木花, 三鋤垂畢, 晚稻·豆太, 過半再鋤, 根耕小豆·木麥, 舉皆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兩麥已盡刈穫, 早黍粟方張四鋤, 間或胚胎,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幾訖三鋤, 晚稻·豆太, 再鋤伊始, 根豆·木麥, 畢播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方爲刈取, 繼以根耕, 火粟已畢再鋤, 而義州·朔州·昌城·碧潼·楚山等五邑段, 粟田蟲災, 雨後漸熄是如爲白有臥乎所. 兩麥今已登場, 而概論其優劣, 則被旱於胚胎之際, 高燥田則未穗者多萎, 得雨於成熟之時, 汚濕處則入實而稍堅, 春種迥遜於秋種, 清南差勝於清北, 而折長補短, 不至全歉是白乎旆. 未報邑雨澤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의주읍에서 강과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희천·용천·창성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영원·맹산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강서·용강·삼화·순천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평양·숙천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중화·상원·강동·성천·자산·순안·박천·영변·가산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영유·안주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중화·상원·삼동·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늦기

장·늦조는 지금 네벌 김매기를 하고 간간이 알을 배고 수수·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거의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강계·위원·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초산 등 23개 고을은 밀·보리는 이미 베어 수확하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네벌 김매기를 하고 간혹 알을 배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씨앗 뿌리기가 마치고 간간이 싹이 자라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6. 1835년(헌종 1) 윤6월 12일(양력 8월 6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709b-709d) / 平安監營啓錄 6책(122b-123a)

道內農形及江西等十八邑去月二十五六日雨澤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宣川·龍川·龜城·朔州·昌城·德川·寧遠·孟山·雲山·熙川·楚山等十一邑, 江川漲滿, 定州·郭山·鐵山·陽德·泰川·碧潼·渭原·江界等八邑, 得一犁. 今初二日驟雨, 成川·陽德·价川·定州·義州等五邑, 江川微漲, 龜城·宣川·寧邊·雲山等四邑, 得二犁, 博川·嘉山·泰川·孟山·郭山·昌城等六邑, 得一犁. 初五日驟雨, 慈山·殷山·順川·博川·郭山等五邑, 川渠微漲, 嘉山·定州兩邑, 得二犁, 中和·三登·成川·江西·咸從·甑山·順安·永柔·安州等九邑, 得一犁, 龍岡·泰川兩邑, 得二鋤, 江東·祥原·三和·肅川·宣川等五邑, 得一鋤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漸次入實, 晚黍粟次第發穗, 稷唐·早稻, 幾訖四鋤, 日漸胚胎, 木花方張起花, 晚稻·豆太, 間始三鋤, 根耕小豆·木麥, 過半初鋤.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德[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等二十三邑, 早黍粟幾皆發穗, 晚黍粟方始發穗, 稷唐·早稻, 今纔胚胎, 木花間或起花, 晚稻·豆太, 再鋤垂畢, 根耕小豆·木麥, 已皆立苗, 繼以初鋤.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三鋤, 根豆·木麥, 間間立苗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初八日申時量又雨, 或滂沱或霏灑, 十二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七寸六分, 而陰雲不散, 尙未霽意是白如乎. 今番潦雨, 拖至五日, 幾近八寸, 早晚各穀, 恐不無過中之慮. 列邑雨水多寡, 伊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강우형편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선천·용천·구성·삭주·창성·덕천·영원·맹산·운산·희천·초산 등 11개 고을은 강과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정주·곽산·철산·양덕·태천·벽동·위원·강계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2일에 소나기 호우가 내렸는데 성천·양덕·정주·의주 등 5개 고을은 강과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구성·선천·영변·운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박천·가산·태천·맹산·곽산·창성 등 6개 고을에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5일 가랑비와 소나기 호우가

내렸는데 자산·은산·순천·박천·곽산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가산·정주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중화·삼등·성천·강서·함중·증산·순안·영유·안주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리고 용강·태천 등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강동·상원·삼화·숙천·선천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점차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수수·올벼는 네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날로 점점 알을 배고 목화는 한창 꽃이 피고 늦벼·콩·팥은 간간이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8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가랑비와 주룩주룩 내리다가 12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치 6푼이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는 지금 이삭이 패고 수수·올벼는 지금 알을 배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이미 싹이 돋고 있으며 계속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7. 1835년(헌종 1) 윤6월 13일(양력 8월 7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709d-710a) / 平安監營啓錄 6책(123a-123a)

道內農形及臣營下本月十二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七寸六分, 陰雲不散, 尙無霽意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十二日卯時以後, 連爲滂沱, 當日寅時至, 測雨器水深, 又爲六寸, 前後所得, 合計爲一尺三寸六分, 而臣營下大同普通兩江, 俱爲漲濫, 濱浦禾穀, 舉皆沈墊, 而營下如此, 則沿江諸邑, 亦難保無傷稼之慮, 言念民事, 誠爲憂悶, 及今快晴, 方切顙祝爲白乎旆. 列邑雨水多寡, 災形淺深, 待其報來, 隨即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2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가랑비와 주룩주룩 내리다가 13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이었다고 합니다. 전후 합계 강우량이 1자 3치 6푼이 내려 대동강과 보통강이 넘쳐흘렀으며 강 연변의 고을과 각종 곡식이 물에 잠겨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8. 1835년(헌종 1) 윤6월 17일(양력 8월 11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712b-712c) / 平安監營啓錄 6책(126b-127a)

慈山等二十三邑, 今初五日驟雨及臣營下自初八日, 至十三日, 前後測雨器水深, 合爲一尺三寸六分緣由, 已爲陸續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五日驟雨, 德川·孟山·寧遠·義州·朔州·昌城·楚山·江界等八邑, 江川微漲, 熙川·龜城·碧潼等三邑, 得一犁. 自初八日, 至十三日雨水,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定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博川·泰川·寧邊等二十四邑, 大小江川, 俱爲漲溢, 而其中江西·三和·甌山·慈山等四邑段, 傍浦田畝, 沈墊或潰缺, 受害不淺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十五日辰時量又雨, 或霏微或灑霍, 十六日卯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 而載陽仍爲開霽是白如乎. 今番潦漲, 觀於已報諸邑, 到底同然, 而若及今快晴, 日候連爲調適, 則各穀之間或受損者, 似不至於大段爲害是白乎旆. 未報邑雨水多寡, 傷稼與否, 待其報來, 隨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5일 가랑비와 소나기 호우가 내렸는데 덕천·맹산·영원·의주·삭주·창성·초산·강계 등 8개 고을은 강과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희천·구성·벽동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8일부터 13일까지 가랑비와 소나기 호우가 내렸는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가산·정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박천·태천·영변 등 24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범람하였다. 그 중에서도 강서·삼화·증산·자산 등 4개 고을은 연로의 전답이 침수 또는 떠내려가 완전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5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3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9. 1835년(헌종 1) 윤6월 22일(양력 8월 16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714c-715a) / 平安監營啓錄 6책(129b-130b)

平壤等二十四邑, 自今初八日至十三日雨水形止及臣營下十五六日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所報, 則自初八日, 至十三日雨水, 德川·寧遠·孟山·陽德·雲山·龜城·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等十一邑, 江川俱爲漲滿, 熙川得二鋤, 朔州·昌城·碧潼等三邑, 得一鋤. 十五六日之雨, 平壤·江西兩邑, 得二犁, 龍岡·三和·咸從·殷山等四邑, 得一犁, 順安·永柔·肅川·安州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向熟, 晚黍粟入實, 稷唐·早稻, 次第發穗, 木花一向起花, 間間結穎, 晚稻已訖三鋤, 豆太方始起花, 根耕小豆·木麥, 過半再鋤.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漸次向實, 晚黍粟舉皆發穗, 稷唐·早稻, 間始發穗, 木花方張起花, 晚稻·豆太, 三鋤伊始, 根耕小豆·木麥, 初鋤已畢. 江界之三川·慈城兩防[坊]段, 火粟間或胚胎, 根豆·木麥, 已皆立苗, 而其中龍岡·咸從·義州等三邑段, 今番潦雨, 傍浦田畝, 雖或被浸, 不至大段. 德川·陽德·順川·雲山等四邑段, 以沿江依峽之地, 早晚禾稼, 間致汰覆, 或患消縮, 爲害不少是如爲白有臥乎所. 積雨今已決[快]霽, 日候繼又調順, 各穀之經潦受損者, 頗多向蘇, 方有善遂之望是白乎旆. 未報邑雨水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일부터 13일까지 가랑비와 소나기 호우가 내렸는데 덕천·영원·맹산·양덕·운산·구성·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 등 11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희천은 2서가 내렸고 삭주·창성·벽동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5일부터 16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평양·강서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용강·삼화·함중·은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순안·영유·숙천·안주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익어가고 늦기장·늦조는

알이 들고 수수·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목화는 꽃이 피고 간간이 다래가 맺히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콩·팥은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
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점차 여물어가고 늦기장·늦조는 거의 이삭이 패고 수수·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패기 시작하고 목화는 한창 꽃이 피고 늦벼·콩·팥은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
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치고 강계의 삼천·자성 등 두 방에는
화조는 간혹 알을 배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이미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0. 1835년(헌종 1) 윤6월 29일(양력 8월 23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715c-716a) / 平安監營啓錄 6책(131a-132a)

道內農形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七日驟雨, 孟山·楚山兩邑, 川渠微漲滿, 江界·渭原兩邑, 得二犁. 二十三日驟雨, 龍岡·咸從·甌山·祥原·殷山·价川·永柔·龍川·義州等九邑, 得一犁, 江西·三和·慈山·順川·成川·肅川·安州·博川·泰川·寧邊·雲山·定州·宣川等十三邑, 得一鋤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日漸成熟, 晚黍粟向熟, 稷唐·早稻入實, 木花連爲結穎, 晚稻方當胚胎, 豆太一向起花, 間間結穎, 根耕小豆·木麥, 幾訖再鋤, 今始起花.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方張向熟, 晚黍粟次第入實, 稷唐·早稻, 舉皆發穗, 木花·豆太, 隨其起花, 漸次結穎, 晚稻三鋤垂畢, 根耕小豆·木麥, 過半再鋤.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幾盡胚胎, 間或發穗, 根豆·木麥, 方始初鋤, 日益向青, 而其中孟山·楚山·殷山, 山水暴至, 峽種沿稼, 多致汰覆. 甌山·德川·寧邊等三邑段, 東風間吹, 早晚各穀, 或患損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二十七日申時量始雨, 或灑或霏, 乍止乍霏, 二十八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 而濃雲聚散, 姑未快霽是白如乎. 處暑已屆, 各穀向就, 而若而邑之水沈風損, 殊爲可悶. 今月初六日定州德巖坊大明坊, 前月十六日海潮漲溢, 公私兩垆, 沈墊潰缺, 畚結被損, 爲二十三結, 嫡[摘]奸後, 送鄉將率民丁完築後, 修成冊上送事報來, 而沿海各邑, 久無所報. 故使之各各私通, 問其有無矣. 宣川南面台山面田畚被鹹, 爲二十一石落, 卽因雨水, 滌鹹蘇醒是如報來是白遣. 其餘這[諸]邑, 俱以無乎答通, 還爲多幸是白乎旆. 列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증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 기장·올조는 날로 점점 잘 익어가고 늦기장·늦조는 익어가고 수수·올벼는 알이 들고 목화는 연이어 다래가 맺히고 늦벼는 지금 알을 배고 콩·팥은 꽃이 피고 간간이 꼬투리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달 17일 가랑비와 소나기 호우가 내렸는데 맹산·초산 등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강계·위원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23일 가랑비와 소나기 호우가 내렸는데 용강·함중·중산·상원·은산·영유·용천·의주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서·삼화·자산·순천·성천·숙천·안주·박천·태천·영변·운산·정주·선천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영변·양덕·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익어가고 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알이 들고 수수·올벼는 거의 이삭이 패고 목화·콩·팥은 꽃이 피고 점차 꼬투리를 맺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절반 이상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7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리다가 28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1. 1835년(헌종 1) 7월 6일(양력 8월 29일)

各司臚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757b-757c) / 平安監營啓錄 6책(180a-180b)

殷山等二十二邑, 去月二十三日驟雨及臣營下二十七日始雨, 二十八日至, 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 而姑未快霽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二十八日以後, 一向陰翳, 今初三日丑時量又雨, 或灑或霏, 東風連爲緊吹, 至初五日辰時, 測雨器水深爲二寸六分, 而乍陰乍暘, 始乃開晴是白乎旂. 續接各邑所報, 則二十三日驟雨, 朔州·昌城·碧潼等三邑, 得一鋤. 二十七日八日之雨, 陽德川渠漲滿, 平壤·順安·龍岡·甑山·殷山·成川·雲山·博川·泰川·宣川等十邑, 得一犁, 永柔·肅川·安州·嘉山·定州·郭山·鐵山·江西·祥原·慈山等十邑, 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 今番三日之雨, 加以淒風連吹, 早晚各穀, 多有受損之慮, 言念穡事, 誠甚憂悶. 列邑風雨與否, 農形利害,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3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5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6푼이었습니다. 지난달 윤6월 23일의 비로 삭주·창성·벽동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윤6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가랑비와 소나기 호우가 내렸는데 양덕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평양·순안·용강·증산·은산·성천·운산·박천·태천·선천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영유·숙천·안주·가산·정주·곽산·철산·강서·상원·자산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2. 1835년(헌종 1) 7월 9일(양력 9월 1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757c-758a) / 平安監營啓錄 6책(180b-181b)

臣營下自今初三日, 至初五日, 測雨器水深爲二寸六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永柔·殷山·江西·龍岡·德川·宣川等七邑, 得二犁, 順安·肅川·安州·嘉山·定州·郭山·三和·咸從·甑山·祥原·慈山·順川·价川·博川·泰川·寧邊·雲山等十七邑, 得一犁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方始刈取, 晚黍粟日漸成熟, 早稻·稷唐向熟, 木花在在作房, 豆太間間向實, 晚稻次第發穗, 根耕小豆·木麥, 連爲結穎.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幾盡成熟, 晚黍粟間或就熟, 早稻·稷唐, 方張入實, 木花·豆太, 一向結穎, 晚稻漸次發穗, 根耕小豆·木麥, 今方起花.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過半發穗, 根豆·木麥, 幾訖再鋤, 日益茁長, 而平壤·順安·永柔·肅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順川·价川·德川·郭山·宣川等十五邑段, 方其雨下, 風亦大作, 方熟之粟唐, 舉患磨剝, 結穎之木綿, 多致飄零, 外此各穀, 間被蹲縮, 而其中永柔·江西·甑山·三和·价川·德川等六邑段, 受損較多, 其最甚處, 無望蘇醒是如爲白有旆. 臣營下今初七日未時量又雨, 或灑或霏, 至初八日卯時, 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 而仍爲開霽是白如乎. 見今秋穫伊始, 而向前風雨, 已致瘁損之頗多, 今番之雨又添, 成熟之差遲, 畢竟收效, 似達始料, 言念民事, 去益憂悶, 日候之繼此連調, 方切顙祝爲白乎旆. 未報邑風雨與否, 傷稼有無, 待其報事[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잘 익어가고 늦기장·늦조는 간혹 익어가고 올벼·수수는 한창 알이 들고 목화·콩·팥은 다래가 맺히고 늦벼는 점차 이삭이 패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꽃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3일부터 초5일의 비로 평양·영유·은산·강서·용강·덕천·선천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순안·숙천·안주·가산·정주·곽산·삼

화·함중·중산·상원·자산·순천·박천·태천·영변·운산 등 17개 고을에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순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는 날로 점점 익어가고 올벼·수수도 익어가고 목화는 다래방이 멎히고 콩·팥은 간간이 여물어가고 늦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꼬투리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달 초7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3. 1835년(헌종 1) 7월 19일(양력 9월 11일)

各司謄錄 29책, 平安監營啓錄 6책(760d-761c) / 平安監營啓錄 6책(185a-185b)

平壤等二十四邑, 自今月初三日, 至初五日, 風雨形止及臣營下初七日八日, 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碧潼段, 去月二十九日驟雨, 雲面別面兩面雨雹交下, 移時而止, 雹狀大如鳥卵, 小如太粒, 所經處長爲七里許, 廣爲二里許, 而早晚各穀, 多被剝損, 或至全失, 節序已晚, 不得代播. 楚山段, 暴雨淒風, 田穀多損, 無望蘇醒. 今初三四五日之雨, 孟山川渠微漲, 鐵山·昌城·朔州等三邑, 得二犁, 龍川·義州·陽德·寧遠·熙川·碧潼等六邑, 得一犁, 江界·渭原·楚山等三邑, 得二鋤, 而風雨竝作, 早種晚稼, 均被磨損, 或有淺深. 初七八日之雨, 順川·甑山·陽德等三邑, 川渠漲滿,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義州·龍岡·□□·咸從·成川·慈山·殷山·价川·寧邊·雲山·泰川等十六邑, 得一犁, 嘉山·定州·朔州·熙川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有旂.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方張收穫, 早稻·晚黍粟, 間始刈取, 稷唐日漸成熟, 晚稻間或向實, 木綿方欲綻花, 豆太一向入實, 根耕小豆·木麥, 漸次向實.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黍粟次第刈穫, 早稻·晚黍粟, 幾皆成熟, 稷唐間始向熟, 晚稻舉皆發穗, □□在在作房, 豆太間間向實, 根耕小豆·木麥, 方爲結穎. 江界之三川·慈城兩□...□粟幾盡發穗, 根豆·木麥, 今方起花, 而黍粟則穗不堅碩, 木綿則穎皆稀疏, □□畚稻或致虛白, 豆太·木麥, 舉患穀厚, 各穀成就, 頗違始料是如爲白有臥乎所. 觀於邑牒, 參以所聞, 勿論沿峽諸邑, 山峽高田, 則連因東風淒吹, 不得成實, 多有判歉處, 日候近雖調順, 早粟方收之穀, 已爲節晏, 晚種將熟之□...□期向蘇是白耄(以下缺)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윤6월 29일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벽동군의 경우, 우면·별면 등 두 면에 내린 우박의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7리가량이고 너비는 2리가량입니다. 이번 달 초3일부터 초5일까지 가랑비와 소나기 호우가 내렸는데 맹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철산·창성·삭주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용천·의주·양덕·영원·희천·벽동 등 6개 고을

은 1려가 내렸고, 강계·위원·초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7일부터 초8일까지 가랑비와 소나기 호우가 내렸는데 순천·중산·양덕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의주·용강·삼화·함중·자산·은산·영변·운산·태천·성천 등 1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가산·정주·삭주·회천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삼등·상원·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수확을 하고 올벼·늦기장·늦조는 간간이 베어 거두기 시작하고 수수는 날로 점점 성숙하게 익어가고 늦벼는 간혹 여물어가고 목화는 지금 다래가 벌어지고 콩·팥은 여물어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점차 여물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회천·강계·위원·영변·운산·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베어서 수확을 하고 올벼·늦기장·늦조는 거의 성숙하게 익어가고 수수는 간간이 익어가기 시작하고 늦벼는 거의 이삭이 패고 목화는 다래방이 맺히고 콩·팥은 간간이 여물어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꼬투리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4. 1835년(헌종 1) 8월 1일(양력 9월 22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1a-1a) / 平安監營啓錄 7책(1a-1a)

道內農形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去月二十九日巳時□...□至今日丑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白如乎。列邑得雨多寡，嗣後農形□□待其報來，鱗次登聞□...□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달 29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5. 1835년(헌종 1) 8월 9일(양력 9월 30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1b-1d) / 平安監營啓錄 7책(1a-2a)

道內農形及臣營下去月二十九日始雨, 至今月初一日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江界·渭原·楚山·永柔·龍岡·咸從等六邑, 得一犁, 平壤·順安·三登·慈山·三和·成川·江東·德川·嘉山·定州·孟山·殷山等十二邑, 得一鋤, 肅川·安州·浣塵, 寧遠·孟山·德川·价川等四邑, 今初三日夜, 嚴霜降下, 江東·安州·殷山·肅川·成川·陽德·順川·龜城·朔州·昌城·宣川等十一邑, 初四日夜, 水霜降下.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稻·晚黍粟畢獲, 稷唐間或刈取, 晚稻日漸就熟, 木綿今始摘拾, 而穎房稀疎, 所拾無幾, 豆太次第向熟, 根耕小豆·木麥幾皆入實.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幾盡收穫, 早稻·晚黍粟□...□稷唐日就成熟, 晚稻□□入實, 木綿始綻, 而拾收零星, 豆太向熟, 根耕小豆·木麥日漸就實.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入實, 根豆·木麥向實□□中, 永柔·殷山·慈山·陽德·孟山·寧遠·昌城·碧潼·楚山·義州·龜城等十一邑段, □...□吹[次]向熟之早稼, 太半磨剝, 未就之晚種, 舉皆含縮是如爲白有臥乎□...□霜而今番之雨, 淒風兼作, 加之以霜令太早, 南北列邑之早晚各穀, 受損不少, 言念民事, 誠甚悶然.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초1일까지 부슬부슬 내렸는데 강계·위원·초산·영유·용강·함중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순안·삼등·자산·삼화·성천·강동·덕천·가산·정주·맹산·은산 등 1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숙천·안주 등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벼·늦기장·늦조는 수확을 마치고 수수는 간혹 베어 거두고 늦벼는 날로 점점 익어가고 목화는 지금 솜을 따기 시작하고 콩·팥은 차례로 익어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거의 알이 들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

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수확을 하고 올벼·늦기장·늦조·수수는 날로 점점 잘 익었고 늦벼는 여물어가고 목화는 다래가 벌어지고 더러 숨을 따고 콩·팥은 익어가고 그루같이 콩·메밀은 날로 점점 알이 들고 강계의 삼천·자성 등 두 방에 산밭의 화조는 여물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3일 밤에 영원·맹산·덕천·개천 등 4개 고을에 뽕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강동·안주·은산·숙천·성천·양덕·순천·구성·삭주·창성·선천 등 11개 고을은 이번 달 초4일 밤에 물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6. 1835년(헌종 1) 8월 22일(양력 10월 13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7a-7b) / 平安監營啓錄 7책(8b-9a)

臣以巡審事, 自營離發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今番行部, 初自平壤, 由順安·永柔, 轉向甑山·咸從·三和·龍岡·江西, 當日還營, 而歷路農形, 詳細看審是白乎則. 平壤·順安兩邑段, 旱農居多, 水耕間錯. 永柔·甑山·咸從·三和·龍岡·江西等六邑段, 地本海濱, 田畝相半, 而早稼之已登場者, 叩諸農夫, 則入秋以後, 備經風澇, 黍粟·稷唐, 磨剝消融, 畢竟所收, 大違始料是如是白遣. 第以目下所見言之, 晚稻·豆太幾盡向熟, 而方其成就之際, 淒風冷雨, 迭相爲災空穀居半, 似難食實, 木麥今幾成熟, 而較看他種, 似或稍勝, 至於木棉, 本非宜土, 且種稀顆疎, 竟日拾取, 不盈傾筐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熙川·江界·渭原·楚山·碧潼·定州等六邑, 今月初四日夜霜降. 農形段, 肅川·安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一邑, 稷唐畢穫, 晚稻·豆太·木麥日漸就熟, 木綿隨綻摘拾.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早稻畢穫, 晚黍粟·稷唐幾半刈取, 晚稻·豆太·木麥幾皆向熟, 木綿間間拾取.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向熟, 根豆·木麥入實向熟是如爲白有臥乎所. 今以巡路所見, 參互列邑農牒, 則年形違料, 無甚異同, 秋後民事, 誠甚悶然是白乎旆. 今則霜信殆遍, 農功垂畢, 一路災實, 追後詳探, 分等登聞計料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서리가 내렸는데 희천·강계·위원·초산·농사 상황의 경우, 숙천·안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1개 고을은 수수는 수확을 마치고 늦벼·콩·팥·메밀은 날로 점점 점점 익어가고 목화는 수시로 벌어져 솜을 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기장·조·올벼는 수확을 마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절반이나 베어 거두었고 늦벼·콩·팥·메밀은 거의 익어가고 목화는 간간이 솜을 따서 거두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7. 1835년(헌종 1) 10월 28일(양력 12월 17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30a-30a) / 平安監營啓錄 7책(42a-42a)

卽接義州府尹朴來謙本月二十六日未時成貼狀啓謄報內, 鴨綠江上下流, 間間合氷是如事, 狀啓謄報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직접 의주 부윤 임래겸 이첩에 의하면 이달 10월 26일 미시 장계등보에 압록강 상·하류가 간간이 결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8. 1836년(헌종 2) 2월 14일(양력 3월 30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54a-54a) / 平安監營啓錄 7책(79b-79b)

卽接義州府尹朴來謙本月十二日辰時成貼狀啓臚報內, 鴨綠江上下流, 今已畢解冰是如事, 狀啓臚報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의주 부윤 박래겸 이첩에 의하면 이달 2월 12일 진시 장계등보에 압록강 상·하류가 지금 해빙이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9. 1836년(헌종 2) 3월 1일(양력 4월 16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56c-56c) / 平安監營啓錄 7책(84a-84a)

平壤等十九邑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去月三十日申時量始雨，或灑或霏，當日丑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爲白乎旅。緣由馳啓爲白臥乎事。

감영에서 지난달 2월 30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0. 1836년(헌종 2) 3월 5일(양력 4월 20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56d-57a) / 平安監營啓錄 7책(84a-84b)

卽接各邑所報, 則去月三十日之雨, 平壤·順安·永柔·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慈山·殷山·順川·价川·德川·嘉山·定州等二十邑, 得一鋤, 肅川·安州·博川·泰川等四邑, 浥塵是如爲白有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日漸抽芽, 春牟幾盡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今方抽芽, 春牟間始耕播是如爲白乎跡. 本道觀察使臣李身病沈重, 一向廢務乙仍于. 臣代行緣由, 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월 30일부터 이번 달 초1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평양·순안·영유·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자산·은산·순천·덕천·가산·정주 등 2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숙천·안주·박천·태천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간간이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1. 1836년(헌종 2) 3월 15일(양력 4월 30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59a-59b) / 平安監營啓錄 7책(87b-87b)

卽接各邑所報，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秋牟麥今方向青，春牟間或立苗，早黍粟耕播伊始。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秋牟麥已皆抽芽，春牟過半耕播。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春牟始耕是如爲白有臥乎所。嗣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爲白乎旅。本道觀察使臣李方在削職中乙仍于。臣代行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돋고 있으며 올기장·올조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희천·강계·위원·영변·운산·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2. 1836년(헌종 2) 3월 26일(양력 5월 11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60b-60b) / 平安監營啓錄 7책(89a-89a)

卽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日漸向茁, 春牟已盡立苗, 早黍粟過半耕種,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方始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次第向青, 春牟間間立苗, 早黍粟今方耕墾.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畢耕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올라오고 봄보리는 이미 싹이 돋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중기장·중조·수수·올벼·목화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간간이 싹이 돋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3. 1836년(헌종 2) 4월 4일(양력 5월 18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62d-62d) / 平安監營啓錄 7책(93a-93a)

臣營下本月初三日戌時量始雨，或霏或灑，至初四日丑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
乎，雨澤稍關之餘，得此甘澍，言念民事，誠爲多幸，而列邑得雨多寡，均霑與否，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3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이었다고 합니
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4. 1836년(헌종 2) 4월 6일(양력 5월 20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63a-63b) / 平安監營啓錄 7책(93a-93b)

臣營下本月初三日戌時始雨, 初四日丑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甌山得一犁, 肅川得二鋤, 平壤·順安·永柔·安州·江西·龍崗[龍岡]·三和·咸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等十六邑, 得一鋤, 而今番之雨, 得於稍閤之際, 方茁之牟麥, 立苗之黍粟, 俱有所益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崗[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日漸茁茂, 春牟舉皆向青, 早黍粟已訖耕播, 間或立苗,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方張耕種, 晚黍粟·稷唐間始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二十三邑, 秋牟麥漸次向苗, 春牟次第向青, 早黍粟幾訖耕種,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播種伊始.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已皆立苗是如爲白臥乎所. 未報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부터 초4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중산읍에서 1려가 내렸고 숙천은 2서가 내렸고, 평양·순안·영유·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 등 1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무성하고 봄보리는 거의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이미 마쳤고 간혹 싹이 돋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간이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싹이 올라오고 봄보리는 차례로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강계의 삼천·자성 등 두 방에서 봄보리는 이미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5. 1836년(헌종 2) 4월 10일(양력 5월 24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63b-63c) / 平安監營啓錄 7책(93b-94a)

道內農形及今月初三日雨澤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龍川得一犁, 嘉山·鐵山·義州·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价川·朔州·昌城等十二邑, 得一鋤, 博川·泰川·龜城·德川·定州·郭山·宣川·陽德等八邑, 恰爲浥塵, 而鋤犁尙云未恰, 浥塵不足解渴, 迨今優洽, 方切願望是如是白遣. 初八日驟雨, 中和·祥原·甑山等三邑, 得一鋤, 平壤·龍崗[龍岡]·慈山等三邑, 爲浥塵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부터 초4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용천읍에서 1려가 내렸고 가산·철산·의주·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삭주·창성 등 1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박천·태천·구성·덕천·정주·곽산·선천·양덕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이번 달 초8일의 비로 중화·상원·증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양·용강·자산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6. 1836년(헌종 2) 4월 15일(양력 5월 29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67c-67d) / 平安監營啓錄 7책(99a-99a)

龍川等二十一邑, 今初三日雨澤及中和等六邑, 初八日驟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三日之雨, 碧潼得一犁, 寧遠·孟山兩邑得一鋤. 初八日驟雨, 三和·江東·成川·宣川·義州·龜城等六邑, 得一鋤, 江西·咸從·三登·定州·泰川·郭山·鐵山·龍川·德川等九邑, 爲泥塵是如爲白乎旃. 臣營下本月十二日丑時量始雨, 微霏細灑, 巳時量止歇, 載陰載陽, 又於十三日亥時量, 間間霏灑, 至十四日辰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六分, 而一向陰翳[翳]是白如乎. 稍乾之餘, 荐得霑潤, 誠爲多幸, 而列邑均霑與否,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부터 초4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벽동(碧潼)읍에서 1려가 내렸고 영원·맹산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8일의 비로 삼화·강동·성천·선천·의주·구성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강서·함종·삼등·정주·대천·곽산·철산·용천·덕천 등 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2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사시에 이르러 그쳤다, 흐렸다, 개였다 하다가 13일 해시쯤에 다시 내리기 시작하여 14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7. 1836년(헌종 2) 4월 16일(양력 5월 30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67d-68b) / 平安監營啓錄 7책(99b-100a)

碧潼等十八邑雨澤及臣營下本月十二日丑時量始雨, 間間霏灑, 至十四日辰時乃止, 測雨器水深爲六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八日驟雨, 江界得一犁, 孟山得一鋤. 十二三四日之雨, 龍崗[龍岡]·咸從·甌山·三登·成川·慈山·鐵山等七邑, 得一犁, 順安·永柔·肅川·安州·定州·郭山·博川·江西·中和·殷山等十邑, 得二鋤, 平壤·祥原·江東·三和·順川·寧邊·雲山·龜城·泰川·宣川·嘉山等十一邑, 得一鋤, 价川爲浥塵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崗[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今始胚胎, 春牟日漸茁茂, 早黍粟間或初鋤,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今方立苗, 晚黍粟·稷唐已訖耕播, 晚稻·豆太方始耕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日益茁長, 春牟舉皆向青, 早黍粟已盡立苗,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 耕播垂畢, 晚黍粟·稷唐次第耕種.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向青, 火粟始播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일의 비로 강계읍에서 1려가 내렸고 맹산(孟山)읍에서는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2일부터 14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용강·함중·증산·삼등·성천·자산·철산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순안·영유·숙천·안주·정주·곽산·박천·강서·중화·은산 등 10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평양·상원·강동·삼화·순천·영변·운산·구성·태천·선천·가산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개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알을 배기를 이제 시작했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무성하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지금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콩·팥은 지금 밭을 갈아 씨를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나와 자라고 봄보리는 거의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싹이 돋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가 거의 마쳤고 수수는 차례로 갈고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8. 1836년(헌종 2) 4월 20일(양력 6월 3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68c-68d) / 平安監營啓錄 7책(100b-100b)

道內農形及龍岡等二十八邑今十二三四日得雨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寧遠得一犁, 德川·龍川兩邑, 得二鋤, 熙川·鐵山·義州·孟山·陽德等五邑, 得一鋤, 朔州·昌城兩邑, 爲浥塵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2일부터 14일의 비로 영원에서 1려가 내렸고 덕천·용천 등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희천·철산·의주·맹산·양덕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삭주·창성 등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9. 1836년(헌종 2) 4월 26일(양력 6월 9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70a-70b) / 平安監營啓錄 7책(102b-103a)

寧遠等八邑今十二三四日得雨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今十八日驟雨. 寧邊段, 南松·開平兩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豆太, 所經處, 長爲十五里許, 廣爲一里許, 發穗之牟麥, 立苗之黍粟木花雖有所損, 不至大段. 寧遠段, 南面·西面·舊邑·加倉·錦倉·新倉·樂倉等七面, 始焉暴霍, 繼以驟雹, 移時而止, 雹狀大如鷄卵, 小如鳥卵, 所經處, 長爲一百五十里許, 廣或爲十里許, 或爲二十里許, 而始苗各穀, 偏被剝損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次第發穗, 春牟今方胚胎, 早黍粟幾訖初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已盡立苗, 晚稻·豆太耕種垂畢.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舉皆胚胎, 春牟日漸苗茂, 早黍粟初鋤伊始, 晚黍粟·稷唐·早稻·木花間間立苗, 晚稻·豆太方始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今方就苗, 火粟畢耕, 而旬間之雨, 田穀則非不霑潤, 畚稻則終未浹洽, 間或愆播是如爲白有臥乎所. 兩邑之非時驟雹, 誠爲驚悶, 全棄處, 迨此時勸相代播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旆. 嗣後農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8일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영변의 경우, 남송·간평 등 두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콩·팥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15리가량이고 너비는 1리가량입니다. 영원의 경우, 남면·서면·구읍·가창·금창·신창·낙창 등 7개 면에 폭우와 소나기,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하다. 거쳐간 곳의 길이는 150리가량이고 너비는 20리가량입니다. 이 우박으로 각종 곡물이 막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간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이미 싹이 돋고 늦벼·콩·팥은 밭을 갈아 씨뿌리기가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조선·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밀·가을보리가 대부분 알을 뻗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무성하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간간이 싹이 돋고 늦벼·콩·팥은 지금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0. 1836년(헌종 2) 4월 29일(양력 6월 12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70b-70c) / 平安監營啓錄 7책(103a-103b)

道內農形及寧遠·寧邊兩邑雨雹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本月二十八日午時量始雨，或霏或灑，至申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五分，而密雲不散一向陰翳是白乎旆。卽接安州牧使所報，則今二十五日驟雨，州內東面兩面，雨雹交下，霎時而上[止]，雹狀大如鷄卵，小如栗子，所經處，長爲十五里許，廣爲三里許，而發穗之兩麥，立苗之各穀，俱被剝損是如爲白有臥乎所。意外驟雹，繼又至此，誠切憂悶，被災最甚處，以相當穀代播，毋至失時之意，申飭題送爲白乎旆。列邑得雨多寡，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5일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안주군 주내·동면 등 두 면에 내린 우박의 크기는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밤알만 하다. 거쳐간 곳의 길이는 15리가량이고 너비는 3리가량입니다. 이 우박으로 이삭이 패인 밀·보리와 싹이 자라는 각종 곡식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8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 합니다.

0181. 1836년(헌종 2) 5월 3일(양력 6월 16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70d-71a) / 平安監營啓錄 7책(104a-104b)

臣營下去月二十八日雨澤及安州牧雨雹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順安·甑山·慈山·江東等四邑得一犁。中和·祥原·安州·江西等四邑得二鋤。平壤·三和·肅川·順川·殷山·三登·成川·寧邊·价川·雲山·泰川·孟山等十二邑得一鋤。龍岡·永柔·嘉山·定州·宣川·鐵山等六邑，恰爲涸塵，而博川段，東面雨雹霎時交下，雹狀大如鳥卵，小如太粒，所經處，長爲十里許，廣爲一里許，而黍粟·稷唐，不至大段爲害，豆太·木花間多傷損，最甚處，今方代播是如爲白有跡。臣營下本月初一日丑時量又雨，或霏或灑，乍歇乍霏，至初二日申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而一向雲陰，尙有雨意是乎跡。博川非時之雹，殊甚驚歎，幅圓既不廣大，禾稼別無受損，誠爲多幸，而今番之雨，荐霑於未洽之餘，沿峽各穀，均得滋潤，足慰民情是白如乎。前後雨澤之未報列邑多寡，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달 28일의 우택 및 안주목에 우박이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순안·중산·자산·강동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중화·상원·안주·강서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평양·삼화·숙천·순천·은산·삼등·성천·영변·개천·운산·태천·맹산 등 1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용강·영유·가산·정주·선천·철산 등 6개 고을은 거의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박천의 경우, 동면에 우박이 번갈아 내렸는데 우박의 상태가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10리가량이고 너비는 1리가량이었습니다. 기장·조수수는 대단한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콩·팥·목화는 그사이에 손상된 것이 많아서 가장 심한 곳에 지금 막 대체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잠시 그치거나 잠시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2일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였습니다. 그런데 줄곧 먹구름이 끼어있고 아직 비 올 조짐이 있습니다. 박천에 때맞지 않게 우박이 내렸다니 매우 놀라 한탄했는데 폭과 둘레가 넓고 크지 않아 벼곡식은 별달리 손상을 입은 것이 없다니 매우 다행입니다. 이번의 비로

거듭 적시는 것이 흡족하지 않은 끝에 바닷가나 골짜기의 각종 곡식이 고루 더욱 윤기나게 되어 백성들의 심정상 충분히 위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택을 아직 보고하지 않은 여러 고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2. 1836년(헌종 2) 5월 6일(양력 6월 19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71a-71c) / 平安監營啓錄 7책(104b-105a)

順安等二十六邑, 去月二十八日雨澤形止及臣營下本月初一日丑時量又雨, 初二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八日之雨, 寧遠得二鋤, 義州·龜城·陽德等三邑得一鋤. 初一日二日之雨, 永柔·安州兩邑得二犁, 平壤·江西·甌山·江東·价川·德川·寧邊·定州等八邑得一犁, 中和·祥原·殷山·慈山·博川等五邑得二鋤, 順安·肅川·嘉山·雲山·順川·成川·三登·龍岡·三和等九邑得一鋤, 咸從·泰川·龜城·郭山等四邑爲沍塵是如爲白有旂.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漸次向實, 春牟已盡發穗, 早黍粟方張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今始初鋤, 晚稻·豆太幾皆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皆發穗, 春牟今方胚胎, 早黍粟已訖初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盡爲立苗, 晚稻·豆太已畢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始胎, 火粟立苗, 而畚稻之愆播處, 均得優洽, 及時耕種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雨澤, 嗣後農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8일의 비로 영원에서 2서가 내렸고 의주·구성·양덕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1일부터 초2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영유·안주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양·강서·증산·강동·덕천·영변·정주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중화·상원·은산·자산·박천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순안·숙천·가산·운산·순천·성천·삼등·용강·삼화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함중·태천·구성·곽산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여물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됐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와 목화는 지금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벼와 콩·팥은 거의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밀과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이삭이 패고·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기장·늦조와 올벼와 목화는 다 싹이 돋고 늦벼와 콩·팥은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가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3. 1836년(헌종 2) 5월 13일(양력 6월 26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74a-74a) / 平安監營啓錄 7책(108a-108a)

道內農形及永柔等二十八邑, 今初二日雨澤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江界·陽德兩邑得一犁, 孟山·寧遠·宣川·鐵山·龍川·義州·熙川·渭原·楚山·朔州·昌城·碧潼等十二邑得一鋤. 初六日驟雨, 定州得一犁, 博川·泰川·龜城等三邑得二鋤, 安州·嘉山·寧邊·雲山·順川·殷山·价川·德川等八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本月十一日申時量始雨, 或霏或霑, 至十二日酉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白如乎. 列邑均霑與否,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접해있는 각 고을의 보고에 의하면 이번 달 초1일부터 초2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강계·양덕 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맹산·영원·선천·철산·용천·의주·희천·위원·초산·삭주·창성·벽동 등 1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6일의 비로 정주(定州)읍에서 1려가 내렸고 박천·태천·구성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안주가산·영변·운산·순천·은산·덕천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4. 1836년(헌종 2) 5월 16일(양력 6월 29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74b-74c) / 平安監營啓錄 7책(108b-109a)

定州等十二邑今初六日驟雨及臣營下十一二日雨澤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初六日驟雨，朔州·昌城·碧潼·鐵山·郭山等五邑得一鋤，十一日二日之雨，平壤·肅川·安州·博川·泰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三登·江東·成川·殷山·順川·慈山·德川等十七邑，得一犁，祥原·寧邊兩邑得二鋤，中和·順安·永柔·嘉山·定州·价川等六邑得一鋤是如爲白有旣，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兩麥次第就熟，早黍粟已訖再鋤，晚黍粟·稷唐·早稻·木花初鋤幾畢，晚稻·豆太今方初鋤，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兩麥日漸向實，早黍粟方張再鋤，晚黍粟·稷唐·早稻·木花幾訖初鋤，晚稻·豆太已盡立苗，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春牟發穗，火粟初鋤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雨澤及向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1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이번 달 초6일의 비로 삭주·창성·벽동·철산·곽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1일부터 12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평양·숙천·안주·박천·태천·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삼등·강동·성천·은산·순천·자산·덕천 등 1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상원·영변 등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중화·순안·영유·가산·정주·개천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보리·밀은 차례로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제별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와 목화는 초별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와 콩·팥은 막 초별 김매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조산·박천·태천·구성·삭

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보리·밀은 날로 점점 여물어 가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와 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와
콩·팥은 이미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5. 1836년(헌종 2) 5월 22일(양력 7월 5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74d-75a) / 平安監營啓錄 7책(109a-109a)

道內農形及平壤等二十五邑, 今十一二日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寧遠川渠微漲, 宣川·鐵山·龍川·義州·龜城·朔州等六邑得一犁, 郭山得二鋤, 雲山·熙川·陽德·孟山·江界·渭原·楚山·昌城·碧潼等九邑得一鋤. 十五日驟雨, 龍岡·三和·定州等三邑得一犁, 中和·江西·咸從·宣川·龍川·陽德·龜城等七邑得一鋤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二十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乍歇乍霏, 至二十一日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一分, 而陰雲不散, 尙有雨意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1일부터 12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영월에 서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선천·철산·용천·의주·구성·삭주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광산읍은 2서가 내렸고, 운산·희천·양덕·맹산·강계·위원·초산·창성·벽동 등 9개 고을에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5일의 비로 용강·삼화·정주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중화·강서·함종·선천·용천·양덕·구성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0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1일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1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6. 1836년(헌종 2) 5월 24일(양력 7월 7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75c-75d) / 平安監營啓錄 7책(110a-110b)

龍岡等十邑, 今十五日驟雨形止及臣營下自二十日未時, 至二十一日申時, 測雨器水深爲三寸一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二十一日以後, 乍陰乍暘, 仍爲開霽, 而連接各邑所報, 則十八日驟雨, 寧邊·价川·江界等三邑得一犁, 安州·朔州·昌城等三邑得一鋤, 而其中价川段, 外西·內東兩面, 雨雹交下, 暫時乃止, 雹狀大如鷄卵, 小如鳥卵, 所經處, 長爲三十里許, 廣爲十里許. 寧邊段, 延山邑內梧里等三面, 雨雹交下, 移時而止, 雹狀大如鷄卵, 小如栗子, 所經處, 長爲五十里許, 廣爲三十里許, 而未收之牟麥, 多致剝落, 方苗之木花·豆太, 尤爲傷損, 外此各穀, 別無受傷. 博川段, 東面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太粒, 所經處, 長爲二十里許, 廣爲一里許, 而該面向被雹災, 受傷各穀, 尙未蘇醒之餘, 又被洊損, 舉至代播之境是如爲白有旆. 二十日一日之雨, 咸從·成川·德川等三邑江川微漲, 江西·永柔·殷山等三邑得二犁, 平壤·順安·肅川·安州·龍岡·三和·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慈山·价川等十三邑, 得一犁是如爲白有臥乎所. 各穀方苗之時, 意外雹災, 已是憂悶, 而博川東面之新출자被災損, 尤爲驚歎, 全棄處, 趁今代播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旆. 未報邑雨澤及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8일의 비로 영변·강계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안주·삭주·창성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8일에 우박이 내렸는데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개천(价川)군은 외서(外西)·내동 등 두 면에서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30리가량이고 너비는 10리가량입니다. 영변(寧邊)군은 변산(邊山)·읍내(邑內)·오리 등 3개 면에서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밤알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50리가량이고 너비는 30리가량입니다. 박천(博川)군에는 동면(東面)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20리가량이고 너비는 1리가량입니다. 이번 달 21일부터 22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성천·덕천·함종 등 3개 고을은 강과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강서·영유·은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양·순안·숙천·안주·용강·삼화·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자산·개천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7. 1836년(헌종 2) 5월 26일(양력 7월 9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76a-76b) / 平安監營啓錄 7책(110b-111a)

寧邊等六邑今月十八日驟雨及咸從等十九邑二十日一日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八日驟雨, 義州·渭原·碧潼等三邑得一犁, 熙川·楚山兩邑得二鋤. 二十日一日之雨, 定州·龜城·熙川·陽德等四邑, 江川微漲, 寧邊·雲山·宣川·順川·朔州·昌城等六邑得一犁, 孟山·寧遠·嘉山·郭山·博川·泰川等六邑得二鋤, 鐵山·龍川·義州等三邑得一鋤是如爲白有在.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兩麥方張刈取, 繼以根耕早黍粟幾訖三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再鋤垂畢, 晚稻·豆太再鋤伊始.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兩麥幾盡成熟, 間間收穫, 早黍粟今纔三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過半再鋤, 晚稻·豆太已畢初鋤.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漸次向熟, 火粟已了初鋤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及遠邑雨澤,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8일의 비로 의주·위원·벽동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희천·초산 등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20일부터 21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정주·구성·희천·양덕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영변·운산·선천·순천·삭주·창성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맹산·영원·가산·곽산·박천·태천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철산·용천·의주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보리·밀은 한창 베어 거두었고 그루같이 한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와 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와 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보리·밀은 거의 다 성숙하게 익었고 간간히 수확을

하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와 목화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와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8. 1836년(헌종 2) 6월 2일(양력 7월 15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76c-76d) / 平安監營啓錄 7책(112a-112a)

道內農形及定州等十九邑，去月二十日一日得雨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江界川渠漲滿，渭原·楚山·碧潼等三邑得一犁，而其中碧潼段，西部·南部·平面·時面等四面，雨雹交下，移時而止，雹狀大如鳥卵，小如太粒，所經處，長爲二十里許，廣爲十里許，而各穀多致傷損，至於代播之境是如爲白乎旆。臣營下去月二十八日卯時量始雨，或微霏細灑，或乍歇旋霏，至今月初一日申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三寸三分，而陰雲不解，尙多雨意是白如乎。碧潼之驟雹損稼，誠爲悶慮，而當此根耕之候，連得優洽之雨，頗有所益，列邑均霑與否，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강계읍에서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위원·초산·벽동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21일 벽동(碧潼)군의 서부(西部)·남부(南部)·평면(平面)·시면 등 4개 면에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알만 하다고 합니다. 거쳐간 곳의 길이는 20리가량이고 너비는 10리가량입니다. 저의 감영에 지난달 28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3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9. 1836년(헌종 2) 6월 6일(양력 7월 19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76d-77b) / 平安監營啓錄 7책(112a-113a)

臣營下自去月二十八日卯時，至今月初一日申時，測雨器水深爲三寸三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龍岡·順川·宣川等三邑川渠微漲，平壤·江西·三和·祥原·殷山·定州·德川等七邑得二犁，中和·三登·江東·成川·慈山·价川·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鐵山·龍川·博川·泰川·寧邊·朔州·昌城·甑山·咸從等二十邑得一犁，郭山·義州·龜城·雲山等四邑得一鋤是如爲白有旆。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兩麥畢穫，早黍粟今方四鋤，間或胚胎，晚黍粟·稷唐·早稻·木花方張三鋤，晚稻·豆太再鋤垂畢，根豆·木麥幾訖耕種。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兩麥幾畢刈穫，早黍粟過半三鋤，晚黍粟·稷唐·早稻·木花已了再鋤，晚稻·豆太方始再鋤，根豆·木麥次第播種。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春牟今纔刈取，隨以根耕火粟再鋤伊始，而永柔·肅川·咸從·慈山·殷山·价川·成川·德川等八邑段，雨後東風，連日緊吹，發穗之早粟，方茁之黍粟·稷唐，或有萎損之處是如爲白有臥乎所。兩麥今已登場，概論其優劣，則秋麴稍勝於春麴，清南差遜於清北，而折長補短，優可免歉是白乎旆。未報邑雨澤及向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5월 28일부터 이번 달 초1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용강·순천·선천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평양·강서·삼화·상원·은산·정주·덕천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중화·삼동·강동·성천·자산·순안·영유·숙천·안주·가산·철산·용천·박천·태천·영변·삭주·창성·중산·함중 등 2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광산·의주·구성·운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광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초산 등 23개 고을은 보리·밀은 베어서 수확이 거의 마쳤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와 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그루같이한 콩·팥과 메밀은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증화·상원·삼둥·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보리·밀은 수확을 마치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네벌 김매기를 하고 간혹 알을 배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와 목화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와 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0. 1836년(헌종 2) 6월 16일(양력 7월 29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81a-81b) / 平安監營啓錄 7책(117b-118b)

道內農形及龍岡等三十四邑得雨與東風多日不息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二日驟雨, 陽德得一犁, 熙川·江界·渭原·楚山·碧潼·寧遠·孟山等七邑得一鋤. 初七日驟雨, 龜城·朔州·昌城·鐵山等四邑, 川渠微漲, 博川·江西·价川·德川·永柔·三和·龍岡·中和□...□□邑, 得□□, 肅川·定州·宣川·寧邊等四邑得二鋤, 順安·安州·嘉山·郭山·□□□川·義州·雲山·熙川·殷山·慈山·順川·咸從·成川等十四邑得一鋤, 平壤·泰川兩邑, 恰爲溫塵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幾盡胚胎, 次第發穗, 晚黍粟·稷唐·早稻已畢三鋤, 間或胚胎, 木花今纔起花, 晚稻·豆太方張三鋤, 根豆·木麥已皆立苗, 繼以初鋤, 而浹旬東風, 發穗之黍粟舉患含縮, 立苗之豆太多致萎損是如是白遣.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今方四鋤, 間間胚胎, 晚黍粟·稷唐·早稻·木花過半三鋤, 晚稻·豆太再鋤垂畢, 根□...□已盡耕種, 而淒風連作, 黍粟·豆太或被傷損. 江界之三川·慈城□...□根豆·木麥幾訖□...□所, 今月以來, 沿□...□較甚於野□...□然□...□中, 方切願望爲白乎旆. 向後農形, 陸續登聞計□...□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용강 등 34개 고을에 내린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2일의 비로 양덕(陽德)읍에서 1려가 내렸고 희천·강계·위원·초산·벽동·영원·맹산 등 7개 고을에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7일의 비로 구성·삭주·창성·철산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박천·강서·덕천·영유·삼화·용강·중화 등 □개 고을은 □려가 내렸고, 숙천·정주·선천·영변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순안·안주·가산·곽산·□·□·□·□·의주·운산·희천·은산·자산·순천·함중·성천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양·태천 등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

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이삭을 배었고 차례로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치고 간혹 알을 배고 목화는 지금 계속 꽃이 피고 늦벼와 콩·팥은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이미 싹이 돋고 초벌 김매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네벌 김매기를 하고 간간이 알을 배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와 목화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와 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1. 1836년(헌종 2) 6월 19일(양력 8월 1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81c-81c) / 平安監營啓錄 7책(118b-119a)

道內農形及各穀風損□...□啓爲白有□...□□驟雨, 朔州江川微漲, 江界得□...□有旂. 臣營□...□量始雨, 連日霪下, 十八日酉時至, 測□...□寸八分, 而陰雲不解姑□...□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의 비로 삭주는 강과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강계읍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6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가랑비와 소나기, 호우가 내리다가 18일 유시에 이르러 비가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8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2. 1836년(헌종 2) 6월 26일(양력 8월 8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7책(81d-82a) / 平安監營啓錄 7책(119a-119b)

臣營下自今月十六日未時，十八日酉時至，測雨器水深爲五寸八分，而姑未快晴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十八日以後，或陰或陽，至二十一日，始爲開霽，而連接各邑所報則十六日之雨。孟山段，藹田·德林兩邑□...□時交下，雹狀大如鷄卵，小如鳥卵，所經處，長爲二十里許，廣爲十里許，□...□晚各穀□...□寧遠段，舊邑·南面·西面等三面，雨雹交下，移時而□...□所經處，長爲四十里許，廣爲□...□而黍粟·稷唐□...□爲偏損是如是白遣。十六七八日之雨，平壤□...□川鐵山·龍川·義州□...□平壤·順安·永柔□...□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稷唐·早稻方始發穗，木花間或□...□鋤，根豆·木麥幾訖□鋤。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二十三邑，早黍粟間間發穗，晚黍粟□...□稻·木花已畢三□...□始三鋤，根豆·木麥已盡立苗，繼以初鋤。江界之三川·慈城兩□...□豆·木麥已皆立苗，而近因日候之調順，爲風所損之□...□白有臥乎所。寧·孟兩邑□...□外，雹災雖甚悶□...□幸是白如乎。未報遠□...□雨多寡，嗣後□...□緣由竝以馳啓□...□。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6일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맹산의 경우, 애전·덕림 등 두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그 크기는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20리가량이고 너비는 10리가량입니다. 영원군 구읍·남면·서면 등 3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이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만 하고 거쳐간 곳의 길이는 40리가량이고 너비는 10리가량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3. 1838년(헌종 4) 6월 16일(양력 8월 5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83a-83a) / 平安監營啓錄 8책(1b-1b)

道內農形及今初七八日之雨, 平壤等三十二邑雨澤, 前道臣在任時,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陽德·寧遠·孟山·義州·昌城·朔州等六邑, 川渠漲溢是如爲白有旆. 臣營下今月十四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五日午時量止歇, 測雨器水深爲三寸二分, 而黝雲漫空, 雨意尙多是白如乎. 各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부터 8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양덕·영원·맹산·의주·창성·삭주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4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5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4. 1838년(헌종 4) 6월 22일(양력 8월 11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83b-83c) / 平安監營啓錄 8책(2a-2b)

今月初七八日之雨, 陽德等六邑雨澤及臣營下十四日酉時量始雨, 十五日午時量止歇, 測雨器水深爲三寸二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七八日之雨, 江界·渭原兩邑, 川渠漲溢, 楚山得二犁, 碧潼得一犁. 十四五日之雨, 平壤·順安·永柔·中和·江西·龍岡·三和·咸從·慈山·殷山·順川等十一邑, 川渠漲溢. 三登·肅川·安州·寧邊·朔州·昌城·鐵山·龍川·義州等九邑, 得二犁. 祥原·江東·成川·甑山·价川·德川·寧遠·博川·泰川·定州·宣川等十一邑, 得一犁. 嘉山·郭山·雲山·熙川·龜城等五邑, 得二鋤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日漸入實, 晚黍粟·稷唐·早稻, 已盡發穗, 木花連爲結穎, 晚稻·豆太, 今始胚胎, 根豆·木麥, 方張再鋤.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舉皆發穗, 晚黍粟·稷唐·早稻, 已皆胚胎, 間或發穗, 木花已多開花, 次第結穎, 晚稻·豆太, 已畢三鋤, 根豆·木麥, 俱爲初鋤.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間間胚胎, 根豆·木麥, 初鋤伊始是如爲白有旡. 臣營下本月二十一日午時量始雨, 或灑或霏, 至當日丑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 而一向陰翳, 尙有雨意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부터 초8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강계·위원 등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초산은 2려가 내렸고, 벽동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4일부터 15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평양·순안·영유·중화·강서·용강·삼화·함중·자산·은산·순천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삼등·숙천·안주·영변·삭주·창성·철산·용천·의주 등 9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가산·곽산·운산·희천·구성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순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날로 점점 여물어 들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는 이미 다 이삭이 패고 목화는 연일 다래가 맺히고 늦벼와 콩·팥은 지금 알을 배기를 이제 시작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는 이미 알을 배고 간혹 이삭이 패고 목화는 이미 개화가 되고 차례로 다래가 맺히고 늦벼와 콩·팥은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치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을 매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1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축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3분(寸)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5. 1838년(헌종 4) 7월 2일(양력 8월 21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84d-85b) / 平安監營啓錄 8책(5a-5b)

道內農形及去月十四五日之雨, 平壤等三十六邑雨澤. 臣營下二十一日午時量始雨, 至二十二日丑時量止, 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四五日之雨, 渭原·楚山兩邑, 川渠漲滿, 陽德·孟山·碧潼·江界等四邑, 得一犁. 二十一二日之雨, 平壤·順川·郭山·宣川等四邑, 川渠微漲, 祥原·慈山·殷山·肅川·定州·龜城等六邑, 得二犁. 中和·順安·永柔·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三登·成川·安州·博川·龍川·价川·德川·寧遠·泰川·雲山·昌城等十九邑, 得一犁. 嘉山·寧邊·孟山等三邑, 得二鋤, 江東·陽德·鐵山·義州·熙川·朔州等六邑, 得一鋤. 二十四日驟雨, 順川·殷山兩邑, 得二犁. 孟山得二鋤, 祥原·安州·定州等三邑, 得一鋤. 二十八日驟雨, 肅川得二犁. 順安·甌山·江東·慈山·安州等五邑, 得一鋤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日漸向熟, 晚黍粟·稷唐·早稻, 方張入實, 木花顆房漸堅, 晚稻已盡胚胎, 豆太漸次結繭[顆], 根豆·木麥, 再鋤垂畢.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次第入實, 晚黍粟·稷唐·早稻, 幾皆發穗, 木花連爲結顆, 晚稻胚胎, 豆太起花, 根豆·木麥, 再鋤伊始.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間或發穗, 根豆·木麥, 初鋤垂畢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비가 내렸는데·위원·초산 등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양덕·맹산·벽동·강계 등 4개 고을에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평양·순천·곽산·선천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상원·자산·은산·숙천·정주·구성 등 6개 고을에 2려가 내렸고, 중화·순안·영유·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삼등·성천·안주·박천·용천·덕천·영원·태천·운산·창성 등 1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가산·영변·맹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강동·양덕·철산·의주·회천·삭주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24일의 비로 순천·은산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맹산(孟山)읍에는 2서가

내렸고, 상원·안주·정주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28일의 비로 숙천(肅川)읍에는 2려가 내렸고 순안·증산·강동·자산·안주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날로 점점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는 한창 알이 들고 목화는 다래 방이 점차 굳어지고 늦벼는 이미 알을 배고 콩·팥은 점차 줄기가 퍼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는 거의 이삭이 패고 목화는 다래가 맺히고 늦벼는 알을 배고 콩·팥은 꽃이 피고 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6. 1838년(헌종 4) 7월 3일(양력 8월 22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85b-85b) / 平安監營啓錄 8책(5b-5b)

道內農形及去月二十一二日之雨, 平壤等三十八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一二日之雨, 碧潼·渭原·楚山等三邑, 得二鋤, 江界得一鋤. 二十九日驟雨, 江西·三登·博川·定州·郭山等五邑, 得一鋤是如爲白有旆. 臣營下今月初二日巳時量始雨, 或灑或霏, 間間止歇, 至當日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 而一向陰翳, 雨意尙多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1일에 비가 내렸는데 벽동·위원·초산 등 3개 고을에 2서가 내렸고 강계읍에서는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의 비로 강서·삼등·박천·정주·곽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2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8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7. 1838년(헌종 4) 7월 6일(양력 8월 25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85c-85d) / 平安監營啓錄 8책(6a-6b)

臣營下本月初二日巳時量始雨, 至初三日申時量止, 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咸從兩邑, 川渠微漲, 中和得二犁. 順安·永柔·祥原·慈山·順川·博川等六邑得一犁. 肅川·宣川兩邑, 得一鋤是白遣. 殷山·德川·孟山·江東·嘉山·博川等六邑段, 唐稻·豆太, 濕蟲熾盛, 舉患萎縮, 汚地尤甚是如爲白有旆. 臣營下今月初六日丑時量始雨, 辰時量止, 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 而近日久陰頻雨, 涼曝失宜, 濕蟲爲災, 殊甚可悶是白如乎. 列邑雨澤多寡, 蟲災熾息,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6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8. 1838년(헌종 4) 7월 12일(양력 8월 31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90a-90c) / 平安監營啓錄 8책(12a-13a)

今月初二三日之雨, 平壤等十七邑雨澤及臣營下初六日丑時量始雨, 辰時量止, 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二三日之雨, 定州·郭山·宣川·鐵山等四邑, 川渠漲滿, 三和得二犁. 甑山·永柔·价川·龍川等四邑, 得一犁. 寧邊·雲山·龜城等三邑, 得二鋤, 成川·孟山·嘉山·朔州·熙川等五邑, 得一鋤. 初六日之雨, 平壤·甑山·永柔等三邑, 得一犁. 肅川·寧邊兩邑, 得二鋤. 順安·祥原·三登·慈山·安州·陽德等六邑, 得一鋤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幾盡成熟, 晚黍粟·稷唐·早稻, 今方向熟, 木花顆房堅碩, 晚稻漸次向實, 豆太方垂針繭, 根豆·木麥, 次第起花.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日漸向熟, 晚黍粟·稷唐·早稻, 方張入實, 木花已皆結顆, 晚稻發穗, 豆太起花, 根豆·木麥, 再鋤已畢.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已盡發穗, 根豆·木麥, 再鋤伊始, 殷山等六邑, 濕蟲之先發者, 間因雨洗, 漸次寢熄. 三登·甑山·陽德·寧遠·義州等五邑, 唐·稻兩種濕蟲亦發, 或有萎損, 而隨其燥濕, 淺深不同是如是白有旆. 臣營下本月初十日寅時量始雨, 或灑或霏, 至十一日午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 而殷山等六邑, 蟲災漸熄, 雖甚多幸, 三登等五邑之迭發爲害, 還涉可憫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蟲災熾熄與否,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2일부터 초3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정주·곽산·선천·철산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삼화(三和)읍에서는 2려가 내렸고, 증산·영유·용천 등 4개 고을에 1려가 내렸고 영변·운산·구성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성천·맹산·가산·삭주·회천 등 5개 고을에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6일의 비로 평양·증산·영유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숙천·영변 등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순안·상원·삼둥·자산·안주·양덕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0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7월 12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8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증산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었었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는 지금 익어가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차 굳어지고 늦벼는 점차 여물어가고 콩·팥은 지금 줄기가 벌어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차례로 꽃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날로 점점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는 한창 알이 들고 목화는 이미 다래가 맺히고 늦벼는 이삭이 패고 콩·팥은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9. 1838년(헌종 4) 7월 22일(양력 9월 10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90d-91c) / 平安監營啓錄 8책(13b-14b)

道內農形及臣營下本月初十日寅時量始雨, 至十一日午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十日十一日之雨, 平壤·慈山·价川·德川·博川等五邑, 川渠漲〈滿〉. 中和·祥原·三登·肅川·安州·龍岡·三和·順川·殷山·江界·渭原·楚山等十二邑, 得二犁. 順安·永柔·江西·咸從·甌山·江東·成川·陽德·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寧邊·雲山·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寧遠·孟山等二十二邑, 得一犁. 嘉山·義州·熙川等三邑, 得二鋤. 十五日驟雨, 龜城·郭山·宣川等三邑, 得一犁. 慈山·定州·寧邊等三邑, 得二鋤, 博川·鐵山·雲山等三邑, 得一鋤. 十九日驟雨, 殷山·順川兩邑, 得一犁. 順安·中和·祥原三〔等〕三邑, 得二鋤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間或刈取, 晚黍粟·稷唐·早稻, 幾盡成熟, 木花早顯漸綻, 晚稻已皆入實, 豆太次第就實, 根豆·木麥, 爛熳起花.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連爲成熟, 晚黍粟·稷唐·早稻, 舉皆向實, 木花顯房漸堅, 晚稻次第入實, 豆太針繭漸垂, 根豆·木麥, 方始起花.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間或向實, 根豆·木麥, 再鋤垂畢, 三登等五邑, 濕蟲尙不寢熄, 高燥之田, 雖不甚熾, 汚下之地, 唐稻兩種, 受損不少. 永柔·宣川·龍川等三邑, 蝗形如蚊, 垆畚乾播之晚稻, 偏被其害, 舉患含縮. 江西·龍岡·三和等三邑, 驟雨頻仍, 東風間吹, 早熟之穀, 太半被靡. 价川·博川·甌山等三邑, 濕蟲又盛, 無論畚稻田穀, 浹旬災損, 胚胎者蹲縮, 發穗者萎枯, 蘇醒無望是如爲白有臥乎所. 諸邑之蟲蝗, 迭相報災向熟之各穀, 間多受損, 節序已晚, 民事憂憫, 嗣後農形, 蟲災熾熄,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0일부터 11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평양·자산·덕천·박천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넘쳐흘렀으며 중화·상원·삼등·숙천·안주·용강·삼화·순천·은산·강계·위원·초산 등 1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순안·영유·강서·함종·증산·강동·성천·양덕·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영변·운산·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영원·맹산 등 2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가산·의주·회천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5일의 비로 구성·곽산·선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자산·정주·영변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박천·철산·운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9일의 비로 은산·순천 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순안·중화·상원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잘 익어가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차 굳어지고 늦벼는 차례로 알이 들고 콩·팥은 거의 줄기가 벌어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간혹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는 거의 다 잘 익어가고 목화는 다래가 점차 벌어지고 늦벼는 이미 알이 들고 콩·팥은 차례로 알이 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활짝 꽃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00. 1838년(헌종 4) 7월 24일(양력 9월 12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91c-91c) / 平安監營啓錄 8책(14b-14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本月二十四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戌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七分, 而連接各邑所報, 則十五日驟雨, 朔州·德川兩邑得一鋤. 十九日驟雨, 順川得一犁, 成川·陽德兩邑, 得一鋤. 楚山濕蟲間發, 起花之豆太, 向實之黍粟, 偏被其害, 舉患萎縮, 郭山飛蝗熾蔓, 晚稻受損是如爲白有臥乎所. 當此各穀垂成之際, 冷雨頻仍, 蟲蝗迭發, 言念民事, 誠甚可憫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蟲災熾熄與否,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4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이번 달 15일의 비로 삭주·덕천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9일에의 비로 순천읍에서 1려가 내렸고 성천·양덕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01. 1838년(헌종 4) 7월 27일(양력 9월 15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91d-92a) / 平安監營啓錄 8책(15a-15a)

臣營下本月二十四日寅時量始雨，至戌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七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二十四日之雨，平壤·中和·祥原·江東·順安·三和等六邑，得一犁。江西·咸從·慈山·肅川等四邑，得一鋤是如是白遣。臣營下今二十五日亥時量始雨，至二十六日酉時量止歇，測雨器水深爲三寸四分是白如乎，冷雨頻仍，殆過四寸，淒風交作，拖至三日，向熟之晚各穀，未免磨剝，刈取之早黍粟，多致漂損，言念穡事，誠爲憫然是白乎旆。列邑得雨多寡，嗣後農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5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4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4일의 비로 평양·중화·상원·강동·순안·삼화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서·함중·자산·숙천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02. 1838년(헌종 4) 8월 2일(양력 9월 20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92d-93b) / 平安監營啓錄 8책(17a-17b)

臣營下去月二十五日亥時量始雨, 至二十六日酉時量止歇, 測雨器水深爲三寸四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祥原·三登·成川·甑山等四邑, 川渠微漲, 平壤·慈山·殷山等三邑, 得二犁. 中和·順安·永柔·肅川·安州·宣川·江西·咸從·龍岡·江東·順川·价川·德川等十三邑, 得一犁. 博川·嘉山·定州·寧邊·雲山·龜城等六邑, 得二鋤. 泰川·鐵山兩邑, 得一鋤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方張刈穫, 晚黍粟·早稻, 已多就熟, 間或刈取, 稷唐亦皆成熟, 木花日漸吐絮, 晚稻次第向熟, 豆太間多入實, 根豆·木麥, 今方結殼.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已盡成熟, 間間刈取, 晚黍粟·稷唐·早稻, 方始向熟, 木花顆房堅碩, 晚稻幾皆入實, 豆太早繭向實, 根豆·木麥, 舉皆起花. 江界之三川·慈城兩防[坊]段, 火粟向實, 根豆·木麥, 方張起花是白遣. 楚山·殷山兩邑之豆太·唐粟, 始患濕蟲, 又傷風雨, 龍岡之黍粟已爲刈取者, 間因冷雨, 多致生芽, 朔州之晚移畚稻, 又被蟲損, 在在萎縮. 博川·永柔·嘉山·甑山等四邑, 蟲蝗雖得漸息, 節候已晚, 無論乾播與晚稻, 難以及時是如爲白有臥乎所. 見今原野各穀, 無不垂成, 而沿峽諸邑, 便作穴農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상원·삼등·성천·중산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넘쳐흘렀으며 평양·자산·은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중화·순안·영유·숙천·안주·선천·강서·함종·용강·강동·순천·덕천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박천·가산·정주·영변·운산·구성 등 6개 고을에 2서가 내렸고, 태천·철산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서 수확하고 늦기장·늦조와 올벼는 이미 다 익었고 간혹 베어 거두고 수수는 거의 익었고 목화는 날로

점점 숨이 터지고 늦벼는 차례로 익어가고 콩·팥은 간간히 알이 들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지금 결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 기장·올조는 이미 다 잘 익었고 간간히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하고 목화는 다래방이 점차 굳어지고 늦벼는 거의 다 알이 들고 콩·팥은 이른 것은 줄기가 여물어가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거의 꽃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03. 1838년(헌종 4) 8월 12일(양력 9월 30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96a-96c) / 平安監營啓錄 8책(21a-21b)

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已畢收穫, 晚黍粟·早稻, 方張刈取, 稷唐已盡成熟, 間或刈穫, 木花方始拾絮, 晚稻幾盡就熟, 豆太舉皆向實, 根豆·木麥, 漸次入實.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次第刈穫, 晚黍粟·稷唐·早稻, 幾皆向熟, 方始刈取, 木花早顆漸綻, 晚稻連爲成熟, 豆太已盡入實, 根豆·木麥, 方張就實.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就熟, 根豆·木麥結殼. 宣川·龍川兩邑, 飛蝗今雖寢息, 晚稻間多全棄, 義州北風三日連吹, 蟲蝗跨朔告災, 依山之黍粟, 沿海之畚稻, 受損甚多是白遺. 初五日夜, 朔州水霜降下, 寧遠嚴霜已降是如爲白有臥乎所. 晚穀未熟, 霜信差早, 言念民事, 極爲憧憧,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5일 밤에 삭주(朔州)읍에 물서리가 내렸고 영원에는 된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증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수확이 이미 마치고 늦기장·늦조와 올벼는 한창 베어 거두고 수수는 이미 다 성숙하게 익었고 간혹 베어 수확을 하고 목화는 지금 솜을 따기 시작하고 늦벼는 거의 다 익었고 콩·팥은 거의 여물어가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점차 여물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베어 수확하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는 거의 익어가고 지금 베어 거두기 시작하고 목화는 다래가 점차 벌어지고 늦벼는 성숙하게 익어가고 콩·팥은 알이 들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한창 알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04. 1838년(헌종 4) 8월 22일(양력 10월 10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98c-99a) / 平安監營啓錄 8책(25a-25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之行部, 今月十九日自平壤離發, 由順安·永柔·肅川, 昨日到安州牧, 而歷路農形詳細看審, 則所經五邑沿江濱海, 田畝相錯, 早稼之登場者, 詢于農民, 晚穀之棲畝者, 參以目見, 黍粟則高燥雖遜於汚地, 舉概論之, 可謂少康. 畝稻則始也早闕, 終焉蟲災, 灌溉之地, 雖得食實, 斥鹵之處, 無望收榆, 稷唐則隨其沃瘠, 自有優劣. 豆太則早被嚴霜, 在在萎枯. 木花則拾絮已多, 餘顆尙稠, 統論優劣, 則田穀無甚異同, 畝稼強半失稔是白乎旅. 連接各邑所報, 則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四邑, 晚黍粟·早稻, 已皆登場, 稷唐幾盡刈穫, 木花連爲拾絮, 晚稻隨熟隨穫, 豆太已多成熟, 根豆·木麥, 方張向熟.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已盡登場, 晚黍粟·稷唐·早稻, 過半收穫, 木花拾絮, 豆太·木麥就熟.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間或刈取, 根豆·木麥, 舉皆入實是白遣. 十七日驟雨, 殷山之仙院·縣內·楓田·擎天·龍化等五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橡實, 小如豆粒, 廣爲五里餘, 長爲三十里, 未收各穀, 無不受損, 殆若蹂躪. 价川之內南·長川·支上·金谷等四面, 風雹竝作, 移時止歇, 雹狀大如太粒, 小如豆片, 廣爲三里許, 長爲十餘里, 而風靡雹損, 在野諸穀, 被害不少是如爲白有臥乎所. 見今晚穀未就, 早霜孔酷, 田稼畝穀, 大違所料, 殷山·价川兩邑之雨雹, 又此告災, 言念民事, 誠甚憂悶, 前路農形, 更爲詳審,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중화·상원·삼동·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와 올벼는 이미 다 마당에 들어내고 수수는 거의 다 베어 수확을 하고 목화는 연일 숨을 따고 늦벼는 수시로 익어 수확하고 콩·팥은 잘 익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익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마당에 들어내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는 절반 이상 수확을 하고 목화는 솜을 따고 콩·팥과 메밀은 잘 익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17일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은산군 선원(仙院)·현내(縣內)·봉전(鳳田)·격천(擊天)·용화 등 5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도토리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팥알만 하다고 합니다. 거쳐간 곳의 길이는 30리가량이고 너비는 5리가량입니다. 또 개천군에도 내남·장천(長天)·지상(支上)·금곡 등 4개 면에 바람과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큰 것은 팥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하다고 합니다. 거쳐간 곳의 길이는 10리가량이고 너비는 30리가량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05. 1838년(헌종 4) 8월 27일(양력 10월 15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99a-99c) / 平安監營啓錄 8책(25b-26a)

道內農形及殷山·价川兩邑之雹災形止, 臣在安州牧,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毋論沿峽諸邑, 今月十九日夜, 嚴霜一齊降下是如爲白乎所. 臣自安州, 由寧邊·价川·順川, 當日到慈山府, 而所經諸處農形, 詳細看審, 則四邑俱以依峽之地, 水耨無幾, 田農專尙, 而節序較促於沿海, 晚穀反多於野地, 霜降偏早, 日候猝冷, 豆太·稷唐之棲畝者, 在在全棄, 木花青繭經霜, 白絮零星是白遺. 巡審未到邑段, 面稽守宰, 參互農牒, 則登場之黍粟, 縱云少康, 被霜之晚穀, 舉皆萎損是白如乎. 統論全省, 雖有優劣, 卽此中山以東, 不免判歎, 遇災之民, 成群擁路, 還布停免之訴, 紛聒不已乙仍于, 以另加顧恤之意, 面面慰撫是白乎旆. 今月二十日驟雨, 寧邊之魚川·薪峴兩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鷄卵, 小如鳥卵, 廣爲三里許, 長爲十餘里. 寧遠之郡內·桂川·城倉·新邑等四面, 風雹交作, 移時止歇, 雹狀大如鵝卵, 小如鳥卵, 廣爲五里許, 長爲五十里, 而霜餘各穀, 又被雹損, 殆同蹂躪, 所見愁慘是如爲白有臥乎所. 肅霜太早, 歎形遽判於一夜, 風雹頻仍, 災報相續於四邑收榆無望, 大違始料, 言念民事, 誠極悶然, 前路農形, 更加詳審,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9일 밤에 자산·안주·영변·순천 등 5개 고을에 된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20일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다고 합니다. 영변(寧邊)군 어천(魚川)·신헌(薪峴) 등 두 면에 내린 우박의 크기는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하다고 합니다. 거쳐간 곳의 길이는 10리가량이고 너비는 3리가량입니다. 영원(寧遠)군은 군내(郡內)·생천(桂川)·성창(城倉)·신읍(新邑) 등 4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하다고 합니다. 거쳐간 곳의 길이는 50리가량이고 너비는 5리가량입니다. 이와 같이 곡식에 막대한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06. 1838년(헌종 4) 9월 4일(양력 10월 21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99d-100b) / 平安監營啓錄 8책(27a-27b)

巡路農形及寧遠·寧邊雹災形止, 臣在慈山府,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自慈山, 由殷山·成川·江東·三登·祥原, 當日還營, 而歷路農形, 逐坪看審, 則所經五邑, 俱以依峽濱江之地, 黍粟已盡登場, 別無可論, 晚穀荐經嚴霜, 在在全棄. 與寧邊等四邑, 無甚異同, 其中木花一種, 以宜土之故, 其所成就, 差勝於已經到邑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等十一邑, 稷唐已皆登場, 木花幾盡拾絮, 晚稻·豆太·木麥, 舉皆刈穫.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晚黍粟·稷唐·早稻, 已盡登場, 木花連爲拾絮, 豆太·木麥, 已多刈取.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幾皆刈穫, 豆太·木麥舉皆成熟, 間多收穫是如是白遣. 去月二十七日驟雨, 義州之光城·古城·古邑·光化·咸遠·枇峴·威化等七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鳥卵, 小如太粒, 長爲四十里, 廣爲五里許, 未收諸穀, 過半剝落. 二十八日驟雨, 德川之松隅面龍田·黑峰兩里, 雨雹竝作, 移時乃止, 雹狀大如栗子, 小如太粒, 長爲十餘里, 廣爲三里許是如爲白有臥乎所. 臣之今番行部, 洽爲七百餘里, 歷覽十數州郡, 而登場之早穀, 採諸民言, 未收之晚種, 參以目見, 則田分沿峽, 優劣互錯, 穀隨早晚, 豐歉懸殊, 而折補長短, 統以言之, 未免儉歲之穴農是白如乎. 見今霜令已遍, 穡事垂畢, 一路災實各邑分等, 更加詳探, 追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 등 11개 고을은 수수는 이미 마당에 들어내고 목화는 거의 솜을 따서 거두어들이고 늦벼와 콩·팥과 메밀은 거의 베어 수확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는 이미 다 마당에 들어내고 목화는 연일 솜을 따고 콩·팥과 메밀은 이미 베어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의주군은 고읍(古邑)·광성(光城)·광화(光化)·고성(古城)·위원(威遠)·성현(城峴)·위화(威化) 등 7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 것은 팔알만 하다고 합니다. 거쳐간 곳의 길이는 40리가량이고 너비는 5리가량입니다. 또 28일 소나기가 내리면서 우박이 내렸는데 덕천(德川)군 송우면(松隅面)·용전리(龍田里)·흑봉리(黑峯里) 등 양리에 내린 우박의 크기는 큰 것은 밤알만 하고 작은 것은 팔알만 하다고 합니다. 거쳐간 곳의 길이는 10리가량이고 너비는 3리가량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07. 1839년(헌종 5) 3월 2일(양력 4월 15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175b-175b) / 平安監營啓錄 8책(146a-146a)

平壤等十九邑農形, 臣在安州牧,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自安州, 由博川·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龜城·泰川·雲山, 今日到寧邊地, 而農形段, 秋牟麥日漸抽芽, 春牟方始耕播是白遣. 自昨日丑時量始雨, 至當日卯時量乃止, 所得洽爲二犁許是白如乎. 各邑之均霑與否, 待其報來, 竝與前路農形, 陸續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일 축시쯤에 2일 묘시까지 비가 내렸는데 안주·박천·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구성·태천·운산 등 12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평양 등 19개 고을과 안주·박천·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구성·태천·운산·영변 등 13개 고을의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08. 1839년(헌종 5) 3월 9일(양력 4월 22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175d-176b) / 平安監營啓錄 8책(147a-147a)

博川等十二邑農形及初一日丑時量始雨, 至初二日卯時量乃止, 所得洽爲二犁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自寧邊, 由价川·殷山·順川·慈山, 當日還營, 而所經處秋牟麥連爲抽芽, 春牟已多耕播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慈山·殷山·順川·价川·平壤·中和·祥原·成川·永柔·肅川·博川·龍川·義州·甑山等十四邑, 得一犁. 順安·安州·定州·郭山·鐵山·宣川·咸從等七邑, 得一鋤是如是白遣. 農形段, 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等十四邑, 秋牟麥次第抽芽, 春牟方張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二邑, 秋牟麥方張抽芽, 春牟間間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始爲耕播是如是白有. 初七日寅時量始雨, 初八日戌時量止歇, 所得洽爲一犁是白如乎. 未報邑雨澤及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일부터 2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은산·순천·자산·평양·중화·숙천·상원·성천·영유·박천·용천·의주·증산 등 1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순안·안주·정주·곽산·철산·선천·함중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 등 14개 고을은 가을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운산·희천·강계·위원·조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2개 고을은 가을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간간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09. 1839년(헌종 5) 3월 12일(양력 4월 25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178b-178c) / 平安監營啓錄 8책(150a-150b)

道內農形及今初七日寅時量始雨, 初八日戌時量止歇, 所得洽爲一犁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慈山·殷山·順川·中和·祥原·三登·甑山·咸從·龍岡·永柔等十邑, 得一犁. 平壤·肅川·定州·郭山等四邑, 得二鋤, 順安·安州·嘉山·江西·三和·江東·价川·博川等八邑, 得一鋤. 中和浥塵是如爲白乎旃. 臣營下今十一日寅時量始雨, 或灑或霏, 至酉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 而列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부터 8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자산·은산·순천·중화·상원·삼등·증산·함중·용강·영유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숙천·정주·곽산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순안·안주·가산·강서·삼화·강동·박천 등 8개 고을에 1서가 내렸고, 중화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1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10. 1839년(헌종 5) 3월 19일(양력 5월 2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179c-179d) / 平安監營啓錄 8책(152a-152b)

本月初七八日之雨, 慈山等二十三邑雨澤及臣營下今十一日寅時量始雨, 至酉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七八日之雨, 成川·陽德·龍川等三邑, 得一犁, 龜城得二鋤, 宣川·鐵山·義州·孟山·楚山等五邑, 得一鋤. 十一日之雨, 江西·三和兩邑, 得一犁.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宣川·義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陽德·甑山·咸從·龍岡·殷山·德川·朔州等十九邑, 得一鋤. 鐵山泥塵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今方向青, 春牟已訖耕播, 早黍粟耕播伊始.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幾盡抽芽, 春牟過半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連爲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遠邑雨澤及嗣後農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부터 초8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성천·양덕·용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구성읍은 2서가 내렸고, 선천·철산·의주·맹산·초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11일의 비로 강서·삼화 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선천·의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양덕·증산·함중·용강·은산·덕천·삭주 등 1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철산읍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이미 마치고 올기장·올조도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밀과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싹이 나오고 봄보리는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11. 1839년(헌종 5) 3월 24일(양력 5월 7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180a-180a) / 平安監營啓錄 8책(152b-152b)

道內農形及成川等二十九邑得雨形止，已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本月二十二日戌時量始雨，或灑或霏，至二十三日亥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白遣。卽接近邑所報，則平壤·順安·永柔·中和等四邑，得一犁是如爲白有臥乎所。列邑得雨多寡，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2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3일 해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이번 달 22일부터 23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평양·순안·영유·중화 등 4개 고을에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12. 1839년(헌종 5) 3월 29일(양력 5월 12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182b-182c) / 平安監營啓錄 8책(156b-157a)

臣營下本月二十二日戌時量始雨, 至二十三日亥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宣川·鐵山·龍川·義州·祥原等五邑, 得二犁. 肅川·嘉山·定州·郭山·慈山·殷山·順川·价川·德川·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三登·江東·成川·陽德·博川·龜城·寧邊等二十一邑, 得一犁. 安州得二鋤. 孟山·寧遠·泰川·雲山·朔州等五邑, 得一鋤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日漸向苗, 春牟今方立苗, 早黍粟過半耕種, 晚黍粟·稷唐·早稻·木花, 今始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次第向青, 春牟已皆耕播, 早黍粟耕播伊始.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畢耕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선천·철산·용천·의주·상원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숙천·가산·정주·곽산·자산·은산·순천·덕천·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삼등·강동·성천·양덕·박천·구성·영변 등 21개 고을은 1려가 내리고 안주는 2서가 내렸고, 맹산·영원·태천·운산·삭주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종·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밀과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올라오고 봄보리는 지금 싹이 돋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갈아 씨를 뿌리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와 목화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밀과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이미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올기장·올조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13. 1839년(헌종 5) 4월 9일(양력 5월 21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182d-183a) / 平安監營啓錄 8책(158a-158b)

道內農形及去月二十二日之雨, 宣川等三十二邑得雨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昌城·碧潼·江界等三邑, 得一犁. 熙川·渭原·楚山等三邑, 得一鋤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日益茁茂, 春麴今方向青, 早黍粟已訖耕播, 間或立苗, 晚黍粟·早稻·稷唐·木花, 方張耕種, 晚稻今始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麴麥舉皆向青, 春麴既盡立苗, 早黍粟過半耕播, 晚黍粟·稷唐·早稻·木花, 耕種伊始.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麴立苗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初七日酉時量始雨, 或灑或霏, 至初八日戌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五寸五分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창성·벽동·강계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회천·위원·초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상원·중화·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밀과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무성하고 봄보리는 지금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이미 마쳤고 간혹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와 올벼와 수수와 목화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늦벼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변·맹산·양덕·영원·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밀과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이미 싹이 자랐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늦기장·늦조·수수와 올벼와 목화는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7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가랑비와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8일 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5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14. 1839년(헌종 5) 4월 19일(양력 5월 31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186d-187a) / 平安監營啓錄 8책(163b-164a)

道內農形及臣營下本月初七日酉時量始雨, 至初八日戌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五寸五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永柔·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江西·三和·甌山·价川·德川·寧遠·寧邊等十五邑, 江川漲滿, 慈山·殷山·順川·肅川·鐵山·龍岡·咸從·義州·熙川等九邑, 得二犁, 安州·嘉山·定州·郭山·宣川·龍川·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孟山·陽德·雲山等十五邑, 得一犁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間或胚胎, 春牟日漸向茁, 早黍粟連爲立苗, 晚黍粟·早稻·稷唐·木花, 方始立苗, 晚稻幾半耕播,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茁茂, 春牟向青, 早黍粟已盡耕播, 間間立苗, 晚黍粟·稷唐·早稻·木花幾盡耕種.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舉皆立苗是如爲白有跡. 臣營下本月十七日寅時量始雨, 或灑或淫, 至十八日申時量止歇, 測雨器水深爲三寸六分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부터 초8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평양·순안·영유·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강서·삼화·중산·덕천·영변·영원 등 1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자산·은산·순천·숙천·철산·용강·함중·회천·의주 등 9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안주·가산·정주·용천·곽산·선천·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맹산·양덕·운산 등 15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밀과 가을보리·가을밀은 간혹 알을 배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올라오고 올기장·올조는 연일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와 올벼와 수수와 목화는 지금 싹이 자라기 시작하고 늦벼는 거의 반이나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

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밀과 가을보리·가을밀은 싹이 무성하게 자라고 봄보리는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하고 간간히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와 수수와 올벼와 목화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7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이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15. 1839년(헌종 5) 4월 29일(양력 6월 10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187c-188a) / 平安監營啓錄 8책(164b-165a)

道內農形及本月十七日寅時量始雨, 至十八日申時量止歇, 測雨器水深爲三寸六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慈山·殷山·价川·德川·陽德·祥原·三登·肅川·三和等九邑, 得二犁. 平壤·中和·順安·嘉山·定州·郭山·鐵山·龍川·江東·成川·江西·咸從·甌山·順川·朔州·碧潼·楚山等十七邑, 得一犁. 安州·博川·寧邊·泰川·龜城·龍岡等六邑, 得二鋤. 宣川·雲山·熙川·昌城等四邑, 得一鋤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間或發穗, 春牟今方胚胎, 早黍粟初鋤伊始,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已盡立苗, 晚稻耕播垂畢, 間間立苗, 豆太方始耕種.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胚胎, 春牟苗茂, 早黍粟幾盡立苗, 晚黍粟·稷唐·早稻·木花, 方張立苗, 晚稻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日漸向青, 火粟始播是如爲白有旆. 臣營下本月二十七日未時量, 雨雹交下, 霎時乃止, 雹狀大如橡實, 小如豆太, 雨則連爲霏灑, 至二十八日巳時量止歇, 測雨器水深爲二寸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被雹形止,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7일부터 18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은산·덕천·양덕·상원·삼등·숙천·삼화·자산 등 9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양·중화·순안·가산·정주·곽산·철산·용천·강동·성천·강서·함중·증산·순천·삭주·벽동·초산 등 1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안주·박천·영변·태천·구성·용강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선천·운산·희천·창성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밀과 가을보리·가을밀은 간혹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와 올벼와 묵화는 이미 싹이 돋고 늦벼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가 거의 마쳤고 간간히 싹이 돋고 콩·팥은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

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창성·태천·구성·
삭주·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밀과 가을보리·가을밀은 알을 배고 봄보리는 싹이 무성하
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와 올벼와 목화는 한창 싹이 돋고
늦벼는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감영에서는 이번 달 27일 미시쯤에 소나기와 우박이 내리다가 그쳤는데 우박의 크기는
큰 것은 도토리만 하고 작은 것을 콩,팥알만 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7일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가랑비와 소나기가 내리다가 28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16. 1839년(헌종 5) 5월 8일(양력 6월 18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189a-189c) / 平安監營啓錄 8책(167b-168a)

道內農形及去月十七八日之雨, 慈山等三十六邑得雨, 二十七八日雨雹形止, 觀察使在任時,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七八日之雨, 雲山·熙川·江界·渭原·寧遠·孟山等六邑, 得一犁. 二十七八日之雨, 平壤·中和·順安·永柔·肅川·安州·祥原·三登·成川等九邑, 得一犁. 博川得二鋤. 慈山·殷山·順川·价川·德川·孟山·寧遠·江東·寧邊·熙川等十邑, 得一鋤. 其中平壤段, 大同江·在京·龍淵·內川·外川·林原·西川·斧山等八面, 雨雹隨風乍下, 其狀大如橡實, 小如豆太, 所經處長爲四十里, 廣爲十五里許. 永柔段, 東部·中部·海栗·通湖·蘇湖·西部·德池·蓮下·上界·葛下·白鷺·禾山·青池·龍伏·水南等十五面, 雨雹霎時交下, 其狀大如栗子, 小如橡實, 所經處長爲四十里, 廣爲二十里許. 肅川段, 東山·松里·右上·右下·三里·聖山·吹里·法里·艾山·檢山·唐里等十一面, 雨雹交下, 移時乃止, 其狀大如栗子, 小如橡實, 所經處長爲二十里, 廣爲十里許. 安州段, 東面·雲谷·文谷·州內·大代等五面, 雨雹交下, 霎時乃止, 其狀大如鳥卵, 小如橡實, 所經處長爲三十里, 廣爲十里許. 三登段, 晶湖·明德·孝德·甑巖·鳳岑等五面, 雨雹霎時交下, 其狀大如栗子, 小如榛子, 所經處長爲四十里, 廣爲五里許. 江東段, 縣內一坊雨雹交下, 大如鳥卵, 小如豆太, 所經處長爲五里, 廣爲一里許, 而發穗之兩麥, 遽被打折, 間或萎損, 立苗之木花, 偏受摧剝, 更難蘇醒, 隨其尤甚處, 代播居多, 外他各穀, 如干被損, 不至大段是如爲白有臥乎所. 今此六邑之非時被雹, 各穀之許多所損, 雖有淺深之別, 言念民事, 極爲驚悶是白如乎,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17일부터 18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운산·희천·강계·위원·영원·맹산 등 6개 고을에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평양·중화·순안·영유·숙천·안주·상원·삼등·성천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박천(博川)읍에는 2서가 내렸고, 자산·은산·순천·덕천·맹산·영원·강동·영변·희천 등 10개 고을에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과 28일에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평양(平壤)부는 대동강(大同江) 재실(在案)·용연(龍淵)·내천(內川)·외천(外川)·임원(林原)·서천(西川)·각산(各山) 등 8개 면에 소나기와 우박이 내려 크기가 큰 것은 도토리열매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하다고 합니다. 거쳐간 곳의 길이는 40리가량이고 너비는 15리가량입니다. 영유군은 동부·중부(中部)·해율(海栗)·통호(通湖)·소호(蘇湖)·서부(西部)·연하(連下)·덕지(德池)·상계(上界)·갈하(葛下)·백로(白鷺)·화산(禾山)·청지(靑池)·용복(龍伏)·수남(水南) 등 15개 면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밤알만 하고 작은 것은 개암나무열매만 하다고 합니다. 거쳐간 곳의 길이는 40리가량이고 너비는 20리가량입니다. 숙천(肅川)군은 동산(東山)·송리(松里)·우상(右上)·우하(右下)·삼리(三里)·성산(聖山)·취리(吹里)·법리(法里)·화산(火山)·검산(檢山)·당리(唐里) 등 11개 면에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밤알만 하고 작은 것을 도토리알만 하다고 합니다. 거쳐간 곳의 길이는 20리가량이고 너비는 10리가량입니다. 안주(安州)군은 동상(東尙)·운곡(雲谷)·문곡(文谷)·주내(州內)·대대(大代) 등 5개 면에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도토리알만 하다고 합니다. 거쳐간 곳의 길이는 30리가량이고 너비는 10리가량입니다. 삼등(三登)군은 정호(鼎湖)·명덕(明德)·효덕(孝德)·증암(甌巖) 등 5개 면에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밤알만 하고 작은 것은 개암나무열매만 하다고 합니다. 거쳐간 곳의 길이는 40리가량이고 너비는 5리가량입니다. 강동(江東)군은 현내(縣內) 일방(一坊)에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콩, 팥알만 하다고 합니다. 거쳐간 곳의 길이는 5리가량이고 너비는 1리가량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17. 1839년(헌종 5) 5월 10일(양력 6월 20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189c-189d) / 平安監營啓錄 8책(168a-168b)

承政院開拆

平壤等六邑去月二十七日雨雹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牟麥已盡發穗, 次第入實, 春牟方始發穗, 早黍粟初鋤垂畢,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初鋤伊始, 晚稻·豆太, 幾盡入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牟麥間或發穗, 春牟舉皆胚胎, 早黍粟方張初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已盡立苗, 晚稻間間立苗, 豆太今方耕種.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牟方苗, 火粟始苗是如爲白有旆. 本月初九日巳時量始雨, 或灑或霏, 至申時量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승정원 열람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동·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밀과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이삭이 됐고 차례로 여물어 들고 봄보리는 지금 이삭이 패기 시작하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와 올벼와 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벼와 콩·팥은 거의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9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밀과 가을보리·가을밀은 간혹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대부분 알을 뻗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와 올벼와 목화는 이미 싹이 돋고 늦벼는 간간히 싹이 돋고 콩·팥은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18. 1839년(헌종 5) 5월 19일(양력 6월 29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8책(191b-191d) / 平安監營啓錄 8책(171a-171b)

道內農形及臣營下本月初九日巳時量始雨, 申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六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祥原·三登·碧潼等三邑, 得一犁. 慈山·龍岡兩邑, 得二鋤. 平壤·順安·永柔·定州·中和·江東·江西·三和·咸從·甌山·殷山·順川·德川·寧遠·龜城·朔州·寧邊等十七邑, 得一鋤. 博川·郭山·鐵山等三邑沍塵是如是白遣.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春秋粃麥, 舉皆入實, 次第向熟, 早黍粟方始再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初鋤垂畢, 晚稻·豆太, 初鋤伊始.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春秋粃麥隨其發穗, 日漸向實, 早黍粟幾盡初鋤, 晚黍粟·稷唐·早稻·木花, 間或初鋤, 晚稻·豆太, 方張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粃過半發穗, 火粟已盡立苗是如爲白有旆. 本月十七日戌時量始雨, 或灑或霏, 至十八日午時量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八分, 而靄雲漫空, 雨意尙多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9일의 비로 상원·삼등·벽동 등 3개 고을에 1려가 내렸고 자산·용강 등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평양·순안·영유·정주·중화·강동·강서·삼화·함중·증산·은산·순천·덕천·영원·구성·삭주·영변 등 1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박천·곽산·철산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7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봄밀과 봄보리와 가을밀과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여물어 들고 차례로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와 올벼와 묵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와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

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봄
밀과 봄보리와 가을밀과 가을보리·가을밀은 수시로 이삭이 패고 날로 점점 여물어가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와 올벼와 목화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와 콩·팥은 한창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
니다.

0219. 1840년(헌종 6) 5월 7일(양력 6월 6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192c-193a) / 平安監營啓錄 9책(2a-2b)

臣營下去月二十八日酉時始雨, 二十九日寅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龍川得二犁. 平壤·順安·永柔·宣川·鐵山·義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三登·成川·慈山·殷山等十六邑得一犁. 肅川·定州·祥原·江東·博川·龜城等六邑得二鋤. 安州·郭山·順川·价川·德川·孟山·陽德·雲山·熙川·江界·楚山·朔州·昌城等十三邑得一鋤, 寧邊·寧遠兩邑, 洽爲泥塵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秋麴麥已盡發穗, 春麴方始發穗, 早黍粟初鋤伊始,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舉皆立苗, 晚黍粟·稷唐間或立苗, 晚稻·豆太耕種垂畢.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秋麴麥舉皆胚胎, 今始發穗, 春麴日漸苗茂, 次第胚胎, 早黍粟已皆立苗,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間始立苗, 晚黍粟·稷唐已訖耕種, 晚稻·豆太方張耕播. 江界之三川·慈城兩防段, 春麴就苗, 火粟畢耕是如爲白有臥乎所. 參以所聞, 考諸邑牒, 則毋論口口穗之兩麥, 立苗之各穀, 近得雨暘之調順, 有勃興之望, 農事民情, 俱極欣幸, 遠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달 28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9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이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비가 내렸는데 용천읍에서 2려가 내렸고 평양·순안·영유·선천·철산·의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삼등·성천·자산·은산 등 1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숙천·정주·상원·강동·박천·구성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안주·곽산·순천·덕천·맹산·양덕·운산·회천·강계·초산·삭주·창성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영변·영원 등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이삭이 맺고

봄보리도 지금 이삭이 패기 시작하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중기장과 중조와 올수수와 올벼와 목화는 거의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싹이 돋고 늦벼와 콩·팥은 밭을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대부분 알을 뻗고 지금 이삭이 패기 시작하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무성하고 차례로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싹이 돋고 중기장과 중조와 올수수와 올벼와 목화는 간간히 싹이 자라기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밭을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와 콩·팥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20. 1840년(헌종 6) 5월 12일(양력 6월 11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195d-195d) / 平安監營啓錄 9책(5a-5b)

道內農形及龍川等三十八邑，去廿八九日得雨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今初六日驟雨，龜城得二鋤。肅川·安州·博川等三邑得一鋤，龍川浥塵是如爲白有旆。臣營下本月初十日丑時量始雨，或霏或灑，乍歇乍霏，至十一日亥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三寸九分是白乎所。際此兩麥向實各穀穉苗之時，風雨交作，不無受損之慮，繼此調順，方切顯祝是白乎旆。列邑得雨多寡，農形利害，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용천 등 38개 고을에 지난 29일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초6일의 비로, 구성은 2서가 내렸고 숙천·안주·박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용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0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잠시 그치거나 잠시 주룩주룩 내리다가 11일 해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9푼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리·밀이 여물어가고 각종 곡식의 싹이 어린 때에 비바람이 번갈아 치면 손상을 입을 염려가 없지 않으니 이렇게 계속 순조롭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의 양과 농사 상황의 이익과 손해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보고합니다.

0221. 1840년(헌종 6) 5월 17일(양력 6월 16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197c-198a) / 平安監營啓錄 9책(8a-8b)

臣營下本月初十日丑時始雨, 十一日亥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九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江西·咸從·甌山·成川·价川·寧邊·朔州·昌城等八邑, 川渠微漲. 平壤·順安·肅川·郭山·宣川·龍岡·三和·中和·祥原·三登·江東·慈山·殷山·順川等十四邑, 得二犁. 永柔·安州·嘉山·定州·龍川·陽德·博川·泰川等八邑, 得一犁. 鐵山·雲山·熙川·龜城等四邑, 得二鋤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春秋兩麥舉皆入實, 次第向熟, 早黍粟初鋤垂畢,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初鋤伊始, 晚黍粟·稷唐舉皆立苗, 晚稻·豆太今方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春秋兩麥隨其發穗, 日漸向實, 早黍粟初鋤方始,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已盡立苗, 晚黍粟·稷唐漸次立苗, 晚稻·豆太已訖耕種, 間或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方胎, 火粟始苗, 而雨陽均適, 日候調順, 兩麥有登熟之望, 各穀無愆鋤之患, 窮民可得支保, 賑恤始有實效, 言念民事, 誠甚多幸是白如乎. 遠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0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1일 해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3치 9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서·함중·중산·성천·개천·영변·삭주·창성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났고, 평양·순안·숙천·곽산·선천·용강·삼화·중화·상원·삼둥·강동·자산·은산·순천 등 1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영유·안주·가산·정주·용천·양덕·박천·태천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철산·운산·회천·구성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둥·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봄밀·봄보리는 대부분 알이 들어 차례로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대부분 싹이 돋았고, 늦벼·콩·팥은

지금 막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봄밀·봄보리·가을밀·가을보리는 이삭이 패는대로 날로 점점 여물어가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점차 싹이 돋고, 늦벼·콩·팥은 이미 밭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는데 간혹 싹이 돋았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막 싹을 빼고 화속은 싹이 나기 시작하였는데 비와 햇빛이 고루 적합하고 날씨도 순조로워 보리·밀이 익을 가망이 있습니다. 각종 곡식이 김매기를 지체될 걱정이 없으니 가난한 백성들이 지탱하고 보전할 수 있고, 도와주고 구호하는 실제 효과가 있기 시작하였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먼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22. 1840년(헌종 6) 5월 27일(양력 6월 26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199b-199c) / 平安監營啓錄 9책(10a-10b)

江西等三十四邑, 今初十日<十>一日雨澤及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德川川渠微漲, 義州·寧遠·渭原·楚山等四邑, 得一犁. 孟山·江界·碧潼等三邑, 得二鋤. 十六日驟雨, 价川川渠微漲, 永柔得二犁. 江東·殷山·順川·博川等四邑, 得一犁. 肅川·定州·泰川等三邑得二鋤. 順安·安州·嘉山·甌山·三登·成川·寧邊·熙川等八邑, 得一鋤. 二十二日驟雨, 宣川·鐵山·龍川·龜城·雲山等五邑, 得一犁, 龍岡·郭山兩邑得一鋤. 平壤·中和·祥原等三邑, 沍塵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兩麥舉皆登熟, 次第收穫, 早黍粟方張再鋤,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初鋤幾畢, 晚黍粟·稷唐初鋤方始, 晚稻·豆太已盡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兩麥幾盡成熟, 間或刈取, 早黍粟再鋤伊始, 中黍粟·早稷唐·早稻·木花初鋤過半, 晚黍粟·稷唐間或初鋤, 晚稻·豆太幾皆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春粳盡爲發穗, 火粟間始初鋤是如爲白有臥乎所. 見今雨暘時, 若氣候隨調, 南北之兩麥, 幾皆登熟, 早晚之各穀, 次第長養, 歉餘民事, 誠甚多幸,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강서 등 34개의 이번 초10일·11일의 우택 및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의 경우,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덕천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났고, 의주·영원·위원·초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맹산·강계·벽동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습니다. 16일에의 비로, 개천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났고, 영유는 2려가 내렸고, 강동·은산·순천·박천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숙천·정주·태천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순안·안주·가산·증산·삼등·성천·영변·회천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22일에의 비로, 선천·철산·용천·구성·운산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용강·곽산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양·중화·상원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보리·밀은 대부분 익어 차례로 수확하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늦벼·콩·팥은 이미 다 싹이 돋았습니다. 가산·곽산·정주·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보리·밀은 거의 다 익어 간혹 베어 거두었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고, 중기장·중조·올수수·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콩·팥은 거의 다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다 이삭이 났고 화속은 그사이에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비와 햇빛이 때맞추니 날씨가 순조로우면 남쪽과 북쪽의 보리·밀은 거의 다 익었고 이르든 늦든 각종 곡식은 차례로 잘 자라니 흉년이 든 끝에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보고합니다.

0223. 1840년(헌종 6) 6월 3일(양력 7월 1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199d-199d) / 平安監營啓錄 9책(11a-11a)

价川等二十七邑, 去十六廿二日驟雨形止及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六日之雨, 朔州得一犁, 昌城·碧潼兩邑得一鋤. 廿二日之雨, 義州得二犁, 楚山得一犁, 渭原得二鋤是如爲白有跡. 臣營下本月初二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乍陰乍陽, 至當日午時量開霽, 測雨器水深爲九分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개천 등 27개 고을의 지난 16·22일의 소나기 경위 및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6일의 비로 삭주는 1려가 내렸고, 창성·벽동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22일의 비로 의주는 2려가 내렸고, 초산은 1려가 내렸고, 위원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2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잠깐씩 흐렸다 별이 났다 하더니 그날 오시쯤에 이르러 개였는데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과 이후의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24. 1840년(헌종 6) 6월 7일(양력 7월 5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201a-201c) / 平安監營啓錄 9책(13a-13b)

臣營下本月初二日辰時始雨，初三日午時乃止，測雨器水深爲九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平壤·順安·永柔·肅川·咸從·甑山·江東·慈山·殷山·順川等九邑得一犁。定州·龍岡·孟山·龜城等四邑得二鋤，安州·嘉山·郭山·宣川·鐵山·江西·三和·中和·祥原·三登·寧邊·雲山·博川·朔州〈等〉十四邑，得一鋤是如爲白有旆。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兩麥方張刈取，隨以根耕，早黍粟幾訖三鋤，晚黍粟·稷唐·早稻·木花再鋤垂畢，晚稻·豆太今方初鋤。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兩麥次第收獲[穫]，早黍粟三鋤伊始，晚黍粟·稷唐·早稻·木花今纔再鋤，晚稻·豆太間或初鋤。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春牟漸次向熟，火粟已訖初鋤，而義州等邑之偏被蟲災，誠切憂悶，這這捕掃，毋至蔓延之意，措辭題飭爲白乎旆。列邑得雨多寡，蟲災寢熄與否，嗣後農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2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3일 오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9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함중·증산·강동·자산·은산·순천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정주·용강·맹산·구성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안주·가산·곽산·선천·철산·강서·삼화·중화·상원·삼등·영원·운산·박천·삭주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밀·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수시로 그루같이한 올기장·올조는 거의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밀·보리는 차례로 수확하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지금 겨우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콩·팥은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점차 익어가고, 화속은 이미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의주·순천·개천·덕천 등 4개 고을의 경우, 메뚜기가 그사이에 번져 기장·조·수수는 자못 많이 손상됐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6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그날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현재 비와 햇볕이 알맞아 각종 곡식이 잘 자라는데, 의주 등 고을이 벌레 재해를 심하게 입어 정말로 매우 근심되고 걱정됩니다. 날날이 잡아 없애 널리 퍼지기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과 벌레 재해가 그쳤는지 여부,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25. 1840년(헌종 6) 6월 17일(양력 7월 15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205c-206a) / 平安監營啓錄 9책(18a-18b)

臣營下本月初六日未時始雨，初七日卯時乃止，測雨器水深爲七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初六日之雨，德川得二犁，咸從·甑山·祥原·价川·定州·宣川·鐵山·義州等八邑得一犁，平壤·郭山·龍川·寧邊·博川·泰川等六邑得二鋤，三和·成川·陽德·順川·熙川·楚山·昌城等七邑得一鋤，安州浥塵，今十一日驟雨，孟山得一鋤是如爲白有旆，農形段，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兩麥畢獲[穫]，早黍粟今方四鋤，已盡胚胎，間或發穗，晚黍粟·稷唐·早稻·木花方張三鋤，晚稻·豆太再鋤伊始，根豆·木麥耕種纔訖，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兩麥幾盡刈獲[穫]，次第根耕，早黍粟已訖三鋤，晚黍粟·稷唐·早稻·木花再鋤垂畢，晚稻·豆太初鋤甫訖，价川·順川，則雨後蟲蝗，雖已洗滌，受損甚處，間或代播，義州·德川段，尙不寢熄，黍粟·稷唐多有所損，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春牟今纔刈取，隨以根耕，火粟方始再鋤是如爲白有臥乎所，兩麥今已畢獲[穫]，全省可謂均登，大飢之餘民事萬幸是白乎旆，當此各穀長養根耕方張之時，雨澤少慳，不無爲慮，而若而邑蟲災，極爲憂悶，這這捕掃，毋至蔓延之意，另加題飭爲白乎旆，蟲災寢熄與否，嗣後農形利害，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6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7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6일의 비로 덕천은 2려가 내렸고, 함중·증산·상원·개천·정주·선천·철산·의주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양·곽산·용천·영변·박천·태천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삼화·성천·양덕·순천·회천·초산·창성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안주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이번 11일의 소나기로 맹산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밀·보리는 수확을 마쳤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네벌 김매기를 하는데, 이미 다 알을 뺐고, 간혹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
 올벼·목화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
 고, 그루갈이하는 콩·메밀은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겨우 마쳤고, 가산·정주·곽산·선천·
 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
 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밀·보리는 거의 다 베어 수확하고 차례로 그루갈이하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비로소 마쳤고, 개천·순천은 비온 뒤에 메뚜기
 가 비록 이미 썰겼으나 손상을 심하게 입은 곳은 간혹 대신하는 씨앗을 뿌리고, 의주·덕천
 의 경우, 아직 그치지 않아 기장·조·수수는 많이 손상됐고,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봄보리는 지금 겨우 베어 거두며 수시로 그루갈이하고, 화속은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보리·밀은 지금 이미 수확을 마쳤는데, 평안도 전체가 고루 풍년이
 라 할 만하여 큰 굶주림 끝에 백성 사정상 매우 다행입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잘
 자라는 때에 우택이 조금 부족하여 염려가 없지 않지만, 이와 같은 고을의 벌레 재해는
 그지없이 근심되고 걱정됩니다. 날날이 잡아 없애 널리 퍼지기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뜻을 별도로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벌레 재해가 그쳤는지 여부와 이후의 농사
 상황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26. 1840년(헌종 6) 6월 18일(양력 7월 16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206c-206c) / 平安監營啓錄 9책(19a-19b)

道內農形雨澤，連續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本月十七日辰時量始雨，連爲霏灑，有時滂沱，至當日巳時量乃止，測雨器水深爲七寸五分，而少慳之餘，得此優渥，已鋤之各穀，長養適意。新耕之根種，芽茁隨時，秋農亦有善就之望，而雲陰不散，雨意尚濃，所得既多，浦或有濫沈，繼此開霽，方切顒望，列邑得雨多寡，嗣後農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7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때로는 착착 쏟아지더니 그날 사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치 5푼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부족하던 끝에 이렇게 넉넉한 우택을 맞아 이미 김을 맨 각종 곡식은 알맞게 잘 자라고, 새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려 그루같이한 것은 때에 따라 싹이 자라니, 가을 농사 또한 잘 여물 가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비올 조짐이 아직 짙습니다. 이미 내린 것이 많아 포구가 더러 넘치거나 잠길 테니, 이후로 개이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27. 1840년(헌종 6) 6월 27일(양력 7월 25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208b-208d) / 平安監營啓錄 9책(21b-22a)

臣營下本月十七日辰時始雨, 十八日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七寸五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壤·順安·永柔·肅川·郭山·鐵山·江西·三和·甌山·中和·殷山·德川·陽德·寧邊等十四邑, 川渠漲滿. 定州·龍川·龍岡·咸從·慈山等五邑, 得二犁, 安州·宣川·義州·祥原·三登·江東·成川·順川·孟山·博川·泰川·龜城等十二邑, 得一犁, 嘉山·熙川兩邑, 得二鋤. 价川·雲山·朔州等三邑, 得一鋤.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次第發穗, 晚黍粟·稷唐·早稻已訖三鋤, 間或胚[胚]胎, 木花今方起花, 晚稻·豆太方張三鋤, 根豆·木麥舉皆立苗.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今方四鋤, 已盡胚胎, 間或發穗, 晚黍粟·稷唐·早稻·木花過半三鋤, 晚稻·豆太再鋤垂畢, 根豆·木麥已盡耕種, 方始立苗.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已訖再鋤, 根豆·木麥幾皆耕播. 義州·德川段, 雨後蟲蝗, 盡爲寢熄, 受損甚處, 間或代播. 江界則蟲蝗間熾, 長養各穀, 頗有所損是如爲白有臥乎所. 參以所聞, 考諸邑牒, 則十七八日之雨, 以南以北, 既優既渥, 浦或有濫, 田無墊漬, 蟲已洗滌, 災亦淺尠, 而東風連吹, 早粟或有受損之慮, 雲陰常濃, 晚種稍欠時暘之候, 向後調順, 方切願望是白乎旃. 江界之方有蟲患, 殊甚可悶, 這卽捕掃, 毋至熾蔓之意, 另飭題送爲白乎旃. 臣營下今二十六日申時量, 驟雨連爲滂沱, 移時乃止, 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乎. 竝與向前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7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8일 사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7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곽산·강서·철산·삼화·증산·은산·덕천·양덕·영변 등 1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정주·용천·용강·함중·자산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안주·선천·의주·상원·삼둥·강동·성천·순천·맹산·박천·태천·구성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가산·희천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개천·운산·삭주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려졌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이미 세벌 김매기를 마쳤는데 간혹 알을 배고, 목화는 지금 막 꽃이 피고, 늦벼·콩·팥은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대부분 싹이 돋았고,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네벌 김매기를 하는데 이미 다 알을 났으며 간혹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하는 콩·팥과 메밀은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는데 막 싹이 돋기 시작했고,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이미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루같이하는 콩·메밀은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하였고, 의주·덕천의 경우, 비온 뒤에 메뚜기가 다 그쳤지만 손상을 심하게 입은 곳은 간혹 대신하는 씨앗을 뿌립니다. 강계는 메뚜기가 그사이에 번져 잘 자라던 각종 곡식이 자못 손상됐다고 합니다. 들은 것을 참조하고 여러 고을의 보고를 살펴보면 17·18일의 비로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미 우택이 넉넉하여 포구는 더러 넘친 곳이 있으나 밭은 잠기거나 독이 터진 곳이 없고, 벌레는 이미 씻겼고 재해 또한 적습니다. 그런데 동풍이 연이어 불어 올조는 더러 손상될 염려가 있고, 먹구름이 항상 짙으니 늦곡은 제때 벌이 나는 날씨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후로 순조롭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다. 강계는 바야흐로 벌레 근심이 있으니 특히 매우 걱정할 만합니다. 낱알이 즉시 잡아 없애 번지기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뜻을 별도로 결정문을 보내 지시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6일 신시쯤에 소나기가 연이어 짹짹 쏟아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연유를 보고합니다. 이전의 우택과 아울러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28. 1840년(헌종 6) 6월 29일(양력 7월 27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208d-209a) / 平安監營啓錄 9책(22a-22b)

臣營下本月二十六日申時驟雨，移時乃止，測雨器水深爲八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伊時以來，連爲陰翳，時或霏灑，旋即止息，元無分寸之可論，而自二十八日未時，至二十九日卯時，且霏且灑，測雨器水深爲九分，而雲陰不散，東風連吹是白乎旆。連接各邑所報，則二十六日驟雨，平壤·三和·甑山·祥原·江東等五邑得一犁，定州·龍岡兩邑得二鋤，順安·咸從·成川·殷山等四邑得一鋤，安州浥塵是如爲白有臥乎所。前雨今雨之多寡，嗣後農形利害，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6일 신시에 소나기가 내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연이어 짙은 구름이 끼고 때로는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곧바로 그쳤는데, 원래 1푼·1치로는 따질 수 없습니다. 28일 미시부터 29일 묘시까지 또 부슬부슬 내리다가 또 뿌렸는데,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동풍이 연이어 불고 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6일의 소나기로 평양·삼화·중산·상원·강동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정주·용강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순안·함중·성천·은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안주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전의 비와 이번 비의 양, 이후 농사 상황의 이로움과 해로움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29. 1840년(헌종 6) 6월 30일(양력 7월 28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211d-212a) / 平安監營啓錄 9책(26b-26b)

平壤等十二邑, 今二十六日驟雨形止及臣營下自二十八日未時, 至二十九日卯時, 且霏且灑, 測雨器水深爲九分緣由, 連續馳啓爲白有在果. 伊時以來, 乍或止歇, 旋即灑霏, 至三十日丑時量止息,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 而雲陰不散, 雨意尙濃是白如乎. 前後所得, 分寸雖幸無多, 數旬陰霏, 淒風從又不休, 早粟之發穗者, 入實爲害, 晚種之方胎者, 受瘁可慮, 歉餘民事, 不無憂悶, 繼此開霽, 方切願望是白乎旃. 列邑得雨多寡, 農形利害,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12개 고을의 이번 26일의 소나기 경위 및 저의 감영에 28일 미시부터 29일 묘시까지 또 부슬부슬 내리다가 또 뿌렸는데, 측우기 수심이 9푼인 연유는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잠깐 더러 그쳤다가 곧바로 뿌리거나 주룩주룩 내리더니 30일 축시쯤에 이르러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비올 조짐이 아직 짙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것은 1푼·1치로 비록 다행히 많지 않지만 수심 일 짙은 구름이 끼고 서늘한 바람이 따라서 또 멈추지 않으니 이삭이 팬 올조는 알이 드는데 해롭고, 바야흐로 알이 든 늦곡은 손상될 것이 염려되니, 흉년 끝에 백성들의 사정상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후로 개이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 양과 농사 상황의 이로움과 해로움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30. 1840년(헌종 6) 7월 2일(양력 7월 30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212a-212b) / 平安監營啓錄 9책(27a-27a)

去月廿六八九晦日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伊時以來，一向陰翳，時或微霏，旋即止息，自今初一日申時量又雨，連爲霏灑，有時滂沱，至初二日寅時量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六分是白乎跡。連接各邑所報，則廿六日驟雨，寧遠·陽德兩邑，川渠漲滿，三登·宣川·鐵山等三邑得一犁。郭山·德川兩邑得一鋤，廿八九晦日之雨，江西·江東兩邑川渠漲滿，肅川·安州·慈山等三邑得一犁，永柔得二鋤是如爲白有臥乎所。前此所得，多少不一，而其數十日以來，陰雨淒風，則無處不然，列邑之報，多以各穀之受瘁爲言是日在如中。昨今之霍灑，既過分數，兼以東風連吹，雲陰不散，慮或病苗，不勝憂悶，繼此調順，方切顒望，而雨澤多寡，農形利害，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6·28·29·30일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줄곧 짙은 구름이 끼고 때로는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는데, 이번 초1일 신시쯤에 또 비가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때때로 짹짹 쏟아지니 초2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6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6일의 소나기로 영원·양덕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삼등·선천·철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광산·덕천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28·29·30일의 비로 강서·강동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숙천·안주·자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영유는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전에 내린 것은 양이 한결같지 않은데, 수습 일 동안 오랫동안 비가 오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없으니 여러 고을의 보고에 각종 곡식의 입는 손상이 많다고 말합니다. 어제오늘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려 이미 푼으로 세기를 지났는데, 게다가 동풍이 연이어 불고,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으니 더러 병이 발생할까 염려되며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후로 순조롭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택의 양과 농사 상황의 이로움과 해로움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31. 1840년(헌종 6) 7월 7일(양력 8월 4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212d-213b) / 平安監營啓錄 9책(27b-28b)

寧遠等七邑去廿六日驟雨, 江西等六邑廿八九晦日雨澤及臣營下今初一日申時又雨, 初二日寅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六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時以後, 乍陰乍暘, 至初五日, 始爲開霽, 而連接各邑所報, 則去廿六日之雨, 江界·渭原·楚山·碧潼等四邑得一鋤. 廿八九晦日之雨, 嘉山·宣川·龍川·甑山·寧邊·孟山·朔州·昌城等八邑, 川渠漲滿, 平壤·義州·祥原·博川等四邑得一犁. 鐵山·价川·熙川等三邑得二鋤. 初一二日之雨, 平壤·順安·定州·義州·三和·咸從·中和·三登·成川·順川·德川·寧遠·泰川等十三邑, 川渠漲滿, 龍岡·殷山兩邑得二犁. 安州·郭山·雲山等三邑得二鋤, 其中宣川, 則今初一日申時量, 東風大作, 雨又霏灑, 至初二日申時, 雨止風息, 川渠添漲, 發穗之早粟, 或有披靡, 汚下處畚稻, 間多沈墊, 加以蟲患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已盡發穗, 晚黍粟·稷唐·早稻方始發穗, 木綿爛熳起花, 晚稻·豆太已畢三鋤, 根豆·木麥幾訖初鋤.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次第發穗, 晚黍粟·稷唐·早稻三鋤已訖, 今方胚胎, 木綿間或起花, 晚稻·豆太今纔三鋤, 根豆·木麥俱爲立苗, 繼以初鋤. 江界則蟲蝗今已寢熄, 受損甚處, 間或代播. 三川·慈城兩坊段, 火粟方始三鋤, 根豆·木麥已皆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 江界之蟲蝗, 雖已寢息, 宣川之風災蟲患, 不無憂悶, 而毋論沿峽, 早稼晚種, 近得調順, 庶期善就, 言念民事, 誠極多幸, 遠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영원 등 7개 고을에 지난 26일의 소나기, 강서 등 6개 고을의 28·29·30일의 우택 및 저의 감영에 이번 초1일 신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2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2치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잠깐씩 흐렸다 별이 났다 하더니 초5일에 이르러 비로소 개었는데, 지난 26일의 비로 강계·위원·초산·벽동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28·29·30일의 비로 가산·선천·용천·증산·영변·맹산·삭주·창성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평양·의주·상원·박천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철산·개천·회천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초1·2일의 비로 평양·순안·정주·의주·삼화·함중·중화·삼등·성천·순천·덕천·영원·태천 등 1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용강·은산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안주·곽산·운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그 가운데 선천은 이번 초1일 신시쯤에 동풍이 크게 일어나고 비가 또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2일 신시에 이르러 비도 그치고 바람도 그쳤는데, 시내와 도랑이 더 불어났으며, 이삭이 팬 올조는 더러 꺾이거나 쓰러지고 낮은 곳의 논벼는 그사이에 많이 물에 잠겼는데, 벌레의 근심이 더한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막 이삭이 패기 시작하였고, 목화는 활짝 꽃이 피었고, 늦벼·콩·팥은 이미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이삭이 났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는데 지금 막 알을 배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고, 늦벼·콩·팥은 지금 막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모두 싹이 돋는데, 이어서 초벌 김매기를 합니다. 강계는 메뚜기가 지금 이미 그쳤으나 손상을 심하게 입은 곳은 간혹 대신하는 씨앗을 뿌립니다.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숙은 막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이미 다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강계의 메뚜기는 비록 이미 그쳤지만, 선천의 바람 피해와 벌레 재해는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물가나 산골을 따질 것 없이, 올곡이든 늦곡이든 요즈음 순조로운 날씨를 만나 아마도 잘 여물 것이 기대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지없이 다행입니다. 먼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32. 1840년(헌종 6) 7월 9일(양력 8월 6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213b-213c) / 平安監營啓錄 9책(28b-28b)

嘉山等十五邑去廿八九晦日之雨, 平壤等十九邑, 今初二日之雨,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本月初七日寅時量始雨, 終朝滂沱, 繼以霏灑, 至初八日酉時, 測雨器水深爲三寸六分, 而雲陰不散, 雨意向濃是白如乎. 前得既多, 從又霏灑, 浦有沈墊之患, 穀有受瘁之慮, 繼此開霽, 方切顙[顙]望, 而竝與向前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가산 등 15개 고을에 지난 28·29·30일의 비, 평양 등 19개 고을의 이번 초1·2일의 비,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7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아침 내내 콕콕 쏟아지다가 이어서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8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이었고,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비올 조짐이 아직 짙습니다. 앞서 이미 많이 내렸고, 따라서 또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니 포구는 물에 잠길 근심이 있고, 곡식은 손상을 입을 염려가 있습니다. 이후로 개이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의 우택과 아울러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33. 1840년(헌종 6) 7월 17일(양력 8월 14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218b-218d) / 平安監營啓錄 9책(34a-34b)

臣營下本月十[初]七日寅時量始雨, 滂沱霑灑, 至初八日酉時, 測雨器水深爲三寸六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伊時以後, 載陰載陽, 始於十一日開霽, 而連接各邑所報, 則去廿八九晦日之<雨>, 龜城川渠漲滿, 德川·江界·渭原·楚山等四邑得一鋤. 今初二日之雨, 嘉山·龍川兩邑, 川渠漲滿. 鐵山·碧潼·熙川等三邑得二犁. 初七八日之雨, 平壤·順安·永柔·肅川·定州·郭山·宣川·鐵山·義州·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陽德·慈山·殷山·順川·价川·孟山·江西·龍岡·博川·泰川·熙川·朔州等二十六邑, 川渠漲滿, 龜城得二犁. 安州·嘉山·咸從·寧邊·雲山·碧潼等六邑得二犁, 三和得一鋤, 而其中宣川則前漲未退, 新潦添生, 汚下處稻粟尙愆蘇醒, 蟲患未熄. 龍川則今初七日申時量, 獐風大作, 雨又霑灑, 至初八日巳時, 雨止風息, 川渠添漲, 傍浦田畝, 間有沈墊, 依山禾稼, 或致披靡是如爲白有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日漸入實, 晚黍粟·稷唐·早稻已盡發穗, 木花連爲結穎, 晚稻胚胎, 豆太起花, 根豆·木麥方張再鋤.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舉皆發穗, 晚黍粟·稷唐·早稻次第發穗, 木綿爛熳起花, 間或結穎, 豆太已畢三鋤, 根豆·木麥幾盡初鋤.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間間胚胎, 根豆·木麥初鋤是如爲白有臥乎所. 參以所聞, 考諸邑牒, 則浦或汎濫, 田無潰缺之患, 候得時暘, 穀有善就之望, 言念民事, 誠極多幸, 而若而邑之風損蟲患, 雖爲淺尠, 不無爲慮是白如乎. 遠邑雨澤,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7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짹짹 쏟아지다가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면서 초8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3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이후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11일에 비로소 개었는데,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 28·29·30일의 비로 구성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덕천·강계·위원·초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이번 초1·2일의

비로 가산·용천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철산·벽동·회천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초7·8일의 비로 평양·순안·영유·숙천·정주·곽산·선천·철산·의주·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양덕·자산·은산·순천·개천·맹산·강서·용강·박천·태천·회천·삭주 등 2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구성은 2려가 내렸고, 안주·가산·함중·영변·운산·벽동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삼화는 1서가 내렸고, 그 가운데 선천은 이전에 불어난 물이 빠지지 않았는데 새로 큰물이 더 생겨, 낮은 곳의 벼와 조는 오히려 되살아나기에 늦었고 벌레 재해가 그치지 않았고, 용천은 이번 초7일 신시쯤 사나운 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비가 또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8일 사시에 이르러 비도 그치고 바람도 멈췄는데, 시내와 도랑은 더 불어나 포구 주변의 논밭은 그사이에 물에 잠긴 곳이 있고 산자락 벼는 더러 꺾이거나 쓰러졌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날로 점점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연이어 다래를 맺고, 늦벼는 알을 배고, 콩·팥은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이삭이 났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났고, 목화는 활짝 꽃이 피었는데 간혹 다래를 맺고, 콩·팥은 이미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간간이 알을 배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들은 것을 참조하고 여러 고을의 보고를 살펴보면 포구는 더러 범람하였지만, 밭은 두둑이 무너지는 근심이 없으니, 햇별이 알맞은 날씨를 만나면 곡식이 잘 여물 가망이 있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지없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을의 바람 피해와 벌레 재해는 비록 적지만 염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먼 고을의 우택과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34. 1840년(헌종 6) 7월 27일(양력 8월 24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220a-220c) / 平安監營啓錄 9책(36b-37a)

平壤等三十五邑, 今初七八日雨澤及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江界川渠漲滿, 渭原得二犁, 楚山得一犁, 今廿一日驟雨, 三登得一鋤. 平壤·慈山·祥原等三邑浥塵, 廿三日驟雨, 宣川·鐵山·龍川等三邑得一犁, 郭山得一鋤, 三和·定州兩邑浥塵, 廿四日驟雨, 永柔得二鋤, 平壤·順安·肅川·中和·祥原·价川等六邑浥塵.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日益成熟, 晚黍粟·稷唐·早稻方張入實, 木花已皆結穎, 晚稻發穗, 豆太結繭, 根豆·木麥幾訖再鋤.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舉皆入實, 次第向熟, 晚黍粟·稷唐·早稻已盡發穗, 間間入實, 木花連爲結穎, 晚稻胚胎, 豆太起花, 根豆·木麥再鋤伊始.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舉皆胚胎, 根豆·木麥初鋤垂畢, 其中宣川段, 汚濕處蟲蝗, 雨後洗滌, 三和則蟲蝗間熾畚稻, 或有所損是如爲白有臥乎所. 當此各穀向熟之際, 雨意稍慳, 雖或有間間驟霑, 亦未周洽, 迨此一霽, 方切顚望, 而三和之蟲患, 殊甚可悶是白如乎. 嗣後農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35개 고을의 이번 초7·8일 우택 및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계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위원은 2려가 내렸고, 초산은 1려가 내렸고, 이번 21일의 소나기로 삼등은 1서가 내렸고, 평양·자산·상원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23일의 소나기로 선천·철산·용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광산은 1서가 내렸고, 삼화·정주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24일의 소나기로 영유는 2서가 내렸고, 평양·순안·숙천·중화·상원·개천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중화·상원·삼등·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날로 더욱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한창 알이 들고 있고, 목화는 이미 다 다래를 맺었고, 늦벼는 이삭이

패고, 콩·팥은 꼬투리를 맺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거의 두벌 김매기를 마쳤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회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알이 들었는데 차례로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이미 다 이삭이 뻗었는데 간간이 알이 들고, 목화는 연이어 다래를 맺고, 늦벼는 알을 배고, 콩·팥은 꽃이 피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대부분 알을 맺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선천의 경우, 낮고 습한 곳의 메뚜기는 비온 뒤에 쫓겼고, 삼화는 메뚜기가 그사이에 논벼에 번져 더러 손상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익어갈 즈음 비올 조짐이 조금 부족하니, 비록 더러 간간이 소나기가 적시지만 또한 두루 흡족하지는 않고, 이때쯤에 한차례 퍼붓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다. 삼화의 벌레 재해는 특히 매우 걱정할 만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35. 1840년(헌종 6) 8월 7일(양력 9월 2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223b-223d) / 平安監營啓錄 9책(41b-42a)

道內農形及三登等四邑去廿一日驟雨, 宣川等六邑廿三日驟雨, 永柔等七邑廿四日驟雨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廿一日驟雨, 定州浥塵, 廿三日驟雨, 昌城得一犁. 熙川·楚山·碧潼等三邑得一鋤, 德川浥塵, 廿四日驟雨, 安州·義州·成川·雲山·熙川·泰川·朔州等七邑得一鋤. 廿八日驟雨, 龍川川渠漲滿, 鐵山得一犁. 定州·宣川兩邑得二鋤. 德川·寧邊·熙川·郭山·泰川·龜城等六邑得一鋤. 平壤·祥原兩邑浥塵是如爲白有旆. 臣之行部, 今初三日, 自平壤離發, 由順安·永柔·肅川·安州·嘉山, 當日到定州牧, 而歷路農形, 詳細看審是白如乎. 所經七邑, 以沿江濱海之地, 田畝相錯, 而黍粟汚地差遜於高操[燥], 畝稻泐沕稍勝於乾播, 稷唐毋論山野, 比他穀稍優, 豆太·木麥, 隨其沃瘠, 自有優劣, 木綿俱非宜土, 結穎無多, 而統論優劣, 清南稍遜於清北是白遣. 至若舊蓄之仍陳, 種種有之, 臣行所過處, 歉餘村氓, 成群擁路, 還布停免之訴, 紛聒不已乙仍于. 臣以另加恤念, 俾有紓力之意, 面面慰撫爲白乎旆. 續接各邑所報, 則江西·龍岡·三和·咸從·甌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四邑, 早黍粟幾盡成熟, 間或刈取, 晚黍粟·稷唐·早稻今方向熟, 木花間作桃繭, 晚稻漸次向實, 豆太方垂針繭, 根豆·木麥方張起花. 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一邑, 早黍粟日益成熟, 晚黍粟·稷唐·早稻次第入實, 木花漸結穎房, 晚稻發穗, 豆太方始結繭, 根豆·木麥間始起花.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已盡發穗, 根豆·木麥再鋤垂畢是如爲白有臥乎所. 前路農形, 遍加詳審, 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안도 내 농사 상황 및 삼등 등 4개 고을의 지난 21일 소나기, 선천 등 6개 고을의 23일의 소나기, 영유 등 7개 고을의 24일의 소나기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1일의 소나기로 정주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23일의 소나기로 창성은 1려가 내렸고, 희천·초산·벽동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덕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24일의 소나기로 안주·의주·성천·운산·희천·태천·삭주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28일의 소나기로 용천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철산은 1려가 내렸고, 정주·선천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덕천·영변·희천·곽산·태천·구성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양·상원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순시는 이번 초3일 평양에서 출발하여 순안·영유·숙천·안주·가산을 통하여 그날 정주목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나는 길의 농사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거쳐 간 7개 고을은 강 주변과 바닷가 지역으로 논밭이 서로 섞였는데, 기장과 조는 낮은 지역이 높고 메마른 곳보다 조금 못하고, 논벼는 보가 있는 곳이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보다 조금 낮고, 수수는 산골이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다른 곡식에 비해 조금 우수하고, 콩·팥·메밀은 흙이 비옥한지 척박한지에 따라 우열이 있고, 목화는 모두 적절한 흙이 아니어서 다래를 맺은 것이 많지 않으니, 우열을 통틀어 따진다면 청천강 남쪽이 청천강 북쪽보다 조금 못합니다. 옛 개간한 밭의 경우 그대로 묵힌 것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지나간 곳은 흉작 끝에 마을 백성들이 무리를 이뤄 길을 막고 환곡과 군포를 중지하거나 면제해 달라는 하소연이 떠들썩하게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별도로 구호할 생각으로 힘을 내겠다는 뜻을 갖도록 하나하나 만나서 위로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동·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4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었는데 간혹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지금 막 익어가고, 목화는 그사이에 다래를 맺고, 늦벼는 점차 여물어가고, 콩·팥은 바야흐로 거의 뽕죽한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한창 꽃이 피고 있고, 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1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날로 더욱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올벼는 차례로 알이 들고, 목화는 점점 다래를 맺고, 늦벼는 이삭이 패고, 콩·팥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하였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그사이에 꽃이 피기 시작하였고,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이미 다 이삭이 뻗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는 길에 농사 상황은 두루 상세히 살펴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36. 1840년(헌종 6) 8월 17일(양력 9월 12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227a-227c) / 平安監營啓錄 9책(46a-46b)

平壤等七邑巡路及道內農形, 去廿一日三日四日八日驟雨形止, 臣在定州牧,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八日驟雨, 寧邊·碧潼兩邑得二鋤. 永柔·三登·成川·陽德·德川·雲山·熙川等七邑得一鋤. 中和·咸從·安州·嘉山·博川等五邑溫塵是如爲白有旆. 臣自定州, 由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龜城·泰川, 當日到寧邊府, 而歷路農形, 一一看審是乎則, 畚稻·稷唐比他穀稍優, 黍粟高燥差勝於污下, 木綿豆太·木麥, 歷路所見, 無甚異同, 而間經風曠, 不無所損, 若論八邑優劣, 則雖有差等統論大體, 別無迥殊是白乎旆.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早黍粟幾盡刈取, 早稻已皆成熟, 間或刈取, 晚黍粟·稷唐過半就熟, 木花顆房漸堅, 晚稻·豆太方張入實, 根豆·木麥次第結顆. 嘉山·定州·德川·寧遠·孟山·陽德·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朔州·昌城·碧潼等十五邑, 早黍粟幾皆成熟, 間或刈取, 早稻今方向熟, 晚黍粟·稷唐盡爲入實, 次第向熟, 木花連爲結顆, 晚稻·豆太方始向實, 根豆·木麥爛慢起花, 三和之蟲患, 漸次寢熄.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日漸入實, 根豆·木麥連爲起花是如爲白有臥乎所, 前路農形, 遍加詳審, 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평양 등 7개 고을을 순시한 길 및 평안도 내 농사 상황, 지난 21일·23일·24일·28일의 소나기 경위는 제가 정주목에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초8일의 소나기로 영변·벽동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영유·삼동·성천·양덕·덕천·운산·희천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중화·함종·안주·가산·박천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정주에서 관산·선천·철산·용천·의주·구성·태천을 통하여 그날 영변부에 도착하였는데, 지나는 길에 농사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논벼·수수는 다른 곡식에 비해 조금 우수하고, 기장·조는 높고 메마른 곳이 낮은 곳보다 조금 낮고, 목화·콩·팥·메밀은 지나는 길에 본 것으로는 차이가 심하지 않았는데, 그사이에 겪은 바람에 말라 손상이 없지는 않으니, 만약 8개 고을의 우열을 따진다면 비록 차등이 있지만, 대체로 통틀어

따진다면 별달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중화·상원·삼등·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베어 거뒀고, 올벼는 이미 다 익었는데 간혹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절반 이상 익어가고, 목화는 다래가 점점 단단해지고, 늦벼·콩·팥은 한창 알이 들고 있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차례로 꼬투리를 맺습니다. 가산·정주·덕천·영원·맹산·양덕·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삭주·창성·벽동 등 15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었는데 간혹 베어 거두고, 올벼는 지금 바야흐로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다 알이 들었는데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연이어 다래를 맺고, 늦벼·콩·팥은 막 여물기 시작하였고, 그루갈이한 콩·메밀은 연이어 꽃이 핀다고 합니다. 앞으로 거치는 길에 농사 상황은 두루 상세히 살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37. 1840년(헌종 6) 8월 27일(양력 9월 22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227c-228a) / 平安監營啓錄 9책(46b-47a)

郭山等八邑巡路及農形, 寧邊等十四邑, 今初八日驟雨形止, 臣在寧邊府,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八日驟雨, 平壤·順安·永柔·宣川·龍岡·咸從·中和·祥原·成川·龜城等十邑得一犁, 定州·郭山·龍川等三邑得二鋤, 江西·三登·江東·嘉山·鐵山等五邑得一鋤, 陽德·湍塵. 廿一日驟雨, 平壤得一犁, 安州·嘉山·宣川·慈山等四邑得一鋤, 順安·湍塵是如爲白有旆. 臣自寧邊, 由熙川·价川·順川·慈山, 昨日到成川府, 而歷路農形, 逐坪詳審則所經五邑, 俱以依峽濱江之地, 田多畝少, 而早稼已獲[穫]者, 詢于農夫, 晚穀之未收者, 參諸所見, 黍粟隨其沃瘠, 自有優劣, 稷唐毋論山野, 比他迥勝, 畝稻則灌溉差勝於乾播, 木綿結顆既稀, 拾花亦少, 豆太·木麥此疆爾界, 無甚異同是白如乎. 歷路所見, 雖有淺深, 統以論之, 伊豐非歉, 而殿屎餘民, 瘡痍未蘇, 不知其樂, 反以爲憂, 擁路紛訴, 冀其存保, 目下民情, 誠甚憂悶. 臣以另加顧恤之意, 一一慰撫是白乎旆. 今廿六日申時量始雨, 霏灑湍塵而止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殷山等十五邑, 早黍粟已皆登場, 早稻已盡刈取, 晚黍粟·稷唐隨熟隨刈, 木花今纔拾絮, 晚稻·豆太今方向熟, 根豆·木麥日益入實.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江界·渭源·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二邑, 早黍粟方張收獲[穫], 早稻幾皆成熟, 次第刈獲[穫], 晚黍粟·稷唐日益成熟, 木花早顆始綻, 晚稻·豆太方張入實, 根豆·木麥漸次入實.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連爲向熟, 根豆·木麥方始結顆是如爲白有臥乎所. 前路農形, 遍加詳審, 列邑得雨,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곽산 등 8개 고을을 순시한 길 및 농사 상황과 영변 등 14개 고을의 이번 초8일 소나기 경위는 제가 영변부에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8일의 소나기로 평양·순안·영유·선천·용강·함중·중화·상원·성천·구성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정주·곽산·용천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강서·삼등·강동·가산·철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양덕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21일의 소나기로 평양은 1려가 내렸고, 안주·가산·선천·자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순안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영변에서부터 회천·개천·순천·자산을 거쳐 어제 성천부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나간 길의 농사 상황은 하나하나 들판을 상세히 살폈는데, 지나간 5개 고을은 모두 산자락과 강가의 땅은 밭이 많고 논은 적습니다. 이미 수확한 올곡은 농부들에게 물어보고, 거두지 못한 늦곡은 본 것을 참조하면, 기장·조는 땅이 비옥한지 척박한지에 따라 자연히 우열이 있고, 수수는 산골이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낮고, 논벼는 물 대는 곳이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보다 조금 낮고, 목화는 다래를 맺은 것이 이미 드물어 거들 숨 또한 적고, 콩·팥·메밀은 이 땅이든 저 땅이든 심한 차이는 없습니다. 지나간 길에서 본 것으로는 비록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통틀어 따지자면 풍작이고 흉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음하던 끝에 백성들은 고통에서 회복하지 못하여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근심하게 되어 길을 에워싸고 어지럽게 하소연하며 보전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백성들의 심정은 정말로 매우 근심되고 걱정됩니다. 저는 별도로 돌보고 구호하는 뜻으로 하나하나 위로하였습니다.

이번 26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중·중산·중화·상원·삼등·강동·은산 등 15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타작했고, 올벼는 이미 다 베어 거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익는 대로 베고, 목화는 지금 막 숨을 거두고, 늦벼·콩·팥은 지금 바야흐로 익어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날로 알이 들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2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수확하고 있고, 올벼는 거의 다 익어 차례로 베어 수확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날로 익어가고, 목화는 일찍 맺은 다래는 숨이 터지기 시작하였고, 늦벼·콩·팥은 한창 알이 들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점차 알이 들고,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연이어 익어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의 농사 상황은 두루 상세히 살피고, 여러 고을에 내린 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38. 1840년(헌종 6) 9월 7일(양력 10월 2일)

各司謄錄 30책, 平安監營啓錄 9책(228d-229a) / 平安監營啓錄 9책(48a-48b)

成川等三邑巡路及道內農形, 臣還營之日,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肅川·安州·殷山·价川·定州·宣川·雲山·德川等八邑, 今初二日夜, 水霜降下是如爲白乎旡. 農形段, 平壤·順安·永柔·肅川·安州·江西·龍岡·三和·咸從·甑山·中和·祥原·三登·江東·成川·慈山·殷山·順川·价川等十九邑, 晚黍粟·稷唐已盡登場, 木花方張摘拾, 晚稻·豆太過半收穫, 根豆·木麥隨熟隨刈. 嘉山·定州·郭山·宣川·鐵山·龍川·義州·德川·寧遠·孟山·陽德·寧邊·雲山·熙川·江界·渭原·楚山·博川·泰川·龜城·朔州·昌城·碧潼等二十三邑, 早黍粟已皆收穫[穫], 早稻·晚黍粟·稷唐方張刈獲[穫], 木花次第吐絮, 晚稻·豆太幾皆就熟, 根豆·木麥連爲入實. 江界之三川·慈城兩坊段, 火粟方始刈取, 根豆·木麥今幾成熟是如爲白有臥乎所. 見今霜信遽催, 穡事垂畢, 一路災實, 各邑分等, 更加詳探, 追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성천 등 3개 고을을 순시한 길 및 평안도 내 농사 상황은 제가 감영으로 돌아온 날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숙천·안주·은산·정주·선천·운산·덕천 등 8개 고을은 이번 초2일 밤에 무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평양·순안·영유·숙천·안주·강서·용강·삼화·함흥·증산·증화·상원·삼둥·강동·성천·자산·은산·순천·개천 등 19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타작하였고, 목화는 한창 따서 거두고 있고, 늦벼·콩·팥은 절반 이상 수확하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익는 대로 베고 있습니다. 가산·정주·곽산·선천·철산·용천·의주·덕천·영원·맹산·양덕·영변·운산·희천·강계·위원·초산·박천·태천·구성·삭주·창성·벽동 등 2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수확하였고, 올벼·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베어 수확하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숨이 터지고, 늦벼·콩·팥은 거의 다 익어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연이어 알이 들고, 강계의 삼천·자성 2개 방의 경우, 화속은 막 베어 거두기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한 콩·메밀은 지금 거의 익었다고 합니다. 현재 서리가 내려 계절을 재촉하고, 농사는 거의 마쳤으니, 온 도내 재해와 결실, 각 고을의 등급은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39. 1840년(헌종 6) 11월 23일(양력 12월 16일)

各司臚錄 30책, 平安監營啓錄 10책(262a-262a) / 平安監營啓錄 10책(4a-4a)

卽接義州府尹李圭祊本月二十一日巳時成貼狀啓臚報內, 鴨綠江上下流, 今已畢合氷是如事,
狀啓臚報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의주 부윤 이규팽이 이번 달 21일 사시에 관인을 찍어 작성한 장계를 베껴 보고한
내용에, 압록강 상·하류는 지금 이미 얼음이 다 얼었다고 하는 일로 장계를 베껴 보고하였
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발행인	박수희
총괄	김은영
기획	김재영
책임번역	최주희(덕성여자대학교)
공동번역	이상식·유성국·오연숙
출판편집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감수	조윤선(전주대학교)·김상환(고문헌연구원)
제작	흐름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1878-01
ISBN	979-11-6988-377-1(93450)
발행일	2024년 11월 17일
발행처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https://science.kma.go.kr/museum
자료협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비매품

© 국립기상박물관

©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활용 가능합니다.

출간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